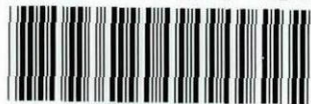


瑞山의 文化

2005/ 제17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EM059994

瑞山鄉土文化研究會

2005. 제17호



瑞山鄉土文化研究會



■ 표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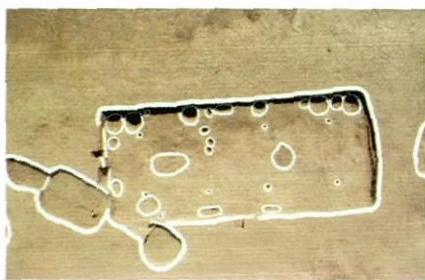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유적지에서 2005년 11월 출토된 금동관모

백제 초기(4~5세기)에 부족장이나 백제 왕에 버금가는 세력자의 부장품으로 추정되며 2003년 발굴한 공주 의당 수훈리와 일본 후쿠오카의 것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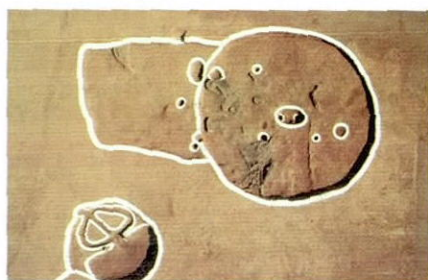
음암 부장리 유적



부장리 유적 주변전경



I-42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I-4호·5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품



I-4호 원형주거지 출토품

4 서산의 문화



II-5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II-5호 주거지 유물출토



II-5호 출토유물



II-5호 출토유물



분구묘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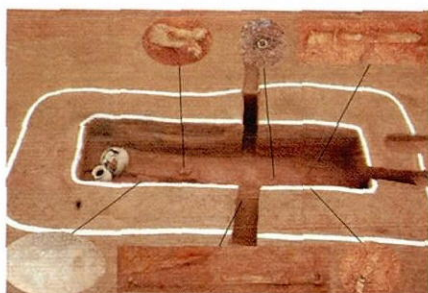
분구묘 3호 전경



분구묘 3호 노출 유물



분구묘 8호



분구묘 8호 토광 1호 유물출토 상태



분구묘 출토유물



분구묘 출토 철제유물

해미 기지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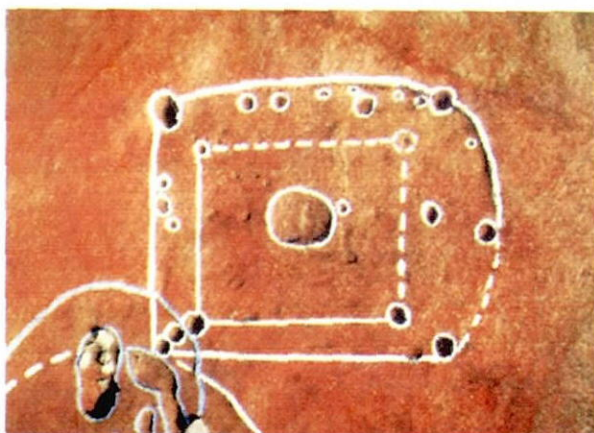
조사지역 전경



1지구 전경



신석기시대 주거지



신석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사 후 전경



청동기시대 방형주거지



청동기시대 원형주거지



신석기시대 주거지



신석기시대 주거지



신석기시대 주거지

부춘산 토종 식물



삼주



지느러미엉겅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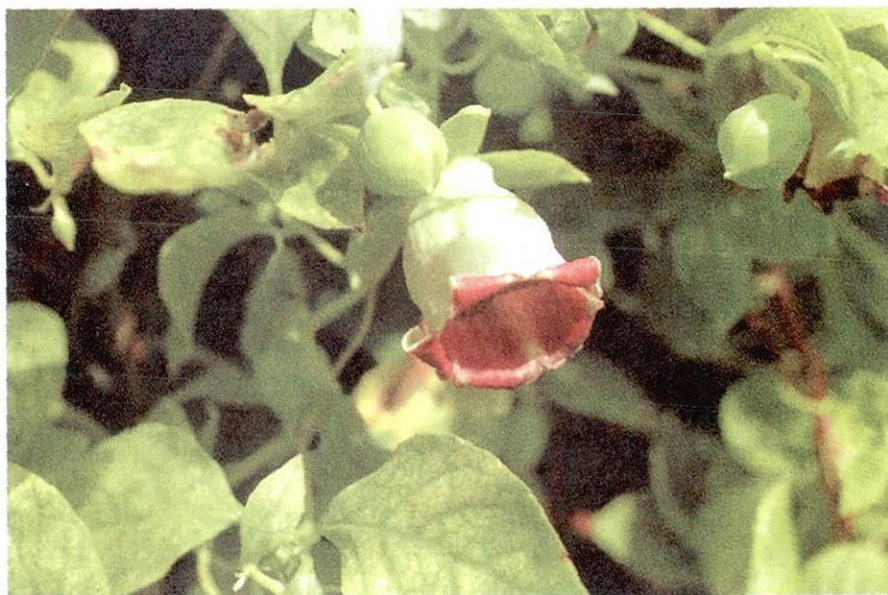
용담



인동덩굴



누리장나무



더덕



계요동



각시붓꽃

웅도리 참성단과 명륜산 표석



대산읍 웅도리에 있는 참성단(塹星壇)으로 규모는 작지만 강화도 참성단과 같은 것이다.



읍내동 명륜산 9부 능선에 제276대 서산군수인 박영준이 1939년 가을에 음각하였다.

향토문화연구회 교수 초청 특강



3월 14일 서울대 국사학과 정옥자 교수의 '월사 이정구와 그의 시대'에 대한 강의



7월 14일 충남대 최근목 명예교수가 '조선전기 서산지방의 사족'에 대한 강의



8월 10일 충남역사문화원 이훈 부장이 '음암 부장리 유적'에 대하여 강의

선사유적 발굴 현장 답사



기지리 선사유적 발굴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회원들

권두언

이 영 하(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요즈음 서산인들은 선사와 역사시대의 하늘과 땅, 그리고 고대의 서산인들과 조우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여러 천년의 세월과 함께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그 모양들을 서서히 드러내는 순간,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산의 해미면 기지리(海美面 機地里) 유적과 음암면 부장리(音岩面 富長里) 유적지에서 신석기, 청동기, 백제,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일련의 문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다. 시대별 주거지와 분구묘, 석기, 토기, 청동기, 철기류와 초두, 환두대도, 금동관모(왕관)의 발굴과정, 상황, 해설을 현지에서 보고 들으며 실감할 수 있는 운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라서 국가와 국가간 지방과 지방간에 벌이는 문화재의 보유 경쟁은 서로 팽팽한 관계로 잇 닿는다. 근래 조선의 북관대첩비를 찾아 온 일이 있고, 아직도 어떤 힘있는 나라들은 남의 나라 문화재를 무단히 가져가고도 돌려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굴 당시 이동 보관했던 유물들을 박물관으로 부터 모두 돌려받은 시원스런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은 자고이래(自古以來)로 여전히 순리라고 믿는다.

한 국가가 긴급상황에 처할 때 반출 선순위는 언제나 문화재였다.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바로미터이고 이를 보존 관리하는 박물관은 국력과 저력의 표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물관은 유적·유물지에 건립되어야 하며 반출되었던 유물과 자료들을 회수하는 일은 그 나라와 지역인들의 숙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 지역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 사람들이 아닌 언제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해 나갈 책무와 사명의 몫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도 갖고 끊임없이 문화를 지어 나간다.

우리의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향토 문화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도 가까운 주변부터 꼼꼼히 살피고 마을내 생활사로, 지방사로 시야를 넓힐 일이다. 서산의 부춘산(富春山)과 옥녀봉(玉女峰)을 답사하여 문화사적으로 고찰하였고 토종 식물의 분포와 외래 식물들도 한 종 한 종 조사하여 특집으로 묶었다. 다른 회원들의 글도 이런 기준에 따른 심도있는 노작임을 알린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수학한 조선의 명 문장가 월사(月沙)와 그의 시대, 서산지방의 사족, 서산 부장리 유적 발굴 상황을 논문화하여 어제의 지역문화를 다시금 조명하여 주신 정옥자, 최근묵, 이훈 선생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며 도와주신 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5. 12. 25

차 례

사진으로 보는 서산의 문화 • 3

권두언 • 17

특집

1. 瑞山の 富春山 玉女峰 文化史 散策 • 이영하 • 23
2. 향토식물자원 보존을 위한 부춘산(옥녀봉)의 식물상 조사 연구 • 류병혁 • 38

특별기고

1. 월사(越沙) 이정구(李廷龜)와 그의 시대 • 정옥자 • 63
2. 조선전기 서산지방의 사족 • 최근목 • 69
3. 瑞山 富長里 遺蹟 • 이훈 • 91

회원의 연구논문

1.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 • 이은우 • 113
2. 대산 평신진 터(平薪鎭 址) 고찰 • 신상찬 • 122

3. 서산 서가지(瑞山 市街地)의 기능지역(機能地域) 변화에 관한 고찰(考察) • 리명구 • 141
4. 甲午更張 이후 近代 戶籍制度에 대한 考察 • 정환호 • 158
5. 개심사 대웅전 단청 • 조성옥 • 221
6. 잠업의 역사적 고찰과 서산지역의 양잠 • 편세환 • 231
7. 과선각(過仙閣)에 대한 재조명 • 류충식 • 286
8. 김기현 가옥에 대한 고찰 • 김기현 • 292

부록

1. 김보원사지 관리에 대한 나의 견해와 제언 • 이은우 • 311
2. 바로 알고 보아야 할 보원사지(普願寺址) • 이영하 • 321
3. 유적·유물지에 박물관 건립을 • 이영하 • 325
4. 서산에도 박물관을 • 신상찬 • 328
5.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가 지키자 • 편세환 • 330
6. 서산의 문화 16호에 대한 감사편지 • 333
7. 서산향토문화연구회 운영상황 • 335
8.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활동상황 • 339
3. 회칙 • 342
4. 회원명단 • 343
5. 편집후기 • 345

특집



青松

-
- 이영하 · 瑞山の 富春山 玉女峰 文化史 散策
 - 류병혁 · 향토식물자원 보존을 위한 부춘산(옥녀봉)의 식물상 조사 연구
-

瑞山の 富春山 玉女峰 文化史散策

이 영 하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장)



《 목 차 》

1. 들어가는 글
2. 富春山の 略史
3. 富春山 山經表
4. 富春山の 文化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부춘산(富春山)은 옥녀봉(玉女峰)을 안고 서산시(瑞山市)라는 큰 도시를 품고 있는 중심성 주산(主山)으로 자리해 있다. 넓게 펼쳐진 개활지로 그 안에 낮은 구릉 몇 줄기가 남쪽을 향하여 짧게, 길게 뻗어나리다 그치니 사람의 손 모양으로 볼 수도 있고 반쯤 피어나는 작약화(芍藥花) 한 송이로도 보여 옛 군호(郡號)인 서주(瑞州)라는 지명과 부합이 된다.

산자락 아래 골골에서 발원한 여러 실개천과 수개의 하천이 그 사이를 흘러

배산임유(背山臨流)의 생겨조건을 갖추었고 이 원형의 번개를 최소화하여 구획한 도로와 가로 안길과 형성된 건축물들의 안(案)이나 좌향(坐向)도 합리적인 공간 구조를 이루었다.

울창했던 산이 일정때인 1943년에 대대적인 벌목이 되었고, 6·25 동란으로 모두가 곤란을 겪었던 1950년대는 주민들의 땀감 채취로 황폐화되자 1960년대 들어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 계획의 일환인 사방공사(砂防工事) 사업으로 침엽수인 리기다 소나무와 활엽수인 오리목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 숲이 조성되자 산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다.

그 즈음인 1991. 3. 26. 남사면 약 10만평을 도시자연 공원으로 지정, 보호하



울음산에서 바라본 부춘산과 서광새삼선암 일대의 근경

면서 각종 체육 시설과 레포츠 시설을 갖추었다. 현대문명에 편리해진 일상 의식주(衣食住) 걱정을 덜어낸 시민들은 계절과 밤낮없이 수시로 산에 오르며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도 다진다. 누구에게나 전천후 자연공원이요, 건강증진 종합병원 역할을 하여 준다.

2. 富春山の略史

부춘산(富春山)이라는 산이름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여 쓰이기 시작을 하였을까.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기록은 백제 무령왕 12년(512)에 위천(葦川)¹⁾ 북쪽에서 고구려군과 싸워 대파시켰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이다. 학자들은 이 위천 북쪽을 백제의 치성인 북주산성으로 비정하

1) 瑞山 葦山面, 栗串面, 仁政面(서산의 문화 14호(2002) 이은우 편)

고 있다.

그 다음 조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²⁾에 봉화(烽火)가 군내에 2개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군의 북쪽 주산(主山)에 있다는 산이름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餘地勝覽)³⁾에는 봉화(烽火)가 봉수(烽燧)로, 주산(主山)이 북산(北山)으로 바뀔 뿐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소이하다.

네번째로 호산록(湖山錄)⁴⁾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바를 느낌으로 말하여 북산(北山)보다는 이전의 주산(主山)으로 부른다. 그래서 하나의 산에 두 가지 이름이 생겼다'고 기록하였다.

다섯번째로 여지도서(輿地圖書)⁵⁾에는 음성의 규모, 동·서문의 내용과 함께 북산(北山), 북주산(北主山), 봉수(烽燧)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음성은 주위가 2,717척(903丈, 1,084步), 높이 9척 여장(女牆)이 374개소, 곡성(曲城) 8, 웅성은 없고 동서문(東西門)은 각각 1층 3간(間)이라 기록돼 있다. 마지막 서산군지(瑞山郡誌)에 비로소 부춘산(富春山)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산(主山)→북산(北山)→주산(主山)→북주산(北主山)→부춘산(富春山)으로 변천되어 오면서 산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반복되어 사용하는 동안 그 연유나 계기도 모른채 부춘산으로 굳혀졌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일부에서는 봉화산으로 잘못 불리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봉수대의 위치를 모르는 주민과 지도 작성자의 대담 중 오기 표시임이 밝혀졌다. 봉화산은 서산 어디에도 없는 산이고 봉화재는 옥녀봉 정상의 봉수대 서쪽 잘록한 고개로 차도 개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연, 지곡, 대산으로 오가는 주 보행로였다.

2) 단종 2년(1454)에 편찬, 각도의 연혁, 고적, 물산, 지세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세종실록」 163권 중에 수록됨

3) 성종 12년(1481)에 여지승람 50권 완성, 중종 25년(1530)에 증보 간행한 인문지리서

4) 광해군 11년(1619) 韓汝賢이 편찬, 서산의 연혁, 지세, 고적, 물산, 인물 등을 상세히 기록한 최초의 서산군지

5) 영조 36년(1760) 전국 읍지 290책을 종합 정리하여 인문사회, 산업, 국방, 지리 등과 290장의 색지도를 수록한 관찬서

3. 富春山 山經表

부춘산은 가야산맥이 운산면 가좌리로 나와서 동암산이 되고 서북쪽에 이르러 본면 탑곡리에 안국산으로 앉았다가 서쪽으로 내려가 도당리에서 간대산을 이루었다. 이 맥이 성왕산으로 자리하고 서북쪽으로 진행, 온석리를 지나 동문리에 이르러 부흥산이 되었다. 산 아래에 공자묘(향교)가 있고 세 줄기 중 한 줄기가 여정거리다가 서남쪽의 동문리와 읍내리 사이에서 일어난 산이 부춘산(일명 북주산)이다. 이 산중의 옥녀봉은 군청 뒷산인데 …… 민가 500여호가 거주하고 산중턱에 신사와 삼선암 등 옛절이 있다. (伽耶山脈出雲山面佳佐里爲東巖山西北至本面塔谷里爲安國山逶迤磅礴爲道堂里良大山 …… 脈出聖旺山西北走經本面溫石里至東門里爲富興山山下有孔子廟自是分三支 一支向西南迤至東門里邑內里之間起爲富春山(一名 北主山)玉女峰是爲瑞山郡治後山 …… 民家五百餘戶爰居山之中腹有神社三仙庵古刹 …… 『瑞山郡誌』)

이 산(玉女峰)은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 속에 기암들이 드러나고 옆드리는 모양을 이루고 있어 천연적인 공원이다. 조망이 널리 트여 멀리 안면도와 천수만이 가까이 보인다. (옛 풍수지리가의 말인 즉, 이 산에는 장사 지내기가 좋을 묘자리가 있고 또한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한다. 이 때문에 관심 있는 자들이 많이 오른다)

(是山白砂青松之間奇岩起伏形成天然的公園眺望廣開遠臨安眠島淺水灣(古者風水家曰 此峰有可葬地其形爲玉女彈琴是故好怪者亦多登臨) 『瑞山郡誌』)

부춘산의 조종(祖宗)은 백두산(白頭山)이다. 동북쪽에서 동해안을 따라 우구두름하게 척추꼴을 이루면서 태백산(太白山)과 소백산(小白山)으로 내려와서 그 한 줄기가 속리산(俗離山)을 지은 후 충청북도 여러 지방을 지나 천안의 광덕산(廣德山)에 이르고 다시 차령(車嶺)을 거쳐 내포(內浦)를 돌아 나와 월산(月山-홍성의 주산)으로 앉았다가 서북쪽으로 진행하여 덕숭산(德崇山)에서 휴식을 취한 후 몸을 낮춰 내포의 지붕 광대한 가야산(伽耶山)을 이룬다. 원효봉, 가야봉, 석문봉, 관모봉, 옥양봉 등 여러 봉우리로 솟구치면서 북진하다가 상왕산(象王

6) 왜정시대(1926) 군수 李敏事이 편찬한 4책, 여지승람과 호산록을 근거로 지세, 기관, 산업, 금융, 호구, 위생, 교통, 운수, 교육, 경제, 사적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 수치로 간행

山)에서 방향을 틀어 몸을 낮춘 후 가루고개(운산~해미간 첫 고개)를 통과하여 동암산(東巖山)이 된다. 여기서 서북행하여 무르티재(舞老峙)를 지나 안국산(安



옥녀봉 정상. 전날의 치소 자리가 레포츠 공원이 되었다.

國山)의 은봉(隱鳳)으로 솟았다가 방향을 돌려 서쪽의 주봉(冑峰)을 거쳐 음암의 주산인 간대산(良大山)을 이룬다. 서쪽으로 나온 한 줄기가 서행을 계속하면서 솔개재, 퇴미산, 모가울고개, 성왕산, 부흥산, 부춘산(옥녀봉)이 되었다.

4. 富春山 文化

부춘산이 서산군지에 처음 등장한 이래 그 연원이나 계기를 모른 채 그냥 불리어져 오게 되었다. 중국에 동일한 부춘산이 있는데 조선시대 박증(朴澄)⁷⁾의 시(詩) 영암천(詠巖川)에 보인다. 「바위위에 푸른산 바위아래 시내이니(巖上靑山巖下川) …… , 엄자릉 도연명의 그윽한 흥취를(嚴陵⁸⁾幽興陶⁹⁾潛趣)」…… 서산에서도 유사한 동기로 쓰여지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산향토문화연구회에서는 매년 서산의 문화(瑞山의 文化)를 발행해 낸다. 이 회지 14호(2002)에 탄곡 이은우(坦谷 李殷佑)의 부춘산(富春山)과 옥녀봉(玉女峰)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이며 유적들에 관한 글이 있으나 미처 다루지 않았던

7) 조선 중기(1461~1517) 은둔처사 성삼문의 외손. 巖川은 별호, 巖川實記, 茅谷祠誌가 있음

8) 後漢代 사람. 嚴子陵은 중국의 은자로 姓은 莊氏, 난리를 피해 嚴氏 성으로 바꿈. 임금이 불렀으나 富春山에 들어가 富春江에서 낚시로 소일하였다고 함

9) 東晉代 사람. 陶淵明의 이름은 潛. 41세 되던 해 彭德 현령으로 80일 근무하다가 '내가 어찌 五斗米 때문에 향리의 소인들을 허리급혀 대하겠는가' 하고 13년간의 관리생활을 내놓고 돌아가면서 歸去來辭를 읊으며 심양 근처에서 은사로 지냈다 함

삼선대(三仙臺)인 상선대(上仙臺), 중선대(中仙臺), 하선대(下仙臺)와 삼선암(三仙庵)인 일선암(一仙庵), 이선암(二仙庵), 삼선암(三仙庵)의 옛 자리를 찾아내고 당초의 읍내리(邑內里)에서 동문리(東門里)로 이진한 향교(鄕校)와 사직단(社稷壇), 성황사(城隍祠), 여제단(厲祭壇)의 위치, 기타 등 부춘산과 옥녀봉 일원에 잠든 옛 문화를 깨워 알리고자 한다.

‘이 산에는 상선대, 중선대, 하선대가 있는데 고성주가 이름 붙인 것이다. 지형의 높고 낮음으로 이름 붙인 것이고 누대를 쌓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성주가 한 가한 날에 두 아들인 사록과 종후 정자 인후를 데리고 서생 2~3명과 더불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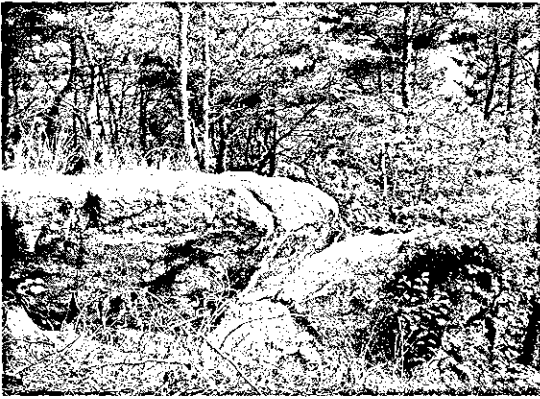


국기계양대 아래 앞면과 우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상선대

산 정상에 올라 시도 읍조리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러 낭원(공허한 곳으로 선인이 사는 곳)에 올랐던 것이다. 또한 상선대 아래에는 짧은 산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가운데는 편편하고 한갓진 곳이 있어 차가운 샘물이 바위 아래에서 쏟아져 내린다.

그 곳에 초당 한 칸을 짓고 관청 문서일을 끝내고 지팡이를 짚고 오고 가기도 하고 그윽한 곳에 살면서 명랑하게 담화나 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조정의 명령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치었다. (…… 此山有上仙臺, 中仙臺, 下仙臺 高候所命也地形高下而名之非築而臺之也 高候暇日率二子司錄從厚正字仁厚及書生二三每遊此山登絕頂嘯咏有挾長風登閣苑之意且上仙臺下有短峽峽中地稍寬闊亦有清泉湧出於岩下作草堂一間簿書之暇扶杖往來欲暢敘幽棲之意矣適有朝命未果云按, 『湖山錄』)

○ 상선대(上仙臺)는 옥녀봉 정상에 얹혀 있는 듯한 암석(국기계양대)을 받치고 있는 암반으로 30여명이 앉을 만하다. 대(臺)는 암반이 넓적하고 흠이 없어 야 기(氣)가 갈무리 된다. 종교인이나 예술인들이 이런 암반 위에서 입정(入靜)



평상 모양의 평평한 너럭바위로 되어 있는 중선대

에 들어가 집중력을 높이고 영감(靈感)을 얻는 것도 이 기 받음에 있다. 이곳 노출 암석은 몇 갈래로 갈라져 설기(泄氣)되므로 대로서는 실격이다. 이 암반에 낮에 오른다면 사방은 물론 천수만(淺水灣)을 한 눈에 부감(俯瞰)하기 좋다.

○ 중선대(中仙臺)는 상선대에서 남쪽으로 돌계단을 밟고 50여 미터 내려오다 경사가 멈춘 우측(서쪽)으로 30여 미터 지점의 너럭바위로 시립도서관에서는 동편 40여 미터에 위치해 있다. 이 주변은 마치 크고 작은 바위들을 옮겨다 놓은



주변이 넉넉한 암반과 바위, 아래는 아찔한 단애로 된 하선대

듯 주 암반을 보호하는 듯한 모양을 이루었다. 20여 명이 앉을 만 하다. 해 설핏한 오후에 올라 서산8경의 제3경인 도비낙하(島飛落霞; 도비산 상공에 드리운 저녁 노을)의 주황색으로 물드는 석양을 바라 보노라면 날 저무는 줄 모를 것 같다.

○ 하선대(下仙臺)는 국가유공자 무훈비 좌측 남쪽길로 내려오다 단군전 담장 동쪽 30미터에 위치한 너럭바위군이다. 암반까지 이어진 오리목 그늘의 평평한 땅은 일백여명이라도 앉을 정도로 넉넉하다. 이 곳은 상선대나 중선대에서 볼 수 없는 단애치로 인공으로 쌓은 듯 절경을 이루었다. 동쪽의 가야산을 끌어다 놓은 듯 가깝게 보이는 제4경인 상령제월(象嶺齊月; 비개인 저녁 상왕산(가야



북주산성 안에 있었다는 세 우물 중 하나. 선인들이나 살았
움직한 남원이 지금은 두충차 나무밭이다.

산) 위로 떠오르는 맑은
달맞이)을 즐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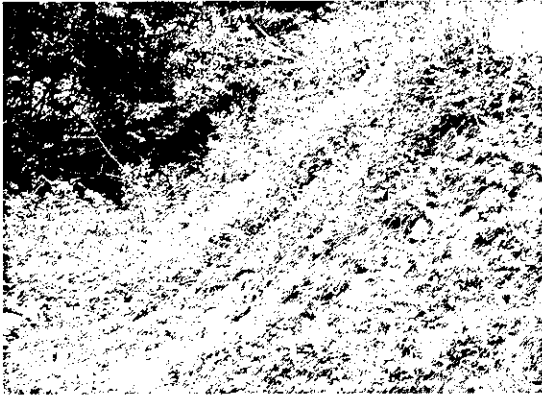
하루 중 상선대는 오전
에 올라야 제격이고, 중
선대는 오후 해설핏할 때
에, 하선대는 달뜨는 초
저녁이라야 위치와 때가
절맞는다.

‘오늘에 보면 전날의 냉천은 없으나 평시에 비내려 바위 사이로 부딪쳐 흐르
는 샘물로 여름 더운 날 목욕을 할 수 있다. 근래 초당 한 칸은 있는데 지금은 허
물어져 그 터만 남아 있어 옛 일을 추측할 뿐이다. 산허리에 있는 삼선암이라는
암자로 고제봉¹⁰⁾ 군수가 붙인 상선대, 중선대, 하선대처럼 그의 뜻으로 명명하였
을 것이다. (今日則冷泉現無湧出於平時然雨餘則岩間流泉激而爲溜暑日可浴且近
古有草堂一間今雖頽圯只存遺墟然其作者意則與高齊峰同其趣耳山腰三仙庵之名
亦取上中下仙臺之意而命之云, 『瑞山郡誌』)

삼선암은 1987년 종단에서 암자를 사(寺)로 격상시키고 1988년 6월 18일 전
통사찰(41호)로 지정하면서 사찰 이름을 서광사(瑞光寺)로 개명하였다. 입구 안
내판에는 ‘... 본래 부춘산에는 암자 3개소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2개의
암자가 폐사되었는데 신라말 경순왕 2년(928)에 대경대사(大鏡大師)가 창건하
였다고 전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신라 통일 말 진성여왕 7년(893)에 최치원이
부성현(현 서산시) 태수로 부임하여 근무할 때에 이 곳에 암자를 짓고 글공부를
하였다는 구전도 전해지고 있다’ 고 되어 있다.

10) 조선 선조때의 의병장(1533~1592). 高敬命의 호는 齊峰. 임진왜란이 일자 60 노인으로서 의병 6~7천명을
거느리고 금산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함. 문장, 시, 글씨에 뛰어났고 齊峰集이 있다.

○ 일선암(一仙庵)은 이선암(二仙庵) 좌측에 위치, 입구 우측으로 내리는 도랑



세 암자중 가장 좋은 자리의 1선암터

을 따라 들어간 마사리 (인가 여덟채) 오른쪽 산 밑이다. 좌측은 옥녀봉 산자락 세 갈래가 겹겹이 감싸주어 아늑한 감을 준다. 세 암자 자리를 볼 때 가장 으뜸 자리라 할 수 있다. 암자터 좌측 봉화재 아래에는 실개천의 시원지라서 심산유곡의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이선암(二仙庵)은 암(庵)을 사(寺)로 격상시킨 현재의 서광사(瑞光寺)다. 세 암자중 가운데에 위치한 대웅전 우측의 돌샘물이 실개천의 시원이다. 그러나 암



앞면이 벌려져 느티나무 탑, 비로 가리고, 대웅전 좌향을 돌려 지어도 그저 그런 서광사(2선암)

자의 입구가 가라앉지 않아 대웅전(大雄殿)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좌향을 동남쪽 산 축부리로 돌려 지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은 느티나무들이 노거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허하므로 석탑과 시주비를 세웠다. 그래도 유현한 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 삼선암(三仙庵)은 이선암(二仙庵) 우측에 위치 입구에서 좌측 등산로 80여 미터 구릉 아래에 그 터가 남아 있다. 좌측 구릉이 우측 구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신우대를 40여미터 심어 두터운 수벽을 조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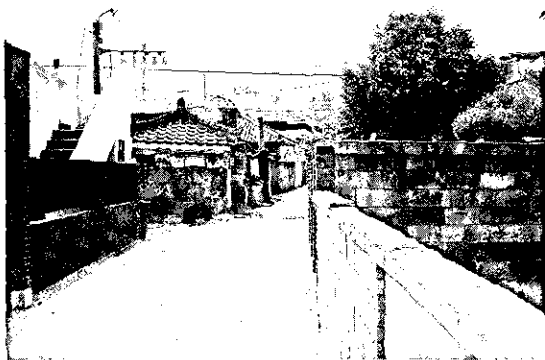


허약한 좌측에 조성한 시누대 수벽 아래의 3선암터

허한 부분을 비보(裨補)하였다.

이 세 암자 자리는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곁에 분가시키고 대를 이어 종족촌을 이룬 평화스런 어떤 마을을 연상시키지만 일선암(一仙庵)과 삼선암(三仙庵)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 잡초만 무성하다.

서산의 향교는 당초 조선 태종 6년(1406) 지부사(知部事) 조종생(趙從生)이 명륜산(明倫山) 아래 읍내리에 건립하였는데 선조 7년(1574) 태수(太守) 최여림(崔汝霖)이 부흥산 제석당 아래 동문리에 이건하였다. 호산록(湖山錄)에는 '본읍 향교는 군청 동쪽 5리에 있다. 처음에는 군청 서쪽 3리에 있었는데 향교는 읍내 동쪽에 창설한다고 되어 있다. 「동쪽은 본래 만물을 발생하는 방위인데 본 읍 향교는 유독 서쪽에 있으니 서쪽은 이에 속살(쌀쌀한 가을의 기운) 폐장(숨겨둠)하는 땅으로 크게 성인의 창조하는 본의가 있다」 이는 오례서(五禮書)에 근거한다는 선비와 유생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읍내리 주택가에 명륜길이라는 표찰이 보인다. 이 일대가 옛 향교자리라 한다.

읍내동의 향교 자리는 서산시청의 서쪽, 명륜산 동남 200미터 지점 주택가로는 시작되는 명륜길 ①번 일대의 주택가이다. 전날에는 맑은 시냇물이 둘러 나가고 어느 곳이든 땅을 파면 샘물이 솟아 찬샘, 옷샘, 용샘 등이 있는 으뜸 생겨지다.

향교를 동문리로 이건설 당시 유생들과 선비들이 식목을 하였다. 뜰에는 은행나무 네 그루, 화양목 두 그루를, 앞에는 괴목 8그루, 담 뒤에는 밤나무 50여 그루를 혼도 송계령(宋桂齡)가 진사공(進士公) 한씨(韓氏)가 식수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 곳 읍내리에도 당시 수령 150여년 된 수목들이 있었으려만 현재는 일백여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 뿐이다.

○ 사직단(社稷壇)은 나라에서 백성의 복을 위하여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 제사를 지냈는데 서산의 사직단은 호산록과 서산군지에 '군청 서쪽 2리에 있다. 사직의 위패를 모신 봉안각(奉安閣) 일간(一間)과 331평 5합 2작의 기지에 1평의 단(壇)을 설치하였다. 사직제는 국법으로 대제(大祭)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 매년 봄, 가을 2월과 8월 상술일(上戌日)에 제례를 행하였다. 헌관(獻官)은 군수였고 유생(儒生)들이 집례와 대축, 창인을 하였으며 제수는 생육

물인 돼지 두 마리, 대추와 밤, 백반, 육탕(藷湯; 산부추탕), 폐포(幣布; 폐백 베)를 제물로 드렸다.' 그 위치는 명륜산 아래 동쪽의 게이트볼장 앞 50미터 지점 남쪽 주택지 일대이다. 산의 향안으로 볼 때 대제를 받을만한 자리이다.



명륜산 동남쪽 가로 및 주택지 일대로 추정하는 사직단 터

○ 성황사(城隍祠)는 토지와 마을의 수호신에 동제(洞祭)를 지내왔으며 민간에 보편화된 신앙이라 할 수 있다. 호산록과 서산군지에 의하면 '군청 북쪽 3리 동문리 향교 후록(後麓)인 제석당 고개(성연면계)에 157평 8작 기지에서 지내는 소제(小祭)로 매년 청명일, 음 7월 15일, 음 10월 1일에 돼지, 닭, 개를 제물로 드렸고 생선이나 콩나물 등으로 짐승을 대신하여 쓰이기도 하였다' 대개는 고개마루나 마을, 사찰의 입구에 설치해 안과태평(安過太平)과 무병장수(無病長壽), 재리(財利), 나그네 안전(安全) 등의 기원제를 근래에도 지내는 마을들이 있다.

○ 여제단(厲祭壇)은 제대로 죽지 못한 미혼남녀의 귀신이나 사손(嗣孫)이 없

는 무주신(無主神)들을 달라고 위로하여 마을의 역질이나 재난을 막아내고자 지내는 제사로 고을이나 관부의 북쪽,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릉지에 설치하였다. 본 읍의 경우 서산군지에는 '서산군청 옥녀봉 후록 불당 아래 석축토단이며 기지평수는 미상이다'라고 썼고, 『호산록』에는 '..... 그러므로서 국가에서 각 군읍마다 여제단을 봉축하고 유사를 명령하여 지성껏 제사를 올린지가 지금 벌써 300여 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미 고려말(高麗末)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 명륜산(明倫山)은 부춘산(富春山)이 서남동으로 돌고 돌아 나와서 다시 옥녀봉을 향하여 다소곳한 자세로 자리해 있다. 지난 날에는 수목이 우거져 바람이 불 적마다 서로 부딪쳐 묘한 울음소리를 낸다 하여 울음산(명림산; 鳴林山)이라는 산이름도 생겼다. 읍내리 택지개발사업(1989. 6. 10~1993. 12. 30)이 시행되면서 산 서쪽 중턱을 정지하여 휴식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주위에 아파트 군이 들어서 산은 작은 섬 모양으로 고립돼 보인다.

한 때는 산 아래에 향교와 사직단이 있어 서산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다. 산 밑을 휘돌아 나가는 맑은 냇물은 가뭄에도 변함없이 평평잡한 암반위로 쉬임없이 흘렀다. 학돌재에서 우렁골을 지나 흘러내리는 도랑물, 삼선암과 봉화재 밑에서 흘러드는 시냇물, 북주산성 샘에서 발원하여 폭포(7~8미터)를 이루기도 하면서 내리는 골물이 합수하여 큰 내를 이루어 양유정 앞을 지나니 서산 팔경(瑞山八景)의 제2경 명림표향(鳴林漂響)과 제8경인 유정쇄연(柳亭鎖煙)이



明倫山이라 음각한 석벽에 금이 보인다. 흙이 없었다면 마애불 자리로도 좋았을텐데.

전개된다. 명림산에 울려 퍼지는 빨래 방망이 소리와 양유정에 자욱히 드리우는 조석 짓는 연기는 목가적 풍경이었으리라. 여름밤이면 은하수 떠 흐르는 냇물에 목욕을 하던 노천욕장이었으나 모두 복개하여 어느덧 옛 이야기 속에만 남아 있을 뿐 사람들의 기억에서 퇴색

되고 잊혀져 간다.

이 산 봉우리 동쪽 9부 중앙은 석벽으로 되어 있는데 시누대로 둘러져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이 곳에 돌을 다듬어 큰 글자로 명륜산(明倫山)이라 음각돼 있고 그 우측으로 조금 작은 글자로 기묘국추지현박영준(己卯菊秋知縣朴永俊)이라 종으로 새겨 있다.

박영준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에 제276대 서산군수로 재직중이었고 그 해 가을에 새긴 것임을 알 수 있고 같은 해 9월 1일 서산시청 앞에 그의 기념비가 있는데 다른 비석들에 비해 가장 크다. 그러나 지현(知縣)이라는 문자는 그의 아호인지 다른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서산 지곡면 산성리에 옛 치소가 있을 때의 지명이 지육현(知六縣), 지육현(知育縣)인데 신라말 고운 최치원(孤雲崔致遠)¹¹⁾이 이 곳 태수로 재직했었다 한다.

이 지명에서 육자(六字)나 육자(育字)를 제하면 지현(知縣)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박영준 군수는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 고운의 친필이라는 과선각(過仙閣) 현판을 당시 부여박물관장인 홍사준씨에 보인 적이 있고 고운이 머물렀던 부성산(富城山)에도 가서 보았으며 옥녀봉 치소 자리와 북주산의 퇴락한 성터를 주의깊게 살폈다고 한다.

1970년 초여름 당시 서산군수 설일진의 초청을 받은 전 서산군수 박영준이 방문하였을 때 안내를 했던 당시 군청 직원 탄곡 이은우(李殷佑)에 의하면 '작달막한 키에 단아한 모습으로 흰 모시 두루마기를 입은 온화한 인상의 노인으로 기억된다'고 귀띔해 준다.

5. 나오는 글

산은 문화의 산실이다. 부춘산과 옥녀봉도 먼 지난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다양한 문화가 쌓여왔고 시대 시대의 숨결들이 배여 있다. 해안으로 외적이 침입

11) 신라 말기의 학자. 현안왕 1년(857~?) 자는 孤雲. 경주 출신. 12세 당에 유학 17세 과거 급제. 당 재직 중 黃巢文으로 이름을 높임. 28세 귀국 時務十條를 올림. 四六집, 桂苑筆耕의 문집과 수처의 비문이 있음.

할 때면 산 위에서는 이를 알리는 봉수대가 있고 마을에 침략군이 들이닥치면 산 위에 쌓은 북주산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았다. 이를 지휘하는 치소터가 옥녀봉 정상에 완연하며 산줄기 따라 쌓은 석성이 남아 있다. 산자락과 구릉, 골골에는 단군전, 충령각, 사찰, 교회, 시청, 농협, 도서관, 문화원, 교육청, 각급 학교 등이 뿌리를 내리고 시대 시대의 모양으로 문화의 꽃이 피었다 지기도 하고 다시 피어나기도 한다.

산은 공기를 생산한다. 산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도 서식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외래 동물과 식물들의 빠른 번식으로 토종 동물과 식물들의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청설모 수가 늘어나자 다람쥐가 보이지 않고 여러 종류의 산 열매들을 먹어 치워 부춘산과 옥녀봉은 해마다 흉년이다. 또한 쌓이는 낙엽을 거름으로 무성하게 번식하는 외래종들이 토종식물들의 자생지를 점차로 빼앗는다.

산의 훼손은 인재가 크다. 옛 선인들의 피와 땀이 배인 성터를 생각없이 밟고 다니고 각종 설치물들이 공간 공해를 일으킨다. 성터 따라 난 순라길을 두고도 겨우내 얼썃아 흙 위로 드러나는 박힌 돌을 치워내고 비 온 뒤의 무른 성토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각없는 발길에 밟혀 원형을 잃어가지만 조치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갈래의 넉넉한 길을 두고도 저마다 길 밖으로 다녀 모래가 흘러내리고 땅이 파이고 골이 깊어져 마침내 산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긴다. 포장 도로변의 플라스틱 단군상(檀君像), 국조를 모신 단군전(檀君殿) 위에 세운 국가유공자무훈비, 산 아래와 산 위가 상이한 등산 안내판은 보는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산은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 문화 유적인 옛 성터의 원형을 보존하자면 순라길로 다니도록 하면 될 것이고 길 가의 국조 단군상은 새로 조각하여 뜰에 모시는 것이 도리이고 잘못 표기된 봉화산 등산 안내판은 부춘산으로 고쳐 세우면 간단히 해결되고 국가유공자무훈비는 충령각으로 가는 길 좌측이 오히려 더 좋겠고, 늘어나는 청설모를 잡으면 산 풍년이 들 것이며 외래 기생식물들 제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옛 문화 유적지에 작은 표찰 표시를 하는 것도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걸음을 멈춰 애착심을 갖게 할 수 있겠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제 그간 여러 사유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춘산과 옥녀봉을 회생시켜 본래의

생기있던 모습으로 돌리는데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나 우선은 산 휴식년제(休息年制)와 부분별 특별관리(部分別 特別管理)가 한 처방이 될 것이다. 비록 하나의 작은 일이라도 신중을 거듭하는 조치와 처리가 따라야 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湖山錄, 韓汝賢 저, 李鍾醇 역. 1992. 9. 10 서산문화원(서산인쇄공사)
- 瑞山郡誌, 李敏寧 저작. 1939. 12. 20 金生植(중앙인쇄소)
- 瑞山の 文化(9호), 金世中 편. 1997. 12. 15 서산향토연구회(대산인쇄소)
- 瑞山の 文化(14호), 李殷佑 편. 2002. 12. 25 서산향토연구회(도서출판 가야)
- 瑞山の 文化(15호), 宋鍾學, 金鍾鈺 편. 2003. 12. 25 서산향토연구회(도서출판 가야)
- 風水地理로 본 瑞山史(上), 李英夏 저. 1998. 12. 29 서산문화원(서산인쇄공사)
- 國사대사전, 이흥직. 2004. 2. 10 김가현(한국사전연구사)
- 한국민속대사전,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2004. 12. 10 김가현(한국사전연구사)

향토식물자원 보존을 위한 부춘산(옥녀봉)의 식물상 조사 연구

류 병 혁

(건국대학교 이학박사·서산향토문화연구회원)



《 목 차 》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조사지역의 개황	1. 종의 분포
III. 조사방법	2. 군락의 분포
IV. 결과	※ 참고문헌
1. 식물상	Table 1. 부춘산의 관속식물목록
2. 종의 분포	Table 2. 부춘산의 약용식물목록
3. 식물군락	Table 3. 부춘산의 귀화식물목록

I. 서론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는 기존 식물군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인위적 간섭을 받아 형성된 새로운 삼림군락은 군락자체의 변화는 물론 다른 환경조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은 상호보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옥녀봉을 중심으로 한 부춘산(187m) 부근의 식물상을 생태학

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을 파악함은 물론 계획적이고도 효율적인 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본 조사 지역은 연간 약 15,000여 명의 등산객이 출입하는 명실공히 시민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등산로의 확장과 주민 체력단련 시설의 확충 설치, 화훼류 식재, 무분별한 하상식물의 벌목 등 인간간섭에 의해 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현존하는 자연식생의 실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자연의 효율적 개발과 보존을 위한 생태학적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Ⅱ. 조사지역의 개황

부춘산은 서산시 읍내동과 동문동에 속해 있는 산으로서 서쪽으로는 갈산동과 접해 있으며 해발 187m이고 주변의 넓이는 764m로 서산시민의 등산지인 옥녀봉도 이 산에 속해 있는 시민공원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향토자원이다.

Ⅲ. 조사방법

본 조사연구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현지를 답사하여 실시하였다. 식물상 조사는 등산로와 계곡을 답사하면서 주로 식물의 개화기를 중심으로 출현하는 식물을 채집하여 표본을 제작하여 동정하고 조사된 식물종은 A. Engler(1924)를 기준한 이 등(1985)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였다. 식생조사는 Braun-Blanquet(1964)의 방법에 따라 10×10m, 15×15m, 20×20m 크기의 방형구 15개소를 설치하여 방형구내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층의 종조성과 종의 우점도 및 군도를 조사하여 식물군락을 분류하였다.

IV. 결과

1. 식물상

본 조사지역에서는 95과 425종(화훼류 식재종 제외)이 자생하고 있음이 조사 연구되었으며(Table 1) 이중약용식물은 51과 113종(Table 2) 귀화식물은 11과 31종(Tabel 3)이 나타났다. 425종류를 과별로 보면 국화과가 58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벼과 36종, 콩과 25종, 백합과 19종, 장미과 19종, 사초과 17종, 마디풀과 17종류의 순으로 높았다.

북한산의 649종(이, 1989), 남산 799종(이, 1987), 속리산 809종(이, 백, 1991), 안면도 503종(이, 1957), 가야산 460종(김, 1990)과 비교해 볼 때 북한산이나 남산, 속리산보다는 종수가 현저히 적으나 인근 지역의 안면도나 가야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이로써 부춘산은 서산의 시민공원으로서 개발과 보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종다양성이 풍부한 서울의 남산과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 서산의 귀중한 향토자원 환경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종의 분포

전기한 관속식물 425종류 중에서 부춘산 전역에 분포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조록싸리, 진달래,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생강나무의 순이었으며 때죽나무, 개울나무, 당단풍, 가막살나무 등도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초본식물은 산겨울, 그늘사초, 큰기름새, 기름새, 산조풀, 애기나리, 맥문동, 맑은대쑥, 넓은잎외잎쑥, 홀아비꽃대 순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 약용식물인 백선, 대극, 큰조롱, 쥐오줌풀, 삼주, 시호, 큰피막이 등도 조사지역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본 조사지역은 남방계 식물분자인 덩굴이덩굴, 으름덩굴, 때죽나무, 쇠무릅, 가막살나무 등이 혼생하고 있었으며 북방계 식물분자인 산팽나무 보다 분포 빈도가 높았다.

심산계곡에서 볼 수 있는 범꼬리나 승마도 옥녀봉에서 부춘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집중반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은방울꽃도 등산로 주변에 애

기나리와 함께 혼생하여 소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부춘산 정상에서 서남쪽 계곡에 분포한 곶솔과 옥녀봉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리기다소 나무를 제외하고는 춘향목에 속하는 소나무이다.

춘향목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주변에서 자라는 소나무로서 곧게 자라는 말할 것도 없고 꺾절이 얇고 나무결이 곱고 부드러우며 켄 뒤에도 크게 굽거나 트지 않으며 다른 육송과는 달리 속이 붉은빛 또는 노란빛을 띠고 대패질을 해 놓으면 윤기가 돈다. 안면도 유전자립도 춘향목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 태백산 일대의 천연림인 춘향목을 벌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일합방이 되기 이전에 한반도에는 7억㎡의 임목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5억㎡가 벌채되어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고장에도 이러한 좋은 삼림자원이 존재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며 잘 보호해서 시민공원이 삼림휴양림으로 보호개발할 필요를 느낀다. 한편 콩과식물인 철이 널리 분포하여 망토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소나무밀의 하상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1) 귀화식물 분포

귀화식물은 인간, 동물, 화물 등의 매개에 의하여 해외의 자생지로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우리나라 국토에서 야생하게 된 식물과 정책에 의한 의도적인 수입 재배종이 자연에 일출되어 야생화된 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11과 31종의 귀화식물이 분포하고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서울 비원의 12종(박, 1990)과 경복궁의 22종(박, 1990)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외래종이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서광사를 중심으로 한 부춘산의 남사면 방향으로 돼지풀이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이 종은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어 안질과 비염을 일으키는 악질종으로 알려져 있다. 옥녀봉에서 부춘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남사면 등산로 주변에는 미국자리공이 넓게 침입하여 자라고 있는데 이 식물은 생태계에 침입하여 우리나라 고유 토착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물이기도 하다. 산 입구 전 주변에는 서양 민들레도 침입해 있는데 이것은 꽃이 화사함도 있으나 우리 고유의 민들레를 점점 멸종시키는 위기에 놓여 있게 한다.

3. 식물 군락

부춘산의 삼림군락은 소나무-애기나리군락(*Pinus densiflora*-*Disporum smilacinum* community), 곰솔군락(*Pinus thunbergii* community), 리기다 소나무-주름조개풀군락(*Pinus rigida*-*Oplismenus undulatifolius* community) 등으로 구분되었다.

(1) 소나무-애기나리군락(*Pinus densiflora*-*Disporum smilacinum* community)

본 군락은 옥녀봉 주변의 일부와 부춘산 정상에서 남서쪽 계곡의 하산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역에 분포한다. 식피율이 95% 정도로 층별 군락구조를 보면 교목층에서는 소나무가 중요치 300으로 순수한 소나무림을 이루고 있으며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는 소나무가 출현하지 않았다.

관목층에서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국수나무, 진달래, 가막살나무, 때죽나무, 조록싸리, 팔배나무, 개웃나무, 청미래덩굴 등으로 식피율이 98% 정도로 하상식물이 풍부하게 발달되었다. 이 곳 소나무는 수령이 30~50년 정도로 녹지자연도 등급 6과 7에 해당되며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내륙의 잡종 소나무 종자의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자생종인 적송의 특징을 뚜렷이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춘향목으로서 서산시민의 삼림욕을 위한 휴양림으로서의 유용성이 기대되는 군락이다.

(2) 곰솔(해송) 군락(*Pinus thunbergii* community)

곰솔군락은 부춘산 정상에서 남서쪽 사면의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다. 곰솔군락은 방풍림으로서 서남해안 주변과 남해도서에 잘 발달되고 분포된 군락인데 본 군락은 식피율이 98% 정도의 순수한 단일종으로 구성이 되었다. 아마도 조림용으로 식재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관목층에서는 졸참나무, 청미래덩굴, 신갈나무, 떡갈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진달래, 때죽나무 등 85%의 식피율을 보이며 이(1988)의 남해안 곰솔림과 비교하면 공통종으로 나타나는 군락임을 알 수 있었다.

(3) 리기다소나무-주름조개풀 군락(*Pinus rigida-Oplismenus undulatifolius* community)

본 군락은 옥녀봉 주변과 남동사면의 등산로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리기다 소나무는 30~40년 전에 조림용으로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기다 소나무는 본래 미국 대륙의 동북부에 자생하던 나무인데 송충이에 우리 소나무가 죽어가는 틈을 타서 1919년에 우리 강산에 들어와 70년만에 한라산으로부터 휴전선을 거쳐 북녘땅을 식민지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씨를 퍼뜨려 2세대, 3세대 아니면 4세대까지도 거둬 자손을 퍼뜨리고 있으니 리기다 소나무는 우리 강산을 영원히 식민화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재목의 질이 소나무에 견주면 훨씬 떨어지므로 집을 짓거나 가구를 짜지 못한다. 우리 강산에서 송충이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 토박이 소나무보다 못한 뜨내기 리기다소나무를 더 심을 이유가 없으며 본 군락도 소나무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된다.

V. 결론 및 제언

1. 종의 분포

본 조사지역에서는 95과 425종이 자생하고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약용식물은 51과 113종, 귀화식물은 11과 31종이 조사되었다.

(1) 본 조사지역에서 자생하는 범꼬리, 승마, 은대난초, 금난초, 타래난초, 말나리, 보춘화, 함박꽃나무 등은 본 지역의 자연경관에 일조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보호해야 되겠다. 한편 은방울꽃도 등산로 주변에 소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데 훼손 위기에 있어 보호가 절실하였다.

(2) 귀화식물 중 돼지풀이 서서히 유입이 되는데 꽃가루가 인체에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악질종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한편 조사지역 전역에 분포된 미국자리공도 우리 고유의 토착식물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으로서 제거해야 됨을 제언한다.

- (3) 약용식물인 쥐오줌풀, 큰조롱, 대극, 백선, 삼주, 시호, 큰피막이, 송장풀 등도 중요한 향토자원식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가 절실하였다.
- (4) 조사지역에 부분적으로 콩과식물인 칩(Pueraria thunbergiana)이 번식하여 망토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군락의 하상식물을 고사시켜 종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대책이 절실함을 느낀다.

2. 군락의 분포

본 조사지역의 삼림식생은 소나무, 애기나리군락, 곰솔군락, 리기다소나무, 주름조개풀군락 등으로 구분되었다.

- (1) 부춘산의 소나무군락은 식피율이 95% 이상의 소나무 단일종으로 된 군락으로 서산시민의 삼림욕을 위한 자연휴양림으로의 최적조건을 갖춘 군락이다. 삼림에서는 인체에 유익한 테르펜과 같은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발산한다고 한다. 이 물질은 인체에 유익함이 새로이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효과까지도 있음이 연구되어 건강요법으로 삼림욕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삼림에서 테르펜의 생산량은 연간 약 14억톤이라고 한다. 그 중 소나무에서 발산량이 제일 많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 부춘산은 삼림욕의 최적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서산시민공원임을 인식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 (2) 최근에 소나무군락 밑의 관목층을 무분별하게 벌채(벌목)하고 초본층을 훼손하는데 이는 삼림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삼림의 구조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등 자연림이 구성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분별한 자연림 훼손은 없어야 하겠다. 서울의 남산, 광주의 무등산, 목포의 유달산, 대구의 팔공산 등 얼마나 자연스럽게 삼림이 성장하는가.

조사를 끝맺음하면서 차운정의 글이 생각나는군요.

“나는 우리의 산을 매우 사랑한다.
 비록 미국 버글레이즈의 그 원시적인 모습을 갖춘 숲은 아니지만
 유럽의 원숙하고 웅장한 숲은 아닐지라도
 그 황량한 러시아의 이지적인 수림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열대의 관능적인 밀림은 아닐지라도
 이제 막 걸음을 내딛은 우리의 산이기에
 내 아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애정과 희망이 있는 산이기에 더욱 사랑한다.”

■ 참고문헌

- Braun-Blanquet, 1964. Pflanzensoziologie, 865 pp
- 김원식, 1990. 가야산 삼림군락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 박수현, 1990. 한국귀화식물연구
- 이창복 · 김윤식 · 김정석 · 이정석, 1985. 식물분류학
- 이창복, 1985. 대한식물도감
- 이은복, 1989. 북한산의 식생에 관한 연구
- 이은복, 1987. 남산의 식물상
- 이은복 · 백원기, 1991. 속리산 학술조사 보고서
- 이영로, 1957. 안면도 식물상
- 이강영, 1988. 남해안 지역의 해송림의 생태학적 연구
- 안덕균, 2000. 원색 한국본초도감
- 유병혁, 1987. 거제도 삼림식생의 식물사회학적 조사연구

Table 1. 부춘산의 관속식물목록
(The list of the Tracheophytes in Mt. Buchun)

1. <i>Lycopodiaceae</i>	석송과	<i>Agrostis clavata</i>	산겨이삭
<i>Lycopodium serratum</i>	뱀틀	<i>Calamagrostis epigeios</i>	산조풀
2. <i>Selaginellaceae</i>	부처손과	<i>C. arundinacea</i>	실새풀
<i>Selaginella involvens</i>	바위손	<i>Arena fatua</i>	매귀리
3. <i>Equisetaceae</i>	속새과	<i>Agropyron ciliare</i>	속털개밀
<i>Equisetum arvense</i> L.	쇠뜨기	<i>A. tsukushiense</i> var.	개밀
4. <i>Osmundaceae</i>	고비과	<i>Bromus tectorum</i>	털빚새귀리
<i>Osmunda japonica</i>	고비	<i>Festuca ovina</i> L.	김의털
5. <i>Pteridaceae</i>	고사리과	<i>Poa annua</i>	새포아풀
<i>Pteridium aquilinum</i> Var.	고사리	<i>P. sphondylodes</i>	포아풀
6. <i>Aspidiaceae</i>	면마과	<i>Phragmites japonica</i>	달뿌리풀
<i>Dryopteris bissetiana</i>	족제비고사리	<i>Eragrostis ferruginea</i>	그렁
<i>Athyrium yokoscense</i>	뱀고사리	<i>E. multicaulis</i>	비노리
7. <i>Aspleniaceae</i>	꼬리고사리과	<i>Leptochola chinensis</i>	드렁새
<i>Asplenium incisum</i> M	꼬리고사리	<i>Sporobolus elongatus</i>	쥐꼬리새풀
8. <i>Taxaceae</i>	주목과	<i>Muhlenbergia japonica</i>	쥐꼬리새
<i>Cephalotaxus harringtonia</i>	개비자나무	<i>Zoysia japonica</i>	잔디
9. <i>Pinaceae</i>	소나무과	<i>Arundinella hirta</i>	새
<i>Pinus rigida</i>	리기다소나무	<i>Pennisetum alopecuroides</i>	수크렁
<i>P. densiflora</i> S. et z.	소나무	<i>Setaria viridis</i>	강아지풀
<i>P. thunbergii</i>	곰솔	<i>Panicum dichotomiflorum</i>	미국개기장
10. <i>Curpressaceae</i>	측백나무과	<i>Digitaria sanguinalis</i>	바랭이
<i>Juniperus rigida</i>	노간주나무	<i>Oplismenus undulatifolius</i>	주름조개풀
11. <i>Gramineae</i>	벼과	<i>Isachne globosa</i>	기장대풀
<i>Sasa borealis</i>	조릿대	<i>Echinochloa crus-galli</i>	돌피
<i>Alopecurus aequalis</i> var.	독새풀	<i>Imperata cylindrica</i> var.	띠

<i>Miscanthus sinensis</i>	참억새	<i>Aneilema keisak</i>	사마귀풀
<i>Spodiopogon cotulifer</i>	기름새	15. <i>Juncaceae</i>	골풀과
<i>S. sibiricus</i>	큰기름새	<i>Luzula capitata</i>	평의밥
<i>Arthraxon hispidus</i>	조개풀	<i>L. multiflora</i>	산평의밥
<i>Cymbopogon tortilis</i> var.	개솔새	<i>Juncus effusus</i> var.	골풀
<i>Andropogon brevifolius</i>	쇠풀	16. <i>Liliaceae</i>	백합과
<i>Themeda triandra</i> var.	솔새	<i>Veratum maackii</i> var.	여로
<i>Hemarthria sibirica</i>	쇠치기풀	<i>Hemerocallis fulva</i>	원추리
12. <i>Cyperaceae</i>	사초과	<i>Allium grayi</i>	산달래
<i>Carex neurocarpa</i> Max.	팽이사초	<i>Lilium distichum</i>	말나리
<i>C. laevisissima</i>	애팽이사초	<i>L. lancifolium</i>	참나리
<i>C. dimorpholepis</i>	이삭사초	<i>Tulipa edulis</i>	산자고
<i>C. humilis</i>	산거울	<i>Scilla scilloides</i>	무릇
<i>C. lanceolata</i>	그늘사초	<i>Asparagus schoberioides</i>	비짜루
<i>C. siderosticta</i>	대사초	<i>Polygonatum odoratum</i> var.	등굴레
<i>C. ciliato-marginata</i>	털대사초	<i>P. involucratum</i>	용등굴레
<i>C. jaluensis</i>	참삿갓사초	<i>Disporum smilacinum</i>	애기나리
<i>C. biwensis</i>	솔잎사초	<i>D. viridescens</i>	큰애기나리
<i>C. bostrychostigma</i>	길뚝사초	<i>Convallaria keiskei</i>	은방울꽃
<i>C. japonica</i>	개찌버리사초	<i>Liriope spicata</i>	개맥문동
<i>C. dispalata</i>	삿갓사초	<i>L. platyphylla</i>	맥문동
<i>Fimbristylis dichotoma</i>	하늘지기	<i>Smilax nipponica</i>	선밀나물
<i>Scirpus fluriatilis</i> A. GRAY	매자기	<i>S. riparia</i> var.	밀나물
<i>Cyperus amuricus</i>	방동사니	<i>S. china</i>	청미래덩굴
<i>C. orthostachyus</i>	쇠방동사니	<i>S. sieboidii</i>	청가시덩굴
<i>Kyllinga brevifolia</i> var.	파대가리	17. <i>Dioscoreaceae</i>	마과
13. <i>Araceae</i>	천남성과	<i>Dioscorea japonica</i>	참마
<i>Pinellia ternata</i>	반하	<i>D. batatas</i>	마
14. <i>Commelinaceae</i>	닭의장풀과	<i>D. tenuipes</i>	각시마
<i>Commelina communis</i>	닭의장풀	18. <i>Iridaceae</i>	붓꽃과

- | | | | |
|-------------------------------------|---------|-------------------------------|--------|
| <i>Iris rossii</i> | 각시붓꽃 | <i>Ulmus parrifolia</i> | 참느릅나무 |
| <i>I. ruthenica</i> | 슬붓꽃 | <i>Zelkova serrata</i> | 느티나무 |
| 19. <i>Orchidaceae</i> | 난초과 | <i>Celtis sinensis</i> | 팽나무 |
| <i>Platanthera metabifolia</i> | 제비난 | 26. <i>Moraceae</i> | 뽕나무과 |
| <i>Cephalanthera falcata</i> | 금난초 | <i>Cudrania tricuspidata</i> | 꾸지뽕나무 |
| <i>C. eraecta</i> | 은난초 | <i>Morus bombycis</i> | 산뽕나무 |
| <i>C. longibracteata</i> | 은대난초 | 27. <i>Cannabinaceae</i> | 삼과 |
| <i>Spiranthes sinensis</i> | 타래난초 | <i>Humulus japonicus</i> | 환삼덩굴 |
| <i>Cymbidium goeringii</i> | 보춘화 | 28. <i>Urticaceae</i> | 쐐기풀과 |
| 20. <i>Chloranthaceae</i> | 홀아비꽃대과 | <i>Pilea mongolica</i> | 모시물통이 |
| <i>Chloranthus japonicus</i> | 홀아비꽃대 | <i>Boehmeria spicata</i> | 좀깨잎나무 |
| 21. <i>Salicaceae</i> | 버드나무과 | <i>B. tricuspis</i> | 거북꼬리 |
| <i>Populus alba</i> | 은백양 | 29. <i>Aristolochiaceae</i> | 취방울덩굴과 |
| <i>Salix integra</i> | 개키버들 | <i>Aristolochia contorta</i> | 취방울덩굴 |
| 22. <i>Juglandaceae</i> | 가래나무과 | <i>Asarum sieboldii</i> | 족도리 |
| <i>Platycarya strobilaceae</i> | 굴피나무 | 30. <i>Polygonaceae</i> | 마디풀과 |
| 23. <i>Betulaceae</i> | 자작나무과 | <i>Rumex acetocella</i> | 애기수영 |
| <i>Alnus firma</i> | 사방오리 | <i>R. acetosa</i> | 수영 |
| <i>Corylus heterophylla</i> | 난티잎개암나무 | <i>R. japonicus</i> | 참소리쟁이 |
| <i>C. heterophylla</i> var. | 개암나무 | <i>R. crispus</i> | 소리쟁이 |
| 24. <i>Fagaceae</i> | 참나무과 | <i>R. conglomeratus</i> | 목발소리쟁이 |
| <i>Ccstanea crenata</i> | 밤나무 | <i>Bistorta manshuriensis</i> | 범꼬리 |
| <i>Quercus acutissima</i> | 상수리나무 | <i>Aconogonum polymorphum</i> | 싱아 |
| <i>Q. variabilis</i> | 굴참나무 | <i>Fallopia dumetora</i> | 닭의덩굴 |
| <i>Q. dentata</i> | 떡갈나무 | <i>Persicaria filiforme</i> | 이삭여뀌 |
| <i>Q. aliena</i> | 갈참나무 | <i>P. perfoliata</i> | 며느리배꼽 |
| <i>Q. mongolica</i> | 신갈나무 | <i>P. senticosa</i> | 며느리밧씻개 |
| <i>Q. serrata</i> | 줄참나무 | <i>P. thunbergii</i> | 고마리 |
| 25. <i>Ulmaceae</i> | 느릅나무과 | <i>p. sieboldii</i> | 미꾸리낙시 |
| <i>Ulmus davidiana for suberosa</i> | 흑느릅나무 | <i>P. orientalis</i> | 털여뀌 |

- | | | | |
|-------------------------------------|---------|----------------------------------|--------|
| <i>P. nepalensis</i> | 산여뀌 | <i>Clematis mandshurica</i> | 오아리 |
| <i>P. hydropiper</i> | 여뀌 | <i>C. apiifolia</i> | 사위질빵 |
| <i>Polygonum aviculare</i> | 마디풀 | <i>Pulsatilla koreana</i> | 할미꽃 |
| 31. <i>Chenopodiaceae</i> | 명아주과 | <i>Hepatica asiatica</i> | 노루귀 |
| <i>Chenopodium glaucum</i> | 취명아주 | <i>Ranunculus japonicus</i> | 미나리아재비 |
| <i>C. album</i> var. | 명아주 | <i>R. chinensis</i> | 젓가락나물 |
| <i>Kochia scoparia</i> | 땃싸리 | <i>Thalictrum aquilegifolium</i> | 평의다리 |
| 32. <i>Amaranthaceae</i> | 비름과 | <i>Cimicifuga heracleifolia</i> | 송마 |
| <i>Amaranthus mangostanus</i> | 비름 | 38. <i>Lardizabalaceae</i> | 으름덩굴과 |
| <i>A. lividus</i> | 개비름 | <i>Akebia quinata</i> | 으름 |
| <i>Achyranthes japonica</i> | 쇠무릎 | 39. <i>Menispermaceae</i> | 방기과 |
| 33. <i>Phytolaccaceae</i> | 자리공과 | <i>Cocculus trilobus</i> | 땡땡이덩굴 |
| <i>Phytolacca esculenta</i> | 자리공 | 40. <i>Magnoliaceae</i> | 목련과 |
| <i>P. americana</i> | 미국자리공 | <i>Magnolia sieboldii</i> | 함박꽃나무 |
| 34. <i>Aizoaceae</i> | 석류풀과 | 41. <i>Lauraceae</i> | 녹나무과 |
| <i>Mollugo pentaphylla</i> | 석류풀 | <i>Lindera obtusiloba</i> | 생강나무 |
| 35. <i>Portulacaceae</i> | 쇠비름과 | <i>L. erythrocarpa</i> | 비목나무 |
| <i>Portulaca oleracea</i> | 쇠비름 | 42. <i>Papaveraceae</i> | 양귀비과 |
| 36. <i>Caryophyllaceae</i> | 석죽과 | <i>Chelidonium majus</i> var. | 애기똥풀 |
| <i>Sagina japonica</i> | 개미자리 | 43. <i>Fumariaceae</i> | 현호색과 |
| <i>Arenaria serpyllifolia</i> | 벼룩이자리 | <i>Corydalis turtschaninovii</i> | 현호색 |
| <i>Pseudostellaria palibiniana</i> | 큰개별꽃 | <i>C. turtschaninovii</i> var. | 빛살현호색 |
| <i>Cerastium holosteoides</i> var. | 접나도나물 | <i>C. speciosa</i> | 산괴불주머니 |
| <i>Stellaria aquatica</i> | 쇠별꽃 | 44. <i>Cruciferae</i> | 십자화과 |
| <i>S. media</i> | 별꽃 | <i>Brassica juncea</i> var. | 갯 |
| <i>S. alsine</i> var. | 벼룩나물 | <i>Lepidium apetalum</i> | 다닥냉이 |
| <i>Dianthus superbus</i> var. | 술패랭이꽃 | <i>Thlaspi arvense</i> | 말냉이 |
| <i>Gypsophila oldhamiana</i> | 대나물 | <i>Cardamine flexuosa</i> | 황새냉이 |
| <i>Melandryum firmum</i> (S. et. 2) | 장구채 | <i>Rorippa indica</i> | 개갯냉이 |
| 37. <i>Ranunculaceae</i> | 미나리아재비과 | <i>R. islandica</i> | 속속이풀 |

- | | | | |
|--------------------------------|--------|----------------------------------|-----------|
| <i>Capsella bursa-pastoris</i> | 냉이 | <i>Sorbus alnifolia</i> | 팔배나무 |
| <i>Draba nemorosa</i> var. | 꽃다지 | 48. Leguminosae | 콩과 |
| <i>Arabis glabra</i> | 장대나물 | <i>Albizia julibrissin</i> | 자귀나무 |
| <i>Descurainia sophia</i> | 재쭉 | <i>Cercis chinensis</i> | 박태기나무 |
| 45. Crassulaceae | 돌나물과 | <i>Cassia nomame</i> | 차풀 |
| <i>Sedum erythrostichum</i> | 핑의비름 | <i>Sophora flavescens</i> | 고삼 |
| <i>S. kamschaticum</i> | 기린초 | <i>Lespedeza thunbergii</i> var. | 풀싸리 |
| <i>S. sarmentosum</i> | 돌나물 | <i>L. maximowiczii</i> | 조록싸리 |
| 46. Saxifragaceae | 범의귀과 | <i>L. bicolor</i> | 싸리 |
| <i>Astilbe chinensis</i> var. | 노루오줌 | <i>L. pilosa</i> | 괭이싸리 |
| <i>Philadelphus schrenckii</i> | 고광나무 | <i>L. cuneata</i> | 비수리 |
| 47. Rosaceae | 장미과 | <i>Kummerowia striata</i> | 매듭풀 |
| <i>Spiraea prunifolia</i> for. | 조팝나무 | <i>Desmodium oldhami</i> | 큰도둑늪의 갈고리 |
| <i>Stephanandra incisa</i> | 국수나무 | <i>D. oxyphyllum</i> | 도둑늪의 갈고리 |
| <i>Kerria japonica</i> | 황매과 | <i>Aeschynomene indica</i> | 자귀풀 |
| <i>Duchesnea chrysantha</i> | 뱀딸기 | <i>Vicia angustifolia</i> var. | 살갈퀴 |
| <i>Potentilla kleiniana</i> | 가락지나물 | <i>V. amoena</i> | 갈퀴나물 |
| <i>Geum japonicum</i> ThunB. | 뱀무 | <i>V. unijuga</i> | 나비나물 |
| <i>P. fragarioides</i> var. | 양지꽃 | <i>Lathyrus davidii</i> | 활랑나물 |
| <i>P. chinensis</i> | 딱지꽃 | <i>L. quinquerivius</i> | 연리초 |
| <i>P. supina</i> | 개소리랑개비 | <i>Pueraria thunbergiana</i> | 췌 |
| <i>Rubus crataegifolius</i> | 산딸기 | <i>Indigofera kirilowii</i> | 땅비싸리 |
| <i>R. parvifolius</i> | 명석딸기 | <i>Wistaria floribunda</i> | 등 |
| <i>Sanguisorba officinalis</i> | 오이풀 | <i>Robina pseudo-acacia</i> | 아까시나무 |
| <i>Agrimonia pilosa</i> | 짚신나물 | <i>Amorpha fruticosa</i> | 족제비싸리 |
| <i>A. coreana</i> | 산짚신나물 | <i>Trifolium pratense</i> | 붉은토끼풀 |
| <i>Rosa multiflora</i> | 찔레 | <i>T. repens</i> | 토끼풀 |
| <i>Prunus sargentii</i> | 산벚나무 | 49. Oxalidaceae | 괭이밥과 |
| <i>P. japonica</i> var. | 이스라지 | <i>Oxalis corniculata</i> | 괭이밥 |
| <i>P. calleryana</i> var. | 콩배나무 | 50. Rutaceae | 운향과 |

- | | | | |
|---------------------------------|-------|---|--------|
| <i>Zanthoxylum piperitum</i> | 산초나무 | <i>Impatiens textori</i> | 물봉선 |
| <i>Z. schinifolium</i> | 초피나무 | 59. Vitaceae | 포도과 |
| <i>Evodia daniellii</i> HEMSLE. | 쉬나무 | <i>Vitis thunbergii</i> var. | 까마귀머루 |
| <i>Dictamnus dasycarpus</i> | 백선 | <i>Ampelopsis brevipedunculata</i> var. | 개머루 |
| 51. Simaroubaceae | 소태나무과 |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 담쟁이덩굴 |
| <i>Picrasma quassioides</i> | 소태나무 | 60. Tiliaceae | 피나무과 |
| <i>Ailanthus altissima</i> | 가죽나무 | <i>Grewia biloba</i> var. | 장구밥나무 |
| 52. Polygalaceae | 원지과 | <i>Triumfetta japonica</i> | 고슴도치풀 |
| <i>Polygala japonica</i> | 애기풀 | 61. Actinidiaceae | 다래나무과 |
| 53. Euphorbiaceae | 대극과 | <i>Actinidia arguta</i> | 다래 |
| <i>Securinea suffruticosa</i> | 광대싸리 | 62. Hypericaceae | 물레나물과 |
| <i>Sapium japonicum</i> | 사람주나무 | <i>Hypericum ascyron</i> | 물레나물 |
| <i>Phyllanthus urinaria</i> | 여우구슬 | <i>H. erectum</i> | 고추나물 |
| <i>P. ussuriensis</i> | 여우주머니 | 63. Violaceae | 제비꽃과 |
| <i>Euphorbia supina</i> | 애기땅빈대 | <i>Viola chaerophylloides</i> | 남산제비꽃 |
| <i>E. pexinensis</i> | 대극 | <i>Viola xtakahashii</i> (MAXI.) | 단풍제비꽃 |
| 54. Anacardiceae | 웃나무과 | <i>V. variegata</i> | 알록제비꽃 |
| <i>Rhus chinensis</i> | 붉나무 | <i>V. mandshurica</i> | 제비꽃 |
| <i>R. verniciflua</i> | 웃나무 | <i>V. selkirkii</i> | 외제비꽃 |
| 55. Celastraceae | 노박당굴과 | <i>V. acuminata</i> | 줄방제비꽃 |
| <i>Euonymus japonica</i> | 사철나무 | 64. Elaeagnaceae | 보리수나무과 |
| <i>E. alatus</i> | 화살나무 | <i>Elaeagnus umbellata</i> | 보리수나무 |
| <i>Celastrus orbiculatus</i> | 노박당굴 | 65. Lythraceae | 부처꽃과 |
| 56. Staphyleaceae | 고추나무과 | <i>Lagerstroemia indica</i> | 배롱나무 |
| <i>Staphylea bumalda</i> | 고추나무 | 66. Onagraceae | 바늘꽃과 |
| 57. Aceraceae | 단풍나무과 | <i>Ludwigia prostrata</i> | 여뀌바늘 |
| <i>Acer ginnala</i> | 신나무 | <i>Oenothera odorata</i> | 달맞이꽃 |
| <i>Acer mono</i> | 고로쇠나무 | 67. Halorrhagaceae | 개미탐과 |
| <i>Acer pseudo-sieboldinum</i> | 당단풍 | <i>Halorrhagis micrantha</i> | 개미탐 |
| 58. Balsaminaceae | 봉선화과 | 68. Araliaceae | 두릅나무과 |

- | | | | |
|-----------------------------------|-------|------------------------------------|--------|
| <i>Acanthopanax sessiliflorus</i> | 오갈피나무 | 75. <i>Symplocaceae</i> | 노린재나무과 |
| <i>Hedera rhombea</i> | 송악 | <i>Symplocos chinensis</i> var. | 노린재나무 |
| <i>Kalopanax pictus</i> | 읍나무 | 76. <i>Styracaceae</i> | 때죽나무과 |
| <i>Aralia elata</i> | 두릅나무 | <i>Styrax japonica</i> S. et 2. | 때죽나무 |
| <i>A. cordata</i> | 독활 | 77. <i>Oleaceae</i> | 물푸레나무과 |
| 69. <i>Umbelliferae</i> | 산형과 | <i>Ligustrum obtusifolium</i> | 취통나무 |
| <i>Hydrocotyle ramiflora</i> | 큰피막이 | 78. <i>Gentianaceae</i> | 용담과 |
| <i>Bupleurum falcatum</i> | 시호 | <i>Gentiana squarrosa</i> | 구슬봉이 |
| <i>Osmorhiza aristata</i> | 긴사상자 | <i>G. scabra</i> var. | 용담 |
| <i>Torilis japonica</i> | 사상자 | 79. <i>Asclepiadaceae</i> | 박주가리과 |
| <i>Sium suave</i> | 개발나물 | <i>Metaplexis japonica</i> | 박주가리 |
| <i>Angelica decursiva</i> | 바디나물 | <i>Cynanchum wilfordii</i> | 큰조롱 |
| <i>A. anomala</i> | 개구릿대 | <i>C. paniculatum</i> | 산해박 |
| <i>Psuedanum terebinthaceum</i> | 기름나물 | 80. <i>Convolvulaceae</i> | 메꽃과 |
| <i>Heracleum moellendoffii</i> | 어수리 | <i>Calystegia japonica</i> | 메꽃 |
| 70. <i>Cornaceae</i> | 층층나무과 | 81. <i>Borraginaceae</i> | 지치과 |
| <i>Cornus kousa</i> | 산딸나무 | <i>Lithospermum zollingeri</i> | 반디지치 |
| <i>C. officinalis</i> | 산수유 | <i>Trigonotis peduncularis</i> | 꽃마리 |
| 71. <i>Pyrolaceae</i> | 노루발과 | 82. <i>Verbenaceae</i> | 미편초과 |
| <i>Pyrola japonica</i> | 노루발 | <i>Callicarpa japonica</i> | 작살나무 |
| <i>Chimaphila japonica</i> | 매화노루발 | <i>Clerodendron trichotomum</i> | 누리장나무 |
| 72. <i>Ericaceae</i> | 진달래과 | 83. <i>Labiatae</i> | 팔팔과 |
| <i>Rhododendron mucronulatum</i> | 진달래 | <i>Ajuga multiflora</i> | 조개나물 |
| 73. <i>Primulaceae</i> | 앵초과 | <i>Scutellaria pekinensis</i> var. | 산골무꽃 |
| <i>Lysimachia barystachys</i> | 까치수영 | <i>Prunella vulgaris</i> var. | 팔팔 |
| <i>L. clethroides</i> | 큰까치수영 | <i>Leonurus sibiricus</i> | 익모초 |
| <i>Androsace umbellata</i> | 봄맞이 | <i>L. macranthus</i> | 송장풀 |
| <i>A. filiformis</i> | 애기봄맞이 | <i>Lamium amplexicaule</i> | 광대나물 |
| 74. <i>Ebenaceae</i> | 감나무과 | <i>L. album</i> var. | 광대수염 |
| <i>Diospyros lotus</i> | 고욤나무 | <i>Mosla punctulata</i> | 들깨풀 |

- | | | | |
|--|--------|-------------------------------------|--------|
| <i>M. dianthera</i> | 취개풀 | <i>Weigela subsessilis</i> | 병꽃나무 |
| <i>Isodon inflexus</i> | 산박하 | <i>Lonicera japonica</i> | 인동 |
| 84. Solanaceae 가지과 | | <i>L. praeflorens</i> | 올괴불나무 |
| <i>Physalis angulata</i> | 땅파리 | <i>L. harai</i> | 길마가지나무 |
| <i>Solanum lyratum</i> | 배풍등 | 91. Valerianaceae 마타리과 | |
| <i>S. nigrum</i> | 까마중 | <i>Patrinia scabiosaefolia</i> | 마타리 |
| <i>Datura stramonium</i> | 독말풀 | <i>P. villosa</i> | 뚝갈 |
| 85. Scrophulariaceae 현삼과 | | <i>Valeriana fauriei</i> | 쥐오줌풀 |
| <i>Mazus miquelii</i> | 누운주름잎 | 92. Cucurbitaceae 박과 | |
| <i>Lindernia crustacea</i> | 외풀 | <i>Trichosanthes kirilowii</i> | 히늘타리 |
| <i>Pseudolysimachion linariifolium</i> | 꼬리풀 | 93. Campanulaceae 초롱꽃과 | |
| <i>Veronica peregrina</i> | 문모초 | <i>Adenophora grandiflora</i> | 도라지모시대 |
| <i>V. didyma</i> var. | 개불알풀 | <i>A. triphylla</i> var. | 잔대 |
| <i>Melampyrum roseum</i> | 꽃머느리바풀 | <i>Phyteuma japonicum</i> | 영아자 |
| 86.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 | <i>Platycodon grandiflorum</i> | 도라지 |
| <i>Justicia procumbens</i> | 쥐꼬리망초 | 94. Lobeliaceae 숫잔대와 | |
| 87. Phrymaceae 파리풀과 | | <i>Lobelia chinensis</i> | 수염가래꽃 |
| <i>Phryma leptostachya</i> var. | 파리풀 | 95. Compositae 국화과 | |
| 88. Plantaginaceae 질경이과 | | <i>Gnaphalium affine</i> | 떡쑥 |
| <i>Plantago asiatica</i> | 질경이 | <i>G. japonicum</i> | 풀솜나물 |
| 89. Rubiaceae 꼭두서니과 | | <i>Inula britannica</i> var. | 금불초 |
| <i>Paederia scandens</i> | 계요동 | <i>Carpesium abrotanoides</i> | 담배풀 |
| <i>Rubia akane</i> | 꼭두서니 | <i>Leibnitzia anandria</i> | 솜나물 |
| <i>R. cordifolia</i> var. | 갈퀴꼭두서니 | <i>Ambrosia artemisiifolia</i> var. | 돼지풀 |
| <i>Galium verum</i> var. | 솔나물 | <i>Xanthium strumarium</i> | 도꼬마리 |
| <i>G. spurium</i> | 갈퀴덩굴 | <i>Eupatorium lindleyanum</i> | 골등굴나물 |
| <i>G. trachyspermum</i> | 내잎갈퀴 | <i>E. fortunei</i> | 벌등굴나무 |
| 90. Caprifoliaceae 인동과 | | <i>Solidago virga-aurea</i> var. | 미역취 |
| <i>Viburnum dilatatum</i> | 가막살나무 | <i>Aster yomena</i> | 쑥부쟁이 |
| <i>V. carlesii</i> | 분꽃나무 | <i>A. scaber</i> | 참취 |

<i>Erigeron annuus</i>	개망초	<i>Synurus deltooides</i>	수리취
<i>E. bonariensis</i>	실망초	<i>Echinops setifer</i>	절굿대
<i>E. canadensis</i>	망초	<i>Breea segeta</i>	조랭이
<i>Erechtites hieracifolia</i>	붉은서나물	<i>Taraxacum mongolicum</i>	민들레
<i>Aenecio integrifolius</i> var.	솜방망이	<i>T. officinale</i>	서양민들레
<i>Senecio vulgaris</i>	개쑥갓	<i>Hieracium umbellatum</i>	조밥나물
<i>Achillea sibirica</i>	뚝풀	<i>Holeion maximowiczii</i>	깨묵
<i>Centipeda minima</i>	중대가리풀	<i>Ixeris dentata</i>	씀바귀
<i>Chrysanthemum zawadskii</i>	산구절초	<i>I. chinensis</i> var.	선씀바귀
<i>C. boyeale</i>	산국	<i>Lactuca indica</i> var.	왕고들빼기
<i>Artemisia japonica</i>	제비쑥	<i>L. raddeana</i>	산씀바귀
<i>A. keiskeana</i>	맑은대쑥	<i>Sonchus oleraceus</i>	방가지동
<i>A. feddei</i> LEV. et vnt.	뽕쑥	<i>S. asper</i>	큰방가지동
<i>A. stolonifera</i>	넓은잎외잎쑥	<i>Youngia japonica</i>	뽕리랭이
<i>A. montana</i>	산쑥	<i>Y. denticulata</i>	이고들빼기
<i>A. princeps</i> var.	쑥	<i>Y. sonchifolia</i>	고들빼기
<i>Siegesbeckia glabrescens</i>	진들찰		
<i>S. pubescens</i>	털진들찰		
<i>Eclipta prostrata</i>	한련초		
<i>Bidens frondosa</i>	미국가막사리		
<i>B. tripartita</i>	가막사리		
<i>B. parriflora</i>	까치발		
<i>B. bipinnata</i>	도깨비바늘		
<i>Atractylodes japonica</i>	삼주		
<i>Carduus crispus</i>	지느러미 엉겅퀴		
<i>Cirsium japonicum</i> var.	엉겅퀴		
<i>Hemistepta lyrata</i>	지칭개		
<i>Saussurea odontolepis</i>	빛살서덜취		
<i>Serratula coronata</i> var.	산비장이		
<i>Rhapontica uniflora</i>	뽕쑥채		

Tabel 2. 부춘산의 약용식물 목록
The list of the medicinal plant in Mt. Buchun

학명	국명	약용부위	주요 효능
1. <i>Selaginellaceae</i> 부처손과 <i>Selaginella involvens</i>	바위손	지상부	치질출혈, 항암작용, 육창
2. <i>Equisetineae</i> 속새과 <i>Equisetum arvense</i>	쇠뜨기	지상부	만성기관지염(진해, 거담), 혈압강하
3. <i>Osmundaceae</i> 고비과 <i>Osmunda japonica</i>	고비	뿌리줄기	해열, 피부발진, 지혈(비출혈, 이질, 자궁출혈)
4. <i>Taxaceae</i> 주목과 <i>Cephalotaxus koreana</i>	개비자나무	종자	구충(회충, 갈고리촌충)
5. <i>Cupressaceae</i> 측백나무과 <i>Juniperus rigida</i>	노간주나무	열매	이뇨작용, 심장병 및 간장질환으로 인한 부종
6. <i>Araceae</i> 천남성과 <i>Pinellia ternata</i>	반하	덩이뿌리	거담제, 유방염, 임신구토
7. <i>Commelinaceae</i> 닭의장풀과 <i>Commelina communis</i>	닭의장풀	지상부	당뇨병치료, 해열, 이뇨작용
8. <i>Juncaceae</i> 골풀과 <i>Luzula capitata</i>	평의밥	지상부	이질(아메바성이질) 치료
9. <i>Liliaceae</i> 백합과 <i>Veyatrum maackii</i> var. <i>Hemerocallis fulva</i>	여로 원추리	뿌리줄기 뿌리	혈압강하작용, 살균작용 이뇨작용, 지혈(비출혈, 장출혈, 자궁출혈), 유방염
<i>Scilla scilloides</i>	무릇	비늘줄기, 지상부	강심, 이뇨작용, 유방염
<i>Polygonatum odoratum</i>	등굴레	뿌리줄기	혈당억제작용, 혈당강하작용
<i>Disporum smilacinum</i>	애기나리	뿌리	진위, 소화작용
<i>Convallaria keiskei</i>	은방울꽃	지상부	강심작용, 이뇨작용, 진정작용(수면, 정서불안)
<i>Liriope spicata</i>	개맥문동	덩이뿌리	진정작용, 면역증강작용, 혈당강하
<i>L. platyphylla</i>	맥문동	덩이뿌리	진정작용, 면역증강작용, 혈당강하
<i>Smilax riparia</i>	밀나물	뿌리	근육통, 폐결핵
<i>S. china</i>	청미래덩굴	뿌리줄기	항암작용, 소염작용(유선염)
<i>S. sieboldii</i>	청가시덩굴	뿌리, 뿌리줄기	풍습성관절염, 류머티스성관절염

- | | | | | |
|----------------------------------|---------|---------|------------------------------|--|
| 10. Dioscoreaceae | 마과 | | | |
| <i>Dioscorea japonica</i> | 참마 | 뿌리줄기 | 소화불량, 해열(폐결핵) | |
| <i>D. batatas</i> | 마 | 뿌리줄기 | 소화불량, 해열(폐결핵) | |
| 11. Iridaceae | 붓꽃과 | | | |
| <i>Iris rossii</i> | 각시붓꽃 | 종자 | 황달, 이질, 인후염 | |
| <i>I. ruthenica</i> | 솔붓꽃 | 종자 | 황달, 이질, 인후염 | |
| 12. Orchidaceae | 난초과 | | | |
| <i>Cephalanthera erecta</i> | 은난초 | 지상부 | 해열 | |
| 13. Chloranthaceae | 홀아비꽃대과 | | | |
| <i>Chloranthus japonicus</i> | 홀아비꽃대 | 지상부 | 거담작용, 생리불순, 생리통 | |
| 14. Cannabinaceae | 삼과 | | | |
| <i>Humulus japonicus</i> | 환삼덩굴 | 지상부 | 세균성이질, 항균작용, 기관지염 | |
| 15. Urticaceae | 췌기풀과 | | | |
| <i>Boehmeria spicata</i> | 좀깨잎나무 | 지상부 | 소아마비, 소아습진 | |
| 16. Aristolochiaceae | 취방울덩굴과 | | | |
| <i>Aristolochia contorta</i> | 취방울덩굴 | 열매 | 만성기관지염, 위염, 이질, 혈압강화작용 | |
| <i>Asarum sieboldii</i> | 족도리 | 잎, 뿌리 | 구내염, 관상동맥질환, 두통, 만성기관염 | |
| 17. Phytolaccaceae | 자리공과 | | | |
| <i>Phytolacca americana</i> | 미국자리공 | 뿌리 | 만성신우신염, 해열작용 | |
| 18. Ranunculaceae | 미나리아재비과 | | | |
| <i>Pulsatilla koreana</i> | 할미꽃 | 뿌리 | 이질, 치질, 강심작용 | |
| <i>Hepatica asiatica</i> | 노루귀 | 뿌리줄기 | 피부질환, 풍습성질환 | |
| <i>Ranunculus japonicus</i> | 미나리아재비 | 지상부 | 간염에 의한 황달 | |
| <i>Thalictrum aquilegifolium</i> | 평의다리 | 뿌리, 지상부 | 혈압강하, 생쥐의 폐암에 유효 | |
| <i>Cimicifuga heracleifolia</i> | 승마 | 뿌리 | 위하수, 탈항 | |
| 19. Lardizabalaceae | 으름덩굴과 | | | |
| <i>Akebia quinata</i> | 으름 | 줄기 | 이뇨작용(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진균발육억제 | |
| 20. Papaveraceae | 양귀비과 | | | |
| <i>Chelidonium majus</i> | 애기똥풀 | 지상부 | 위염, 간염 | |
| 21. Fumariaceae | 현호색과 | | | |
| <i>Corydalis turtschaninovii</i> | 현호색 | 덩이뿌리 | 진통, 진정작용 | |
| <i>C. speciosa</i> | 산괴불주머니 | 지상부 | 해독, 각혈(폐결핵) | |
| 22. Crassulaceae | 돌나물과 | | | |
| <i>Sedum erythrostichum</i> | 평의 비름 | 지상부 | 폐렴, 지혈작용 | |
| <i>S. kamtschaticum</i> | 기린초 | 지상부 | 폐결핵(각혈 지혈) | |
| <i>S. sarmentosum</i> | 돌나물 | 지상부 | 만성간염, 해독작용 | |

- | | | | | |
|-----------------------------------|---------|------------|-------------------------|--|
| 23. Saxifragaceae 범의귀과 | | | | |
| <i>Astilbe chinensis</i> var. | 노루오줌 | 뿌리, 지상부 | 감기, 해수(진해작용) 폐결핵 | |
| <i>Philadelphus schrenckii</i> | 고광나무 | 뿌리 | 치질 | |
| 24. Rosaceae 장미과 | | | | |
| <i>Agrimonia pilosa</i> | 깊신나물 | 지상부 | 지혈, 강심, 고산병 | |
| <i>Sanguisorba officinalis</i> | 오이풀 | 뿌리 | 치질, 피부병 | |
| 25. Leguminosae 콩과 | | | | |
| <i>Albizia julibrissin</i> | 자귀나무 | 나무껍질 | 우울증, 심신불안, 건망증 | |
| <i>Sophora flavescens</i> | 고삼 | 뿌리 | 불면증(진정, 최면) | |
| <i>Desmodium oxyphyllum</i> | 도둑놈의갈고리 | 뿌리, 지상부 | 타박상, 뱀독(제독), 유방염 | |
| <i>Lathyrus davidii</i> | 활랑나물 | 종자 | 생리통, 자궁내막염 | |
| 26. Oxalidaceae 팽이밥과 | | | | |
| <i>Oxalis corniculata</i> | 팽이밥 | 지상부 | 불면증, 전염성간염 | |
| 27. Rutaceae 운향과 | | | | |
| <i>Zanthoxylum piperitum</i> | 산초나무 | 열매껍질 | 지사제, 구충(회충, 간디스토마), 치통 | |
| <i>Z. schinifolium</i> | 초피나무 | 열매껍질 | 구충제(회충, 간디스토마), 지사제 | |
| <i>Evodia daniellii</i> HEMSLE | 쉬나무 | 열매 | 고혈압, 소화불량 | |
| <i>Dictamnus dasycarpus</i> | 백선 | 뿌리껍질 | 해열작용, 피부진균억제작용 | |
| 28. Euphorbiaceae 대극과 | | | | |
| <i>Euphorbia pekinensis</i> | 대극 | 뿌리 | 급만성신우신염, 간경화 | |
| 29.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 | | | |
| <i>Euonymus alatus</i> | 화살나무 | 가지, 날개 | 항암치료제 | |
| <i>Celastrus orbiculatus</i> | 노박덩굴 | 줄기 | 정신안정작용, 혈압강화작용 | |
| 30. Onagraceae 비늘꽃과 | | | | |
| <i>Oenothera odorata</i> | 달맞이꽃 | 뿌리 | 종자의 기름을 당뇨병에 사용 | |
| 31. Araliaceae 두릅나무과 | | | | |
| 32. Aceraceae 단풍나무과 | | | | |
| <i>Acer-mono</i> | 고로쇠나무 | 나무껍질 | 골절상, 타박상 ※수액을 소화불량과 당뇨병 | |
| 33. Balsaminaceae 봉선화과 | | | | |
| <i>Impatiens textori</i> | 물봉선 | 지상부 | 약창, 피부궤양 | |
| 34. Tiliaceae 피나무과 | | | | |
| <i>Grewia biloba</i> var. | 장구밥나무 | 뿌리, 잎 | 진위작용 | |
| 35. Violaceae 제비꽃과 | | | | |
| <i>Viola chaerophyllioides</i> | 남산제비꽃 | 지상부 | 신우신염 | |
| <i>V. mandshurica</i> | 제비꽃 | 지상부 | 급성편도선염, 중기 | |
| <i>V. variegata</i> | 알록채미꽃 | 지상부 | 소염제, 해독작용(벌레에 물렸을 때) | |
| 36. Araliaceae 두릅나무과 | | | | |
| <i>Acanthopanax sessiliflorus</i> | 오갈피나무 | 뿌리껍질, 나무껍질 | 간, 신장(콩팥)을 보호, 혈압조절 작용 | |

<i>Aralia elata</i>	두릅나무	꽃	풍습성 관절염
<i>A. cordata</i>	독활	뿌리	허리와 대퇴부의 통증, 허리근육통
37. Umbelliferae 산형과			
<i>Hydrocotyle ramiflora</i>	큰피막이	지상부	간염, 인후염, 편도선염, 신우신염 (이뇨작용)
<i>Bupleurum falcatum</i>	시호	뿌리	감기, 간기능강화
<i>Torilis japonica</i>	사상자	열매	지사제, 구충제(회충)
<i>Sium suave</i>	개발나물	뿌리	고혈압(혈압강하)
<i>Psuedanum terebinthaceum</i>	기름나물	뿌리	기관지천식
<i>Heracleum moellendorffii</i>	어수리	뿌리	만성기관지염, 불면증
38. Cornaceae 층층나무과			
<i>Cornus officinalis</i>	산수유	과육	간기능강화, 이뇨, 혈압강하, 혈당강하
39. Pyrolaceae 노루발과			
<i>Pyrola japonica</i>	노루발	지상부	장관감염증, 폐렴, 고혈압, 자궁출혈
40. Ericaceae 진달래과			
<i>Rhododendron mucronulatum</i>	진달래	꽃	기관지염(진해, 거담작용), 감기
41. Primulaceae 영초과			
<i>Lysimachia barystachys</i>	까치수영	뿌리, 지상부	생리불순, 인후염, 타박상, 골절상
42.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i>Symplocos chinensis</i>	노린재나무	가지, 잎	이질(지사제)
43. Styracaceae 매죽나무과			
<i>Styrax japonica</i>	매죽나무	꽃	풍습성관절염, 사지신경통, 뿌리는 통풍
44. Gentianaceae 용담과			
<i>Gentiana squarrosa</i>	구슬봉이	지상부	소염작용(충수염, 결핵성립프선염)
<i>G. scabra</i>	용담	뿌리	만성간염
45.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i>Metaplexis japonica</i>	박주가리	지상부, 뿌리	발기부전, 허약성대하, 유즙분비
<i>Cynanchum wilfordii</i>	큰조롱	뿌리	보혈제(허약체질), 변비
<i>C. paniculatum</i>	산해박	뿌리	신경쇠약, 만성위염
46. Labiatae 꿀풀과			
<i>Prunella vulgaris</i>	꿀풀	지상부	고혈압, 급성황달형전염성간염
<i>Leonurus sibiricus</i>	익모초	지상부	생리불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i>L. macranthus</i>	송장풀	지상부	이뇨제, 산후통
47. Solanaceae 가지과			
<i>Solanum lyratum</i>	배풍등	지상부	급성황달형간염
<i>Datura stramonium</i>	독말풀	꽃, 잎	기관지천식, 마취제
48. Rubiaceae 꼭두서니과			
<i>Paederia scandens</i>	계요동	뿌리, 지상부	소염, 이뇨작용

49. <i>Caprifoliaceae</i> 인동과			
<i>Lonicera japonica</i>	인동	꽃	만성간염, 만성장염, 만성설사
50. <i>Valerianaceae</i> 마타리과			
<i>Valeriana fauriei</i>	귀오좁풀	뿌리	신경쇠약, 신경병
51. <i>Campanulaceae</i> 초롱꽃과			
<i>Adenophora grandiflora</i>	잔대	뿌리	결핵성림프선염, 폐기능허약증
<i>Platycodon grandiflorum</i>	도라지	뿌리	항암작용
52. <i>Compositae</i> 국화과			
<i>Gnaphalium affine</i>	떡쑥	지상부	만성기관지염, 위궤양
<i>Leibnitzia anandria</i>	숨나물	지상부	해수, 천식
<i>Xanthium strumarium</i>	도꼬마리	열매	축농증, 중이염
<i>Eupatorium lindleyanum</i>	골동골나무	지상부	소화불량, 소화장애
<i>Senecio vulgaris</i>	개쑥갓	지상부	편도선염, 인후염(소염작용)
<i>Chrysanthemum zawadskii</i>	산구절초	지상부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증
<i>C. boreale</i>	산국	꽃봉오리	감기
<i>Artemisia japonica</i>	제비쑥	지상부	감기(해열)
<i>A. keiskeana</i>	맑은대쑥	지상부	여성부인병
<i>A. stolonifera</i>	넓은잎외잎쑥	잎	자궁출혈(지혈작용)
<i>A. princeps</i>	쑥	잎	여성부인병
<i>Siegesbeckia glabrescens</i>	진득찰	지상부	황달성간염
<i>Elipta prostrata</i>	한련초	지상부	이질, 지혈, 진정, 진통작용
<i>Atractylodes japonica</i>	삼주	뿌리줄기	건위, 이뇨작용
<i>Taraxacum mongolicum</i>	민들레	지상부	건위, 이뇨작용
<i>Ixeris dentata</i>	씀바귀	지상부	이질, 간경화
<i>Sonchus oleraceus</i>	방가지뚥	지상부	급성인후염, 양혈작용(이질, 소변출혈)
<i>Yungia sonchifolia</i>	고들빼기	지상부	건위 및 소화작용

Table 3. 부춘산의 귀화식물 목록
The list of the naturalized plants of in Mt. Buchun

1. Gramineae	벼과	<i>Physalis angulata</i>	땅파리
	<i>Bromus tectorum</i>	<i>Solanum lyratum</i>	까마중
	<i>Panicum dichotomiflorum</i>	<i>Datura stramonium</i>	독말풀
2. Polygonaceae	마디풀과	11. Compositae	국화과
	<i>Rumex acetocella</i>	<i>Ambrosia artemisiifolia</i> var.	돼지풀
	<i>R. conglomeratus</i>	<i>Xanthium strumarium</i>	도꼬마리
	<i>Fallopia dumetora</i>	<i>Erigeron annuus</i>	개망초
3. Phytolaccaceae	자리공과	<i>E. bonariensis</i>	실망초
	<i>Phytolacca americana</i>	<i>E. canadensis</i>	망초
4. Cruciferae	십자화과	<i>Erechtites hieracifolia</i>	붉은서나물
	<i>Brassica juncea</i> var.	<i>Senecio vulgaris</i>	개썩갓
	<i>Lepidium apetalum</i>	<i>Bidens frondosa</i>	미국가막사리
5. Rosaceae	장미과	<i>Carduus crispus</i>	지느러미엉성퀴
	<i>Potentilla kleniana</i>	<i>Taraxacum officinale</i>	서양민들레
	<i>P. supina</i>	<i>Sonchus oleraceus</i>	방가지뚥
6. Leguminosae	콩과	<i>S. asper</i>	큰방가지뚥
	<i>Robina pseudo-acacia</i>		
	<i>Amorpha fruticosa</i>		
	<i>Trifolium pratense</i>		
7.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i>Ailanthus altissima</i>		
8. Euphorbiaceae	대극과		
	<i>Euphorbia supina</i>		
9. Onagraceae	바늘꽃과		
	<i>Oenothera odorata</i>		
10. Solanaceae	가지과		

특별기고



岩岩

-
- 정옥자 · 월사(越沙) 이정구(李廷龜)와 그의 시대
 - 최근묵 · 조선전기 서산지방의 사족
 - 이 훈 · 瑞山 富長里 遺蹟
-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와 그의 시대

정 옥 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월사 이정구는 사람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1564년(명종20년)에 태어나서 1635년(인조13년)에 별세하였다.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변화과정에서 볼 때 정치권이 물갈이되면서 사람이 정치주체가 되어 조선 전기에 누적된 문제점을 개혁해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문학사적으로는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토착화되고 학문적 성장을 이룸에 따라 조선 문사들의 일대과제인 도문일치론(道文一致論: 道와 文은 동전의 안과 밖처럼 일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이 탄력을 받으면서 궤도에 오른 시기이기도 하다. 목릉성세(穆陵盛世)로 일컬어지는 선조대의 사대문장가(四大文章家)들이 바로 도문일치의 이상적 경지를 이룩한 문인들이자 학자들이다.

월상계택(月象谿澤)으로 불리는 이들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상촌(象村) 신흠(申欽)·계곡(谿谷) 장유(張維)·택당(澤堂) 이식(李植) 등 네 사람의 호의 첫 자를 따서 호칭한 것으로 월사 이정구는 그 첫 번째 꼽히는 인물이다.

이정구가 활동을 시작한 선조대는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에 대체하여 사람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정권 교체기였다. 조선왕조가 200년 이상 경과하여 지배층의 물갈이가 시대적 요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조선전기 체제의 개혁

이 요구되고 있었다.

선조는 명종의 조카로 총명함과 학구적인 태도를 인정받아 명종의 사랑을 받다가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다. 중종의 손자이자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사가(私家)에서 성장하면서 성리학자인 한윤명(韓胤明) 등에게서 배워 그 이전 역대 어느 왕보다 성리학적 소양이 깊었다.

선조는 선왕인 명종의 뜻을 받들어 자신과 공감대를 공유하던 사람을 정계에 수용하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을사사화에 화를 입었던 이들을 복직시키고 난세를 피하여 숨어 있던 유일(遺逸)들을 초치하였다. 또한 기묘명현의 대표격인 조광조(1482-1519)를 영의정에 추증하여 선비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선조 자신도 학문에 열중하여 매일 경연에 나아가 경사(經史: 경학과 역사)를 토론하고 독서에 열중하여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에 통달하였는데 특히 주역(周易)을 좋아하였다 한다. 학문의 진작을 위하여 <유선록(儒先錄)> · <근사록(近思錄)> · <심경(心經)> · <소학(小學)> 등 성리학서와 윤리와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삼강행실(三綱行實)>을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한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는 대경장(大更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혁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는 퇴계 이황이 이루어 놓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토착화 작업에 성공하여 조선성리학을 이루어 낸 인물이다.

이들의 우주론인 이기론(理氣論)의 차이는 양자의 현실 대응 방식에도 뚜렷한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전자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주리론(主理論)적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의 일원론적 입장에서 주기론(主氣論)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여러 학설의 철학적 기초가 되어 현실 인식의 차이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이황이 이(理)의 드러남을 중시하면서 보편적 원론을 강조하였음에 비하여, 이이는 기(氣)의 다스림을 중시하면서 개별적 적용을 강조하는 차별성을 보였다. 정치 현실에서 이황의 제자들인 영남학파가 동인 정파로, 이이를 영수로 한 기호학파가 서인 정파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게 된 근본원인은 위와 같은 사상적 차이에 기인한다.

선조가 의도하던 신·구정치세력의 물갈이 작업 과정에서 선조 8년(1575)부터 영남학파가 모태가 된 동인과 기호학파가 모태가 된 서인으로 정파의 형성이

시작되고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에는 집권세력인 동인이 학문적 차이와 대서인 정책의 차이로 퇴계 이황계열의 남인과 남명 조식계열의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정권교체기에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어난 동아시아의 세계대전이 1592년부터 7년 동안 계속된 임진왜란이다. 조선왕조 최대의 시련이었다. 일본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통일국가를 이루고 그 막대한 군사력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 당시 동아시아의 주도국이던 명나라가 쇠미기로 접어들어 환관의 발호와 부정·부패로 내부적 붕괴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이를 틈탄 만주의 여진족이 흥기하고 있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일본의 통일을 이룩한 풍신수길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기회로 삼아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허황된 꿈을 갖고 있었다.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치러 하니 길을 빌려 달라.)」라는 구실을 내세우고 조선을 침략하였던 것이다. 이 전쟁은 7년이나 계속되면서 조선이 전쟁터 화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의 유엔군인 명나라의 원병(援兵)과 이순신의 해전에서 승리, 당시의 국민군인 의병(義兵)의 게릴라전의 성공으로 승전으로 종식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세계대전으로 위기에 처했던 조선은 정부와 국민 상하가 단결하여 왜적을 물리쳐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였던 것이다.

정치판은 자연히 물갈이 되었다. 전쟁 전까지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 세력으로 사림의 개혁 요구를 완강하게 막고 있던 구 정치세력인 훈구파가 완전히 몰락하였던 것이다. 전후 불타 버린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토지를 몰수당하였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여 정치적 명분까지 잃었던 것이다. 명나라에 구원병(救援兵)을 요청하고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을 움직여 의병을 조직하여 전쟁에 적극 대응한 사람 출신 관료들이 명실 공히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월사 이정구에게도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그는 국가 비상시국을 당하여 탁월한 문장력과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통으로 인정받으며 한 시대의 주요한 문제들을 풀어 나갔다. 임진왜란 중 나이 겨우 30에 중요한 외교문서를 전담하다시피 하였고 그 후에는 대명외교의 선봉에 섰다. 1598년 명나라 병부주사 정응태가 조선이 일본을 사주하여 명을 침범하려 한다고 무고

한 사건을 해결한 것도 그였다. 그는 탁월한 문장력으로 조선국변무주문(朝鮮國辨誣奏文)을 지어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능통한 중국어 실력으로 무고임을 밝혀 정응태를 파직시켰다.

결국 1601년(선조34)에는 문한의 최고 영예직인 문형(文衡)의 자리에 올랐다. 문형이란 글을 저울에 단다는 뜻으로 양관(兩館 :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의 속칭이다. 광해군 때도 문형을 맡아 문형을 두 차례나 역임하면서 “종백(宗伯: 예조판서)과 대명외교의 최고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예조판서에도 광해군대와 인조대에 등용되어 역시 두 번 역임하였다. 복인정권의 광해군 시대에도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광해군의 지지를 받으며 서인의 구심점으로 조정을 지켰다.

“열 정승이 한 대제학만 못하다.”는 말이 의미하듯이 조선왕조는 문치주의(文治主義) 이념을 실현하는 최고직인 대제학을 관직중의 으뜸으로 쳤고 이 직책은 청직(淸職: 글로서 벼슬사는 文翰官)중의 꽃이었다. 따라서 양관대제학인 문형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가문을 격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었다. 조선후기에 이러한 상징으로 ‘연이광김(延李光金)’이라는 명문의식은 그러한 기초위에 생겨 났다.

연안 이씨와 광산 김씨가 많은 문형을 배출함으로써 생긴 용어이다. 전자는 6명, 후자는 7명의 문형을 배출했지만 먼저 문형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문한가로서 명성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연안 이씨이다. 이정구를 비롯하여 그의 아들 명한(明漢)과 손자인 일상(一相)이 문형을 지내니 삼대가 문형을 지내는 삼대전문(三代典文)의 기록을 세웠고, 그 후로도 정보(鼎輔), 복원(福源), 만수(晩秀)가 문형의 자리에 올랐다.

이정구의 가정적 배경과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연안 이씨는 황해도 연안의 토성으로 이무(李茂)를 시조로 하여 세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정구는 이현려(李賢呂 : 1136-1216)를 중시조로 하는 판사공파로 함경도 안변에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었다.

판사공파는 조선전기 이석형(李石亨 : 1415-1477)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석형은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을 지어 대학 연구를 가학의 전통으로 삼은 학자이다. 이 전통은 이정구의 저술 <대학강의(大學講義)>로 나타났다. 이석형 이후 낙산 자락 동촌에 터 잡고 세거하였는데 이정구는 동촌 내에서도 성균관 맞은편에 있던 관동에 살면서 관동파라는 독자적 지파를 이루

었다.

이정구는 이석형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이계, 어머니는 광산김씨였다. 아버지 이계가 서산 음암 한다리 김문의 숙사로 갈 때 따라가서 김적(金積)과 함께 공부하였다. 나중에 처외조가 된 이이수(李頤壽)가 동암에 살고 있었던 연고로 그의 주선으로 예조판서 권극지(權克智)의 사위가 되었다.

그의 생애는 크게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성장기로 1564년(명종 20) 태어나 1589년(선조 22) 26세까지이다. 제2기는 출사기로 다음해인 1590년(선조 23)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가 승하하는 1608년(선조 41) 45세 까지이다. 처음 승문원에 등용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행재소에 선조를 따라가 설서가 되었다. 그는 대명외교의 실무를 담당하여 문장력과 중국어 실력으로 화국수(華國手)로 불리며 외교가로 명성을 날렸다.

제3기는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해로부터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그의 나이 45세부터 60세 까지이니 고난기로 규정할 수 있겠다. 복인정권 아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정에 남아 서인의 보루로서 외롭고 힘겨운 벼슬 살이를 하였다.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광해군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4기는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한 60세부터 1635년(인조 13) 72세로 사망하기 까지이니 전성기이다. 이 시기는 광해군대의 서인의 보루 역할을 평가받고 예조판서, 좌의정을 역임하며 서인의 원로로 대접받은 시기였다. 임진왜란 이후 또 하나의 대전인 병자호란을 일년 앞두고 별세하였으니 운이 좋다고 할밖에 없다. 조선후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지 못할 치욕으로 여긴 패전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니…….

그는 노장학이나 기예의 학 등 잡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문장학과 도학(道學)에만 관심을 기울여 서인의 도통 확립에 기여하였다. 조선전기 오현(五賢 : 김광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황)을 문묘에 종사한 연장선상에서 을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종사를 추진하였다. 이이의 행장을 짓고 1624년 인조반정 다음해에 이이의 시호를 문성(文成)으로 하고 영의정에 증직되도록 하였다. 우계 성혼의 복권운동도 병행하여 행장을 짓고 1632년에는 문간(文簡)의 시호를 내리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서인 의병장 조현과 고경명 등을 현창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정구의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응암(凝菴)이며 본관은 연안, 당색은 서인,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두 번씩이나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와 형조판서도 역임하여 다방면에 걸친 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인조반정 후 1624년 일어난 이괄의 난에는 왕을 공주에 호종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왕을 강화도에 호종하여 화친론에 반대하였다.

윤근수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의 학문은 아버지 이계의 영향으로 가학을 계승하였다고 생각된다. 저서로는 <월사집(月沙集)>·<서연강의(書筵講義)>·<대학강의(大學講義)>·<남궁록(南宮錄)>·<조천기행록(朝天紀行錄)> 등이 있다.

조선전기 서산지방의 사족

최 근 목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瑞山地方의 來居姓氏 |
| 2. 『湖山錄』에 대한 몇가지 知見 | 5. 瑞山地方 在地士族의 社會的 動向 |
| 3. 瑞山地方의 土姓 | 6. 맺음말 |

1. 머리말

충청남도의 서북단 태안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산은 동쪽 가야산맥이 예산군·홍성군 등과 경계를 이룸으로써 태안반도는 거의 완전히 내륙부와는 차단되었다. 필자는 오랫동안 호서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호서지방사 연구에 미력하나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내륙과 차단된 태안반도의 지역에 대하여서는 거의 문의한이다. 평소에 관심은 있었으나 답사나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산지방사에 대하여 무지했던 필자에게 서산향토연구회 이영하 회장님과 서산지방 향토사 연구의 원로이신 이은우님이 서산지방 향토사를 접할 기회를 주시어 감히 공자님 앞에 문자를 쓰는 자세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비록 필자는 서산의 향토사를 잘 알지는 못하나 서산의 지지(地誌)인 『호산록(湖山錄)』¹⁾을 중심으로 이 지방의 조선전기 사족의 동향을 살핌으로써 향토사 연구에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논고를 작성하였다.

끝으로 논고의 내용 가운데 부족한 점이나 오류는 향토연구회 회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2. 『湖山錄』에 대한 몇 가지 知見

서산의 지명은 기군(基郡) → 부성군(富城郡) → 서산(瑞山) 또는 서령(瑞寧)으로 불리다가 1413년(태종 13)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서산군으로 지명이 고정되었다.²⁾

『호산록(湖山錄)』에서 서산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산(湖山)은 본읍에 별도의 이름이다”³⁾라고 하면서 호산은 사서(史書)나 제영(題詠)을 통해 고증되지 않은 지명이지만, “유독 종친(宗親)들이 호산감(湖山監) 직함을 하사받은 자들이 본읍에서 거주하는데 본읍이 외지에 있는 고을로서 작호를 호산감으로 받은데서 유래하여 호산이 된 것이다.”⁴⁾라고 하여 종친의 작호인 호산에서 유래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왕실에서 서산에 사는 종친들에 호산이란 작호를 내린 것은 어떤 뜻에서였는지는 문헌자료를 통해서서는 상고할 수 없다. 호산이란 지명은 서산의 지형과 밀접한 관계에서 붙여진 것이 아닐지 유추해 보고 싶다.

서산은 호서(湖西)의 서북단 끝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호서란 지명은 충청도의 별칭으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지만,⁵⁾ 호서는 금강의 서쪽이란 큰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금강은 강보다는 큰 호수의 개념으로 호남(湖南), 호서(湖西)로 부르고 양호(兩湖)와 경기(京畿)를 통털어 기호(畿湖)로 별칭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이문중, 「17세기 초 서산지방의 지리적 상황」-『湖山錄』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2.

이은우, 『湖山錄』, 『瑞山の 문화』 제7호, 1995.

홍제연, 「16-7세기 서산지역의 사족동향」,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1997.

2) 『瑞山鄭氏家乘』單.

3) 『湖山錄』序文.

4) 위와 같음.

5) 최근목, 『湖西와 湖西名賢』, 『湖西儒學의 현대적 계승』,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2004.

서산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의 가로림만과 남쪽의 천수만은 바다이지만 산과 섬으로 둘러싸여 고요하고 넓은 호수와도 같다. 호(湖)는 水(水, 물)이 크다(호(湖)는 거(巨)와 통하여 크다는 뜻)는 뜻으로 통하고 서산을 둘러싼 바다는 큰 호수와 같다. 이 큰 호수 가운데 광주산맥(廣州山脈)이 일단 침강하여 평지를 이루다가 다시 융기하여 가야산, 팔봉산, 백화산 등이 우뚝 솟아 호수 위에 솟아난 산으로 지형적인 설명 이외에는 별다른 뜻이나 연유를 찾을 수 없는 명칭이기에 큰 호수로 둘러싸인 호산(湖山)이 아닐까 짐작해 봄직도 하다.

『호산록(湖山錄)』의 필사본이 발견된 것은 1987년이다.⁶⁾ 이 지지(地誌)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1872년 발간된 대산읍지와 1926년의 서산군지에서 이 책이 편찬된 사실만 전해 왔다. 『호산록(湖山錄)』은 서산지방에서 책이름만 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세기 초에 서산의 토착성씨인 서산정씨가 가승을 출판할 때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서산정씨(瑞山鄭氏)는 그 후손이 영남우도(嶺南右道)에서 크게 번창하여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망족(望族)이 되었다. 1819년(순조 19)에 서산정씨는 『서산정씨가승(瑞山鄭氏家乘)』을 간행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己卯(1819) “보성교정우곡인출해인사(譜成校正于梧谷印出海印寺)”라고 하여 해인사에서 간행하였다⁷⁾고 하였다.

서산정씨의 가승은 세보편년도(世譜編年圖)와 문무과(文武科) 및 사마(司馬) 합격자의 명단과 함께 정인경(鄭仁卿)의 행적을 『고려사』를 비롯한 모든 문헌에서 발췌하여 옮겨 실었다. 이들 자료 가운데 『호산록(湖山錄)』 곤(坤)의 고금인물조(古今人物條)의 정인경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보아 이 지지가 조선 말엽까지 실전(實傳)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산록(湖山錄)』은 1619년(광해 11)에 간행된 서산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찬읍지(私撰邑誌)이면서, 또한 충청도의 각 군·현의 읍지 가운데 최고(最古)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사찬읍지의 편찬은 16세기에 사림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향소복립운동·서원건립운동·향약보급운동 등과 더불어 향촌사회의 통제 및 수령의 치민책 강구와 지방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찬읍지에 대한 검

6) 『湖山錄』은 공주대 이문종 교수와 향토사학자 이은우님이 발굴하였다.

7) 『瑞山鄭氏家乘』單.

8) 이문종, 「17세기 초 서산지방의 지리적 상황」-『湖山錄』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2.

토는 찬자(撰者)인 사람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의 지방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호산록(湖山錄)』은 1507년 의성의 『문소지(聞韶志)』가 편찬된 이후 13번째로 편찬된 읍지이다. 현존하는 읍지로 가장 오래된 것은 정구(鄭逑)의 『함주지(咸州志)』(1587)이다.

사찬읍지의 제호(題號)는 지명(地名)에 지(志)·지(誌)·잡기(雜記)·제요(提要)·읍지(邑誌)로 칭하였는데, 유독 『호산록(湖山錄)』만이 록(錄)으로 제호를 하였다. 찬자인 한여현(韓汝賢)은 중국의 방지(方誌)인 『대명일통지(大明一統誌)』를 참고하였으므로 지방지(地方誌)에 대한 견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한여현은 서문에서

불령이 전현(前賢)들의 제작이나 배치하였음으로 인하여 일통지(一統誌)의 사실을 모방도 하고 예와 지금의 논설을 증거하며 겸하여 부노(父老)들의 선배에게 들었던 바를 수집하여 사건을 따라 조목을 나열하되 한가지의 선행과 한 치의 재능이라도 반드시 수집하고 반드시 기록 편찬하여 권질을 이루게 된 자는 감히 참담하다 말하지 않는다. 한 가지의 사적과 한 가지의 물건이라도 모두 기재하여 후일에 유실됨이 없이 고람하는데 구비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여 지방지의 체제를 모방하되 실록과 같은 사실의 기록에다 찬자의 식견이 가해진 것을 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호산록(湖山錄)』은 찬자인 한여현의 사적인 내용이 크게 가미되어 있다. 찬자인 한여현은 『호산록(湖山錄)』에서 자신을 불녕(不佞)이라 겸칭하고, 회(噫)·안(按) 등의 글자를 써서 사론(史論)을 서술하고 있다.

『호산록(湖山錄)』의 내용 항목을 통해 또한 몇 가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건권(乾卷)에는

道里遠近 建置沿革 郡名 姓氏 鄉校 祠廟 孔子世家 廟社 城隍祠 厲祭壇 東西里名 城郭 關防 烽燧 形勢 山川 土品 屯田 民俗 鄉風 鄉序堂 橋梁 場市 驛院 佛宇 樓臺 蓮堂 客官題詠 遊覽 古跡 海浦 海山 海湖 煮鹽 古今土主 徵兵檄書 壬辰年行宮 諭旨

등 3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곤권(坤卷)에는

古今人物 忠臣 孝子 節婦 寓居 韻驛 鄉所 清謹 下吏 清謹

등 9개의 항목을 이루고 있다.

『호산록(湖山錄)』의 내용별 분석은 홍제연의 연구에서 자당한 연구가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항목의 내용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자 한다.

『호산록(湖山錄)』은 지방사자료를 다른 사찬읍지에 비교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그 체제의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호산록(湖山錄)』은 당대 간행된 관찬지리지나 타지역의 사찬읍지에 비해 인물(人物)의 서술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건(乾)·곤(坤)의 두 권 가운데 곤권은 인물만을 수록하여 전체 분량의 절반에 해당된다. 인물에 대한 서술내용은 재지사족의 성씨별로 그 내력을 비교적 상술하여 이 지방 사족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서산지방의 토성(土姓)인 안(安)·정(鄭)·류씨(柳氏) 등 최망족(最望族)이 한미로 향소(鄉所)의 쇠퇴를 강조하여 재지사족이 약화되고 새로운 사족의 등장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찬자인 한여현의 가문을 특기하여 한씨(韓氏)의 가문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그 밖에도 『호산록(湖山錄)』은 다른 사찬읍지에서 보편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용어를 쓰고 있다. 읍선생안(邑先生案)을 고금토주(古今土主)로, 향사당(鄉射堂)을 향서당(鄉序堂)으로 표기하고 정인귀·안팔·장병격서를 특필(特筆)로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특필의 내용은 찬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찬읍지는 사림(士林)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림들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찬읍지의 편찬은 지방의 수령에 의해 편찬되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사찬읍지인 『함주지(咸州志)』는 정구가 편찬한 것이다. 정구가 편찬했거나 관계한 읍지는 『창산지(昌山志)』(1580)에서부터 『서도지(西都志)』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지방지이다. 정구가 임진왜란 중에 『관동지(關東志)』를 편찬하자 문인 최현(崔暉)이 그 이유를 묻자,

외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지의 편찬은 당연한 일이며, 부임한 고을에 대한 사정의 파악은 읍지만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전란의 상황에서 건문을 수습하지 않으면 장차 후에 어찌할 것인가.⁹⁾

9) 『寒岡集』 卷6.

라고 대답하여 읍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 수령으로서 치민의 방책이 읍지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한 사찬읍지는 이들 사람이 지방 수령으로 재임하면서 치민의 방책으로 읍지를 편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산읍지의 편찬도 이 경우와 별다를 것이 없다.

『호산록(湖山錄)』의 서문에

옛 본읍 현감 고경명(高敬命)이 불령을 불러 말하기를 이 고을에 사적을 증거하지 못함이 많다. 그대의 부친 상사공(上舍公)께서 본래 역사의 지식이 있고 또 옛 사람의 풍도가 계시었는데 어찌하여 이 『호산록(湖山錄)』을 저작하지 않았던가

라고 한 것을 보면, 고경명은 당대 이름난 사람으로 서산군수에 부임하여 사람의 예에 따라 치민의 방책으로 서산지방의 읍지를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의 역사적 사실을 잘 알 수 없어 이 지방 역사를 잘 아는 집안의 한여현에게 편찬토록 한 것이다. 『호산록(湖山錄)』의 찬자는 한여현이지만 이 책을 태동케 한 것은 고경명이다.

고경명은 호남사람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호남사람은 기본적으로 호남지방, 즉 전라도를 기반으로 중종대에 성립되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고경명은 호남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인 고운(高雲)은 조광조(趙光祖)와의 친교 때문에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파직된 적이 있는 호남사람의 초기 인물이다. 아버지 고맹영(高孟英)은 명종 때 사람으로 중앙에서 활약하였다. 호남사람의 학맥은 서경덕(徐敬德)과 송순(宋純)의 학통을 잇는 두 계열이다. 고경명은 정철·김천일과 함께 송순계열로 주로 서인으로 연결되었다. 고경명은 1588년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고, 이어서 공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형조좌랑·사간원 정언 등을 거쳐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는 여러 벼슬을 거쳐 1563년에는 교리가 되었다. 이때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인 이조판서 이양(李樛)의 전횡을 논하는데 호남사람인 부제학 기대승(奇大升)과 심강(沈綱) 등과 함께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파직되어 19년 동안 서용되지 못하였다⁹⁾.

9) 『寒岡集』 卷6.

그러다가 1581년(선조 14)에 영암군수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이듬해 서산군수로 전임되어 1년 동안 서산에서 근무하였다.

고경명이 서산군수로 부임한 것은 그의 나이 40세 때였다. 중앙의 연관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관직에서 파직된 후에는 향리에서 학문과 강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인계열의 인물들과 광범위한 교유를 했던 사림의 중진이었다. 이와 같은 그가 서산군수에 부임하여 사림 출신의 수령으로 서산읍지를 편찬하는 것은 정책의 방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호산록(湖山錄)』의 편찬은 사림 출신의 고경명의 기여한 바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서산지방에 사림파가 어떻게 영향하였는지는 현재 전하는 자료로는 잘 알 수 없지만¹⁰⁾, 사림의 지도적인 인물이 직접 현지에 있으면서 학문적 영향을 주는 것은 고경명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고경명은 서산군수에 재임하면서

군내에 특출한 자제 20세 이하 30여 명을 선택하여 서생 문성해(文成海)·박유일(朴惟一)·류지립(柳之立)·류민수(柳敏遂)와 그리고 나(읍지 찬자 한여현)까지 다섯 사람으로 하여금 동몽교사로 책정하여 식량과 반찬을 배급해 주고 조석으로 가르치게 하였으며 매달 상순·중순·하순에는 동몽교사가 각각 가르치던 학생을 인솔하고 일찍 관각(官閣)에 모인 다음 성주님이 친히 배운 글을 외우게 하여 통하는 자는 상을 주고 불통하는 자는 벌을 주었다¹¹⁾.

라고 하여 고경명은 고을의 자제를 교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같은 상황은 그가 고을의 식자들에게 학문적인 전수도 가능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고경명은 서산지방에 사림의 풍(風)을 일으킨 중심의 인물이기도 하다.

『호산록(湖山錄)』은 고경명이 고을의 내력을 잘 아는 가문의 후예인 한여현으로 하여금 그의 뜻에 편찬하는 과정에서

10) 『명종실록』 권29, 18년 8월 乙丑, 11월 辛巳條.

11) 李秉休, 『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 일조각, 1984. 이 책에 인용된 자료를 통해 보면 사림파와의 연관된 기술을 찾을 수 없다.

12) 『湖山錄』序文.

성주님께서 바야흐로 매각(梅閣(관청))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종이를 펴고 붓을 잡고 쓰다가 갑자기 왕명을 받고 전직하여 떠났고 우리 선친께서도 역시 오래지 않아서 하세하였으므로 호산록(湖山錄)이 드디어 이루지 못하였다¹³⁾.

라고 한 것을 보면 읍지 편찬 초기에는 고경명이 직접 편찬에 참여하였다.

고경명이 전직된 후 『호산록(湖山錄)』은 전적으로 한여현 개인에 의해서 편찬된 사찬읍지이다. 그러므로 이 읍지는 한여현의 식견이 읍지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서산정씨가승(瑞山鄭氏家乘)』에 정인경(鄭仁卿)의 행적을 이미 간행된 문헌을 통해 인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된 기사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한자의 자획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가승과 읍지의 다른 점은 쪽수이다. 읍지에는 한 쪽에 불과한데 가승은 한 쪽에 이어 3쪽의 분량이 더 기재되고 있다.

『호산록(湖山錄)』은 전하여 오는 과정에서 침삭이나 보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이 책이 수필본으로 전하여 진다는 점에서 서지적인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瑞山地方의 土姓

토성은 지방에 토착하고 있던 재지 씨족집단의 성씨를 말한다. 토성의 전신은 신라 이래 각 읍에 토착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씨족집단이다. 토성은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 역대 지배세력을 제공하는 공급원의 구실을 담당하였고, 재지토성은 군현사를 중심으로 향리의 상층부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토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425년에 완성된 『경상도지리지』이다. 이 책은 경상도의 내용을 다룬 것이다. 서산지방의 토성기록은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서산군의 토성은 류(柳)·송(宋)·두(杜)·문(文)·전씨(全氏)와 촌성(村姓)으로 방씨(房氏)와 속성(續姓)으로 박씨(朴氏)이다. 이

13) 『湖山錄』序文.

밖에 지족의 안(安)·이(李)·문씨(文氏), 촌성으로 박씨(朴氏)가 있고, 기타 지역의 망성(亡姓)이 있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성씨조에 토성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고적조에 토성 또는 토성이민이라는 용례가 몇 군데 발견될 뿐이다. 이후 각 지방지나 관찬지리서에서 토성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리지나 읍지의 성씨조는 대체로 토성을 지칭하고 있다.

서산지방의 성씨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씨는 정씨(鄭氏)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토성에 기록되지 않은 정씨가 이후에 편찬된 모든 기록에 포함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씨가 군현향직을 장악하고 있던 재지향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산정씨는 고려말에 중국에서 입향한 성씨로 서산에 도착하면서 본관을 형성하고 중앙에 진출하였다. 서산 정씨는 고려후기 본래적인 토성과 그 성격이 달랐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서산정씨가 토착이후 서산지방에 크게 번창하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된 몇 성씨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서산지방은 중앙정치에서의 소외로 권력과의 연결을 거의 갖지 못했기에 향촌사회의 주도권(향권)에 집착하는 현상이나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한 향안·향약·동계 같은 향촌 조직 등을 통하여 그 동향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서산지방은 이 같은 자료가 현존하지 않고 더욱이 필자가 현지답사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문헌자료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은 아쉬운 일이다.

1) 瑞寧柳氏

서산지방의 토성집단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성씨는 서령류씨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된 서산지방의 토성중 관찬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서령류씨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6년(1424) 3월 11일조에 서산호장 류술(柳誦)과 관련된 형조의 보고가 수록되어 서령류씨가 이 지방의 호장층으로 향촌의 유력한 지배세력이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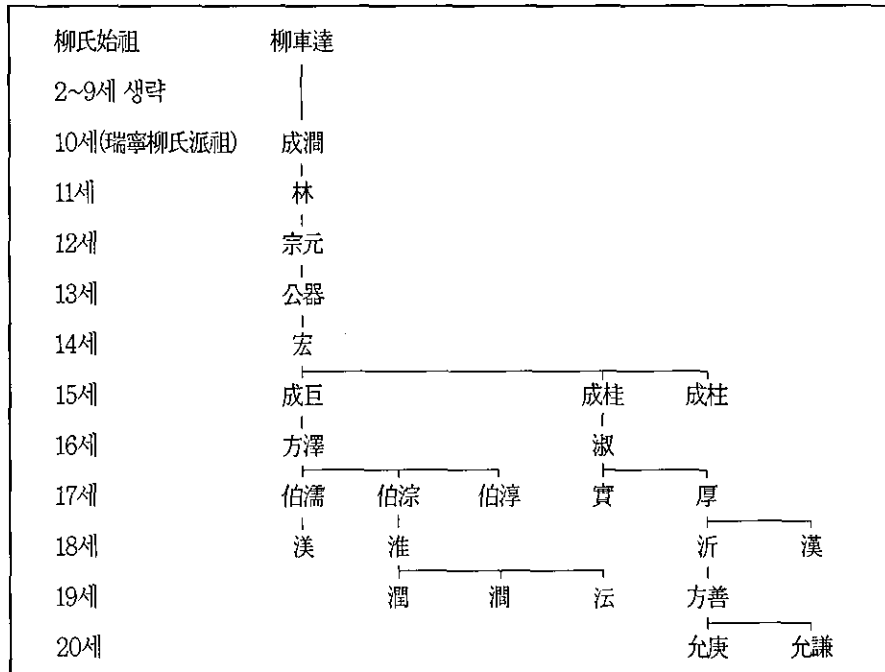
『호산록(湖山錄)』의 고금인물조에서 서령류씨는 류숙(柳淑)¹⁴⁾을 필두로 증조인 류공기(柳公器), 조부 류굉(柳宏), 부친 류성계(柳成桂)와 아들 류실(柳實)¹⁵⁾, 류

후(柳厚), 류실의 아들 셋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몇쪽을 넘겨 서령류씨의 파조로부터 가계를 기록하고 있다.

서령류씨의 파조는 류성간(柳成澗)으로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으로 봉하여 서주 사람이 되었다고 고금인물조에 기록하고 있다. 이어 7대손 류백순(柳伯淳)¹⁴과 직제학의 5대손인 류침(柳枕), 아들 류민수(柳敏遂), 직제학의 7대손인 류흡(柳洽)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호산록(湖山錄)』에서 서령류씨에 대한 기록은 류숙을 정점으로 그의 증조부에서 아들까지 5대에 걸쳐 함께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유숙의 종질인 류백순을 중심으로 파조인 유성간에서 류백순의 7대손에 이르기까지 함께 서술하고 있다. 서령류씨의 가계도를 참고로 이들 씨족의 분거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瑞寧柳氏 世系圖



14) 柳淑 1324(충숙왕11)~1368(공양왕17), 고려의 문신으로 자는 純夫, 호는 思庵, 1340년 과거에 급제하여 安東司錄으로 시작, 여러 벼슬을 거쳤다. 樞密院使로 安社功臣이 되었다. 홍건적의 난 때의 공으로 忠勤節義贊化功臣의 호를 받았고, 僉議評理에 올라 瑞寧君에 봉해졌다.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文僖이다.

15) 柳實 류숙의 아들, 홍건적의 난 때 세운 공으로 2등공신이 됨. 고려말 왜구의 침입에 여러번 공을 세웠으며, 密直副使商議를 지냈다.

서령류씨는 16세인 류방택(柳方澤)과 류숙(柳淑)의 두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류방택은 류백유(柳伯濡)와 류백순(柳伯淳)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류백유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고려말 신구세력의 대립속에서 1391년(공양왕3) 판전의사사(判典儀寺事)로서 전제개혁을 반대하여 광주로 유배되었다가 조선왕조 개창후 左司諫大夫가 되었다. 서산류씨가 광주지방에서 크게 번창한 것은 류백유의 후손들에 의한 것이다. 류백순은 중앙에서의 명망이 지방의 향권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산지방의 서령류씨는 대부분 류백순의 후손으로 서산지방 토성으로 오래도록 재지사족의 지위를 유지하여 향권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호산록(湖山錄)』에서 서령류씨로는 서두에 기록된 류숙은 그 후손이 서산지방에서 크게 번창하지 못하였다. 류숙의 증손자인 류방선(柳方善, 1388~1443)은 1409년 아버지 류기(柳沂)가 민무구(閔無咎)의 옥사에 관련된 것으로 연좌되어 청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영천으로 이배되었다. 그는 영천에서 두 번이나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유배생활 중 영천의 명승지에 ‘태재(泰齋)’라는 서재를 짓고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류방선은 정몽주·권근·변계량을 잇는 영남성리학의 학통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는 구실을 담당한 것이다. 그가 잠시 원주에서 생활하던 동안 서거정(徐巨正)·한명회(韓明澮)·권람(權攄)·강효문(康孝文) 등 문하생을 길러내 영남에서 이름 높은 유현(儒賢)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그 후손들이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 세거하게 되었다.

서령류씨는 본거지인 서산과 류백유 계열의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류방선 계열의 경상도 등 세 곳을 중심으로 하여 분거하였다. 이들 씨족의 분거양상은 사마방목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마방목에 서산류씨로 생원·진사합격자를 보면, 서산 4명, 광주지역 19명, 경상 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瑞山鄭氏

서산정씨는 서산의 토착성씨는 아니다. 토성은 대체로 군현의 호장층으로 재

16) 柳伯淳 ?~1420(세종2)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1406년 대사성이 된 뒤 生員試員이 되었다. 左司諫大夫를 지낸 뒤 仁寧府尹이 되었고 經史를 통달하여 國學長官을 지냈다.

지사족으로 성장한데 반해 서산정씨는 송나라 말기 서산에 내거하여 서산을 본관으로 한 성씨이다. 토성이 기록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서산정씨가 기록되지 않고 『동국여지승람』이나 『호산록(湖山錄)』의 성씨조에 기록된 것은 이같은 연유에서이다.

『호산록(湖山錄)』인물조 첫머리에 서산정씨 시조인 정신보(鄭臣保)와 아들 정인경(鄭仁卿) 두 사람의 기록뿐이다. 서산정씨가 인물지에 시조와 그 아들 두 사람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들 성씨가 서산지방에 토착했다기 보다는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정신보는 중국 송나라 인물로 나라가 망하자 바다를 건너와 1237년 서산의 간월도(看月島)에 살다가 대사동(大寺洞)으로 이사가 서산정씨의 시조가 되었다.

정신보는 연주(麟州, 지금의 의주)의 수령을 지내고 그의 아들 정인경(鄭仁卿)이 중앙에서 크게 활약하였다.¹⁷⁾ 정인경(고종34, 1237~충렬왕 31, 1305)은 처음 몽고어 통역관으로 출발하여 1184년에 부성현(富城縣)에 폐현되어 운주(運州)에 예속되었던 것을 1284년에 서산(瑞山) 또는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시키고, 1283년에는 친종장군(親從將軍)으로 심양에 가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을 추쇄하였다. 이듬해 다시 대장군으로 요양과 북경에 가서 유민을 추쇄해 오고 동녕부를 원나라에서 되돌려 받아 오는데 공을 세웠다. 그는 박상삼한삼중대광추성정책안사공신(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의 호를 받았다. 서산정씨는 정인경 이후 서산에서 水原으로 옮겨 살다가 고려가 망하자 경상도 金山(김천의 인근 금릉군)에 삶의 터를 옮겨 경상도에 뿌리를 내렸다.

고려말 조선초 사족의 이동은 본관지에서 상경 종사하다가 지방으로 세거지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족들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처변이나 외조변의 분금에 의한 이동이 대부분 이었다. 서산정씨도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략 이런 경로였을 것으로 본다.

서산정씨가 경상도 지방에 근거하였음은 사마방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7) 정인경은 『高麗史』列傳을 비롯한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표 1] 서산정씨 생원·진사 합격자 거주지

시기 \ 거주지	京	지례(김산)	거창	합천	함양	초계	계
중종	2						2
명종		1	1	1			3
선조		2		4	1		7
광해				2	1	1	4
계	2	3	1	7	2	1	16

서산정씨는 본관지인 서산에서는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산(金山)으로 세거지를 옮긴 이후 합천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경상도 서산정씨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인홍(鄭仁弘)이다. 그는 1613년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으로 봉해지고 1618년 인목대비 유폐사건으로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참형되고 가산이 적몰당하였으며, 끝내 신원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산정씨는 생진과 합격자를 전라도 장성에서 단 한명만을 배출하고 있다.

시조 정신보의 유적에 현판이 붙은 것은 1588년(선조 21) 현감 김대덕(金大德)에서이다. 그리고 서산정씨의 보(譜)를 교정하여 해인사에서 인쇄한 것은 1819년(순조 19)이다. 서산정씨는 외래하여 서산을 본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성씨는 서산에 토착하는 토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지적 기반은 컸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신보와 그 아들 정인경이 중앙정계에서 큰 활동을 하면서 서산에서 수원, 그리고 김산으로 이동하면서 경상도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상도 서산정씨의 대표적 인물인 정인홍이 몰락하면서 그 후대에는 큰 명성을 얻지 못하였다.

3) 其他姓氏

『세종실록』지리지의 서산지방 토성은 류(柳)·송(宋)·두(杜)·전(全)씨가 기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두(杜)·전(全)씨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볼 수 없어 송(宋)·문(文)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된 서산송씨는 훈도 송계령(宋桂齡)을 칭송하는 행적이 있고, 동분에 살고 있는 송효명(宋孝命)에 대한 내용이 전부다. 송효명(宋孝

命)은 광주목사를 지냈다. 아들 송유미(宋惟微)는 생원으로 동분에 살았는데 아들은 없고 외손인 이유직(李惟直)과 황위(黃瑋)가 서산에 살았다. 송유미는 생원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사마방목의 서산지방 합격자 명단에는 누락되고 있다. 외손인 이유직은 서산지방에서 세거한 종실 변성수(邊城守)의 손자로 충청병사를 지냈다. 황위는 그 내력을 알 수 없으나 『호산록(湖山錄)』에 황유성(黃有誠)이 향임으로 수령을 경계했던 사실과 황희춘(黃希春)이 이유인(李惟仁)¹⁸⁾의 매부로 황필대(黃必大) 등의 기록을 통해 토착세력으로 보인다.

서산송씨는 서산지방에 세거하는 종친의 후손, 토착세력인 황씨 등과의 혼인 관계를 형성했던 재지세력이었다. 그러나 사마방목이나 타 문헌에 기록된 것이 없는 것으로 서산지방에서 타 지역으로 이거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본군과 지곡의 토성으로 기록된 문씨(文氏)는 합덕이 본관이다. 『호산록(湖山錄)』에는 문성해(文成海)가 인물조에 간략하게 기록되었으나 다른 인물의 기록에서 그의 행적을 살필수있다. 문성해는 서산의 세거 성씨인 한(韓)·류(柳)·이(李)·朴(朴)·김(金)씨 등의 재지사족과 교류하면서 1575년 서산의 유생들과 연명하여 향교를 이전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재지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 文應璧이 1546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서산의 합덕문씨의 성쇠는 기록에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지곡(地谷)의 토성인 안(安)씨는 『호산록(湖山錄)』에 세종대 화가 안견(安堅)이 지곡인(池谷人)임을 밝히고, 안보희(安輔熙)가 호조판서를 지냈고 자손은 한미하였다는 것으로 재지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4. 瑞山地方의 來居姓氏

『호산록(湖山錄)』 곤권(坤卷) 우거조(寓居條)에 서산지방에 래거(來居)한 성씨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물은 대체로 임란전후에 서산에 내거하여 『호산록(湖山錄)』의 찬자인 한여현과 친분을 갖고 있던 인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각 군현의 토성(土姓)이 기록된 이후 여러 지지류의 성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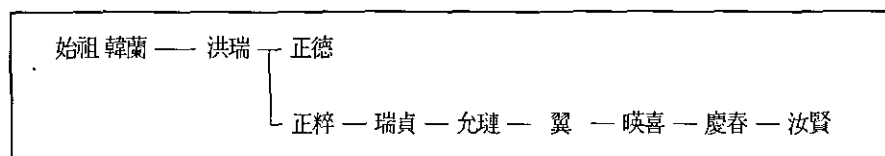
18) 이유인은 定宗의 6대손이다.

조에 토성의 개념은 사라졌다. 토성은 여말선초에 각 군현에 토착하여 본군을 본관으로 한 성씨들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성씨 이외는 모두 내거한 성씨로 분류되어야 한다.

1) 淸州韓氏

청주한씨는 『호산록(湖山錄)』의 인물조에서 서산정씨·서산류씨에 이어 세 번째 기록되는 성씨이다.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된 한씨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湖山錄』의 淸州韓氏 家系



청주한씨는 한홍서의 아들인 한정덕(韓正德)이 개령에서 본읍의 사지촌(蛇池村)에 입향하고 동인 한정덕(韓正德)의 묘가 탄동(炭洞) 원수선(元守善)의 집뒤에 있다고 하였다. 청주한씨는 한정덕(韓正德) 형제가 서산에 입향하여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그런데 서산에 세거하는 청주한씨는 한정수(韓正粹)의 후예로 『호산록(湖山錄)』에는 읍지의 찬자인 한여현까지 직계인 7대까지 7명의 행적만을 기록하고 있다.

읍지 찬자인 한여현은 1603년(선조 36)에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할아버지 한영희도 1561년(명종 16)에 합격했다. 그런데 사마방목의 본관 기록에는 한영희는 면천한씨, 한여현은 청주한씨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들 한씨가 면천지방의 토성으로 혼연을 통해 서산지방에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내거 성씨인 청주한씨는 명종 때에 이르러 재지세력으로 성장하여 서산지방의 재지사족으로 기반을 확립하면서 세거사족이 되었다.

2) 慶州金氏

『호산록(湖山錄)』의 인물조에 정·류·한·안·송씨 다음에 경주김씨를 기록하

고 있다.

안주목사를 지낸 金堧이 서울 저동에 살았다. 아들 김호설(金好說)이 1564년 (명종 19)에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효릉참봉을 지내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와 한여현 부자를 비롯하여 재지 사족들과 함께 의병을 모아 활동하였다. 김호열이 임란에 고향에 돌아왔다는 사실로 보아 그 부친때부터 서산에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김씨는 조선후기 서산지방의 유력한 사족으로 성장한다. 그 내용은 다음에 언급되는 사마방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全州李氏

전주이씨는 『호산록(湖山錄)』에 13명이나 되는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이씨는 정종의 10남 덕천군의 증손 변성군(邊城君) 이계연의 아들 이이수(李頤壽, 경상도병사), 이기수(李期壽, 가산군수), 이학수(李鶴壽, 비인현감), 이연수(李鸞壽, 길주목사) 등 4형제와 이학수의 아들 이유검(李惟儉, 초계군수), 이유직(李惟直, 충청병사) 형제와 이봉수(李鵬壽)의 아들 이유성(李惟誠, 북병사)과 그 아들 이승길(李承吉, 판사), 이윤길(李胤吉, 초계군수), 이중길(李重吉, 승문원 정자) 등 세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유인(李惟仁)과 아우 이유명(李惟明), 그리고 이유인의 아들 이순(李淳)의 행적과 또다른 이수(李秀)의 기록이 『호산록(湖山錄)』에 기재된 전주이씨 인물이다.

전주이씨인 종친이 서산에 입향하는 것은 변성군 이계연이 서산의 토착세력인 송씨와의 혼인관계일 것으로 본다. 전주이씨는 서산에 토착하면서 서산지방의 유력한 재지 사족과의 연혼을 통하여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향촌에서 큰 영향을 주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전주이씨의 변성함은 『호산록(湖山錄)』 산천조의 소담봉(疎淡峰)에

소담봉은 군청 동쪽 십리에 있다. (중략) 그 양지쪽에는 이병사 유성의 선영이 있다. 이씨가 가장 본읍에서 번성하였는데 병사 이이수 네형제가 한시기에 등과하고 일가 친척 및 자손파의 종손파에서 아울러 10여명이 등과한 분이 있어서 혹 판서·혹 병사·혹 수령·혹 생원·진사·혹 남반이 대대에 끊이지 않았다.

라고 하여 전주이씨 가문에서 많은 현관을 배출하면서 이들의 재지적 위상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방에는 이들 전주이씨 이외에도 또 다른 종친들이 세거하고 있다. 그리고 당진·태안·예산·해미 등에서 해택(海澤)과 시지(柴地)로 왕실의 후손들이 분쟁이 있었음을 조선후기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서산을 비롯한 주변의 군현에서 보이는 궁방전(宮房田)이나 어전(漁箭)·염분(鹽盆)·시지(柴地)의 분쟁의 사실로 보아 종실의 후손이 이 고장에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지 않았는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4) 其他姓氏

『호산록(湖山錄)』의 우거성씨 이전에 기록된 성씨로 토성인지, 내거 성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몇 개의 성씨기록이 있다.

조희침(趙懷琛)은 진사에 합격했다고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됐으나 서산지방의 사마방목에서 찾을 수 없다. 아우 조희영(趙懷瑛)이 본읍 화변리에서 살았고 아들 경록(景祿)·경희(景熙)·경호(景祐)와 경희 아들 조안방(趙安邦) 훈련도정(訓練都正)에 이르기까지 조씨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향은 알 수 없으나 서산에 세거한 사족이다.

강몽서(姜夢瑞)는 생원·진사에 합격한 이로 덕천마을에 살았고 아버지 이운(李胤, 영산현감)도 진사로 임진왜란 영산에서 활약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강흡(姜洽)은 향임(鄕任)을 맡아 풍속의 교화에 힘썼다. 강씨는 서산의 토착세력인 재지사족으로 세거했으나 『호산록(湖山錄)』이외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호산록(湖山錄)』의 우거조에는 조존세(趙存世), 한효순(韓孝純), 곽설(郭說), 이흡(李洽), 김지남(金止男), 이광국(李匡國), 이사의(李士毅), 임정노(任廷老), 신괄(申括), 안열(安烈), 원충량(元忠良) 등의 가족 이름과 살던 곳을 밝히고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여현과 교분을 갖고 있었다. 우거성씨는 임란전후에 서산에 입향하여 재지사족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5. 瑞山地方 在地土族의 社會的 動向

여말선초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사족의 이동이 다르게 되었다. 토착세력인 호장층(戶長層)은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하여 새로운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토착세력은 재지에서 상경종사하고 정권의 변동과 새로운 지배계층으로서 유력한 사족계층과 혼인을 통하여 京에서 지방으로 이거(移居)하는 현상이 많았다.

서산지방에는 여러 성씨의 토성이 세거하였다. 이 가운데 류(柳)씨와 정(鄭)씨가 저명한 성씨였다. 류씨는 지방의 호장층(戶長層)으로 서산에 세거한 성씨이고 정씨는 고려말 중국에서 유입하여 서산에 관향을 두게 된 성씨이다. 서산류씨는 관향지에서 상경종사한 파와 재지에 세거한 두 부류로 나눌수 있다. 경관직에 진출한 서산류씨는 대개 혼연으로 전라도와 타 지역에 입향하여 현관을 배출하였다. 서산지방에 세거하는 류씨는 현관의 배출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은 『호산록(湖山錄)』에서 류별감(柳別監), 향임(鄕任) 류흡(柳洽)의 기록으로 보아 서산에 세거하면서 주로 향임을 맡았던 토착세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산정씨는 본관지에서 상경종사, 그리고 지방으로 이거하는 과정에서 주로 영남의 합천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재지에서는 이렇다 할 영향이나 사족으로의 활동을 찾아 볼 수 없다.

서산지방은 중앙에서 소외되었던 먼곳으로 조선전기 현관의 배출이나 유현의 출현은 없었다. 서산지방에 사림(士林)의 향풍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서산군수로 재임한 고경명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고경명이 서산군수로 부임한 시기는 그가 학문적으로 성숙하고 중앙에서 이 름난 유현과 교분을 가지면서 그 자신도 사람의 명망을 받았던 때였다. 그가 재지의 사족 자제를 교육하고 『호산록(湖山錄)』의 편찬을 한여현 부자에 맡기면서 그는 유지 편찬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고경명의 학문과 사상이 한여현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여현의 사림적인 성향은 『호산록(湖山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여현은 『호산록(湖山錄)』에서 서산의 향풍이 어지러워짐을 한탄하면서 유향소의 퇴폐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다.¹⁹⁾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된 향서당(鄕序堂)에 새로운 좌목(座目)을 만들어 좌우의 벽상에 걸도록 하였다.²⁰⁾

한여현은 당대 사람들이 수행했던 것 가운데 읍지를 편찬하고 사람의 향풍을 진작시켰다. 그리고 그는 재지사족과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한여현은 서산지방에 향풍을 진작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손 꼽을 수 있다.

서산지방의 새로운 사람의 향풍 진작은 재지사족의 향권주도에서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서산지방에 내거한 성씨인 청주한씨와 경주김씨가 새로운 재지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재지사족의 변동은 다음표의 문과방목과 사마방목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²⁰⁾

[표 2] 서산지방 성관의 왕조별 문과급제자

	정조	연산	광해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철종	고종	계
서산 유	1										1
덕수 이		1									1
청주 한			1			2	2	1	1		7
진주 강			1								1
경주 김				1		1				2	4
수원 최					1						1
연안 이						1					1
여흥 민						1	1				1
함평 이							2				1
풍천 임								1			2
공주 이											1
남양 홍										1	1
여주 이										1	1
계	1	1	2	1	1	5	5	2	1	4	23

19) 『湖山錄』 鄉風條.

20) 위와 같음.

21) 문과급제자와 생원·진사 합격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湖山錄』에 기록된 상당수의 생원·진사 합격자를 본 CD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湖山錄』 古今人物條.

* 충청도 각 군현별 문과 급제자 분포

충주(193), 청주(153), 공주(117), 홍주(56), 진천(54), 단양(53), 온양(45),
 보령(49), 옥천(35), 화덕(32), 목천(32), 아산(30), 보은(29), 대흥(25),
 서산(23), 니산(22), 서천(21), 천안(21), 문의(21), 괴산(21), 예산(18),
 임천(17), 한산(17), 결성(16), 부여(16), 청양(16), 전의(14), 제천(14),
 영동(14), 해미(14), 연산(14), 직산(11), 면천(10), 은진(10)
 1,223(전국대비 13.23%) / 전국 11,747

위와 아래의 표에서 서산지방의 재지세력이 한씨와 김씨가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서산지방의 향권을 주도한 세력이 되었다.

서산지방의 사족 가운데 전주이씨의 종실 후예는 크게 번창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향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행실이 좋지 않은 류별감이란 자를 종실의 후예인 이순(李淳)이 강신회(講信會)에 크게 꾸짖은 것이다. 전주이씨는 생원·진사시와 문무과에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고 현관도 많아 서산지방에서 현족으로 재지의 지도적인 사족으로 영향하였다.

조선 후기 서산의 재지세력은 청주한씨·경주김씨가 크게 번성하여 향권의 주도를 담당하고 전주이씨도 가문의 성함을 배경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토착세력은 쇠퇴하고 신향(新鄕)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여 서산지방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방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향(新鄕)의 재지세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표 3] 서산지방 성관의 왕조별 생원·진사시 급제자

	연산	명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서령 류	1	1	1			1									4
합덕 문		1													1
청주 한		1	1					2	6	1	2				13
경주 김		1		1		1	1		9	3	2	1	1	2	22
홍주 문			1												1
전주 이				1			1			1				2	5

	연산	명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여주 민				1							1			2	4
덕수 이				1										1	3
영광 김					1										1
평양 조							1								1
한산 이							1								1
안동 김							1								1
수원 최							1								1
문화 유							1								1
동래 정								1							1
연안 이									2	1					3
안동 이									1						1
함평 이									1	1					2
원주 원										1					1
밀양 박												2	2		4
소수성관															10

* 소수성관 : 광산김 · 영월엄 · 남양홍 · 파평윤 · 광주안 · 순흥안 · 풍천임 · 수원백 · 연안김

6. 맺음말

조선전기 서산지방의 사족의 동향에 대하여 『호산록(湖山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은 4절의 내용으로 대신한다.

본 논고를 작성하면서 현지 답사나 한정된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부족함을 느꼈고 그 내용 역시 부족했음을 절감한다. 다만 중앙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족의 존재 양태를 살피며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기해 봤다는 자그마한 위안을

삼는다.

본고를 작성하는데 중심이 된 『호산록(湖山錄)』이 충청도 읍지로는 최고의 것임은 모두 공인한다. 그러나 그것이 수필본으로 전하여 오고, 또 다른 면에서 『서산정씨가승보』를 보면 이 읍지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가승에 인용된 내용은 현존하는 읍지와 분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가승보가 경상도의 서산정씨가문에서 출간되고 그 연대도 백년이 조금 넘는 시기인 것으로 또 다른 『호산록(湖山錄)』이 세전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부족한 내용의 글을 실어 준 서산향토문화연구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빈다.

瑞山 富長里 遺蹟

이 훈

(충남역사문화원 문화재연구부장)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사내용
- III. 특징과 의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부장리 유적은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산 46-1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백제시대 분묘유적이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원래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지역 이었는데, 아파트 공사에 앞서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백제시대의 분묘·마을유적이 확인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서산지역은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끼고 있어 태안지역과 더불어 바닷길이 크게 열려 있는 곳이다. 고대에 있어서 모든



[그림 1] 조사지역 위치도(S=1:50,000)

문물의 교류가 주로 바닷길을 이용하였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서산 지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은 이곳에서 일찍부터 토착세력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실제로 서산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유적 24개소, 신석기시대 유적 2개소, 구석기시대 유적 4개소 등 모두 30개소의 선사시대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¹⁾

이러한 사실은 역사시대로 접어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여서, 삼국시대 유적 14개소가 확인된 바 있다.²⁾ 여기서 말하는 부장리 유적도 그 중 하나다.

부장리 유적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인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최근에 새롭게 확인된 유적이다. 비록 제한된 공간에 대한 조사에 그쳐 부장리유적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분구묘 13기, 주거지 39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 주목을 끄는 것은 13기에 달하는 분구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구묘가 한 자리에서 대규모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분구묘를 중심으로 하여 부장리 유적의 발견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사내용

1. 지리적 환경

서산시는 충청남도의 서북단 반도부에 해당하며, 동경 126°2′~126°39′, 북위 36°24′~37°1′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예산군·당진군, 동남쪽은 홍성군, 서쪽과 북쪽은 서해에 접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해상 교통이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수산업이 성황을 이루던 곳이다.

서산지역의 자연환경은 광주산맥이 침강하였다가 다시 융기한 지형으로 가야산(677.6m)·팔봉산(362m) 등 두 줄기의 구릉성 산지가 남북으로 배열된 수지상의 반도이다. 대체적인 지형은 市の 동쪽지역에 있는 가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내포지역과 서산·태안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곳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성왕산(252m), 부춘산(186.7m), 팔봉산(361.5m)의 구릉성 산지가 연속되어 서산시의 주요 산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산시 북쪽에는 망일산(302.2m)

1) 이남석, 「고고학 자료로 본 백제시대의 서산지역」, 『서산지역 문화발전 연구원 추계 정기 학술발표회 요지문』, 2005, 5~6쪽.

2) 이남석, 위의 논문, 6쪽.

이 솟아 있으며, 남쪽에는 도비산(351.6m)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산의 주변에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서해쪽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어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적인 지세로는 큰 하천이 없는데, 주요 하천으로는 해미면의 궁현보 천과 고북면의 남정리 천이 있다.

한편, 지질은 결정편암계로 되어 있고, 토양은 황갈색 삼림토이며 낙엽활엽수 혼합림대에 속한다. 기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의 영향을 받으나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 지역보다 춥다. 연평균 기온 11.8℃, 1월 평균기온 -2.7℃, 8월 평균기온 25.6℃이고, 연 강수량은 1,155mm이다.

조사 지역인 음암면은 서산에서 당진으로 가는 길목으로 32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다. 또한 대교천과 덕지천이 흐르고 있어 밭과 논, 과수원 등이 형성되어 있다. 부장리는 서산시의 동쪽부로 저 구릉성 산지와 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교천의 집수지인 성암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부지는 저구릉성 산지로 관상수를 심기도 하였으며, 주변에는 산지를 절단하여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망재'로 불리우고 있는 곳이다.

2. 고고학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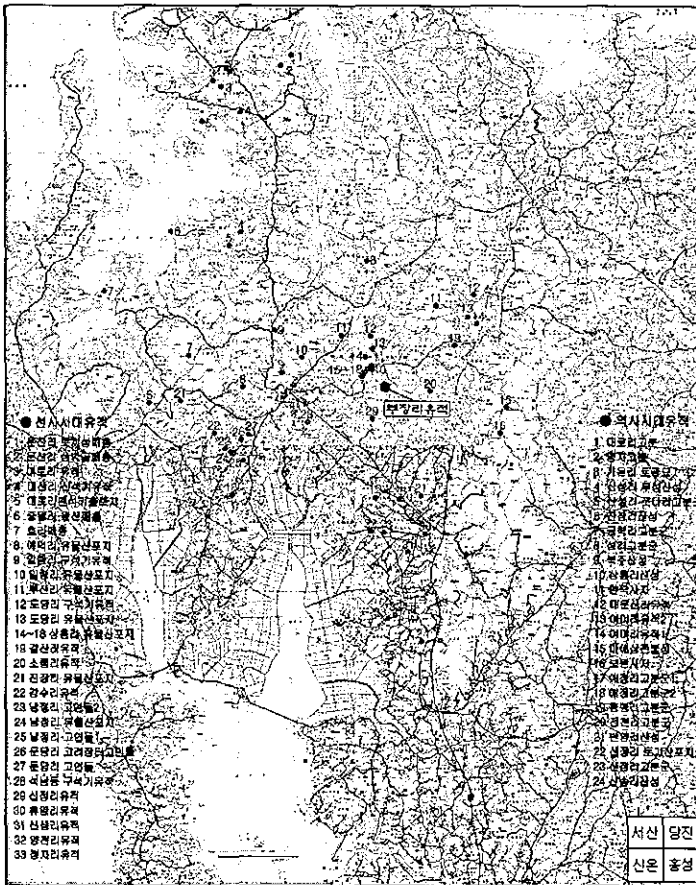
조사지역을 포함한 서산의 동부지역은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반면에 또한 예산군과 경계를 이루는 가야산이 뻗어 있어 높고 낮은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서산지역은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비롯하여 역사시대에는 중국과의 교통로적 관문으로써의 입지적 특성으로 다양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우선 시대별로 유적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선사유적 가운데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석남동·성연면 일남리 유적³⁾에서 밀개와 굽개가 출토된 예가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바

3)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유적 동편에 남북방향으로 뻗은 국도가 포장되기 이전에는 좀더 높은 구릉이었으며, 이 구릉에 올라서면 주변을 관망하기 좋은 곳이라 하여 '망재'라 불렸다고 한다.

4) 안승주·윤용혁·이남석, 1991, 『瑞山·泰安文化遺蹟』(상), 서산문화원.



[그림 2] 부장리 유적 주변 유적 분포도(S=1:50,000)

닷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산리⁵⁾, 웅도리⁶⁾, 대죽리⁷⁾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죽리 패총에서는 화덕과 불탄 흔적을 중심으로 형성된 20여 개의 생활면에서 각종 토기와 석기편이 확인되었고, 대산리 패총에서도 갈돌과 갈판이 수습되었다.

5) 서산시, 1998, 『서산시지』.

6) 安承周·尹龍赫·李南奭, 1991, 주 1)의 책.

7)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1997, 『서산현대정유(주) 대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해미 휴암리⁸⁾, 대산을 대로리⁹⁾에서 집자리가 발굴된 예가 있으며, 인지면 남정리 고인돌, 인지면 둔당리 고인돌, 고북면 용암리 고인돌 등의 분묘유적¹⁰⁾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산을 대산리 마제석촉 출토지, 고북면 가구리·장요리 선돌 등 많은 관련 유적지가 있다.

서산지역에서 역사시대의 유적이 알려진 것은 1969년 대산을 명지리에서 백제시대의 토광묘¹¹⁾가 확인되면서 부터이다. 분묘유적으로는 대산을 기은리 고분군, 영탑리 고분군과 해미면 산수리 고분군, 지곡면 젓다리 고분군, 팔봉면 금학리 고분군 등이 있다. 그리고 관방유적으로는 부성산성, 북주산성, 신송리산성 등이 있다. 한편, 불교유적으로는 서산마애삼존불을 비롯한 보원사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삼한시대의 서산지역은 마한의 치리국국(致利鞠國)에 해당되며, 백제시대에는 지육현(知六縣)이었다가 신라시대에 지육현(地育縣)으로 되었다.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로 중국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부장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분구묘라는 특수한 묘제의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유사한 성격의 주변 유적으로 응평리 고분군, 전천리 고분군, 신정리 토기산포지 및 신정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들 유적들도 현지인들에게 전해지기로 ‘말무덤’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었으며, 부장리 유적의 분구묘와 같은 분묘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명지리유적을 비롯하여 서산지역 가운데에서도 근·현대 대규모 간척사업 이전에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높게 분구를 조성하는 분구묘가 묘제로써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에 발굴 조사된 운산면 여미리 유적¹²⁾과 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 상흥리산성 및 청동기시대 유물이 확인된 상흥리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8) 윤무병·한영희·정준기, 1990, 『休岩里』, 국립중앙박물관.

9) 한영희, 1984, 『서산 대로리 움집터 유적』, 『중도전전보고』Ⅴ, 국립중앙박물관.

10) 李隆助外, 1996, 『瑞山地域의 先史遺蹟』, 『瑞山地域 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瑞山文化院.

11) 金永培·韓炳三, 『瑞山 大山面 百濟土壙墓發掘報告』, 『考古學』2, 韓國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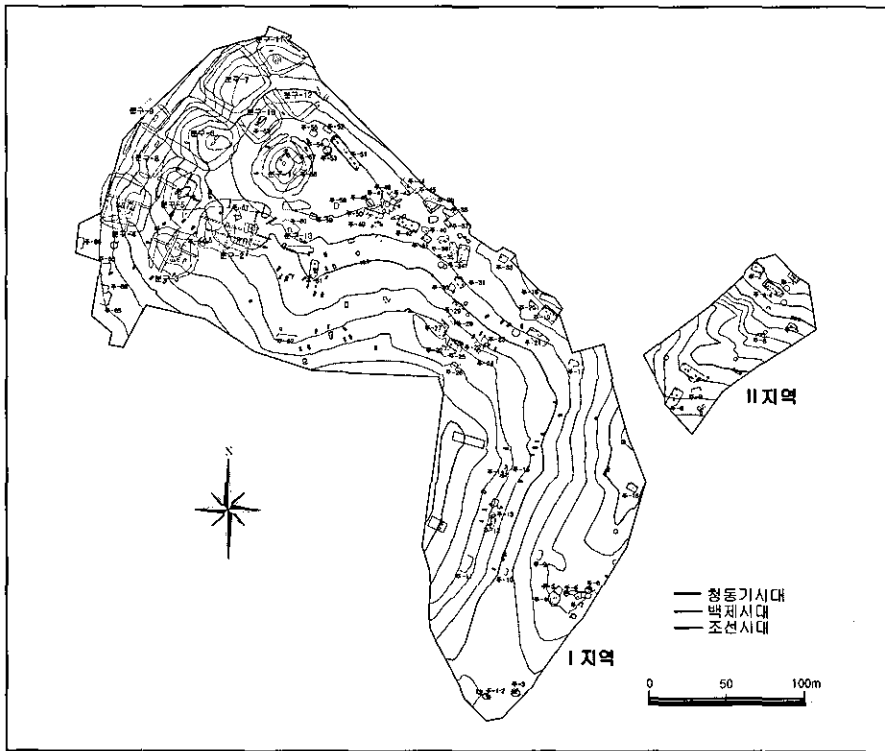
12) 李尙燁, 2001, 『瑞山 餘美里 遺蹟』, 忠清 埋藏文化財 研究院.



부장리유적 주변전경(서남에서)



부장리유적 전경(서남에서)



[그림 3] 부장리유적 유구배치도

3. 조사내용

금번 조사는 조사의 편의상 기존의 소로를 중심으로 I 지역과 II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러한 지역 구분이 유구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구릉상에 입지한 취락들의 성격은 오히려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함께 이해하는 것이 유적의 이해에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 조사내용의 기술은 시대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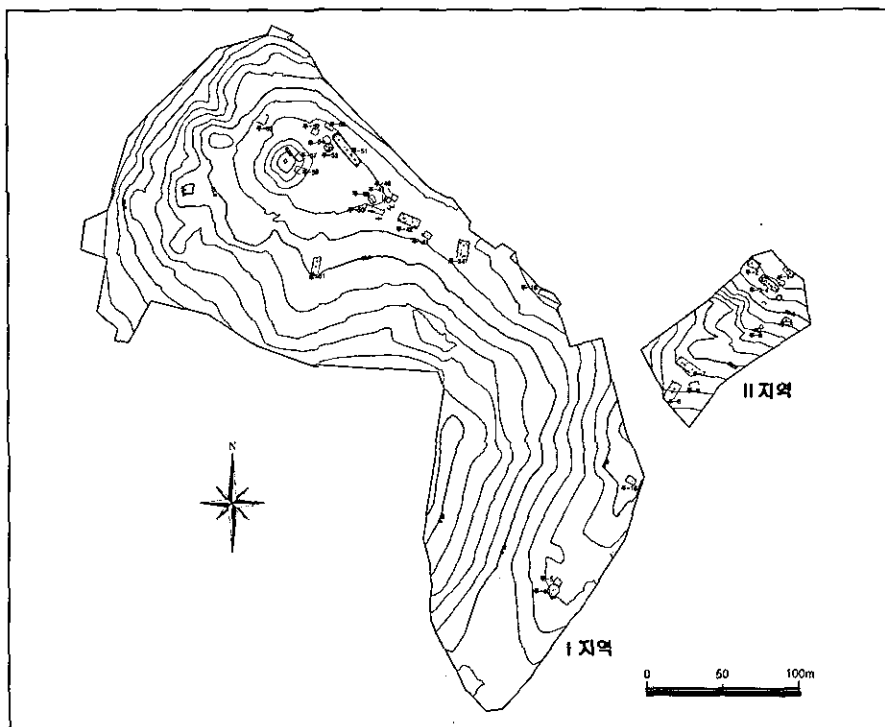
전술하였다시피 서산 부장리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총 220여기이며, 이 가운데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와 수혈유구로 총 33기이다. 백제시대 유구는 주거지와 분구묘, 수혈유구, 석곽묘 등으로 총 62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등의 유구로는 주거지와 토광묘 및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94기가 조사되

었다. 마지막으로 유물이 출토되지 않거나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등이 30기 조사되었다. 시대별로 각 유적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구는 총 33기로 그 가운데 주거지가 27기, 수혈유구가 6기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I 지역에서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주거지가 16기, 방형이 2기, 원형주거지가 1기 조사되었다. II 지역에서는 모두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주거지로 모두 9기 조사되었다.

장방형의 주거지는 주거지 바닥에 불규칙한 주공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무시설식의 노지와 토광형의 노지가 한 주거지에 혼재되어 있거나 혹은 무시설식 노지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장벽과 단벽의 하단부에 벽구를 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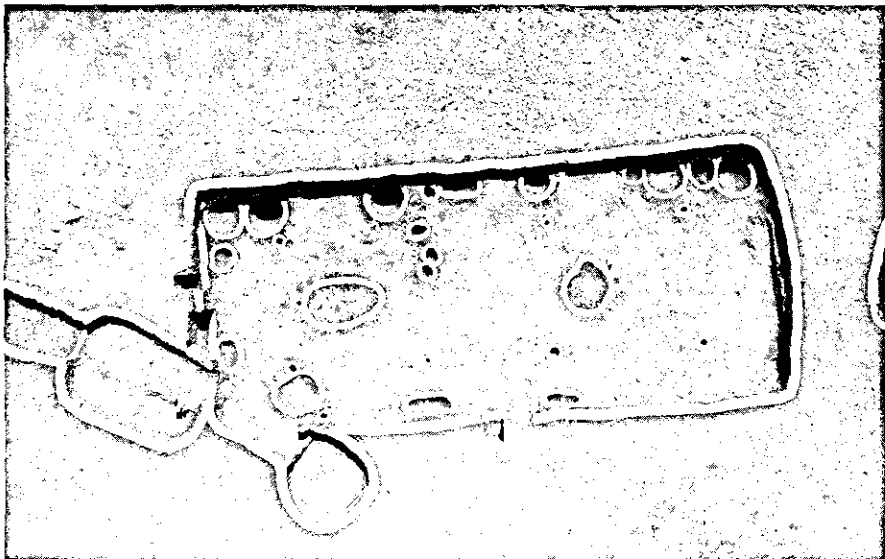
[그림 4] 부장리유적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

있는 것(I-S-51)도 일부 확인되었다. 바닥 시설로는 노지 이외에도 저장공이 다수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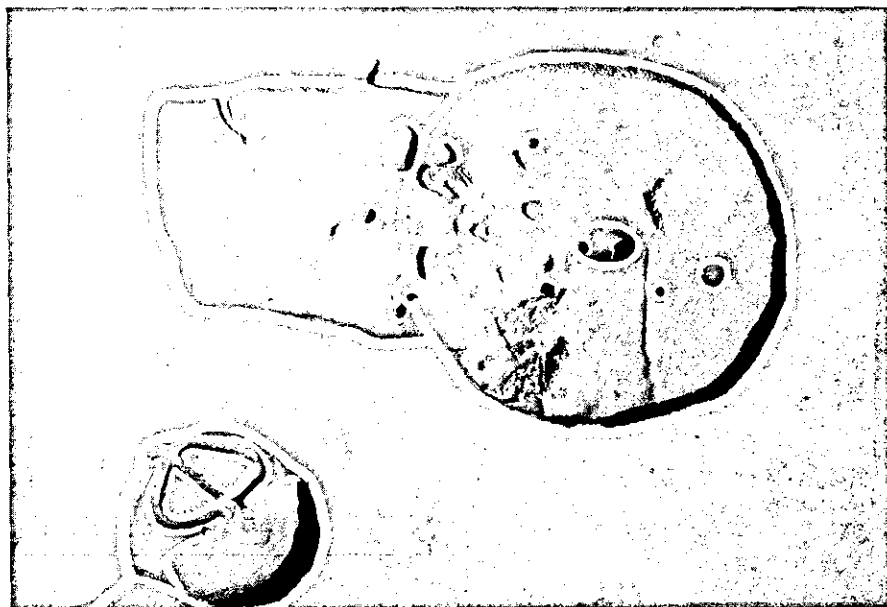
장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유물로는 이중구연 단사 선문토기, 구순각 목문토기, 공열문토기, 이중구연 단사 선공열문토기 등 다양한 구연부 문양조합을 보이는 토기가 조사되었다. 토기 기종은 심발형토기, 호형토기, 웅형토기, 발형토기, 적색 마연대부호, 적색 마연호, 대부흑색 마연호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조합된 석기로는 이단 경식석촉, 일단 경식석촉, 석창, 양인석부, 반월형석도 등이 공반되었다.

장방형 주거지의 다수가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들로 주거지 내부에 불에 탄 기둥과 함께 당시의 유물들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청동기시대 전기의 건축과 마을, 그리고 토기 등의 유물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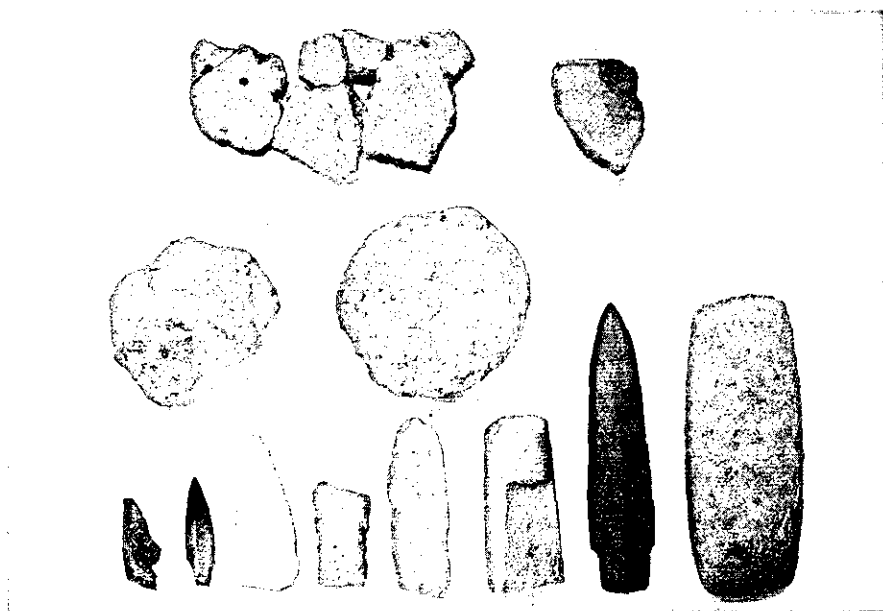
방형주거지와 원형의 주거지는 모두 3기로 I 지역의 능선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중앙에 타원형의 수혈을 가지고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로 판단된다. 방형의 주거지 2기 모두 중앙수혈과 연결된 구(溝)시설이 바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익산 영등동, 보령 관창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원형의 주거지는 장방형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바닥상면에 목탄층이 두껍



I-42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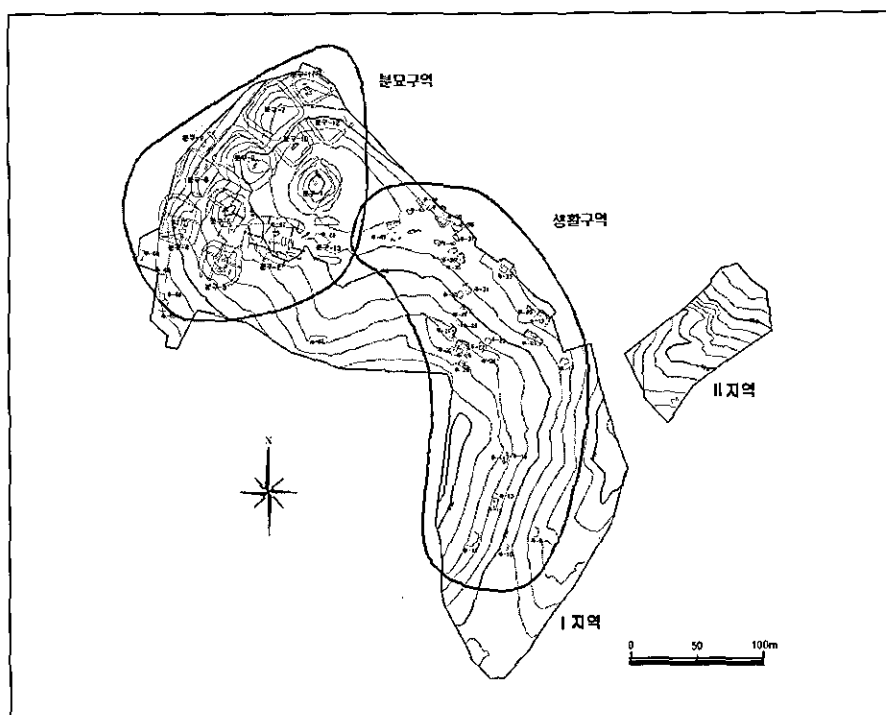
1-4호·5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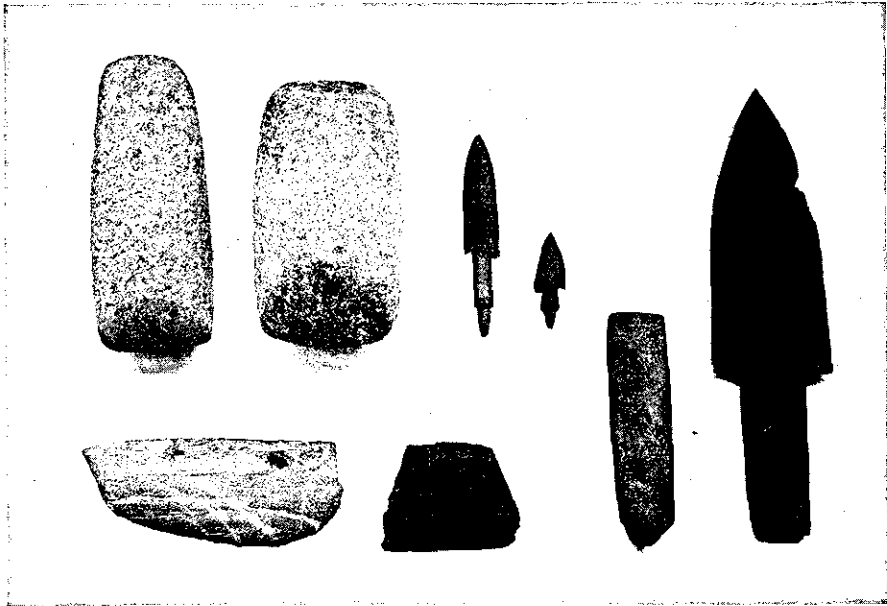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품



II-5호 출토유물



[그림 5] 부장리유적 백제시대 유구배치도



II-5호 출토유물

게 덮여 있는 화재형 주거지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취락과 수혈유구의 입지는 모두 구릉 능선상부로 전형적인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2) 백제시대

백제시대 유구는 총 62기로 주거지가 39기 분구묘 13기, 수혈유구 16기, 석곽묘 1기 조사되었다. 백제시대 유구는 공간분포상 생활유적군과 매장유적군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분묘군이 유적의 서쪽 능선부와 경사면을 이용하고 있다면 생활유적에 해당되는 주거군은 주능선의 중앙 남사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구묘는 6호, 8호, 9호 분구묘의 주구가 일부 중복된 것 이외에 묘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13기가 축조되어 있다. 분구묘는 한변이 20~40m정도인 방형의 주구가 돌려져 있다.

그리고 대상부는 성토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많게는 3~4m정도가 남아 있는 것도 있다.



분구묘군 전경(북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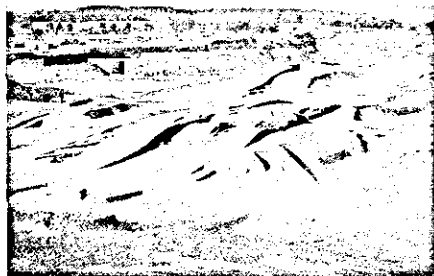


분구묘군 전경(남에서)

매장시설은 모두 토광묘로 목곽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목관묘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하나의 분구 내부에서 매장 주체부가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9기의 매장시설이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일단 말각방형의 형태로 굴광된 이후에 그 내부에 매장시설을 안치하고 그 위에 흙을 채워넣은 형태의 것과 단순히 수직굴광하여 목관을 안치한 형태 등 서로 다른 매장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

내부 출토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직구단경 원저호, 광구 원저호, 광구장경 원저호, 원저호 등이 출토되었으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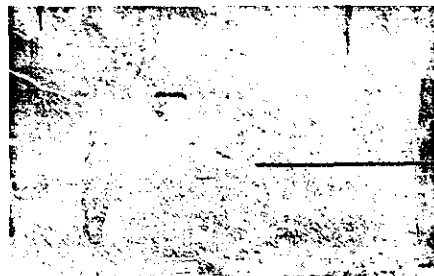
분구묘 3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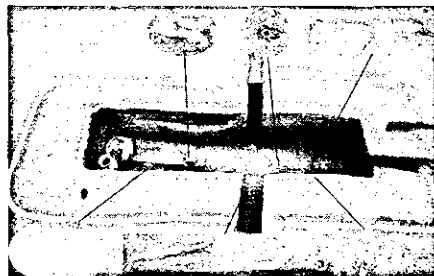
분구묘 3호 유물노출 전경

부 독특한 소형토기도 출토되었다. 철제유물로는 환두대도와 철부, 철검, 철도자, 철모 등이 확인되었으며, 8호 분구묘에서는 이엽의 환두대도가 출토되었으며 이와함께 철모와 도자 등 다양한 철기류와 동제식리가 출토되었다. 장신구는 8호 분구묘에서 3점 정도의 구슬과 고리형 이식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I 지역의 중앙 남사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총 39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이며, 4주식의 주거지와 불규칙한 주공배치를 보



분구묘 8호



분구묘 8호 토광1호 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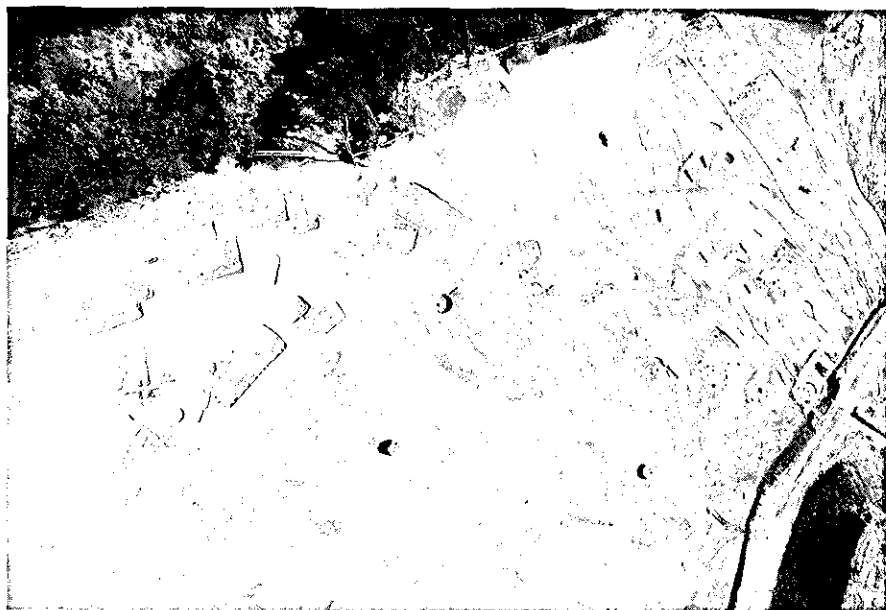


분구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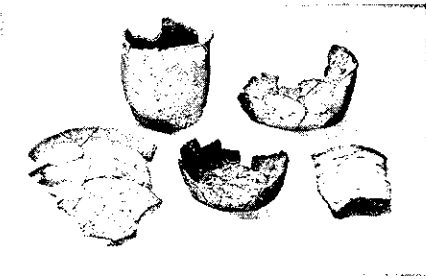


분구묘 출토 철제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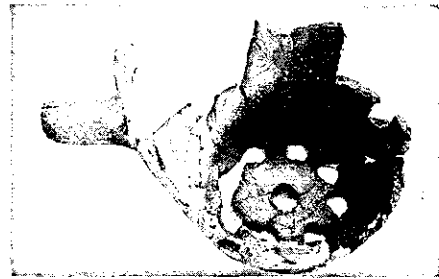
이는 것들도 함께 조사되었다. 부뚜막 시설은 일부 주거지에서 확인되거나 일부 교란된 토양 상부에서 주거형태가 없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내부시설로 벽구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등이 있다.



백제주거지군 전경(북서에서)



백제주거지 출토품 1



백제주거지 출토품 2

3)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구로는 주거지와 토광묘 수혈유구가 있으며, 총 94기가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주거지는 7기로 모두 한쪽 벽면에 부뚜막과 구들시설이 있는 평면형태 부정원형의 것이었다. 구들은 총 주거지 면적의 1/3에서 1/2정도의 면적에 고래의 상부를 기와나 할석을 얹은 것이다. 부뚜막은 주거지의 중앙부근에 바닥을 약간 파고 양측에 돌로 간단하게 틀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편 등 자기편과 기와편 등이다.

토광묘는 회곽묘와 토광묘로 대별되며 총 83기 가운데 1기만 Ⅱ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은 Ⅰ 지역의 구릉상부와 남서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구조는 간단히 굴광하여 회곽을 시설하거나 바로 관을 넣은 것으로 특별한 구조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44호의 경우 묘광 바닥 네 모서리 부분에 구덩이를 파고 각기 백자접시로 뚜껑을 덮은 단지가 출토되었으며, 그 외에 일부 요갱(腰坑)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유물은 청동합, 손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그 외에 4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별다른 시설이 없는 구덩이로 내부에서 자기편과 옹편이 출토되었다.

4) 기타유구

시대미상의 유구는 모두 30기 정도이며, 모두 형태가 부정형하거나 교란이 심해 그 양상을 파악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 가운데에는 부뚜막 만이 퇴적토 가운데 확인된 것도 1기 있으며 불을 사용한 흔적 이외에는 무엇도 알 수 없는 유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추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 연대와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특징과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산 부장리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총 220여 기다. 그 중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와 수혈유구로 총 33기, 백제시대 유구는 주거지와 분구묘, 수혈유구, 석곽묘 등으로 총 62기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선 시대의 주거지와 토광묘 및 수혈유구도 94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이 출토되지 않거나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대 미상의 수혈유구도 30기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적들은 모두가 서산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중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백제시대 분구묘다. 분구묘는 6호, 8호, 9호 분구묘의 주구(周溝)가 일부 중복된 것 이외에는 묘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13기가 축조되어 있다. 한변이 20~40m정도의 크기로 방형의 주구(周溝)가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높이는 낮은 것도 있지만 3m 이상 되는 높고 큰 것도 있다.

매장 주체시설은 모두 토광묘로, 목곽을 사용한 것과 목곽 없이 목관만 사용한 것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구묘는 하나의 분구 내에 매장 주체부가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9기의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이 가장자리를 둘러싼 주구(周溝)와 더불어 가장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 분구 안에 한 사람, 혹은 부부합장으로만 이루어진 일반적인 백제시대 무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남지역의 대형 옹관묘라고 부르던 무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부장리에서는 옹관을 매장 주체시설로 한 유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모두가 토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토광묘는 일단 말각방형의 형태로 굴광된 이후에 그 내부에 매장시설을 안치하고 그 위에 흙을 채워넣은 형태의 것과 단순히 수직 굴광하여 목관을 안치한 형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 출토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직구단경 원저호, 광구 원저호, 광구장경 원저호, 원저호 등이 출토되었으며, 일

부 독특한 소형토기도 출토되었다. 철제 유물로는 환두대도와 철부, 철검, 철도자, 철모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8호 분구묘다. 여기에서는 이엽(二葉)의 환두대도와 함께 철모, 철도자 등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철기들과 함께 동제식리(銅製飾履)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백제고분에서 식리가 나온 것 부터가 대단히 드문 일이지만 동제(銅製)의 식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호분에서는 이 외에도 3점 정도의 구슬과 고리형 이식 등 장신구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확인된 부장리유적 중에서 가장 화려한 유물이 출토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 8호분 이야말로 부장리를 포함한 서산지역 재지세력의 대표자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아울러,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나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분구묘의 존재와 거기서 출토된 식리와 환두대도 등 화려한 유물은 부장리 세력이 백제 왕실과 버금가는 힘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IV. 맺음말

서산 부장리 유적은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전언에 따르면 근대까지도 해미와 음암면 일대에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해상교통의 관문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들에 의해 ‘망재’라 불리우는 곳으로, 주변보다 다소 높아 주변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선사시대 이래로 인류 문명형성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이래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의 유적이 중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지형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부장리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중기까지 점유된 유적으로써 일명 혼암리 유형의 전기취락과 송곡리 유형의 중기 주저지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산지역에서

기존의 발굴사례가 거의 없었던 청동기시대 전기 및 중기의 문화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백제시대의 유구로 분구묘와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일단 이들의 공간 배치상의 차별성은 분묘구역과 생활구역의 구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당시의 취락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 할 수 있다.

셋째, 분구묘는 기존에 천안지역에서 1기가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특히, 성토한 부위가 잘 남아있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주변의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등 기존에 알려진 불교유적, 그리고 지표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변의 동일한 분구묘들의 존재와 비교해 볼 때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위상과 문화적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분구묘는 지금까지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충남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던 것인데, 크고 높게 남아 있는 분구와 더불어 그 안에서 출토된 화려한 유물은 부장리를 포함한 서산지역 재지세력이 백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높은 위상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 後記

원고가 탈고된 다음에 부장리유적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동관과 철제 초두가 출토되었다. 금동관이 출토된 유적은 5호분으로 독립된 분구묘인데, 목곽묘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목곽 안에는 목관이 시설되었는데 목관 안에서 금동관모와 철제 초두, 곡옥과 구슬, 금제이식, 환두대도와 함께 토기류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금동관은 용과 인동문을 투조한 것으로 보이며, 앞면의 세 개의 잎사귀 형태의 장식과 뒷면의 방패모양의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2003년도 공주 수촌리 유적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형태나 규모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철제초두는 술이나 약을 대우는데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몸체가 토기호와 같고 뚜껑도 갖추어져 있는 등 형태로 보면 초호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금동관과 초두는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부장리 5호분이 이 지역의 수장층의 무덤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회원의 연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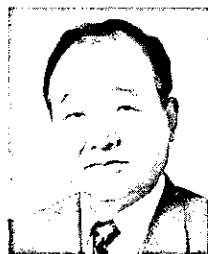


雁行

-
- 이은우 ·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暫星壇)
 - 신상찬 · 대산 평신진 터(平薪鎭 址) 고찰
 - 리명구 · 서산 시가지(瑞山 市街地)의 기능지역(機能地域) 변화에 관한 고찰(考察)
 - 정환호 · 甲午更張 이후 近代 戶籍制度에 대한 考察
 - 조성옥 · 개심사 대응전 단청
 - 편세환 · 잠업의 역사적 고찰과 서산지역의 양잠
 - 류충식 · 과선각(過仙閣)에 대한 재조명
 - 김기현 · 김기현 가옥에 대한 고찰
-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

이 은 우
(서산향토연구회 회원)



《 목 차 》

1. 머리말
2.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 현황
3.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江華島 摩尼山 塹星壇)
4. 참성단(塹星壇)의 의미
5.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의 보존관리역사
6. 맺는 말

1. 머리말

웅도리(熊島里) 참성단(塹星壇)은 최근까지 마을 전 주민이 모여 매년 10월 상달이면 무속(巫俗)의 주관 아래 제천행사(祭天行事)를 해오던 곳이다. 그러나 차츰 주민들의 도시진출과 이런 행사에 대한 열기가 식어 어느 때 부터인가 이것이 단순히 미신을 믿는 허례허식으로 잘못 인식됨인가 그 제천행사(祭天行事)가 끊어져 버리다시피 했다. 이 참성단(塹星壇)의 규모는 작지만 강화도(江華島)에 있는 마니산 참성단(摩尼山 塹星壇)과 같은 것이다.

필자는 고향이 지곡면 화천리(地谷面 花川里)이기에 어려서부터 마을 뒷동산에 오르면 웅도리(熊島里)가 한눈에 바라다 보였다. 웅도리(熊島里)를 멀리 바라다보면 섬의 중앙 정상(中央 頂上)에는 그곳에만 푸른 송림이 있어 툭 튀어 나온 모습이 흡사 사람의 몸에 있는 배꼽처럼 보였으므로 사람들은 배꼽 섬이라 불렀다.

당시 어른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섬의 배꼽이라 칭하는 송림(松林)은 아름다리 소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1973년 그 곳에 들러 이장의 안내를 받아 가보니 그 소나무들은 자연 고사되 없어지고 제천행사(祭天行事)를 하던 누석단(累石壇)으로 된 참성단(塹星壇)도 원형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성단(塹星壇)의 수축과 전통 제천행사(祭天行事)가 계속되기를 권하였으나, 다시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언 30여년이 흘러갔다. 이제 다시 그곳 웅도리(熊島里)를 방문 조사 이 제천행사(祭天行事)가 갖는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 현황

웅도리(熊島里)는 가로림만(加露林灣)내에 있는 1,58ha의 작은 섬이다. 주민은 61가구에 남자 83명 여자 78명 계 161명이다. 1974년 통계 연보에 의하면 남자 137명 여자 143명 계 280명의 많은 주민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웅도리(熊島里) 역시 도시 진출로 119명의 인구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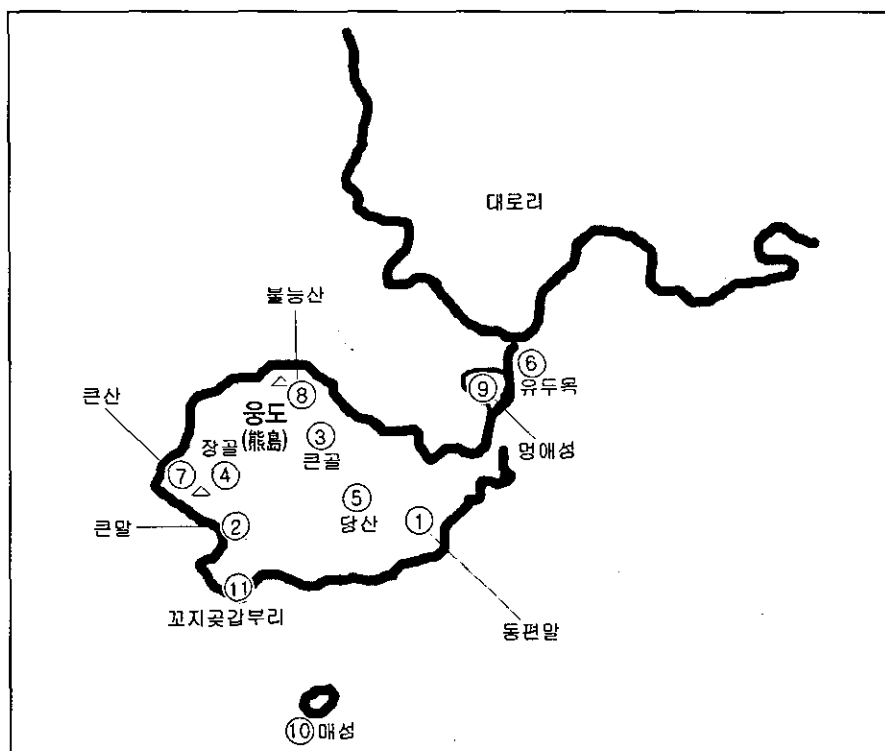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

지금은 대산을 대로리(大山邑 大路里) 1리와 연육(連陸)되어 있지만 연육되기 전인 1974년 이전에는 바닷물이 크게 썰 때가 아니면 도보로 직접 건널 수 없고 나룻배로 건너야 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제는 예전보다 생활여건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인구는 크게 감소된 것이다.

작은 섬이지만 섬에는 비교적 높은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은 이 세 개 산 봉우리 중 동편에 위치한 높이 80m의 제일 높은 당산(堂山) 봉우리 정상에 위치해 있다.

1973년 필자가 보았던 것으로는 가로 1.5m 세로 3m 정도의 장방형 형태의 누석단(累石壇)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최근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 정상 누석단(累石壇)이 있는 주변은 50여 평 넓이의 주변 땅이 제초로 잘 정리 되어 있고 누석단(累石壇)은 작은 양의 돌무더기로 되어 있었다. 지금은 흥00(80세), 이00(45세) 두 무속(巫俗)인에 의하여 관리 된다고 한다.



웅도리 지도

3.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江華島 摩尼山 塹星壇)

이 참성단(塹星壇)은 강화군 화도면 남단에 위치한 마니산(摩尼山 486m)의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단(壇)은 정사각형의 석단(石壇)으로 규모는 지름이 8.7m 가로6m 세로6m의 정사각형으로 쌓여진 자연석 기초로 된 제단으로 되어 있다. 이 참성단(塹星壇)은 고려 중기부터 문헌에 나타나는데 단군(檀君)의 제천제단(祭天祭壇)으로 알려지고 존송되어 왔다. 하지만 몇 번이나 수축(修築)되었으므로 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제천제단(祭天祭壇)보다 전국체전(全國體典) 때 성화(聖火)가 채화 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을 오르는 데는 918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지금은 매년 가을 10월 3일에 강화군수(江華郡守)가 제관이 되어 유교식으로 제천의식(祭天儀式)을 거행 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봄과 가을로 두 번씩 농사와 관계되는 제사를 지내왔다. 그때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은 도교식(道教式)이었다 한다. 마니산(摩尼山)은 한국 제일의 생기(生氣)처여서 이곳에 단군(檀君)의 참성단(塹星壇)을 만들었다고 전해 진다.

또 이 마니산(摩尼山)은 대종교(大倥敎)의 대표 성지로서 마리산, 마이산, 머리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4. 참성단(塹星壇)의 의미

(1) 웅계(熊系) 지명의 연원

웅계(熊系) 지명은 고조선 준왕(準王) 후손이거나 좌우궁인(左右宮人)들이 정착한 곳이다.

재야사학자 김성호(金聖昊)는 그의 저서 비류백제(沸流百濟)와 일본(日本)의 국가기원(國家起源)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위만(衛滿)은 사마천(史馬遷)의 사기(史記) (BC97) 조선전(朝鮮傳)에 의하면 진(秦)나라가 멸망(BC206)하고 전한(前漢)이 일어섰던 정치적 혼란기에 중국북방(中國北方)으로부터 망명해 온 위만(衛滿)이 조선의 준왕(準王)을 물

아내고 BC 194년 경에 위만 조선을 세웠다.

그 후 우거왕(右渠王)때에 이르러 한무제(漢武帝)의 침공을 받고 1년 동안이나 완강히 방어했으나 니계상(尼谿相 : 관명)이 우거왕(右渠王)을 살해하는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 BC 108년을 기해서 낙랑군(樂浪郡)에 흡수되어 버렸다. 낙랑군의 위치는 문헌으로나¹⁾ 고고학적으로²⁾ 평양(平壤)이었던 만큼 이에 흡수된 위만조선(衛滿朝鮮) (BC 184-108)의 도읍지도 역시 평양일 수밖에 없다.

한편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준왕(準王)은 좌우궁인(左右宮人)을 이끌고 해로주입해(海路走入海) 남하하여 한(韓)을 세웠다³⁾. 이때에 준왕이 도읍한 한지(韓地)가 어디였는지에 관해서는 광주설(廣州說=이병도)⁴⁾ 웅진설(熊津說=신채호)⁵⁾ 및 곡산설(谷山說=신증동국여지승람)⁶⁾ 등으로 엇갈려 왔다.

이러한 학설의 근거를 살피기 위하여 통계적 지명고에 의하여 준왕(準王)의 남하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준왕(準王)은 단군(熊女誕生)에 맥락이 연결되는 ‘곰 토템’ 계통으로서⁷⁾ 이들이 도읍했던 평양의 고 지명이 (今儼達)(곰달)임에서 알 수 있듯이⁸⁾ 웅계(熊系)지명을 사용했다.

이제 한반도 전역의 지명에서 찾아낸 웅계(熊系)지명으로 그의 분포추세를 작성하면 그림-6과 같다.

여기서 평양(平壤)이북에 분포된 웅계지명(熊系地名)은 천관우(千寬宇)교수도 지적했듯이 북방에 있던 조선이 평양으로 남하 했을 때⁹⁾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조선(古朝鮮)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평양 이남의 분포는 황해도(黃海道) 이남 서해안 쪽으로 분포됨으로써 한전(韓傳)

1) 千寬宇(箕子攷)-東方學志 第15輯(1974) p66.

2) 金元龍(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東亞文化 第7輯(1967) p.p.4~10.

3) 『侯准(準)既僭號稱王爲燕亡人衛滿攻所奪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魏志韓傳.

4) 李丙滋(韓名稱의 起源과 辰韓의 性格)-前掲書 p.p.252~353.

5) 申采浩(朝鮮上古史)-丹齊 申采浩 全輯上卷(1972) p.105.

6)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三)益山郡沿革條.

7) 金載元(檀君神話의 新研究)(1947) p.p.46~51.

8) 僧一然(三國遺事)紀異第二古朝鮮記.

9) 千寬宇(箕子攷)-上掲書 p.p.54~72.

에 기록된 (左右宮人走入海) 남하기록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웅계(熊系)로 확
산되었음을 볼 때 이병도(李丙燾)박사의 광주(廣州)설이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준왕(準王)이 상륙한 한지(韓地)는 바로 '한터(廣州?)' 이
었던 것 같다.¹⁰⁾ 이하 략

(2) 웅도(熊島)라는 지명의 의미

그간 웅도리(熊島里)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웅도리(熊島里)란 이름이 생
긴 것은 섬의 생김이 곰처럼 생겨서 얻어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옛날 이 섬에 곰
(熊)이 살았기에 얻어진 이름이라 전해 온다. 한편 웅도리(熊島里)의 부속도서인
구미섬(熊島)이 곰처럼 생겨서 연유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곰 토tem 계통인 단군(檀君)의 후손인 고조선 준왕(準王)과 또 다른 단
군의 후손들이 위만(衛滿)에 쫓기어 평양(平壤)에서 바다를 통하여 남하 준왕(準
王)은 광주(廣州)지방에다 한(韓)나라를 세웠고 단군(檀君)의 후손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곰웅(熊) 자를 사용하는 지명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웅도리(熊島
里)는 단군(檀君)의 후손(後孫)들이 이때에 배를 타고 내려와 정착함으로써 생긴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준왕(準王)과 또 다른 단군(檀君)의 후손들이 평양에서 위만(衛滿)에게 쫓기어
바다를 통하여 남하하는 데는 태안반도인 이 곳 가로림만(加露林灣)으로 오는
길이 광주지방으로 가는 육로보다 바닷길이 훨씬 수월하다.

따라서 이곳 웅도리(熊島里)는 바닷길로 직접 도착한 최초의 길이 된다. 이러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웅도리(熊島里)에 지금까지 전해오는 제천제단(祭天
祭壇)인 참성단(塹星壇)이 존재해 있는 점과 제천행사(祭天行事)가 무당(巫堂)에
의하여 주관 되어 온 점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정일치(祭政一致)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 통치자인 단군(檀君)도 무당(巫堂)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
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10) 김성호 :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p.106~111

5. 웅도리 참성단(熊島里 塹星壇)의 보존관리 역사

웅도리(熊島里) 주민들은 옛부터 이 참성단(塹星壇)을 신성시해서 그 주변에서 풀 한포기 나뭇가지 하나 건드리는 것도 금기시 해 왔었다고 한다. 아무리 땀 나무가 없어도 참성단(塹星壇) 주변에 솔걸(솔가리)이 쌓여 있어도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러한 전통은 예나 지금은 같다.

1970년대 초 솔혹파리병으로 주변에 있던 소나무들이 모두 고사되기 전까지는 약 200주 이상의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참성단(塹星壇) 주변에 짙들어 차 있어서 멀리서 보면 섬의 혹 또는 배꼽처럼 보였었다.

김찬규(78세), 김은규(67세) 등 현지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1945년 광복 전에는 마을의 무속(巫俗)인들이 주민들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이나 병(病)의 치유를 기원하는 당제(堂祭)를 수시로 지냈었다고 한다. 8.15광복이 되자 전동민(全洞民)이 모여 풍물을 치고 무속(巫俗)의 집례로 당제(堂祭)를 올린 일이 있는 후로는 개별적인 당제(堂祭)만 있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에 마을에서 불의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자주 있어 전 주민들이 모여 당제(堂祭)를 지내자는 결의가 있어 무속(巫俗)의 집례로 당제를 크게 올린 일이 있다고 윤병일(55세) 이장은 증언했다.

지금도 마을에는 홍○○(80세) 이○○(45세)등 전통으로 내려오는 두 무속(巫俗)인이 있어서 개별적인 당제(堂祭)는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6. 맺는 말

웅도리 참성단(塹星壇)은 규모는 작지만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江華郡 華道面 興王里) 산42-1번지에 소재한 마니산 참성단(摩尼山 塹星壇)과 거의 일치하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다. 이 참성단(塹星壇)은 도서나 여항의 포구에 세워 풍어를 기원하는 당집(堂家)에서 지내는 당제(堂祭)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예는 오직 마니산 참성단(摩尼山 塹星壇)과 이곳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아주 없어질 위기에 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우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그동안 일시 끊겼던 제천행사(祭天行事)의 복원이 시급히 연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세번째는 서산시에서 개최되는 시민 체육대회시 성화는 이곳에서 채화되어야 하고 도체전(道體典)까지도 이곳에서 채화하는 발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산시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6의 1부표〉

■ 응계지명일람(熊系地名一覽) ■

도	시 군	지표지명	문 헌	도	시 군	지표지명	문 헌
함남	풍산	熊耳面	지녕	함남	덕원	熊津廢縣	여지
함남	원산	熊島面	"	평북	철산	熊骨面	"
황해	곡산	熊潭面	"	황해	수안	熊山	"
황해	은율	熊島里	"	황해	서흥	熊坂里	비고
황해	웅진	熊峴里	"	황해	장연	熊況里木柵	여지
경기	파주	熊潭里	"	경기	개성	熊川	"
경기	안성	熊橋里	"	강원	유양	熊林所	"
강원	통천	熊津里	"	강원	정선	熊前山	"
충북	영동	熊北里	"	충북	음성	熊巖	"
충남	서산	熊島里	"	충북	보은	熊岩所	"
충남	보령	熊川面	"	전북	진안	熊峙	"
충남	공주	熊津里	"	전북	남원	熊陰所	"
충남	공주	新熊里	"	전북	김제	熊橋	"
전북	익산	熊浦里	"	전북	김제	熊池	"
전남	화순	道熊里	"	전남	장흥	熊站	"
전남	보성	熊峙里	"	경북	상주	熊耳山	"

도	시 군	지표지명	문 헌	도	시 군	지표지명	문 헌
전남	신안	熊谷里	지명	경남	김해	熊猪里	여지
전남	장성	雙熊里	"	경기	화성	古毛里	지명
경북	선산	熊谷里	"	경북	경산	顧母里	"
경남	울주	熊川面	"	전북	익산	金馬面	"
경남	밀양	熊洞里	"	전남	고흥	金馬里	"
경남	양산	熊上里	"	경남	김해	古慕里	"
경남	양산	熊川里	"	충남	홍성	金馬川	여지
경남	창원	熊洞面	"	전남	광산	顧馬山	바고
경남	진해	熊川面	"	전남	완도	古馬島	여지
경남	마산	熊南面	"	평남	평양	今彌達	유사
경남	함양	熊谷里	"	함북	무산	檢德山	여지
경남	함양	熊坪里	"	함북	단천	檢義德山	여지
경남	거창	熊陽面	"	평남	영변	甘德里	지명
함남	갑산	熊耳嶺	여지	전북	장수	錦德里	"

대산 평신진 터(平薪鎭 址) 고찰

신 상 찬¹⁾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목 차 》

1. 머리말
2. 현황
3. 목적 · 임무
4. 변화
5. 맺는 말

1. 머리말

대산을 화곡리 반곡 마을에 있는 평신진 터는 조선조 숙종 37년(1711)부터 고종 32년(1895)까지 180여 년간 충청도의 북서부 해안을 지키던 진지가 있던 곳이며, 종 3품의 첨사(僉使)가 근무하던 중요한 군사요지였다. 특히 이 진에서는 군사권은 물론 넓은 면적의 목장 관리까지 맡은 겸목관 체제였다.

1) 본 논문은 대산읍 거주 이상은, 도왕희 두 분이 각기 쓴 것을 기본으로 필자가 종합 정리한 것임

주요 임무는 삼남 해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의 약탈, 살상을 일삼던 왜구의 방어와 세곡을 운반하는 양선의 보호가 주 임무였다. 그러나 조선조 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일본과 교역이 되고 육로 운송시설이 발달하면서 세곡운송을 육지를 이용하게 되니 왜구도 없어지고 공선의 보호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895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건물과 토지를 개인에게 매매하여 성터의 흔적이 일시에 없어졌다. 100여년이 흐른 지금 성에 관한 관심이 희박해 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진터가 주민들의 기억에서 살아져 가고 있어 존재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리한 것이다.

2. 현황

가. 개황

위치는 대산읍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약 8.5km쯤 되는 곳에 있고 100m 가량의 야산 남향 사면의 끝자락 부위에 있는데 성지 내에는 민가 1동이 있으며 전면적이 밭과 논으로 개간되었다. 7,832㎡(2,369평)의 면적 조그마한 진지로 성곽은 높이 쌓은 것이 아니고 담장처럼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형태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북문 지(址) 근처는 석축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형태가 조금 남아 있고 대나무가 뒤덮고 있다.

이 성 너머에는 해자와 비슷하게 골이 파여 있다. 문은 네 개가 있었던 듯하며 문지는 큰 돌이 박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참사가 오랫동안 주둔했던 진영인데도 건물지나 기타 시설물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기관이나 진보로 남지 않고 폐지되자 건물과 대지 등을 모두 민간에게 매매했기 때문이다.

이 진의 역할은 관할 수군을 지휘하는 진성의 역할과 군항으로써 병선의 정박과 수리, 그리고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의 연안에 왜구의 침입을 막고 양선(糧船)의 보호 등의 임무를 해왔다.

성에서 1Km쯤 내려간 곳에 선소(船所: 선쇄라고도 하며 선박의 계류장)가 있

으며 바다에서는 육지와 아차도 사이의 좁은 갯골을 따라 1km쯤 올라온 곳에 있는데 태풍이나 큰 파도에도 안전하고 특히 배를 은폐하기 좋은 곳에 시설한 것이다.

나. 연혁

이 진은 본래 대산읍 독곶리에 있던 항금진을 이곳 평신으로 옮겨 설치한 것이다.

1) 항금진(杭金鎭)의 설치

이 진은 대산읍에서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에 독곶리가 있고 그 끝에 섬처럼 떨어져있는 황금산 주변에 있던 진지이다. (현재 확실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처음 설치 연도는 1701년이며 이만성의 줄기에 보면²⁾

---이조(吏曹)에 선발되어 들어가서는 좌랑이 되었고 이에 응교(속종실록에서는 부응교이며 응교 임용기록은 없음)로 승진 임용되었다. 그 때 마침 왜구가 나타났다는 경보가 있음으로 이만성에게 호서지방을 순무하면서 항금진과 안흥진을 설치하고 상당산성을 수축하라고 명하였다.----

라고 하여 1701년에 왜구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항금진의 설치에 대한 이론

(1) 항금진을 설치할 때는 여러가지 이론이 많았다. 숙종 32년 4, 14일 비변사에서는 전 충청감사 김연(金演)이 항금진을 설치하는데 적합하다는 장계에 대해서 관방설치는 마땅하나 수사의 의견은

“배가 정박할 자리는 포구를 수 백보나 파야하는데 도로에 암반이 깔려있어 인력으로 치우기 어렵고 평신리는 진을 설치 할만하나 대양(大洋)에서 30여리나

2) 『왕조실록』경수 2, 8, 15(무진), 원임 이조판서 이만성의 줄기 CD-ROM 왕조실록 제 3집

떨어져 있고--- 항구미에서 5리 되는 곳에 오지산(烏知山)이 있으나 배를 정박 할 곳은 2, 3리의 포구를 파야하며 대산에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하는 등 이론이 많았다.”

(2) 숙종 34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었는데 숙종은

“항금의 일을 다시 품처하도록 한 것은 대개 유익하면 그대로 두고 불편하면 변통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미 하여오던 것이라고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영의정 최석정은

“--- 남방 해상 선박이 반드시 안흥 입구를 따라 들어가 대산에서 바람을 피 하니 이곳은 요충지가 됨으로 여기로(항금진) 옮겨서 설치해야 한다는 거론이 있었으나 선창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평신리에 배를 감추어 두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행 이조판서 이인엽은

“--- 항금에 이미 진을 설치하였으니 수군 전선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연후에야 바야흐로 진보의 모양을 갖추 수 있습니다.---”

행 우참찬 강현은

“--- 사리로 말하면 이미 설치된 후 배가 정박하기 불편하다 하여 가볍게 혁파할 수 없다.---”

지중추부사 김우항은

“--- 배가 정박하기 불편하면 육군첨사를 설치하고 목자를 단속하고---가 법계 혁파해서는 안 된다. ---”

이조참의 윤덕준은

“--- 극히 긴요한 곳이니 첨사를 설치하지 말고 감목관을 별장으로 고쳐 특별히 단속하고 오로지 후망(煥望)의 일을 마끼자.---”

이기하는

“--- 전선이 없으니 수군첨사라 할 수 없고 병마첨사로 정하여 경보토록 함이 의당하다.--- 요해처라 말한 곳에 이미 설치한 것을 혁파함은 옳지 않다.---”

임금이 “--- 배가 정박할 곳이 없으면 수군첨사는 비록 설치할 수 없어도 육군 첨사는 설치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는지 감사에게 물어 품처함이 좋겠다.” 하였다.⁴⁾

(3) 비변사에서 그동안 정리 못한 소(疏)를 정리하였다.

신묘년 7월 4일 면천(沔川)에 사는 부사과(副司果) 이상익의 상소,

내포의 두어 가지 폐단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우수영(右水營)을 항금진에 설치하고 다시 영장을 해미현에 두도록 요청함. --- 안흥에 방어사의 영을 설치했다가 다시 폐지하고 “항금에 진을 설치한 것도 아직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수영을 다시 설치함은 가벼이 논하기 어려움---⁵⁾

이와 같이 매년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성곽 한쪽도 쌓지 못하였는지, 진지였던 터전에 석축 한 군데도 남아 있지 않다. 이 곳에서 10여 년간 지내다가 평신진으로 옮겨 간다.

다. 평신진으로 이설

이 진이 항금진에서 이설된 것은 숙종 37년(1711)이며 이름을 평신진이라 하고 첨사를 배치함으로써 평신첨사진(平薪僉使鎭)이라고 하였다.⁶⁾

동기는 충청도 순무사(巡撫使) 이만성(李晩成)과 감사(監使) 홍중하(洪重夏)가 건의한 바에 의한 것으로 항금진을 쌓게 한 이만성은 항금진이 중요지점이기는 하지만 별도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안전한 항구인 평신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건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항금진은 불과 10년 만에 폐쇄된 것이다.

또 읍지에 “예부터 전해 오기를 당초에 항금산(亢金山) 아래 진을 설치했다가 목마장의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여 망일산(望日山) 아래로 옮겼으니 지금의 구

4) ----국역 비변사등록 숙종 34년 2, 11, (1708). 숙종 34년2월 11일 이변 2월 8일에---P P. 5- 1, 2, 3

5) ----국역 비변사 등록 숙종 39년 4, 8, 계사(1713).

6) 『왕조실록』숙종 37, 5, 28(병진), 태안방어사를 혁파하고---황금진을 평신으로 --- CD-RDM 실록 제3집 ---태안 방어사를 혁파하고 안흥진을 승격시켜 방어사로 하고 항금진을 평신으로 옮겨 호칭을 평신첨사로 고치었으니 충청도 순무사 이만성과 감사 홍중하의 말에 따른 것이다.---

진(舊鎭)이다. 또 지난 임진년(壬辰年)에 삼길산(三吉山) 아래로 옮겼는데 이것이 지금의 본진(本陣)이다. 한 것으로 보아 구진도 같이 합쳐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항금진이 옮겨 온 1년 뒤인 임진년(1712)에 합쳐진 것이다.⁷⁷⁾

1) 평신진의 규모

(1) 관할구역

당초 구역은 대산읍 일원이었을 것이나. 그 후 어느 때인가(합병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당진군 창택면과 태안군 이원면을 흡수하여 거대한 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서쪽으로는 소근진과의 경계로부터 동쪽으로는 당진군(지금의 송산면 지역)과 평택시의 경계지점까지의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였다.⁸⁾

(2) 관할 읍면

평신진에 대한 내용을 충청 도읍지에서 보면 대산면, 이원면, 창택면의 동리, 가구, 인구 등이 나와 있다.⁹⁾

大山面 13동리, 767호, 남자 1,650명, 여자 1,715명, 계 3,365명
梨園面 8동리, 233호, 남자 500명, 여자 505명, 계 1,005명(古屬 泰安),
倉宅面 3동리, 172호, 남자 345명, 여자 380명, 계 725명(古屬 沔川面).

(3) 병선 및 군총(軍總)

• 병선(兵船) : 재 대변정 전양(在 待變亭 前洋 : 배를 계류해 두는 선창을 선소라 하며 선소가 있는 바닷가에 선원의 대기소가 있어 이를 대변정이라 한 것 같음)

동자(冬字) 1방선(一防船) 1척(隻), 동자 2방선 1척, 복물선(卜物船) 1척, 하후선(何侯船) 2척, 《1840년 읍지에 있음》¹⁰⁾

7) 「충청도 읍지」영조- 현종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읍지 아세아문화사 영인 P, 507

8) 「서산군지」이민영저 관유영조물 조 「平薪鎭營」1926년, P 95

“在大山面 花谷里 距今二百年前設鎭 營所在地及 水原郡 倉澤面 泰安郡 梨園面 爲區域以鎭之 李太王 乙未(1895)更張廢鎭 明治四十年(1907) 瑞山郡守 賈其建物于 聖淵面 明川里 崔國瑞, 其庭前黃楊木 牆邊竹林 今尙存之其地 二千五百六十二坪一合六勺”

9) 「충청도 읍지」1권「평신진지」아세아문화사영인본, P,509

10) ---- 호서읍지, 평신진지 조, P, 283

• 군총(軍總) : 수군 710명, 둔아병(屯牙兵) 354명, 주사군(舟師軍) 233명, 신선군(新選軍) 60명¹¹⁾

※ 군총 등 수자는 책(시기)마다 수자가 틀림

(4) 충청지역의 수군 배치상황¹²⁾

평신진은 목적이 설치될 당시의 상황처럼 왜구나 해적 등을 방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충청전도의 해안에 해당하는 사항임으로 전체적인 수군 배치상황을 비교해 본다.

종합적으로 정리된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세종실록지리지(1454)

보령 오천 : 수군도 안무처치사(水軍都 按撫處置使)가 있었는데 충청도 수군의 총 지휘부였으며 그 밑에 주요 항구에 다음과 같이 만호를 두었다.

태안 소근진 : 좌도 만호, 서천 비인 : 우도 만호, 서천 장항 : 서천포 만호
보령 주포 : 고만량 만호, 서산 팔봉 : 파지도 만호, 당진 고대 : 당진 만호
홍주 : 대진 만호

(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보령 오천의 수군도 안무처치사가 군직제의 변경으로 수군절도사영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수(戍)자리가 증가한다.

(a) 서산의 파지도 만호가 파지도영이 되며 그 밑에 고파지도수(古波知島戍)와 요아량수(要兒良戍 : 안면 고남)를 두고,

(b) 태안의 좌도만호는 소근포진이 되고 밑에 안흥량수(安興梁戍)를 둔다.

(c) 서천의 우도만호 밑에 도두읍곶수(都豆邑串戍)를 두고

(d) 당진 만호 밑에 난지도수를 두었다.

따라서 수자리가 5개나 더 늘었는데 3개소가 안흥 이북 쪽에 증설되었다.

원인은 안흥 남쪽에 치우쳤던 왜구가 안흥 이북지방으로 약탈 장소를 옮겼으

11) ---- 충청도읍지 평신진 조, PP 509-510

12)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추림

며 이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자리는 독진이 아니라 상위진인 만호가 분병수지(分兵守之), 즉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한 조치였다.

이후 평신진이 설치될 때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를 아울러 수 있는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수자리는 없어지고 안흥 이북으로는 소근진에 첨사가 배치되고 이어 안흥도 참사진이 되어 평신진과 함께 3대 진지로써 충청 서북방 해안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2) 훈련(訓練)

가) 군사에 대한 훈련은 멀리 떨어진 보령의 수영(水營)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경종 3년(1723) 2월 19일 비국에서 당상을 인견할 때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 평신진에서는 봄 가을로 수영에 조련을 가야 하는데 항금, 안면 등지를 거쳐야 하며 바다길이 험하고 시일은 1개월이 걸려 한번 다녀오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농사철이면 농사일이 어렵고 마정(馬政)이 허술하게 된다.

따라서 노강, 광양에서처럼 3년에 한번씩 받도록 해 달라”고 했다.¹³⁾

나) 그러나 영조 5년(1729)에는 호조판서 김연(金演)이 반대되는 내용을 아뢰었다. “즉 훈련을 소홀히 하면 병역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곳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론이다.¹⁴⁾

이로 보면 목자를 겸한 진보 군사들의 고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3) 관아 시설물

• 특징

관아는 큰 배가 직접 닿을 수 있는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호시설이 견고하게 되지 않았다.

첫째, 성곽이 아니고 담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망루나 적대 등 외적 방비에 대한 시설이 없다.

둘째, 행정을 겸한 진이기 때문에 다른 현청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데 호적

13) 『한국 데이터베이스』고도서, 국역 비변사등록, 경종, 1723년 2월 19일, PP, 5-5

14) 『한국 데이터베이스』고도서, 국역 비변사등록, 영조 5년(1729), 6월 22일, PP 15-1

고를 비롯해서 군사관련 시설로써 대변정, 선소, 화약고, 군기고, 군향고 등이 있으며 남문을 문루형식이 아닌 삼문으로 한점이 특이하다.

셋째는 동문과 남문(외삼문)만 있고 서문과 북문이 없는 점이다. 당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허물어 졌거나 허술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 같다. 남문을 삼문으로 한 점으로 보아 규모가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선소와 대변소가 있는 점이다. 선창과 관아가 떨어져 부득이 시설했을 것이며 대변정을 크게 시설한 것이 특징이다.

관아 시설물은 순종 1년(1907) 민간에게 매도하여 현재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나 1870년대의 읍지에는 자세히 나와 있으며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른 관아의 시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관아(官衙) 건물 비교표 ■

서산, 1926년 군지에서 발췌, 기타 현은 호서읍지, 충청도 읍지

서 산 군		해미읍지	태안군지	평신진지	보령현 읍지
건물명	크 기				
客舍, 正廳 東軒 西軒	6칸 12칸 10칸	31평 7홉 객관, 105평	정청 6칸 동헌 12칸 서헌 10칸	5칸	대청 3칸 동헌 4칸 서헌 3칸
동헌(東軒)	35칸	현사청 12평 3홉	10칸	외동헌 9칸 내동헌 9칸	4칸
汲唱廳	4평 9홉				
冊室	11평 3홉	9평 8홉	3칸		무학당 8칸
使令廳	19평 1홉	8평 3홉		6칸	4칸
內衙	38평 5홉	12평 4홉			15칸
外三門	11평 4홉	9평 6홉		3칸	3칸
鄉廳	21평 6홉		19칸		8칸
作廳	44평	28평 3홉	9칸	6칸	
將廳	28평 6홉	11평 8홉			
官奴廳		12평 5작		4칸	아전청 10칸

서 산 군		해미읍지	태안군지	평신진지	보령현 읍지
건물명	크 기				
將官廳 (敷地)	65평	10칸 군관청 5칸	관청 9칸	군관청 5칸	8칸
獄舍(敷地)	169평	7평 3홉			3칸
火藥庫		1칸		1칸	1칸
行廊		3칸	낭청 8칸	3칸	현사청 8칸
秋廳		마구 3칸		마구 3칸	
內三門		11평 8홉		3칸	3칸
庫子室	46평	5평 7홉		둔고 3칸 육물고 6칸 초고 3칸	2칸
戶籍庫				5칸	
軍餉庫				4칸	공방고 3칸
軍器庫	29평 7홉			4칸	4칸
기타	현경관속소		供須 10칸 衛舍 15칸	동문 1칸 待變亭 5칸	공수 6칸 供須

3. 설치목적과 임무(任務)

가. 왜구에 대한 대비

평신진은 군사시설로써 적의 방어 의무 보다 고려말 부터 해변 마을에 침입하여 양곡, 생활 물자의 강탈, 각종 시설물 파괴, 인명살상 등을 자행하여 막대한 피해를 끼쳐 온 왜구에 대한 대책이 컸다.

왜구는 고려 말부터 국정의 혼란한 틈을 타서 계속 침입했으며 특히 1373년 (고려 공양왕 22)에 태안에 침입했을 때는 군수가 관리 한두 명을 데리고 관내를

떠나 서산, 예산 등지로 피난을 다닐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고¹⁵⁾ 조선조에 들어와서 고려시대 보다는 줄었지만 태조 2년에 만호(萬戶) 최용유(崔用濡)가 고만량(高灣梁: 巒 또는 巒: 지금의 보령시 주교면)에 침입한 왜구와 싸우다가 두 아들과 함께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고 태조는 “국가의 근심이 왜구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탄식할 정도였다.¹⁶⁾

그밖에도 연산군조에 2회, 중종조에 3회, 명종조에 5회, 선조조에 1회, 숙종조에 1회 침입한 일이 있다.¹⁷⁾

이후로도 계속 침입하여 양곡 물자의 약탈 시설물의 방화 파괴행위가 잦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나. 삼남지방 세곡선 호송(稅穀船 護送)

고려시대부터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세곡은 충청, 전라, 경상도의 3남 지방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이중 26만석 정도를 왕도인 개성에 운송하여 국정 운영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 세곡을 해운으로 개성까지 운반하는 데 몇 가지 난점이 있었다. 첫째는 항로가 험난하여 조운선의 운항이 어려운 점이고, 둘째는 전술한 바 왜구의 세곡선 습격이었다. 항로중 제일 어려운 곳이 태안군의 안흥량(安興梁)이고 다음 어려운 곳이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손돌목이었다.

안흥량은 태안군 근흥면의 안흥항이 있는 곳으로써 육지가 서해바다에 길게 돌출되어 밀물과 썰물 때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하며 오리발목이 부러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여(섬처럼 바다 밑에 튀어 나와 있는 바위로 평소에는 안 보임)가 많아 이를 못보고 운항하다가 부딪쳐서 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진영에서는 양선에 대한 호송을 맡게 하는 한편 굴포운하를 파서 수송거리의 단축 및 안전수송 진력하였다.

15) 『신증동국여지승람』태안군 【宮室】客館條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3 p331

16) 『태조실록』 2년 5월 7일 신해조

——上聞用濡死 嘆曰 國家所患 莫甚於倭 命 益備沿海鎮戍

17) 이상의 침략회수는 왕조실록에서 발췌한 것임.

1) 굴포운하 개착¹⁸⁾

고려조에서부터 운하를 파서 운항거리의 단축과 안전항해를 하고자 굴포운하를 개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사가 성공하면 400여리의 항로가 100여리로 단축 되는 것이다.

대상지는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와 태안읍 인평리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파야 할 거리는 약 7km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처음 시도한 것은 고려 인종 12년(1134)에 정습명(鄭襲明)이 군졸 수천 명으로 개착을 시작하여 약 4km는 뚫으나 나머지 약 3km는 바닥에 암반이 깔려서 개통을 못하였다.(현재 암반이 깔려 있으며 남아 있는 거리는 1km 밖에 안 되며, 당시의 기록이 면책 때문에 과장된 것 같다.)¹⁹⁾

그 후 공양왕 3년(1391)에 당시 조정에서 실력자였던 왕강(王康)으로 하여금 운하를 완공시키도록 조치하여 그해 7월과 8월에 걸쳐 전력을 다하여 굴착하였으나 역시 암반을 뚫지 못하였고 밀물 때는 파놓은 곳까지 메워버려 실패하였다.²⁰⁾

조선조에 들어 와서도 태조는 운하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으며 제3대왕인 태종도 12년에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가능여부를 조사했으며 13년에 다시 공사를 계속토록 했으나 개통은 못하였다.²¹⁾

이후에도 세조, 중종 때에 굴착시도 또는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성사하지 못했다.²²⁾

이와 같이 고려조에서 조선조까지 400여년에 걸쳐 국력을 기울여 개착을 시

18) 『이은우』 서산의 문화 제9호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던 굴포운하 1997 P 41

19) 『고려사』 권 16, 인종12년조, 아세아문화사 1990. P 335.

----是月 遣內侍鄭襲明 鑿河于洪州蘇泰縣 以安興亭下 海道爲衆流所激 又有岩之險 往往覆舟 或有獻議由蘇泰縣境鑿河道之則 船行捷利 遣襲明發旁卒數千人 鑿之 竟未就

20) 『고려사』 위책, 열전 왕강, P 556.

---康 獻議曰---古有浚渠處 深鑿者十餘里 其未鑿者 不過七里 若畢鑿使海水流通則 每歲漕運 不涉安興梁 四百餘里之險 請始役 ----石在水底 且海潮往來 隨鑿隨塞 未易施工事 竟無成---

21) 『왕조실록』 태종 12, 11, 16 (정유), 13, 1, 22일 (임인)----- CD-ROM 국역 실록 제 1집

---감승주를 보내서 현장의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공사의 적부를 묻다--- 12년

---호조참의 우박(禹博)을 보내서 ---尊城의 築堤 役事를 감독케 하였다.

22) 『왕조실록』 세조 7, 7, 19일 (정사) 좌의정 신숙주를 충청도 도체찰사로----- CD-ROM 제 1집

----태안 굴포의 개착이 편리한지 아닌지를 살피게 하였다.---

동, 7, 8, 17일 갑신 조

좌의정 신숙주 호조참의 안철손 등이 의논하여 태안 굴포를 파기를 제청하다.---

동, 10, 3, 13일 병인 조

---임금이 양함(兩函)에 나아가 개착의 이해를 물으니 이곡(李谷) 등이 대답하기를 “수도가 바르지 않고 진흙이 흘러서 파는 대로 무너지니 개착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한 중요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남지방의 양곡수송선은 각 절제사 진영의 군선으로 하여금 호위를 하도록 조치하여 평신진에서도 호송하는 업무를 계속했다.²³⁾

호송구역은 안흥에서 경기도 풍도까지이며 1년 마다 윤회하며 거행 한다.²⁴⁾

안흥까지는 보령지방에 있는 진보에서 호송했을 것이며 안흥에서부터 경기도까지는 3개 진보에서 교대로 호송한 듯 하다.

경기도 풍도는 인천앞바다에 있으며 평신진에서는 건너다 보이는 곳이다.

호송업무를 안흥이나 소근진에서도 시행되었을 터인데 같은 지리지에 이 사항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 관내 취약 지역, 도서지방 수토(搜討) 및 금산(禁山) 보호

취약 지역이나 도서지방의 수색정찰은 매년 봄, 여름사이에 집사 1인, 훈도 1인, 사공 1인, 격군 5명, 포수 3명, 취수(吹手) 1명, 나팔수 1명 등이 시행하였다. 특히 금산(禁山)의 보호를 위해서 망일산(望日山)에 감관(監官)을 두었다.

라. 감목관과 검직

1) 목장관리

서산에 목장은 국초부터 있었다고 하며 세종 8년에는 다리곶(多利串), 흥양(興陽), 토진(土津), 맹곶(孟串) 등 네 목장의 큰 말은 대산곶에, 작은 것은 흥양곶에 옮겼다.²⁵⁾

감목관은 군, 현의 수령으로 하여금 기르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으나 말이 많이 파리해져 역승(驛丞)으로 배치한 곳이 많아졌다. 그러나 세종 18년에는

“대산곶 목장은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로 흥양곶---” 이라 하여 군수에게 위임되어 관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타 목장에서는 감목관을 별도로 두거나 역

23) 『호서읍지』아세아문화사 여인, 1985, 「평신집지」P286, 하단

24) 원문을 참고 바람 ---위 읍지 P, 286 「租稅船大護送 與所斤鎖間 一年輪回舉行 自安興浦口 護行至楓島 與 京畿差員 交替後 回還交付文狀呈上---」

25) 『세종실록』8, 8, 16일(정축), 정미년 춘동 접마 별감에게 선택하여 대소에 따라 대산곶에--- cd-rom 1집

승에게 맡기는 곳도 있었다.

2) 규모

목장의 크기는 동서로 현 대산읍 대로리 2구(物漢里 : 현재의 이름도 물안이)에서 대로 1구(廣岩 : 현재 이름도 광암)까지 9리이고 남북로는 후망봉(候望峯)에서 본진이 있는 곳까지 30리 이다. (여지도서를 읽은 것인데 오류가 있을 것이니 별첨 원문 참고바람)²⁶⁾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대로 1, 2, 3구, 오지 1, 2구, 기은 1, 2, 3구, 대죽 1, 2, 3구, 화곡 1, 2구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18세기 중반 기록이고 조선조 말에는 대산리 3 5구 지방까지 확대되었다는 주민들의 말이다.

3) 목부의 문제

목장에서는 말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하여 목부를 두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밀도살해서 사복을 채우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호산록의 기록이 있다.

호랑이가 물어 죽였다는 구실을 달고 잡아서 고기는 팔고 가죽을 바치는 일, 목군의 임무가 중요함을 이유로 여러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일반 백성이 굶주릴 때도 배불리 먹고 지내는 일들이 일반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 등이 있었다.²⁷⁾

이 내용은 호산록이 1619년에 간행된 책임으로 평신진이 설치되기 이전의 기록이다. 평신진에서 관리한 후로는 특별한 사건사고 기록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이런 습관이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4. 평신진의 변화

가. 목장의 이동

정조 18년(1794)에 목장을 남양(南陽)으로 옮기고 감목관을 겸했던 것을 해재

26) 『여지도서』서산군 편 규장각소장 P 52 「목장 폭원」운문 「自場門至 鎮候望峯 南北長三十里 自物漢里 至廣岩 東西廣九里許 四方周回 四十餘里----」(여지도서는 18세기중반 편찬)

27) 『호산록』서산문화원 역간, 「산천조」 PP.34-36

하게 된다.²⁸⁾

정조 22년(1798)에는 평신첨사 직을 장용영에 소속시켜서 자체적으로 뽑는 벼슬자리로 하고 첨사의 임기는 30개월로 하도록 명하였다.²⁹⁾

동기는 말이 주택 근처까지 와서 작물을 해치고 선조의 묘소를 함부로 짓밟으니 옮겨달라는 김취명 첨사의 상소 때문이었다. 전하는 바로는 대로 3구 먹수지에 있는 김홍욱 공의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나. 오페르트의 내진

「이들이 남연군 묘를 도굴한 장본인들이다.」

1866, 2, 15 (을사 고종 3) 프러시아 상인 “에른스트 오펔트(Ernst oppert, 載拔)와 선장 제임스 모리슨이 함께 영국상선 로나호에 동승 이달 11일에 공충도 평신진 이도면(二道面) 영전리(令田里) 조도(鳥島) 앞바다에, 12일에는 해미면 서면 조금리 앞바다에 도착(到泊)하였다.

평신첨사 김영준(金永駿), 해미현감 김응집(金膺集) 등의 문정(問情)에 의하면 同船은 영국소속의 사선(私船)으로 통상차 온 것이라 하고 이어서 국왕에게 예단(禮單)을 바칠 것을 위하여 오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단행(壇行)할 수 없다는 뜻으로 개유(開諭)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화(物貨)에는 천리경, 대조신경(大照身鏡), 자명악(自鳴樂) 등이었다고 한다. 이날 로나호는 경기 덕적과 간접도(間接島) 사이로 항거하였다.³⁰⁾

다. 양선의 침몰

「이 사건이 양선 침몰의 마지막 기록일 것이다.」

1867, 3, 15, (고종 4) 온양군의 병인조 전세(田稅) 286석을 실은 배가 2월 19일 밤에 평신진 개포(介浦) 후양(後洋)에서 침몰하였다. 이에 완미(完米) 240여

28) 『대동지지』 「김정호」 서산편, 진보, 평신진 아세아문화사 1976, P 107.

29) 『왕조실록』 정조 22, (1798) 12, 13, (임인) 평신첨사를 --- CD-ROM 왕조실록 번역 제3집

30) 『한국데이터베이스』 도서, 고종 시대사1집 고종 즉위년-14년, 1866, 2, 15, (을사) 프러시아 상인---

석은 시가에 따라 매석 1량(兩) 2전(錢) 7푼(分)씩에 발매하고 미상미 40석은 법에 따라 색이(色吏), 사격(沙格) 등에게서 분징(分徵)하였다.³¹⁾

라. 선생안(先生案)

역대 첨사 119명의 명단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평신진 설치 당시 처음부터 복무하던 분인지 또는 전원인지 중간에 누락된 분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그것은 초대 민정란(閔廷鸞)의 경우 연대가 잘 맞지 않은 듯하며 앞으로 연구과제이다. 행적이 남아 있는 첨사의 내역을 발췌한 바 다음과 같다.

1) 선정비(善政碑)

대산읍 화곡리 소재 : 僉使 朴允默 : 115대. 僉使 金完植 : 102대

行 僉節制使 金胤鉦 : 僉使 金就明 : 90대

지곡면 환성리 소재 : 僉節制使 金相漢 : 43대

대산읍 대산리 소재 : 僉使 李得祿 : 118대. 僉節制使 禹文泳

僉節制使 趙榮麟 僉節制使 金用賢

2) 편액 시(片額 詩)

대산읍 화곡리 해월사 소재

僉使 申紫霞 : 111대. 僉使 朴允默 115대

3) 현저한 공적자

(1) 김취명(金就明, 1737-1812)

정조 14(1790)에 양광이주(楊廣二州)(경기도 楊洲와 廣州)에 천여명의 도적들이 몰려와 부윤(府尹)으로서도 어찌지 못하는 것을 김장군이 천마산성(天磨山城)에서 1개월여의 전투 끝에 토벌(討伐)하고 절충장군(折衷將軍)(武官階 정3품)이 되었다.

정조 17년(1793) 평신진에 절제사(節制使) 겸 감목관(監牧官)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국내 상황은 당쟁으로 삼정(三政)이 문란하고 지방 관리들의 협잡으로 백

31) 『한국데이터베이스』도서, 고종시대사 1집 1867, 3, 15(기사) 온양군의 병인조 전세286석---

성이 살기 어려웠으며 민심의 동요가 심하였다. 이러한 때에 김장군이 부임하여 6년간 첨사직(僉使職)에 있으면서 수군의 훈련, 군선의 수리 등으로 군기를 잡았으며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안락(安樂)케 하였다.

특히 목마장(牧馬場)의 말이 조상의 산소나 민가에 오르내려 피해가 심한 바이를 옮겨 주도록 상소하여 경기도의 남양(南陽)으로 옮김으로써 주민이 편히 살게 하였다.³²⁾

(2) 신위(申緯)(1769-1845)

1799년에 알성시의 문과 을과에 합격. 1812년 진주검진청사 서잔관(陳奏兼奏請使 書狀官)으로 북경에 다녀옴. 곡산부사 춘천부사, 강화유수 등을 지내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칭송을 받음.

1830년에 윤상도(尹相道)의 무고로 벼슬자리를 떠나 칩거하던 중 혐의가 풀려 임금이 도승지로 불렸으나 대죄(待罪)하고 입궐을 거부함. 순조가 27차례나 불렀어도 거절하자 평신첨사로 명함.

이 지역에 특별한 공로는 없으나 선정을 베풀었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으며 시(詩), 서(書), 화(畵), 삼절(三絶)로 유명하며 해월사에 편액시(片額詩)와 대산 지방을 제목으로 한 시(詩)가 7편이 전해지고 있다.³³⁾

참고 : 김정희(金正喜)(1786-1856)

대산리에 첨사들의 비와 함께 나란히 서 있다. 이곳에서 첨사를 지낸 적은 없으나 주민을 편히 살게 해 준 공로로 비를 세워 주었기에 기록하는 바이다. 조선 조의 고증학자(考證學者), 금석학자(金石學者), 서예가(書藝家)이며 호(號)는 완당(玩堂), 추사(秋史). 박제가(朴齊家)에게 수학하고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연경(燕京)에 가서 옹방강(翁方綱) 등과 막역하게 지냈으며 시문(詩文) 묵화(墨畵)에 뛰어났고 서체도 독특한 추사체(秋史體)를 이룩한 명필가로 유명하다.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왔던 일이 있는데 서산군수, 한산군수 등 10여명의 전원직 군수, 현감의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서계한 바 있고 특히 별단의 삼정과

32) 『대산읍관』 「명인전」 발행 대산읍장 1991, PP 58-59

33) 『申緯研究』 孫八珠(부산여대교수) 太學社, 1983

증미(拯米: 물에서 건져 낸 젖은 쌀)를 백징(白徵)(세금을 낼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금을 물림)하는 것과 안면도의 송정(松政), 안흥 굴포(掘浦)의 어염세(魚鹽稅), 선세(船稅) 등의 폐단을 올려 시정되었다.

따라서 이 지방의 현감 군수 등의 가렴주구(苛斂誅求), 증미(拯米) 백징(白徵) 등으로 살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해주어 백성이 편히 살도록 해 준 점을 고맙게 여겨 길이 잊지 말자는 비를 세워 준 것이다.³⁴⁾

마. 평신진의 폐지

고종 32년(1895)에 칙령 98호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23부(府), 331군(郡)이 되면서 평신진이 폐진되었다.³⁵⁾

다른 진지가 군청 또는 군사기지로 존속되는 반면 평신진은 애석하게도 아무런 지위도 없이 그대로 폐진 된 것이다.

수백 명이 근무하던 진지가 하루 아침에 폐진 되어 타 공공용지로 사용치 않고 공가로 변하니 당시 서산군수는 순종 1년(1907)에 주요 건축물을 성연면 명천리 최국서(崔國瑞)에게 매각하였고 기타 부속 자재 등은 대산면 주재소용재 등으로 이용하였다.³⁶⁾

이로서 평신진 사진이 하루 아침에 역사 속으로 살아졌다.

5. 맺는 말

이 진지의 공과로는 첫째는 영조 14년(1738) 황당선의 평신진 앞 정박했던 사건 하나뿐,³⁷⁾ 횡행하던 왜구의 침입이 줄었으며

34) 『왕조실록』순조 26, 6, 25(을해) 충청 암행어사 김정희의 서계--- CD-ROM 국역왕조실록 제3집

35) 『구 한국관보』호외 개국504, 5, 27, 조칙(照勅) 아세아문화사 간 PP 792-1-2.

동, 칙령(勅令) 98호, PP, 796-799

36) 『서산군지』이민영저 1926, 관유영조물 조 P 95, (자체 복사 본)

37) 『왕조실록』영조 14, 6, 4, (을유), 대신미국당상을 인견하고--- CD-RDM 실록 번역 제 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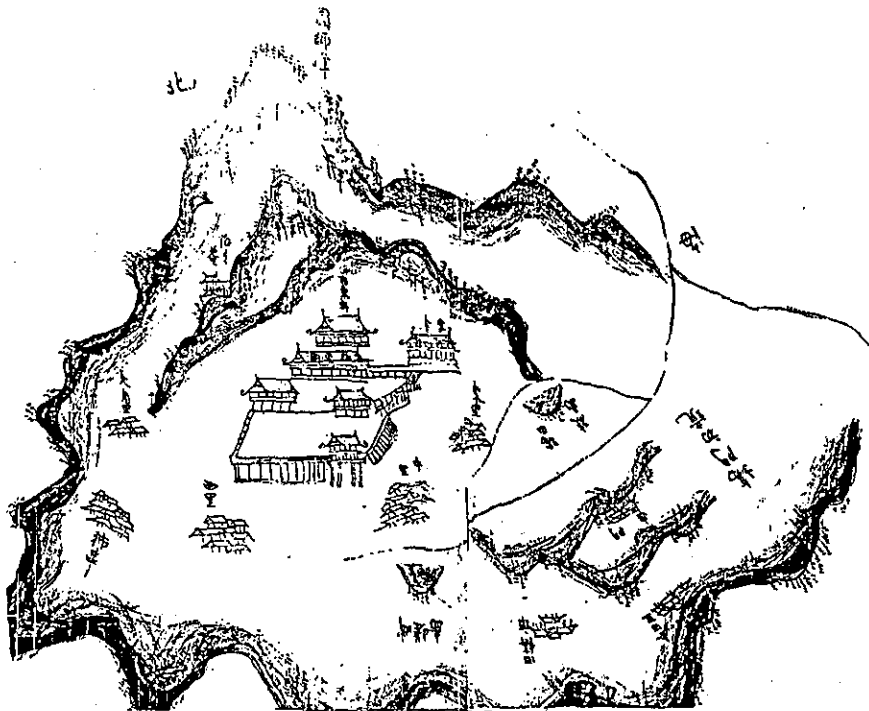
---황당선(荒唐船)이 와서 평신진 앞바다에 정박했는데도 치보(馳報)를 지체했으니 공충수사(公忠水使)를 파직하고 지방관도 마땅히 나문(拿問)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삼남지방의 양곡수송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조 초기에 걸쳐 수많은 양선이 왜구에게 탈취당하거나 침몰되었는데 안흥첨사, 소근진 첨사 등과 함께 보호시설을 증강함으로써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충청도 서북해안을 지켜오고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던 중요한 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조사 거론이 안 되었던 것은 관련 기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이상은(李相殷) 선배의 대산지방 수군 시설의 변천과정과 도왕희 전 교장선생이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이 난에서는 지면관계로 다 거론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

앞으로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이 진지를 별첨 도면에 있는 대로 정비하여 문화재로 지정 후 후세에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첨부 : 평신진도 1부



1870년 대 읍지에 있는 평신지도

서산 시가지(瑞山市街地)의 기능지역(機能地域) 변화에 관한 고찰(考察) - 서산 시가지의 주거지역(住居地域)을 중심으로 -

리 명 구
(서산향토연구회 회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 분화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III. 서산 시가지의 주거지역 변화과정
- IV. 서산 시가지의 주거지역 공간구조 변화
- V. 맺는 말

1. 머리말

인위적으로 건설한 취락은 시가지의 기능 분담계획에 의하여 구획정리를 하고 건설하므로 기능분화가 뚜렷하나, 자연발생적인 도시는 처음에는 모든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가 도시(都市)가 점점 발달하면서 시가지(市街地)의 기능(機能)이 뚜렷하게 분화(分化)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¹⁾

1) 서산향토연구회, 「서산의 문화」, 2002년 제14호, p.134.

서산시는 현재 규모로 보아 중소도시²⁾에 해당하며 광활한 평야와 구릉지대로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대산공단, 그리고 현대다이모스(전 우주항공 자리), 현대파워텍, 동희오토, 건설중인 기아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전문단지가 조성되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산지 방해양수산청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항만이 국제항으로 건설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산시를 관통하고 있어 국제 무역 전진기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다.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고용 인력의 창출로 인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 증대, 환경오염 요인의 증가, 공업화 진전, 주민소득 상승 등을 가속화하여 인구규모의 변동 및 경제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며 개발여건이 풍부하고, 산업 구조면에서도 도·농 통합에 따라 3차 산업 위주의 도시형 구조에서 관광, 첨단농업 등이 결부된 도·농 복합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업종전환의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서산 시가지는 여건변화에 따라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시가지 기능도 점점 뚜렷이 분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적 성격을 띤 시가지는 1942년 10월 1일 서산면이 읍으로 승격(부령 243호)된 후부터 발달하였다.³⁾

Ⅱ.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機能地域) 분화(分化)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한 도시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능체의 업종구성 과 공간적 입지분포를 조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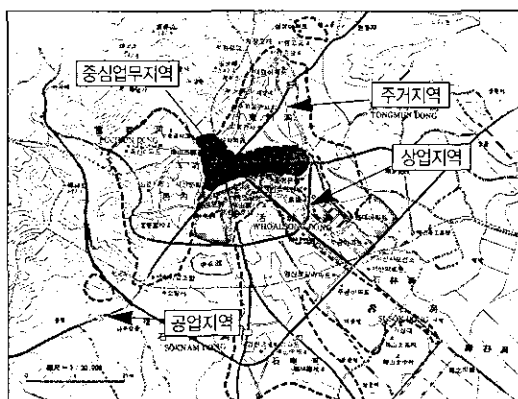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산시지 제1권(1998)에서는 전 화번호부에 기재된 기능체(機能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동지역(洞地域)에 입지한 기능체들의 업종구성과 입지분포를 조사하여 단위 면적당(km²) 기능체 총수에 의해 동문동 지역이 핵심 중심 업무지구에 해당하고 부춘동이 부 중심 업

2) 서산향토연구회, 「서산의 문화」, 2003년 제15호, p.120.

3) 전계서, p.136.

무지구에 해당하며 수석동은 중심 업무지구 주변부에 해당하며 기타는 중심 업무기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고 했다.

필자의 선행연구(2003, 서산의 문화 제15호)에서는 기능체를 참고하고 현지 주민의 면담과 서산시지에 의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서산 시가지의 기능지역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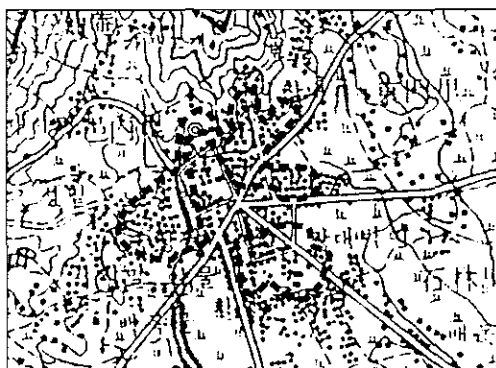


<그림 1> 중심업무지역

Ⅲ. 주거지역의 변화 과정

1. 서산을 승격(1942년) 이전

1910년 이전 조선시대에는 관아 중심의 소규모 시가지가 형성되었기에 시가지의 기능 변화도 뚜렷하지는 않다. 다만 조선시대 성곽을 중심으로 하여 성곽 안의 관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업무지역(C.B.D)⁵⁾과 그 주변 성문



[그림 2] 1942년 이전 주거지역

4) 서산향토연구회, 『瑞山의 문화』, 2004 제16호, p.96.

5) 대부분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심에는 도시의 중추 관리기능과 중심 상업기능이 대량으로 집중하고 있고, 땅값이 높기에 이런 지역을 중심 업무지역(C.B.D 즉 Central Business District)이라고 한다. 이 중심 업무지구에는 관청, 회사, 은행, 보험,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업무용 건물과 백화점 등의 상업용 건물이 있다.

밖의 주거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 일제시대인 1910년부터 1942년 읍으로 승격되기 이전까지는 시가지의 발달로 기능지역도 분화되어 읍내리 165번지 일원에는 시장이 형성⁶⁾되었으므로 상업 기능지역이 나타나면서 주거지역은 그 주변에 <그림 2>와 같이 형성되었다.

2. 1988년까지

1942년 10월 1일 서산면이 서산읍으로 승격되고 1956년 6월 동부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시가지의 발달과 시가지 기능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주거지역도 그 주변에 확대되어 갔다.

1981년 제1 외곽도로(현 안전로) 개설로 도로 주변을 따라 시가지가 급격히 팽창하여 농경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84년 3월 26일 도시인구의 팽창과 3차산업의 발달로 기존 시가지의 주거 및 상업지역의 수요증가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1>과 같이 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다.

<표 1>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

(단위 : m²)

구분 \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율(%)
주거지역	2,625,000	증 443,000	3,068,000	29.472
공업지역	160,000		160,000	1.34
녹지지역	8,883,000	감 514,000	8,369,000	66.49
계	11,925,000		11,925,000	100

자료 : 서산시청, 『시정백서』, 1999, p. 377.

이에 따라 농경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주거 공간도 연립(빌라)형태의 3층 건물로 고층화 되었다. 서산 최초의 연립주택은 부춘연립(현 읍내동 부춘초등학교 옆, 재건축 중)으로 1984년에 건축되었으며 그 후 1986년 8월에 한신연립(현

6) 서산향토연구회, 『서산의 문화』, 2003, 제15호,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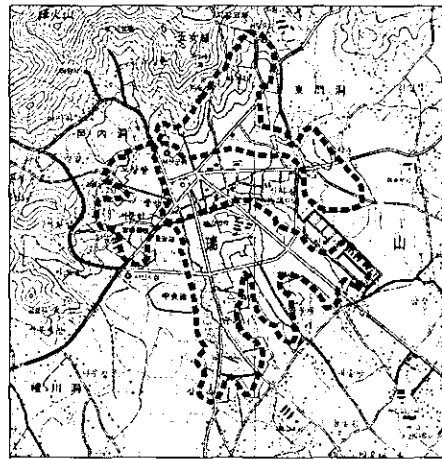
동문동 천주교 옆)이 건축되었고, 이어서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4층 이하의 동당 연 면적이 660㎡) 등 공동주택⁷⁾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표2〉 1988년까지 시가지 내 아파트 현황

단 지 명	위 치	세대수	사용검사년도	비고
평화아파트	동문동 449-3	50	1986	
주공아파트1단지	동문동 228	300	1988	
극동한신아파트	동문동 133-1	99	1988	

자료 : 서산시청 도시건축과

아파트로는 평화아파트(동문동 449-3)가 1986년에 최초로 건축되었으며, 1988년에 극동한신아파트(현 동문동 현대아파트 옆)가 동문동 133-1에 건축되었고, 같은 해 동문동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과 택지 개발사업으로 주공아파트(1단지)가 건축되면서 〈그림 3〉과 같은 고밀도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림 3] 1988년 현재 주거지역

3. 198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1989년 1월 1일 서산시 승격을 계기로 서산 시가지는 도시 기본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도시화 추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함에 따라 주거지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석림동 영진 로얄아파트가 1989년에 준공되었고, 읍내동에 최초로 10층 높이

7) 여러 가구가 각기 소유권을 갖는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주택

의 동일아파트(1990년 1월)가 건축되었고, 동문동 538번지 일원(현 서령고 옆)에 삼성아파트(1991년 4월)가 건축되었고, 동문동(현 서령중 앞)에 대림아파트(1990년 10월) 건축으로 고밀도 주거지역이 확장되었다.

1992년 10월 31일 석림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1993년 7월 27일 읍내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1995년 2월 28일자로 충청남도 고시 28호에 의한 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충남 서해안 공업지대의 배후 지원 및 서산 광역생활권의 지역 중심도시와 태안반도 관광교통의 거점도시로 육성키 위한 전략계획으로 <표 3>과 같이 기정 도시계획구역의 약 3배로 확장함에 따라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표 3〉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925,000	25,168,755	37,093,755	100.0
주거 지역	소 계	3,342,008.6	2,750,991.4	6,093,000	16.4
	일반주거지역	3,342,008.6	2,453,991.4	5,796,000	15.6
	준주거지역	-	297,000	297,000	0.8
상업 지역	소 계	327,200	189,800	517,000	1.4
	일반상업지역	327,200	174,800	502,000	1.3
	근린상업지역	-	15,000	15,000	0.1
공업 지역	소 계	160,000	775,000	935,000	2.5
	일반공업지역	-	935,000	935,000	2.5
	준공업지역	160,000	△160,000	-	-
녹지 지역	소 계	8,095,791.4	21,452,963.6	29,458,755	79.7
	자연녹지지역	6,553,791.4	13,864,963.6	20,417,755	55.0
	생산녹지지역	1,542,000	2,823,000	4,365,000	11.8
	보전녹지지역	-	4,765,000	4,765,00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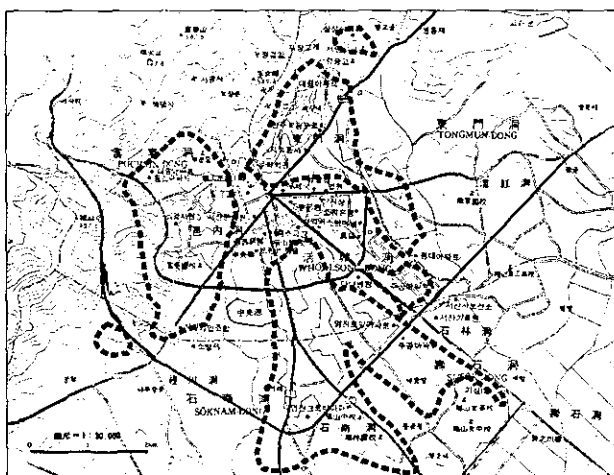
※자료 : 서산 도시계획 재정비 1994. 12

1994년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현 귀빈예식장 일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석림동 주택공사 제2단지(신주공)가 1차 1995년, 2차 1996년에 1,153세대가 완공되어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1991년 3월 14일부터 공사가 이루어져 1993년 12월 23일 완공된 읍내지구 택지 개발사업(현 서산교육청 앞)으로 동신아파트(1994년 준공), 대림-동신(1994년 12월 준공), 부영아파트(1996년 2월 25일 준공) 등 건축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었고, 석남동 35-24번지에 영진 크로바아파트 414세대가 1993년 10월에 건축되었다.

1997년 신 대산 사거리에서 서산부패 웨딩홀까지의 제2외곽도로(새 주소명은 동서로) 건설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또는 빌라 등 고밀도 주거지역이 시가지 변두리에 건설되었다.

1998년 6월 27일 착공 2001년 완공된 동문동(충남예식장 주변) 서산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주거지가 확장되었으며, 1999년 예천동 524-5번지에 현대아파트 236세대가 건축되고, 2000년 5월 1차, 2001년 10월 24일 2차로 읍내동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완공됨으로써 주거 지역이 확대되고 시가지 형태가 바뀌었다.

2002년 착공하여 2003년 4월 <표 4>와 같이 준공된 석남동 주택공사 센스빌이 30,000평 대지에 1,90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주거지역이 <그림 4>와 같이 확대되었다.



〈그림 4〉 2003년 현재 주거지역

〈표 4〉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시가지 내 아파트 건축현황

단 지 명	위 치	세대수	사용검사년도	비 고
영진로얄아파트	석림동 636-3	70	1989	
동일아파트	읍내동 688-10	80	1990	
대림아파트	동문동 639-1	198	1990	
영진훼미리	동문동 550-1	115	1991	
극동맨션	동문동 371-23	84	1991	
삼성아파트	동문동 538-2	620	1991	사원아파트
부춘아파트	읍내동 624-4	60	1993	
영진크로바	석남동 35-24	414	1993	
동신아파트	읍내동 624-6	352	1994	
대림-동신	읍내동 624-1	360	1994	
주공3단지	석림동 463-1	775	1995	
주공2단지	석림동 463-1	1,153	1996	
동문동 현대아파트	동문동 137-2	414	1996	
부영아파트	읍내동 624-5	1,093	1996	
예천동 현대아파트	예천동 524-5	236	19699	
읍내동 현대아파트	읍내동 55	915	2001	
보령훼미리아파트	동문동 857	59	2001	
기산아파트	동문동 872-31	42	2003	
센스빌	석남동 104-1	1,093	2003	임대, 주공4단지

자료 : 서산시청 도시건축과

4. 2004년 이후

대산공단의 확장, 대산 항만건설, 지곡면·성연면·교북면 일대에 자동차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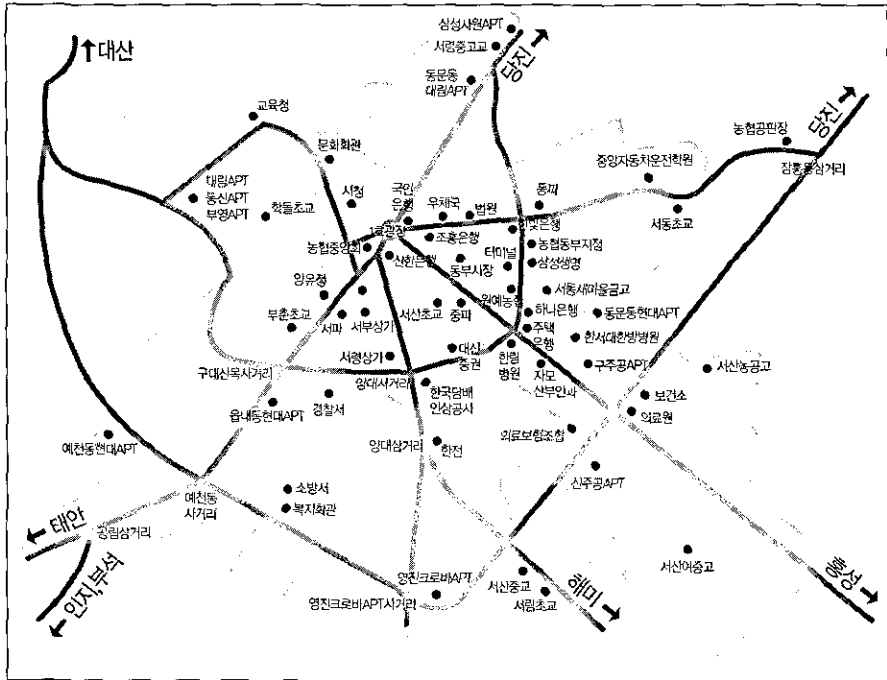
문단지 조성계획과 배후지역이 태안반도 전역에까지 미치는 중심 기능지로서 시가지의 규모가 커질 때 인구증가로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2005년 현재 서산시청에서 건축사업 승인되었거나 승인되어 공사중인 서산 시가지 내 아파트(면 단위는 제외)는 <표 5>와 같이 동문동에 한라비발디(845세대), 코아루(905세대), 현진에버빌(559세대), 석림동에 중앙하이츠빌(431세대), 한성필하우스(431세대), 읍내동에 삼익참드림(99세대), 롯데낙천대(790세대), 예천동에 주공1단지(760세대), 주공2단지(834세대) 등이 있다. 이처럼 한 해에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시가지 형태를 바꿔 놓았다.

<표 5> 2005년 현재 시가지 내 공사중인 아파트

단 지 명	위 치	세대수	시행·시공사	사업승인일
한라비발디	동문동 99-2	845	한라건설	04. 11. 25
코아루	동문동 71-1	905	한국토지신탁이텍스건설	04. 3. 28
현진에버빌	동문동 71-1	559	현진종합건설	04. 1. 19
중앙하이츠빌	석림동 363-8	431	하이츠중앙건설	04. 6. 16
한성필하우스	석림동 590-1	702	한성종합건설	05. 3. 25
삼익참드림	읍내동 797-2	99	부춘연립재건축조합, 삼익건설	04. 8. 25
롯데낙천대	읍내동 738-6	790	태양건설, 롯데건설	04. 1. 20
예천동 주공1단지	예천동 78	760	대한주택공사, 요진산업, 대성건설	02. 9. 7
예천동 주공2단지	예천동 464	834	"	03. 12. 1
공사미착수	동문동 537	200	용수주택건설	04. 11. 23

위 표와 같이 2005년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 및 빌라 등으로 주거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림5>와 같이 도시 형태도 장갑모양⁸⁾에서 나비모양으로 바뀌었다.

8) 서산향토연구회, 「서산의 문화」, 2002년 제14호, p.153.



〈그림 5〉 2005 현재 주거지역

IV. 주거지역 공간구조의 변화

1980년 이전에는 주택은 거의 단층구조였으며 그 후 2층 단독주택이 유행처럼 건축되었고 3층의 연립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립주택으로는 1984년에 건축된 읍내동의 부춘연립(부춘초등학교 옆)이 처음이고 그 후 한신연립(현 동문동 천주교 옆)이 1986년 7월에 건축되었다. 그 후 1988년에 동문동에 5층 구조의 극동한신아파트가 건축되었고, 같은 해 5층 구조의 주공아파트(동문동 먹자골)가 건축되었다. 동시에 4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 또는 아트빌, 빌라 등이 집단을 이루어 건축되었다.

최근에는 〈표 6〉과 같이 10층 이상 22층까지의 고층아파트가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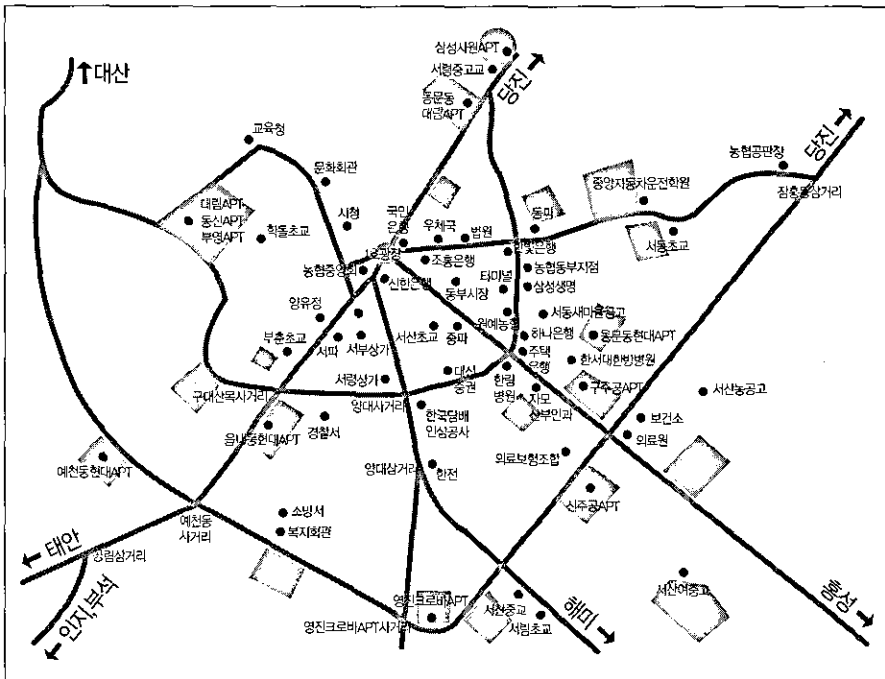
〈표 6〉 주거지역 공간구조(층수)의 변화

단 지 명	동 수	층 수	세 대 수	비 고
평화아파트	2	5	50	
극동한신아파트	3	5	99	
주공1단지	8	5	300	구주공
영진로얄아파트	2	7	70	
동일아파트	1	10	80	
대림아파트	3	11	198	
삼성사원아파트	11	10	620	
영진훼미리	1	15	115	
극동맨션	2	10	84	
영진크로바	2	20	414	
부춘아파트	1	6	60	
동신아파트	4	14-15	352	
대림동신	4	15	360	
주공3단지	5	15	775	
부영아파트	6	15	1,093	
주공2단지	13	15	1,153	
동문동현대아파트	2	16-20	414	
예천동현대아파트	5	12-14	236	
보령훼미리아파트	1	11	59	
읍내동현대아파트	12	16-22	915	
세창리베하우스	8	9-10	468	
기산아파트	1	7	42	
센스빌(주공4단지)	17	8-15	1,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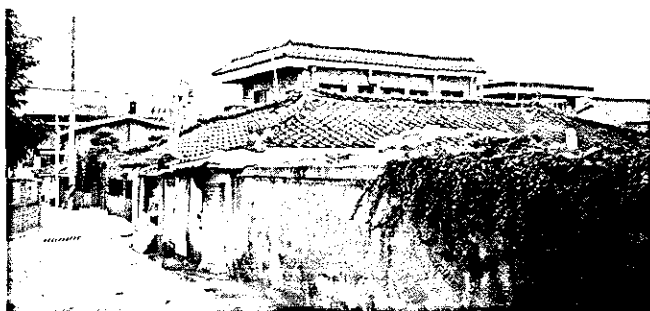
자료 : 서산시청 도시건축과(4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제외)

동문동 삼성아파트, 석림동의 주공아파트, 동문동 현대아파트, 동문동 대림아파트, 읍내동 대림-동신아파트, 부영아파트, 석남동 영진크로바, 예천동 현대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주택공사 센스빌아파트 등이 건축되었고, 2005년 현재 사업승인 되었거나 건축중인 예천동의 주택공사 국민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8건의 고층구조의 아파트가 건축되어 주거지역의 공간구조는 입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간 구조상으로의 구분은 2층 이내의 단독주택지를 저밀도 주택지 <사진 1>, 연립주택, 아트빌, 빌라 등 3-4층의 공동주택단지를 중밀도 주택지 <사진 2>, 5-22층 아파트 단지를 고밀도 주택지 <사진 3>으로 구분되며, 고밀도 주택지 분포지역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고밀도 주택지



저밀도 주택지



중밀도 주택단지



고밀도 주택단지

V. 맺는 말

본 논문에서 서산 시가지의 여러 기능지역 중 특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평면상의 발달 과정과 공간구조(입체면)상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다.

주거 지역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 택지 개발사업으로 확장되고 안전로, 동서로 등 개설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주변에 주거지역이 발달하였다. 특히 대산공업단지 조성 후에 배후지로서 주택 수요량이 늘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또 고북면에 자동차 전문단지가 계획되고, 지곡면, 성연면 일대에 자동차 전문단지가 조성되면서 택지 수요 증가로 시가지 주변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아파트단지가 이루어졌다.

2004년도에는 서산 시가지 주변에만 큰 규모의 10여개 사업 주체가 6,200여 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서령고 앞에서 서산농공고 앞에 이르는 동문동 골짜기 논, 서산여자중학교 앞 석림동의 논, 예천동의 논, 읍내동의 부춘산 기슭, 동문동 향교 주변 녹지가 모두 주거지로 변하고 2005년도에 일시에 아파트가 건축되어 시가지 형태도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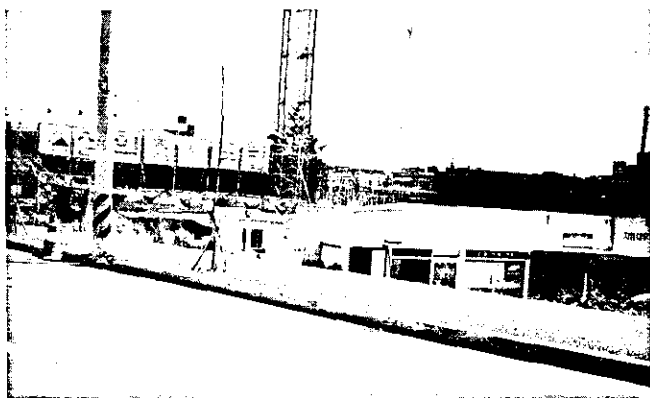
주거지역의 공간 구조는 읍내동 양유정 뒤편, 양대 사거리에서 양대 삼거리를 거쳐 석남동에 이르는 지역, 동문동 전 법원 뒤편은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고, 그 외는 연립, 빌라, 아트빌 등이 많이 건축되어 중밀도 주거지역과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면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여 입체상태를 이루어 가고 있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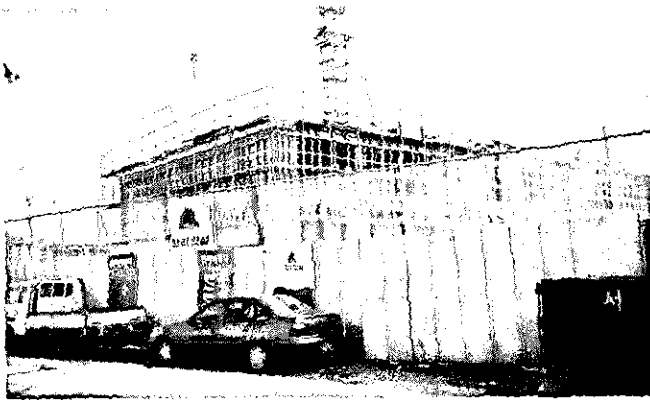
- 2005년 현재 공사중인 고밀도 주택단지



〈현진 에버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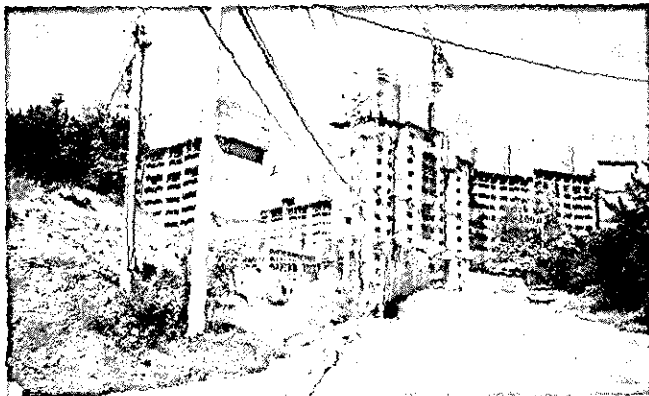
〈삼익참드림〉



〈한라비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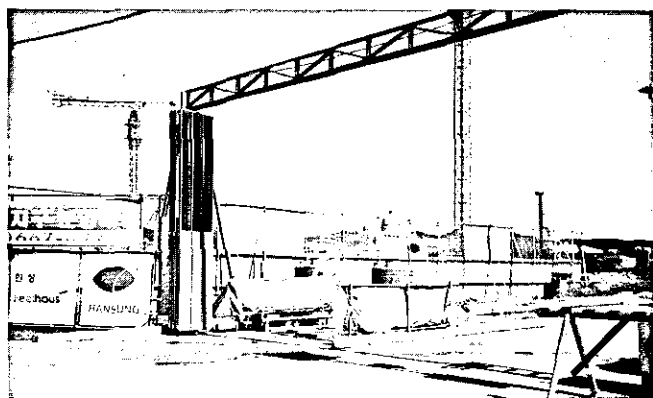
〈코아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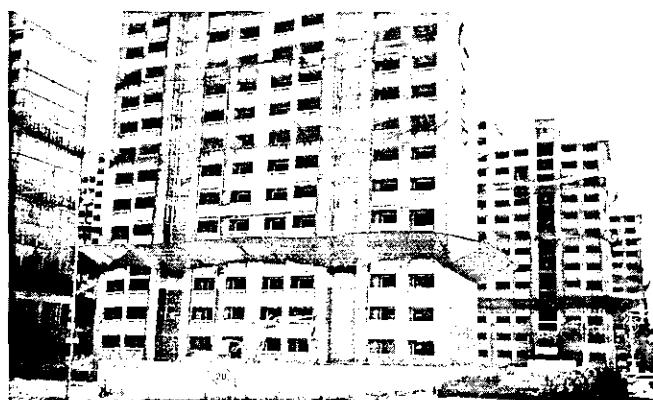
〈롯데 낙천대〉



〈중앙하이츠빌〉



〈한성 필하우스〉



〈예천동 주택공사〉

甲午更張 이후 近代 戶籍制度에 대한 考察

정 환 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주요 호적법규 변천사례 |
| II. 호적제도의 의의 | VI. 호적사무의 관장 |
| III. 호적제도의 연혁 | VII. 서산지역 근대 호적부의 실태 분석 |
| IV. 호적사무의 준거법규 | VIII. 결론 및 제언 |

I. 머리말(緒言)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1년 4월부터 호적 정보시스템을 확산하여 2002. 11. 18 전산화를 완료하고 더 나아가 2003년 법원 행정처에 두고 있는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호적전산 정보자료를 보관하는 웹기반 호적정보 시스템으로 호적사무처리 방식을 전환하여 전국 읍·면·구 및 연계기관에서 호적등본·초본을 발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속 사업으로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서산시와 태안군 4개 읍면이 제적부 이미

지 전산화 사업을 천안시에 소재한 한백컨소시엄 회사가 입찰을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서산 교육삼락회 회원 김종옥(金鍾鈺), 송종학(宋鍾學), 조인환(曹仁煥), 장화진(張華鎭), 문희태(文熙泰) 선생과 본인 정환호(鄭煥虎) 그리고 일반행정 호병계장 출신인 대산읍의 김원호(金元鎬)씨 등 7명이 전산화 사업의 한문 번역 전문요원으로 종사하게 되었다. 선발된 전문요원들은 2개조로 편성하여 2005. 3. 30일부터 2005. 8. 30일까지 서산시 각 읍·면과 태안군의 안면읍, 고남면, 남면, 소원면을 순회하면서 일을 했다. 퇴직후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오랜만에 정시 출퇴근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감개무량(感慨無量)한 심정이었다.

팔순이 넘은 원로 교장 선생님도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하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모두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진지한 연구 자세로서 공무원 선배답게 성실히 근무하였다. 현역 읍·면장님과 호적담당 민원실장님이 친절하게 협조해 주었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매우 고마운 분들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제적부 열람을 하면서 갑오경장 이후 민적부(民籍簿)로부터 일제시대 호적부를 거쳐 대한민국 호적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대 호적부의 변천 과정과 호적부에 담긴 민족 수난의 아픔을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근대 호적제도와 호적 관련 법규내용, 호적 사무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를 많이 익힐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통한 호적제도에 대하여는 서산향토연구회에서 펴낸 서산의 문화 2004년도 제16호에서 신상찬 회원이 파주목(坡州牧) 전준(傳准)의 호적단자를 사례로 들어 자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조선시대 이전의 호적제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금번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작업에 참여하여 서산·태안지역의 오래된 제적부를 살펴 보면서 갑오경장 이후 근대 호적부의 변천사와 호적부의 등재 내용이 가족사(家族史)이면서 향토사(鄉土史), 인류학(人類學) 연구자료라 생각되어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향토사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호적제도의 의의

호적은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적부라는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호적은 시(구)·읍·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이를 편제하고 있으므로 그 가(家)의 구성원 각 개인 즉 가족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신분 관계의 변동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적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 공증하는 제도인 점에서 주민의 거주관계를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다르다. 호적이 가별(家別)로 편제하는 속 인적(屬人的)이고 정적(靜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주민등록은 세대별(世帶別)로 작성하는 자연적(地緣的)이고 동적(動的)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호적관서에서는 호적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 전산화된 호적도 모두 호적부라 부른다.

Ⅲ. 호적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호적법이 제정 공포되어 완비된 호적제도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및 고려시대의 계구적민 제도와 조선 초기의 호적단자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부역과 군역, 조세를 위한 호구조사 방식의 호적제도로써 행정시책 자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호적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제도화하게 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 옛날식 낡은 정치제도를 서양의 법식을 본받아 고친 개혁적인 제도로써 1896년 호구 조사규칙 동년 호구 조사세칙 시행으로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1909년 민적법과 1912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 할 것이며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1923. 7. 1. 조선 호적령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이다. 1948. 7. 17.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호적에 관한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령 중 1945. 8. 9. 현재 효력을 가진 것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민법의 제정과 동시에 1960. 1. 1.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제정되어 공포·시행되었다. 대한민국 호적법이 제정된 이후 1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의 호적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IV. 호적사무의 준거 법규

호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호적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호적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호적예규와 호적선례가 있다. 그 밖에 호적 사무의 처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호적법

호적법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절차 신분법이다. 이러한 호적법은 형식적의의 호적법과 실질적의의 호적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호적법과 특별법으로서의 호적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의의 호적법은 1960. 1. 1. 법률 제535호로 제정된 호적법을 말하며 실질적의의 호적법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 특별법으로서의 호적법이란 호적사무 중 특별한 호적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그 업무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호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분류한 형식적의의 호적법 이외의 실질적의의 호적법 중 대부분이 특별법으로서의 호적법에 해당한다.

2. 호적법 시행규칙

호적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법원 규칙이 호적법 시행규칙이다. 호적법 시행규칙은 1976. 2. 20. 대법원 규칙 제600호로 처음 제정된 이래 8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다가 1990. 12. 31. 대법원 규칙 제1137호로 전면 개정된 이래 14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고, 2003. 9. 17. 웹기반에 의한 호적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개정과 2005. 10. 24. 대법원 규칙 제1959호로 제적부 보존기간 80년에서 영구 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22회의 개정이 있었다. 호적법 시행규칙은 총 10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주로 호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3. 호적예규 및 호적선례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 규칙만으로는 호적사무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호적 준칙이 호적 예규와 호적 선례이다. 호적 예규라 함은 통첩·질의회답·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동종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호적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말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호적 사항에 관한 처리 예로서 참고할 수 있는 적당한 호적 선례를 대법원에서 호적선례요지집·대법원 예규집(호적편)을 발간 호적 관서에 호적 사무처리의 준칙으로 제공하고 있다.

V. 주요(主要) 호적법규 변천사례(變遷事例)

1. 호구조사 규칙(戶口調査 規則)

1896년(建陽元年) 9월 1일 칙령(勅令) 제61호

제1조 전국 내 호수(戶數) 인구를 상세히 편적(編籍)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

에 보호하는 이익을 균점케 함

제2조 10호(戶)를 연합하여 한 통(統)을 작(作)하고 해당 통내에 글자를 알고 행
위 단정한 사람으로 통수(統首)를 정하여 그 통내 인민을 영솔(領率)함

제3조 호적과 통표(統表)는 한성(漢城) 5서(署)와 각 부목군(各 府牧郡)에서는 매
년 2월 내로 수취 수정하여 3월 내로 한성부와 각 해당 관찰부에 송치하
면 한성부는 5월 내로 내부(內部)에 보내고 각도 관찰부에서는 6월내로
내부에 정납(呈納)하면 내부에서 조사 편집하여 12월 20일에 호구 총수를
상주(上奏)함

제4조 인민중에 원호(原戶)를 은익하여 누적(漏籍)하거나 원적내에 인구를 고의
로 빠뜨리는 자는 인민의 권리를 허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에 비추
어 징벌함.

제5조 본 규칙을 고위(故違)하거나 기한을 넘길 때는 인민은 해당 장관이 처벌
하고 주무 관리는 한성판윤과 해당 관찰사가 내부(內部)에 보고하여 징벌
하고 한성판윤과 각 관찰사는 내부 대신이 경중에 따라 징계함.

제6조 호적 통표(統表) 호패식양(戶牌式樣)을 집행하는 세칙은 내부 대신이 수
시로 부령으로 함.

제7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2. 호구조사 세칙

1896년 9월 3일 내무령 제8호로 반포 시행함.

3. 민적법(民籍法)

1909년(隆熙 3) 3월 법률 제8호

제1조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신고함이 가(可) 함. 단 사실의 발생을 알기 어
려울 때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起算) 함.

- (1) 출생 (2) 사망 (3) 호주 변경 (4) 혼인 (5) 이혼 (6) 양자 (7) 파양
- (8) 분가 (9) 일가창립 (10) 입가(入家) (11) 폐절가 재흥(廢絶家 再興)

(12) 부적(附籍) (13) 이거(移居) (14) 개명(改名)

전 항의 사실로 두 면장 이상의 관할 읍·면을 거칠 때에는 신고서 각 본을 작성하여 신고 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를 신고함이 가(可) 함.

제2조 제1조의 신고 의무자는 아래와 같음.

(1) 출생·사망·호주변경·분가·일가창립·폐가·폐절가 재흥·개명 및 이거(移居)의 경우에는 당해 호주

(2) 양자 및 파양의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호주

(3) 혼인 및 이혼의 경우에는 혼가의 호주

(4) 입가(入家)의 경우에는 입가케 한 호주

(5) 부적(附籍)의 경우에는 부적케 한 호주

전항(前項)의 경우에 호주가 신고를 행함이 불능할 때는 호주를 대(代)할 주재자(主宰者), 주재자가 없을 때는 가족 또는 친족 가족 또는 친족이 없을 때는 사실 발생의 장소 또는 건물 등을 관리하는 자 혹은 인가(隣家)로부터 신고를 행함이 가(可) 함.

제3조 혼인, 이혼, 양자(養子) 및 파양(罷壤)의 신고는 실가(實家) 호주의 연서(連署)로써 행함이 가(可) 함. 단, 연서를 얻기가 불능할 때는 신고서에 그 뜻을 부기(附記)함이 가(可) 함.

제4조 제2조의 신고 의무자가 본적지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주 관할 면장에게 신고함을 득(得) 함.

제5조 민적에 관한 신고는 서면으로써 행함이 가(可) 함. 단 현재는 구두(口頭)로써 행함을 득(得) 함.

제6조 제1조의 신고를 태만히 한 자(者)는 50 이하의 태형(笞刑) 또는 50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함. 허위로 신고를 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태형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7조 본 법에 의한 신고는 면장이 없는 곳에서는 면장에 준(準)할 자가 이를 행하고 한성부(漢城府)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행함이 가(可) 함.

제8조 본 법 시행에 요하는 규정은 내부대신(內部大臣)이 이를 정함.

부칙 : 본 법은 1909년(융희 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1896년 칙령 제61호 호구 조사규칙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함.

★ 민적법 4회 개정

4. 민적법 집행심득(執行心得)

1909년 3월 내부훈(內部訓) 제39호

제1조 민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경찰서, 경찰분서 또는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에 민적부를 비치함.

민적법 제1조 각호의 사실이 발생함에 의하여 민적부로부터 제적한 자는 면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함.

제2조 민적에는 지명(地名) 또는 호번호(戶番號)를 붙임이 가(可) 함.

제3조 민적기재의 순위는 아래와 같음.

-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 (4) 호주의 방계친(傍系親) 또는 그의 배우자
 - (5)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 첩(妾)은 처(妻)에 준함.

제4조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에는 가창립(家創立)으로 처리함이 가(可) 함. 단 (但) 양자로 수양(收養)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시는 일가창립(一家創立)으로 한 후 양자로 처리하고 또 부양자가 있을 시는 그 부적(附籍)으로 처리함이 가(可) 함.

제5조 일가절멸(一家絶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적함이 가(可) 함.

제6조 부적자(附籍者)의 민적은 매일가(每一家)를 별지로서 편성하여 부적주민적(附籍主民籍)의 말미에 편철함이 가(可) 함. 부적자의 민적에는 부적주의 성명 또 그 부적인 사유를 난 외에 기재함이 가(可)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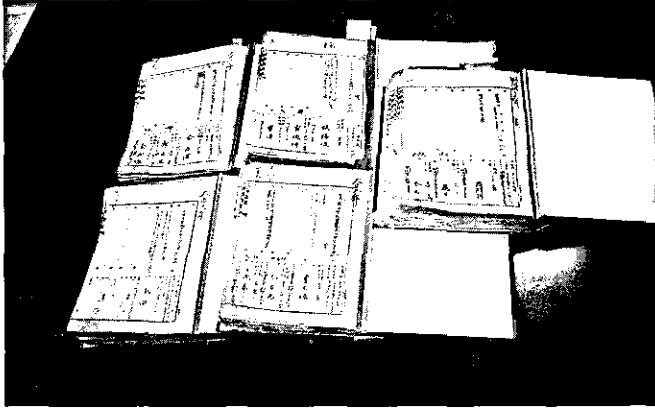
제7조 면장은 항상 내부(內部)의 민적 이동에 주의하여 신고를 태만히 하는 자가 있을시는 이를 최고(催告)함이 가(可) 함.

면장은 구두(口頭)로써 민적에 관한 신고를 접했을 시는 구두 신고서에 기재함이 가(可) 함.

제8조 면장은 민적법 제1조의 신고를 수합하여 그 달분을 다음달 15일까지 소관 경찰관서에 송치함이 가(可) 함.

제9조 경찰관서에서 받은 신고서 중 타관(他管)에 관계된 자는 소관(所管) 경찰관서에 송치함이 가(可) 함.

제10조 민적부는 갑호양식(甲號樣式) 구두신고서는 을호양식(乙號樣式)에 의하여 조제(調製)함이 가(可) 함.



잘 보존된 민적부(해미면)

5.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

(1922년 12월 18일 조선 총독부령 제154호)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조선 민사령(民事令 1912년 제정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外)에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함.

제2조 지방법원 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는 지방 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취급 지역내에 있는 호적사무를 감독함.

제2장 호적부

제3조 호적은 부(府) 또는 면(面)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한 자에 대하여 호주를 본(本)으로 하여 1호(戶)마다 이를 편제(編制)함.

제4조 호적은 지번호(地番號)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함. 1부(府) 또는 면내(面內)에 있는 명(名) 구획(區劃)의 순서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

이 이를 정함.

제5조 호적은 정부(正副) 2본(本)을 설(設)함. 정본은 이를 부청(府廳)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 재판소가 이를 보존한다.

제6조 새로 호적을 편제할 때 부운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그 부분을 감독 재판소에 송부함이 가(可) 함.

제7조 호적부는 사변(事變)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除)한 외(外)에 부청 또는 면사무소 외에 이를 지출(持出)함을 득(得)치 못함.

제8조 호적부를 열람하며 또는 호적의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함을 득(得) 함.

수수료 외의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청구함을 득(得) 함.

부운 또는 면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앞의 2항(項)의 청구를 거(拒)함을 득(得) 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서면(書面)으로서 그 뜻을 청구자에 고지(告知)함이 가(可) 함. 등본 또는 초본은 부운 또는 면장이 이를 작성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부기(附記)하고 또한 이에 직씨명(職氏名)을 서(署)하여 직인을 날인함이 가(可) 함.

제9조 호주상속, 절가(絶家)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抹消)할 때는 그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除)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除籍簿)로 하여 이를 보존함.

제10조 제7조 급(及) 제8조의 규정은 제적부 급(及) 피제(被除)된 호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제3장 호적의 기재수속

생략

제4장 계출(届出)

생략

제5장 호적의 정정(訂正)

생략

★ 조선후적령 5회 개정

6. 조선후적령 시행수속(施行手續)

1923년(大正 12년) 3월 조선총독부 훈령 제15호

★ 조선후적령 시행수속 4회 개정

조선후적령 시행수속 내용생략

7. 법령 제179호 가호적(假戶籍) 취급수속(取扱手續)

제1장 총론

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臨時) 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 본령은 남북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북위(北緯) 38도 이북(以北)에 본적을 두고 38이남(以南)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호적의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㉔ 서기 1945년 8월 15일 당시 북위 38도 이북에 본적이 있었던 자로서 현재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가(假) 본적지로 정하여 취적(就籍) 신고를 함을 득(得) 함.

㉕ 전항(前項)의 신고하는 북위 38도 이북의 본적지를 명백히 표시하여 호적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1922년 12월 총독부령 제154호 호적령 제11조의 규정사항(비고 호적의 기재 수속을 말함)을 신고함을 요(要)함. 만일 호적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기 어려울 때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성년 이상의 남자 2인이 증명한 보증서를 첨부함을 요(要)한다.

㉖ 시·읍·면장 전항의 신고를 접수할 때는 호적령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호적을 편제함을 요(要)함.

제3조 ㉔ 서기 1945년 8월 15일 당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그 호적부가 38도 이북에 소재한 결과 호적부를 사용하기 곤란케 된 자에 대하여는 38도 이남 관할 시·읍·면장은 1923년 3월 총독훈령 제

15호 호적령 시행수속 제29조에 준하여 가호적을 편제함.

㉔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령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함을 득(得) 함.
제4조 앞 2조에 의하여 편제한 가호적은 남북조선이 통일되어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 있는 호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 앞 2조의 잠행(暫行) 호적을 기본으로 하여 신고된 신분상 행위는 원호적(原戶籍)에 저촉되지 않는 한 원호적에 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

제5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고의로써 허위의 보증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6조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서기 1948년 4월 1일

우건의(右建議)함, 민정장관(民政長官) 안재홍(安在鴻)

우인준(右認准)함, 조선군정장관(朝鮮軍政長官) 윌리엄

미국육군(美國陸軍) 소장(小將) 에트뎀

제2장 각론(신고 및 가호적 편제 취급수속)

생략

8. 호적법(戶籍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를 관장한다.(1994. 12. 22. 본조 개정)

제3조(시·읍·면장과 호적사건) ① 시·읍·면의 장은 자기(自己) 또는 자기(自己)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호적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호적사무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감독) ①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구(區) 등의 호적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區)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중 시·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구청장 또는 구(區)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1981. 12. 17, 1995. 12. 6, 1998. 6. 3 본조 개정)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2조의 2, 제3항 및 제13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1. 12. 17, 1984. 7. 30, 1990. 12. 31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1990. 12. 31 본항 개정)

제7조(사무비용)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호적부	}	생략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 신고		
제5장 호적의 개정		
제6장 불복절차		
제7장 벌칙		
제8장 시행규칙		
부칙		

- ★ 호적법 2005. 3. 31 법률 7427호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는 법개정까지 13회 개정함.

9. 호적법 시행규칙

1976년 2월 20일 대법원 규칙 제600호

- ★ 호적법 시행규칙 2005. 10. 24 대법원 규칙 제1959호 제적부 80년 보존에서 영구보존토록 하는 규칙 일부 개정까지 22회 개정함.

10. 호주제도 폐지 등 호적법 일부개정 내용

2005. 3. 31 대법원 법률 7427호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과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 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호주제도 폐지 :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를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현행법 제778조,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本)도 따를 수 있도록 함.(법 제781조 제1항)

-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제6항)
- (라)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 등 : 남녀 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809조)
- (마)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기간 제도 폐지 : 부성(父姓) 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취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
-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제기 인정 :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父)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 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父) 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법 제846조 및 제847조)
- (사) 친양자제도 신설 :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 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신설함.(법 제908조의 2 내지 제908조의 8 신설)
- (아) 친권행사의 기준 신설 :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함.(법 제912조 신설)

11. 정보처리 시스템 호적사무에 관한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2003년 9월 17일 대법원 규칙 1848호)

전국 호적관서에서 웹기반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특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각 해당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호

적사무는 원칙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함. 그리고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은 제적부와 이기 보류되어 일부 전산화되지 않은 호적부에 대한 사항 중 개정 규칙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으로 처리하도록 함.

★ 주요 개정 내용

- (가) 감독 법원으로부터 전산 호적관서로 지정 고시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호적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제1조)
- (나) 이 규칙에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이라 함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되지 아니하고 종이로 기재·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을 말하고 “호적 또는 제적에의 기재”라 함은 호적 법규가 정하는 사항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록하거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 2)
- (다)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 법원은 위 보고 및 제5조의 출장소 개설 등 보고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가정 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제5조 제3항 제7조)
-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및 서류를 인계하는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 또는 그 제적은 그 목록을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함.(제8조)
- (마) 본적 경정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고 그것과 동일한 기록을 백업 관리하므로 제9조를 삭제함.
- (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적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둠.(제14조)
- (사) 호적사무를 웹기반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법원행정처(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함.(제14조의 2)
- (아) 호적이 열람 등 초본의 교부 등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호주 또는 가족인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제21조 제1항 단서)
- (자)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관리하므로

그 동안 감독 법원에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분을 송부하도록 하였던 제22조를 삭제함.

- (차)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적 또는 제적 등 초본의 증명 문구를 호적용지로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그 증명문구를 변경함.(제24조)
- (카)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호적·제적 등 초본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 3)
- (타)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는 98조 내지 제116조를 웹기반에 의한 호적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각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이를 삭제함.
- (파)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은 제적과 이기 보류되어 일부 전산화 되지 않은 호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개정규칙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으로 처리하도록 함.(부칙 제2조)
- (하) 그 밖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호적 사무처리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Ⅵ. 호적사무의 관장

호적사무라 함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의 신고나 신청 등의 수리, 호적의 기재,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사무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종 호적의 신고나 신청 등을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하는 사무는 물론 호적 등·초본을 발행하는 사무, 호적에 관한 장부를 정리하는 사무, 다른 호적관서 및 감독 법원에의 송부사무, 감독 법원에 보고하는 사무, 호적비송에 관한 사무 등이 모두 호적사무에 속한다.

호적사무의 관장이라 함은 통상 호적사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자가 자기의 책임 아래 자기 이름으로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호적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호적사무 관장자라 한다.

1. 호적사무 관장기관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1923. 7. 1. 조선 호적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조선 호적령은 호적사무의 준사법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호적사무의 관장은 부윤(府尹) 및 면장이 담당하고 감독사무는 지방 법원장 및 그 지청의 상석판사의 소관으로 하였다. 1949. 9. 26. 제정된 법원 조직법은 호적에 관한 사무를 법원에서 관장 또는 감독하고 법원내에서는 법원 행정처가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60. 1. 1. 현행 호적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조선 호적령이 폐지되었다.

법원 행정처는 호적사무의 중앙 관장기관으로써 전국의 호적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감독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적제도의 변천과 제도 개선에 따라 각종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왔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호적 사무처리에 관한 많은 예규, 선례 및 지침 등을 시달하여 호적업무 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호적 사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2. 호적 사무의 관장자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호적법 중 시·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하고 광역시에 있어서는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하므로 좁은 의미의 호적사무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을 지칭하게 된다. 동일 면 구역으로서 일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속하더라도 그 면사무소가 이남 지역에 소재하고 호적 사무를 취급하고 있을 때에는 그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본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호적 사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호적 사무의 관장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맡긴 것은 호적 사무가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질상 본래 국가 사무이지만 호적이 일반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다른 행정사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호적 사무의 관장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의장과 군수에게는 맡기지 아니하고 읍·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적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3. 호적 사무 관장자의 직무

호적 사무관장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주요 사항만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호적신고 등의 접수, 수리

호적법 제4장의 각종 호적신고 등과 제5장의 신청을 접수·심사하여 수리하는 업무를 한다.

(나) 호적의 기재

호적 사무관장자가 호적신고 등을 수리하면 그 신고된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호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호적(제적)부의 편제와 보존, 이용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한 호적부를 작성·보존하고, 그 호적부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적을 편철한 제적부도 호적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존, 관리한다.

(라)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재제, 보완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호적의 직권정정 등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때에는 호적 사무관장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또는 얻지 않고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한다.

(바) 감독법원에 대한 각종 호적관련 사항보고

호적 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 그리고 호적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호적 과태료의 부과·징수

호적 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신고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4. 호적사무의 담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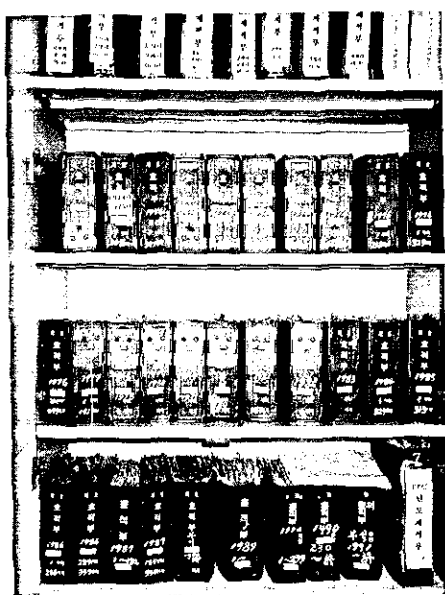
호적 사무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를 직접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제로는 호적 사무담임자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호적 사무담임자는 호적 사무관장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로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호적사무관장자 명의로 호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점에서 호적사무의 대리자와 구별된다. 일선 호적관서에서 사실상 호적 사무담임자가 호적 사무관장자의 서미인을 가지고 모든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두 호적 사무관장자가 지는 것이며, 호적

사무관장자는 그가 위임받은 호적 사무처리의 권한 일체를 다시 보조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호적 사무담임자가 호적 사무관장자의 보조기관으로서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사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책임을 직접 져야 함은 물론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상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 사무담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즉시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산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질서 정연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 호적부

VII. 서산지역 근대 호적부의 실태 분석

1. 호적부 양식의 변천사례

(가) 호구조사 규칙시행(1896. 9. 1) 호적부 양식(제1, 2, 3 별표)

郡邊寧 道北安平															第一別表 戶籍式樣
戶		統		第		洞		里		面		戶			
外	會	組	生	父	主	戶	統	第	洞	里	面	戶	統		
組	組	組	父	父	主	戶	統	第	洞	里	面	戶	統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紙價金四分

제1별표 호적 식양

郡邊寧 道北安平															第二別表 統表式樣
戶		統		第		洞		里		面		戶			
外	會	組	生	父	主	戶	統	第	洞	里	面	戶	統		
組	組	組	父	父	主	戶	統	第	洞	里	面	戶	統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守		

제2별표 통표 식양

第三別表戸牌式樣

何道何郡何面何里何洞

第幾統第幾戸

職業

姓

名

長木尺五寸

分五寸二釐

제3별표 호패 식양

(나) 민적부 갑호1 양식(1909~1923)

[illegible]

(다) 민적부 부석면 사례(1909년)

本籍	事由	事由	事由
忠清南道瑞山府馬山面沙場里 六統 三戶 農	隆熙二年壬子三月三日忠南泰安郡仁內面松岩里三統二戶外移居 明治四十二年壬子春年那面松岩里統戶移居		開國五百三十二年三月二十日忠清南道泰安郡近西面接芝洞一統五戶宋昌隆長女 婚姻
主 戶	身 位	身 位	身 位
父 韓周基 母 趙氏 出生別 長男	父 韓周基 母 趙氏 出生別 長男	父 宋昌隆 母 曹氏 出生別 長女 本 礪山	父 宋昌隆 母 曹氏 出生別 長女 本 礪山
生年月日 國曆四百五十五年七月十九日	生年月日 國曆四百五十七年八月二十五日	生年月日 國曆四百五十六年二月十五日	生年月日 國曆四百五十六年二月十五日
名 姓 韓 台 履	名 姓 羽 翼 教	名 姓 宋 氏	名 姓 宋 氏
本 清州 前戶主 韓周基			
戶主 原因 戶主 韓周基 死亡 官因 李敬光 及其年月日 武四年一月十四日 戶主 外移			

(用紙美濃(甲號別二))

(라) 민적부 부적(附籍) 부석면 사례(1909년)

伯先 附籍

由 事		由 事		由 事		籍 本	
開國百十六年四月日忠南泰安郡南 西積石里三統戶李有成長女豆婚相		光武二年十月十日忠南泰安郡西三 峰里三統戶金英根家呈呈附籍		 道 府 坊 洞 統 戶 		 道 府 坊 洞 統 戶 	
位 身		位 身		主 戶		本 戶	
妻		男 傭		主		戶	
生年月日	名 姓	生年月日	名 姓	生年月日	名 姓	生年月日	名 姓
開國百十六年五月二日	李 氏	開國百十六年三月十九日	金 鳳 上玄				
	父 李有成		父 金英根				
	母 金氏		母 朴氏				
	出生別 長女		出生別 長男				
	本 金丹		本 金海				
						戶主原因	前戶主
						及其年月日	
						出生別	

(用紙英紙(甲號二))

[illegible]

(바) 조선호적령 시행 호적부 양식(1923~1959)

朝鮮戶籍令施行手冊 沿革

附錄第一號書式附屬雛形 注意 (本雛形은戶籍의記載를한相當欄) 및 特殊記載例를表示함에함임)																																																	
本 京 城 府 鳳 翼 町 百 一 番 地 禮 智 町 一 番 地 權 紀 四 貳 五 六 年 七 月 九 日 前 戶 主 李 丙 煥 死 亡 因 此 戶 主 相 續 屆 出 同 月 九 日 受 附 ⑥ 京 城 府 鳳 翼 町 百 一 番 地 에 서 轉 籍 屆 出 權 紀 四 貳 五 六 年 拾 壹 月 參 日 受 附 ⑥ 朴 春 卿 과 結 婚 屆 出 權 紀 四 貳 五 六 年 拾 貳 月 五 日 受 附 ⑥ 權 紀 四 貳 五 六 年 四 月 八 日 午 後 拾 壹 時 京 城 鳳 翼 町 百 一 番 地 에 서 死 亡 戶 主 李 圭 徹 屆 出 同 月 九 日 受 附 ⑥																																																	
<table border="1"> <tr> <td colspan="2">母</td> <td colspan="2">主</td> <td colspan="2">戶</td> <td colspan="2">前 主 戶</td> </tr> <tr> <td>出生</td> <td>權 紀 四 貳 壹 〇 年 八 月 拾 五 日</td> <td>父 出生</td> <td>權 紀 四 貳 拾 五 年 二 月 六 日</td> <td>母 父 前 戶 主 之 關 係</td> <td>劉 亡 李 丙 煥 長 男 本 實 威 興</td> <td>李 丙 煥 長 男 本 實 威 興</td> <td>李 丙 煥</td> </tr> <tr> <td colspan="2">朱 朱 劉 彰 鶴</td> <td colspan="2">母 父 出生</td> <td colspan="2">李 圭 徹</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亡 劉 興 基 長 女 本 實 威 興</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亡 金 正 姬</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able>										母		主		戶		前 主 戶		出生	權 紀 四 貳 壹 〇 年 八 月 拾 五 日	父 出生	權 紀 四 貳 拾 五 年 二 月 六 日	母 父 前 戶 主 之 關 係	劉 亡 李 丙 煥 長 男 本 實 威 興	李 丙 煥 長 男 本 實 威 興	李 丙 煥	朱 朱 劉 彰 鶴		母 父 出生		李 圭 徹						亡 劉 興 基 長 女 本 實 威 興								亡 金 正 姬					
母		主		戶		前 主 戶																																											
出生	權 紀 四 貳 壹 〇 年 八 月 拾 五 日	父 出生	權 紀 四 貳 拾 五 年 二 月 六 日	母 父 前 戶 主 之 關 係	劉 亡 李 丙 煥 長 男 本 實 威 興	李 丙 煥 長 男 本 實 威 興	李 丙 煥																																										
朱 朱 劉 彰 鶴		母 父 出生		李 圭 徹																																													
		亡 劉 興 基 長 女 本 實 威 興																																															
		亡 金 正 姬																																															

(아) 창씨개명 고북면 사례 1(1940년)

2005년 9월 28일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면지 전산화

本籍 忠清南道 瑞山郡 高北面 龍岩里 番地	
(Handwritten family history and details in vertical columns)	
妻	主 戸
新小氏 (妻) 新小氏 長女 清氏	新小氏 (主) 新小氏 長女 清氏

(자) 가 호적부 양식(1948. 5. 1 법령 제179호)

法令第一七九號(廢戶籍)取領手帳									
本籍 (愛知縣) (三八以北)		市町村別市 區 町		市 區 町		市 區 町		市 區 町	
一、出生場所		二、實家又々實家別		三、出生地		四、實家又々本家別		五、結婚居住年月日	
六、其他事項		七、出生場所		八、實家本籍戶主別		九、出生地		十、結婚居住年月日	
十一、其他事項		十二、實家本籍戶主別		十三、出生地		十四、結婚居住年月日		十五、其他事項	
十六、其他事項		十七、實家本籍戶主別		十八、出生地		十九、結婚居住年月日		二十、其他事項	
二十一、其他事項		二十二、實家本籍戶主別		二十三、出生地		二十四、結婚居住年月日		二十五、其他事項	
二十六、其他事項		二十七、實家本籍戶主別		二十八、出生地		二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三十、其他事項	
三十一、其他事項		三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三十三、出生地		三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三十五、其他事項	
三十六、其他事項		三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三十八、出生地		三十九、結婚居住年月日		四十、其他事項	
四十一、其他事項		四十二、實家本籍戶主別		四十三、出生地		四十四、結婚居住年月日		四十五、其他事項	
四十六、其他事項		四十七、實家本籍戶主別		四十八、出生地		四十九、結婚居住年月日		五十、其他事項	
五十一、其他事項		五十二、實家本籍戶主別		五十三、出生地		五十四、結婚居住年月日		五十五、其他事項	
五十六、其他事項		五十七、實家本籍戶主別		五十八、出生地		五十九、結婚居住年月日		六十、其他事項	
六十一、其他事項		六十二、實家本籍戶主別		六十三、出生地		六十四、結婚居住年月日		六十五、其他事項	
六十六、其他事項		六十七、實家本籍戶主別		六十八、出生地		六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七十、其他事項	
七十一、其他事項		七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七十三、出生地		七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七十五、其他事項	
七十六、其他事項		七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七十八、出生地		七十九、結婚居住年月日		八十、其他事項	
八十一、其他事項		八十二、實家本籍戶主別		八十三、出生地		八十四、結婚居住年月日		八十五、其他事項	
八十六、其他事項		八十七、實家本籍戶主別		八十八、出生地		八十九、結婚居住年月日		九十、其他事項	
九十一、其他事項		九十二、實家本籍戶主別		九十三、出生地		九十四、結婚居住年月日		九十五、其他事項	
九十六、其他事項		九十七、實家本籍戶主別		九十八、出生地		九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其他事項	
一百零一、其他事項		一百零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零三、出生地		一百零四、結婚居住年月日		一百零五、其他事項	
一百零六、其他事項		一百零七、實家本籍戶主別		一百零八、出生地		一百零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一十、其他事項	
一百一十一、其他事項		一百一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一十三、出生地		一百一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一百一十五、其他事項	
一百一十六、其他事項		一百一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一百一十八、出生地		一百一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二十、其他事項	
一百二十一、其他事項		一百二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二十三、出生地		一百二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一百二十五、其他事項	
一百二十六、其他事項		一百二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一百二十八、出生地		一百二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三十、其他事項	
一百三十一、其他事項		一百三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三十三、出生地		一百三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一百三十五、其他事項	
一百三十六、其他事項		一百三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一百三十八、出生地		一百三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四十、其他事項	
一百四十一、其他事項		一百四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四十三、出生地		一百四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一百四十五、其他事項	
一百四十六、其他事項		一百四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一百四十八、出生地		一百四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五十、其他事項	
一百五十一、其他事項		一百五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五十三、出生地		一百五十四、結婚居住年月日		一百五十五、其他事項	
一百五十六、其他事項		一百五十七、實家本籍戶主別		一百五十八、出生地		一百五十九、結婚居住年月日		一百六十、其他事項	
一百六十一、其他事項		一百六十二、實家本籍戶主別		一百六十三、出生地		一百六十四、結婚居住年月日			

[illegible]

(차) 대한민국 호적법 시행 호적부 양식 (1960. 1. 1~)

严格法商行令 沿革

[별지 제14호서식]					
	No.				
본 적	서울특별시 중로구 봉익동 百號前宅				
서기號千九百貳拾四년七月壹拾伍日주상속신고에의하여 편제 ㉔					
서기號千九百六拾九年拾월拾五日서울특별시장등구성당통五拾六번지에서전적 신고에의하여편제 ㉕					
원호주의 관 계	담 주納稅 의 자			전호지역	
부 담 李炳煥	남		본	입 지 는 또 신소재	
모 劉影鳳					담 용
호 수	年 出 賃			출 생	西曆一千九百零二 年貳月貳拾일
서기號千九百貳拾參年拾貳월貳拾柒日朴奉熙과혼인신고 ㉖					
서기號千九百貳拾四年七월九日原 호주소우사양으로호주소속 ㉗					

518

严刑法施行令 沿革

[illegible]

(타) 2002년 정보시스템 호적전산화 이후 호적부양식(서산시)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본 적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22번지의 7			
호적편제		[편제일] 1966년 12월 01일			
호적편제		[전적신고일] 1969년 02월 18일			
		[전본적지] 서산군 지곡면 화천리 300번지			
		[편제일] 1969년 02월 18일			
전산이기		[이기일] 2001년 09월 24일			
		[이기사유]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전호주와의 관계		정준익의 자		전호적	
부	정준익	성	남	본	입 적 또 는 신호적
모	최순엽	별		錦城	
호주	정환호(鄭煥虎)			출 생	서기 1939년 10월 25일
				주민등록 번호	391025-1*****
출생	[출생장소] 서산군 대산읍 대죽리 679번지				
	[신고일] 1939년 10월 30일 [신고인] 부				
호주상속	[호주상속일] 1966년 11월 17일				
	[호주상속사유] 전호주 사망				
	[신고일] 1966년 12월 01일				
혼인	[혼인신고일] 1969년 03월 22일				
	[배우자] 문희복				
부	최병준	성	여	본	전호적
모	장씨	별		海州	
모	최순엽(崔順燁)			입 적 또 는 신호적	
				출 생	서기 1913년 09월 05일
	제적			주민등록 번호	130905-2*****
혼인	[혼인신고일] 1936년 03월 15일				
	[배우자] 정준익				
기타	[배우자의사망일] 1966년 11월 17일				
	[배우자] 정준익				

2. 호적부에 등재된 본적지 고지명(古地名) (1909~1923.민적부)

고지명(古地名)	현지명(現地名)	고지명(古地名)	현지명(現地名)
馬山面 竹林里	부석면 송시리	馬山面 新谷	부석면 취평리
" 沙場里	" 가사리	禾邊面 七田里	부석면 칠전리
" 下都里	" 월계리	" 黑石里	" 봉락리
" 花山里	" 월계리	" 沙店里	" 칠전리
" 射亭里	" 가사리	" 池巴洞	" 지산리
" 苧心里	" 갈마리	" 山底里	" 지산리
" 杜洞	" 월계리	" 洛陽里	" 봉락리
" 大頭里	" 대두리	" 老羅浦	" 봉락리
" 楊溪里	" 강수리	" 鳳洞	" 봉락리
" 新里	" 취평리	" 金谷	" 칠전리
" 柯田里	" 가사리	" 倉村	" 창리
" 月溪里	" 월계리	" 項村	" 창리
" 松亭里	" 송시리	" 馬龍	" 마룡리
" 翠浦里	" 취평리	" 高岑	" 마룡리
" 秀峴里	" 강수리	" 書堂洞	" 강당리
" 龍水里	" 강수리	" 芳橋	" 지산리
" 坪里	" 취평리	" 大岑	" 마룡리
" 上都里	" 월계리	" 桃夭洞	" 지산리
" 江境	" 강수리	" 詩洞	" 강당리
" 內松	" 월계리	" 達川	" 지산리
" 隱洞	" 마룡리	" 新村	" 취평리
" 柿洞	" 송시리	" 江村	" 강당리
" 渴馬	" 갈마리	仁政面 野村里	인지면 야당리
" 石隅里	" 갈마리	" 棠山里	" 둔당리

고지명(古地名)	현지명(現地名)	고지명(古地名)	현지명(現地名)
仁政面 菴山里	인지면 둔당리	東面 上造里	해미면 조산리
" 南山里	" 남정리	" 詩山里	" 휴암리
" 葛山里	" 남정리	" 東山里	" 귀밀리
" 栗里	" 야당리	" 魚淵里	" 홍천리
東面 上柳里	해미면 삼송리	南面 億堡里	" 억대리
" 分紅里	" 동암리	" 上前里	" 전천리
" 松峙里	" 삼송리	" 下前里	" 전천리
" 三峰里	" 삼송리	" 下前川里	" 전천리
" 深谷里	" 대곡리	" 上前川里	" 전천리
" 烏洞	" 오학리	" 梳城里	" 웅소성리
" 城內里	" 읍내리	" 貴密里	" 귀밀리
" 晚陽里	" 반양리	" 新良里	" 양림리
" 下柳里	" 관유리	" 新南里	" 기지리
" 水源里	" 산수리	" 上舊里	" 양림리
" 堂山里	" 오학리	" 下舊里	" 양림리
" 月洛里	" 황락리	" 堰內里	" 언암리
" 路下里	" 읍내리	" 七星岩里	" 언암리
" 盤溪里	" 반계리	" 石浦里	" 석포리
" 西門里	" 오학리	" 猪城里	" 저성리
" 白鶴洞	" 오학리	" 上陽里	" 양림리
" 冬岩里	" 동암리	" 加佐里	" 석포리
" 川邊里	" 읍내리	" 石橋里	" 양림리
" 鵝岩里	" 휴암리	" 新基里	" 황락리
" 路上里	" 읍내리	" 上鷹坪里	" 응평리
" 泉谷里	" 홍천리	" 新興里	" 석포리
" 下造山	" 조산리		

(가) 행정구역 변천 연혁

◎ 현 해미면(海美面)

- 1895년(고종 32년) 해미군으로 개칭
- 동면(東面), 남면(南面)을 합하여 1914년 4월 1일 지성면(枳城面)으로 개칭(서산군)
- 1917년 10월 1일 해미면으로 개칭
- 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 통합으로 서산시로 됨

◎ 현 부석면(浮石面)

- 조선 태종 13년 서산군으로 부르면서 마산면(馬山面), 화변면(禾邊面)과 인정면(仁政面) 일부 편입된 것을 합하여 1914년 11월 1일 부석면으로 개칭
- 간월도리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면읍에서 부석면으로 편입되었다.
- 호적부 호주의 본적지 기재 예(例) 1913년 민적부

忠淸南道 瑞山郡 馬山面 竹林里 六統二戶

- 각 읍·면마다 민적부에는 옛 자연 부락명으로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소개 할 수는 없고 부석면과 해미면만 사례로 소개하였다.

3. 호적부에 표기된 연호(年號)

일 본 연 호	개 국 연 호	단 기 연 호	조 선 왕 조	서 기 연 호
文化 1~14	413~426	4137~4150	순조 4~17	1804~1817
文政 1~12	427~438	4151~4162	순조 18~29	1818~1829
天保 1~14	439~452	4163~4176	순조 30~현종 9	1830~1843
弘化 1~4	453~456	4177~4180	현종 10~13	1844~1847
嘉永 1~6	457~462	4181~4186	현종 14~철종 4	1848~1853
安政 1~6	463~468	4187~4192	철종 5~10	1854~1859
萬延 1	469~469	4193~4193	철종 11~11	1860~1860
文久 1~3	470~472	4194~4196	철종 12~14	1861~1863
元治 1	473~473	4197~4197	고종 1~1	1864~1864
慶應 1~3	474~476	4198~4200	고종 2~4	1865~1867
明治 1~44	477~520	4201~4244	고종 5~왜정 2	1868~1911
大正 1~14	521~534	4245~4258	왜정 3~16	1912~1925
昭和 1~63	535~597	4259~4321	왜정 17~건국 41	1926~1988

- 일제 강점기의 호적부에 연호 사용은 일본 연호를 주로 사용하였다. 나라를 빼앗기어 자기 나라 연호를 제대로 쓰지 못한 민족의 비극에 비통함을 느꼈다.
- 조선의 연호 : 개국(開國), 단기(檀紀), 건양(建陽), 광무(光武), 융희(隆熙)
- 중국의 연호 : 광서(光緒)
- 일본의 연호 : 문화(文化), 문정(文政), 천보(天保), 홍화(弘化), 가영(嘉永), 안정(安政), 만연(萬延), 문구(文久), 원치(元治), 경응(慶應),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
- 1909년~1912년에는 조선 연호가 많이 표기되었고 간혹 중국 연호인 광서(光緒) 표기가 있었다.
- 1913년~1945년까지는 주로 일본 연호가 표기되었고 조선 연호도 조금 섞여 표기되었다.
- 연호에 관한 법률(法律)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5호)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부칙

- (1)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법률 제4호 연호(年號)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3) 본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호는 당해 단기 연대에서 2333년을 감(減)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 (4) 연대 정정(訂正)에 있어서는 공문서 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訂正印)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4. 민적부에 등재된 호주(戶主) (1909~1923)

[기재 예(例)]

본적 : 忠淸南道 瑞山郡 馬山面 沙場里 六統 三戶 農業

사유 : 隆熙 二年 十二月 十三日 忠南 泰安郡 二內面 松岩里 三統一戶에서 移居

본 : 淸州, 전호주 : 韓用基

호주된 원인급 년월일 : 戶主 韓用基 死亡으로 因하여 光武 四年 一月 十四日
戶主가 됨.

부 : 韓用基

모 : 趙氏

출생별 : 長男

호주성명 : 韓台履

생년월일 : 開國 四百五十五年 七月 十九日

5. 민적부에 등재된 호주(戶主)와의 관계 신위(身位) (1909~1923)

모(母), 처(妻), 장남(長男), 장녀(長女), 자부(子婦), 손자(孫子), 손녀(孫女), 제(弟), 제수(弟嫂), 숙부(叔父), 질(姪), 생질(甥), 첩(妾), 서자남(庶子男), 서자녀(庶子女), 수양자(收養子), 연자(連子), 연녀(連女), 연자처(連子妻)

※연자(連子) :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녀

[기재 예]

사유 : 光武 五年 十月 十五日 忠南 瑞山郡 馬山面 秀峴里 一統 二戶 柳化京
連子 入家

호주 : 房禮欽

첩 : 姜氏

연자 : 柳平云 { 父 柳化京
母 姜氏

6. 민적부에 등재된 부적(附籍) (1909~1923)

부적(附籍) : 다른 사람 집(戶口)의 호적부에 붙인 호적

[기재 예]

호주 : 金伯先家 附籍

사유 : 光武 六年 十月 十日 忠南 泰安郡 遠西面 三峰里 一統 二戶 金英根家로
부터 附籍

신위 : 傭男(雇男)

성명 : 金鳳玄 — 父 金英根
 — 母 朴氏

출생별 : 長男

본 : 金海

생년월일 : 開國 四百六十八年 三月 十九日

처 : 李氏(인적사항 생략)

7. 민적부에 등재된 신분 및 직업(1909~1923)

- 신분 : 양반(兩班), 이장(里長), 군수(郡守), 승려(僧), 고용인(雇傭人), 부석사 주지(浮石寺 住持)
- 직업 : 농업(農), 상업(商), 주막업(酒幕), 염업(鹽業), 은세공(銀細工), 철공(鐵工), 무속인(巫), 훈도(訓導), 날품팔이(日稼), 선원(船夫), 체신부(遞信夫, 遞傳夫), 마포신발상(麻鞋商), 유기그릇상(眞鎗器商), 관리(官吏), 순사보(巡査補), 대서업(代書業)

8. 호적부에 등재된 특이한 남자 성명(姓名), 여자 성명(姓名)

• 남자 성명

박개동(朴介童)	정순돌(鄭順玆)
강지리산(姜智理山)	조돈복(曹豚卜)
이도야지(李道也知)	이돌쇠(李斗鉤)
조아지(趙阿只)	김이백(金二白)

• 여자 성명

이소사(李召史)	오가자(吳佳子)
김아지(金牙只)	최묘월(崔妙月)
신오월(申五月)	기묘애(奇妙艾)
박간난(朴干蘭)	이묘태(李妙台)

정아애(鄭兒愛)	강월례(姜月禮)
조아유(趙兒幼)	유월순(柳月順)
김월지(金月枝)	김간난이(金干蘭伊)
유추월(柳秋月)	한설매(韓雪梅)
한지즙(韓芝茸)	안화지(安花芝)
구매월(具梅月)	이소저(李少姐)
전등애(全登愛)	정아령(鄭牙令)
유분금(俞分今)	이종이(李從伊)
안춘매(安春梅)	

- 1945년 이전의 호적부에는 이름없이 성씨만 기재된 여자들이 많았다.(崔氏, 鄭氏, 金氏, 李氏, 安氏)
- 여자를 멸시하는 생각에서 성의없이 작명(作名) 되었으며 召史, 牙只, 干蘭 같은 이름이 많았고 창씨개명 이후 일본식 명을 따라 자(子)자를 쓴 이름이 많이 등장하였다.
- 딸 이름을 장녀(乙), 2녀(丙), 3녀(丁)으로 작명하여 등재한 호적부도 있었다.(1918년 제적부 서령면 온석리)
- 양반이나 지방유지 출신 인사에게는 성명밑에 씨자(氏字)를 붙여 등재한 호적부도 있었다.(인지면 갈산리, 지곡면 대요리)

[사례 예]

鄭英氏 敎

鄭漢祚氏

庶母 田仁氏 淑

9. 호적부에 등재된 집성촌 성씨(集姓村 姓氏)와 희성씨(稀姓氏)

서산지역에는 고려말 이후 사족 출신 인사들이 낙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世居)하면서 향촌사회(鄉村社會)를 이루고 문중(門中) 조직이 활성화 되자, 동족 마을이 형성 발달되어 왔다.

대산읍의 학주 김홍옥 후손인 경주김씨가 수백년간 자리잡고 있었고, 부석면

강당리를 중심으로 한 회안대군 이방간 후손인 전주이씨가 500여년 간 세거하고 있으며 서령유씨 유방택 이후 500여 년간 부석면, 인지면을 비롯한 서산 전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성연면의 광산김씨, 월탄 한효순 후손인 청주한씨, 지애 민형남 후손인 여흥민씨, 순계 박율의 후손인 밀양박씨 그리고 성연면 오사리 서산정씨, 정인경 후손과 노저 이양원 후손인 전주이씨, 지곡면 대요리에 임진왜란과 이괄 반란 평정에 공을 세운 충무공 정충신 후손인 한우물 금성정씨, 음암면의 김홍익, 김유경 후손인 경주김씨, 신장리 구리바위 변성군 이계연 후손인 전주이씨, 팔봉면 최몽량의 후손 경주최씨, 어송리 문뢰 후손인 남평문씨, 양길리 병조판서를 지낸 안국인 후손인 순흥안씨, 운산면 여미리 정종대왕의 넷째아들 신성군 이무생의 후손, 인지면 남정리 김희회 후손인 김해김씨 등 이 외에도 많은 씨족이 서산 지방에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고 있다.

희성씨(稀姓氏)는 안면도 태안읍 도내리, 남면 몽산리, 부석면 창리, 팔봉면 호리, 해미면 석포리, 성연면 명천리 등 해상교통이 편리한 바다가 인접한 곳에 희성씨 도래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

(가) 호적부에 나타난 서산지역의 동족마을(집성촌)

마 을 명	성 씨	마 을 명	성 씨
고북면 양천리	한양趙氏	기은리	김해金氏(금섬김씨)
가구리	경주金氏	운산리	경주金氏(갈마리김씨)
기포리	전주崔氏(통개최씨)	화곡리	경주金氏(개화동김씨)
봉생리	영일嚴氏	영탑리	의성金氏(탑골김씨)
봉생리	경주金氏(생천김씨)	기은리	인동張氏(금마재장씨)
장요리	경주金氏(산밀김씨)	운산리	청주韓氏
신정리	남평文氏(황글문씨)	부석면 강당리	전주李氏(화변이씨)
신정리	해주吳氏(날새오씨)	가사리	서령柳氏(갈밭유씨)
남정리	밀양朴氏(금도박씨)	지산리	평양趙氏
대산읍 대로리	경주金氏(광암김씨)	월계리	밀양朴氏

마 을 명	성 씨	마 을 명	성 씨
성연면 고남리	광산金氏	대요리	금성鄭氏(한우물정씨)
오사리	전주李氏	팔봉면 어송리	남평文氏(창개문씨)
예덕리	여흥閔氏	진장리	광산金氏(담뒤김씨)
일람리	밀양朴氏	덕송리	광주安氏(한내안씨)
갈현리	창영成氏	덕송리	전주李氏(당꾸지이씨)
운산면 고산리	평강蔡氏	양길리	순흥安氏(병길리안씨)
와우리	전주崔氏	호리	전주李氏(범머리이씨)
음암면 도당리	밀양朴氏(구돌박씨)	금학리	경주崔氏(쇠굴최씨)
부장리	서령柳氏(부다리유씨)	해미면 대곡리	전주李氏(대곡이씨)
신장리	전주李氏(구리바위이씨)	대곡리	경주金氏(대곡김씨)
상흥리	경주鄭氏(마항정씨)	항락리	여양陳氏
도당리	파평尹氏(왕시랭이윤씨)	관유리	정선金氏(관기리전씨)
유계리	경주金氏(한다리김씨)	언암리	언양金氏(두구머리김씨)
안지면 남정리	김해金氏(남산김씨)	응평리	함평鄭氏(매벌정씨)
야당리	서령柳氏(인정류씨)	해미면 휴암리	죽산安氏
산동리	청주韓氏(동막한씨)	양림리	청주韓氏
지곡면 화천리	전주李氏(밤밭이씨)	서산시 온석동	진주鄭氏
산성리	김해金氏(이사리김씨)	예천동	풍천任氏

(나) 호적에 나타난 희성씨(稀姓氏)

성 씨	마 을 명	성 씨	마 을 명
蘇州賈氏	태안읍 도내리	信川康氏	안면읍 송언리
檜山甘氏	성연면 평리	潭陽鞠氏	소원면 모항리, 안면읍 중장리
泰仁景氏	팔봉면 호리	善山吉氏	해미면 석포리
濟州高氏	안면읍 중장리, 고북면 가구리	遂安桂氏	안면읍 창기리

성 씨	마 을 명	성 씨	마 을 명
奉化琴氏	안면읍 승언리	宜寧玉氏	해미면 읍내리
幸州奇氏	팔봉면 덕송리	沃川陸氏	해미면 반양리
溫陽方氏	해미면 휴암리, 안면읍 정당리	晉州宣氏	안면읍 승언리
原州邊氏	성연면 예덕리	陵城朱氏	해미면 산수리
南原房氏	부석면 창리, 고남면 누동리	驪陽陳氏	해미면 읍내리
沔州卜氏	안면읍 중장리, 고남면 고남리	平康蔡氏	해미면 산수리
濟州夫氏	안면읍 승언리	三涉千氏	안면읍 신야리
咸陽呂氏	성연면 평리, 해미면 언암리	忠州池氏	부석면 창리
咸平牟氏	해미면 귀말리, 관유리	明州周氏	안면읍 창기리
延安明氏	해미면 관유리	順興卓氏	해미면 읍내리
月城昔氏	성연면 명천리	浙江片氏	해미면 귀말리, 안면도
昌寧成氏	성연면 갈현리	新昌表氏	해미면 웅소성리
晉州蘇氏	안면읍 중장리	洪州龍氏	안면읍 창기리
綾鄉柴氏	안면읍 승언리	晉州河氏	안면읍 중장리
宜寧余氏	팔봉면 대항리	新平扈氏	성연면 평리
庇安袁氏	안면읍 중장리	江陵咸氏	해미면 언암리
原州元氏	안면읍 신야리		

10. 호적부 인명용(人名用) 한자(漢字)

(가) 관련 법규

○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인명용 상용한자의 범위)

①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 속자(俗字), 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1991. 3. 29 본조 개정)

부칙 3항(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 3. 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1. 4. 1부터 시행한다.

○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1994. 7. 11 대법원규칙 제1312호)

제70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그러나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 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에 종사하는 한문 번역 전문요원의 활동모습
(2005. 3. 30~2005. 8. 30)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인명용 한자

(戶籍法施行規則 第37條)		
한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인명용 추가한자
가	家佳街可歌加價假架暇	嘉嫁該賈駕迦迦柯
각	各角脚闊却覺刻	珏格穀
간	干間看刊肝幹簡姦懇	艮侃杆杆竿揀諫鑿漿
갈	渴	葛
감	甘減惑敢監鑑(鑒)	勘堪戰
갑	甲	鉀
강	江降講強(強)康剛綱綱	扛綱岡崗姜樞疆慷
개	改皆偃(箇)開介慨慨蓋(蓋)	价凱愷溉
객	客	
갱	更	坑
거	去巨居車舉距拒據	渠遽鉅炬
건	建乾件健	巾虔撻鍵
결	傑	杰
검	儉劍(劔)檢	
게	懇	揭
격	格擊激	隔微
견	犬見堅肩絹遠	牽鵠
결	決結潔缺	訣
겸	兼謙	鏹
경	京景經經庚耕敬驚慶競竟境鏡頃傾硬警徑 卿	惊鯨垓耿覓更梗檠嘖瓊瓊擎儉 權徑涇整勁逕穎罔劭
계	癸季界計溪鷄系係戒械繼契桂啓階	桂誠

주: 1. 위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初聲)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내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示"변과 "木"변, "艹"변과 "艹"변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福=福 蘭=蘭

(나) 인명용 한자중 난해한 글자

음 의	정자	췌엣	음 의	정자	췌엣	음 의	정자	췌엣
열매 실	實	棠	착할 선	善	善	거느릴 술	率	率
학 학	鶴	鶴	봉새 봉	鵬	鵬	큰집 하	廈	廈
쌍 쌍	雙	雙	수놓을 산	算	筭	옥이름 공	珙	珙
불꽃 섭	燮	燮	나라이름 소	蘇	蘇	줄 부	付	仅
돌아올 환	還	还	만아들 주	胄	胄	빛날 요	曜	習
부를 소	召	召	밝을 창	昶	昶	땃땃할 이	彝	彝
곧을 태	兌	兌	엄숙할 숙	肅	肅	범 규	規	規
풀 해	解	解	심을 재	裁	裁	초나라 초	楚	楚
어질 현	賢	賢	한가로울 한	閑	閑	이을 승	承	業
보배 진	珍	珍	신령 령	靈	靈	쾌할 협	愜	愜
터 기	基	基	수컷 웅	雄	雄	황새 한	鵠	鵠
아가위 당	棠	棠	검탈할 겁	劫	劫	소리 성	聲	聲
햇 년	年	年	범랑 범	珞	珞	깊을 심	深	深
말갈 전	佃	甸	빛날 형	迴	迴	재주 술	術	術
사모할 모	慕	慕	더욱 우	尤	尤			

(다) 한 글자에 둘 이상 음과 뜻이 다른 한자

정 자	음과 뜻	정 자	음과 뜻
說	말씀 설 괴일 유열 기쁠 열	度	법 도 헤아릴 탁
釗	힘쓸 소 사람이름 교 쇠 쇠	黔	검을 검 검을 검
契	계약할 계 사람이름 설(契, 高과 同)	辰	별 진 별 신
恒	항상 항 달언저리 궁(두루할 궁)	齋	깃유택할 학 새털광채날 흑
胙	성길 나 살찌고 연할 치	齊	가지런할 제 정결할 재 상옷아랫단홀 자
葦	지붕이을 좁인데 집으로 표기	樛	삭정이 돌 밑둥만 남은 나무 올

○ 옥편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

觥 斚 玳 玳 儼 潑 肝 肫 滯 鵠 玊 鞞 胤 韋 鐸

○ 이두문자(吏頭文字)

鎗 땅이름 잇 鎗 똥 鎗 업
鎗 끝 鎗 땅이름 불

(리) 호적부의 한자 성명

- 호적부 등재를 수기(手記)로 해서 오자(誤字), 탈자(脫字)가 많이 발견되었다.
- 글씨를 잘 쓴다고 쓴 초서와 약자는 본인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읽고 해독하기가 어려웠다. 공공서류인 만큼 정자(正字)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획수를 늘리거나 생략하여 옥편에도 없는 글자를 만들어 작명(作名)한 경우도 있었다.
- 일본식 창씨 개명한 것을 1946년 성명 복구령에 의해 복구했어야 하는데 고치지 않은 이름자가 간혹 있었다.
- 한 글자에 둘 이상 이음(異音)과 뜻이 다른 한자(漢字)는 작명(作名)에서 피해야 함에도 작명한 사례가 많아 음(音)을 읽기에 혼란스러웠다.

11. 조선인의 일본식(日本式) 창씨개명(創氏改名)

조선을 일본 식민지로 영구화하기 위하여 조선 백성을 일본 황국신민을 만들려고 조선인의 성(姓)을 씨명(氏名)으로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조선인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채 조선민족 뿌리와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음모로 조상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문(家門)의 성(姓)을 일본식(日本式) 씨(氏)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改名) 하도록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강압적으로 강요하였다. 특히 자녀들이 초·중·고·대학에 입학할 경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입학할 허가하지 않고 공직에 취직할 때에도 불이익을 주었다. 근거법령에는 씨변경(설정)과 개명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일본식 창씨개명을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다. 성(姓)을 씨(氏)로 바꾼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국가권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1940년 2월부터 악랄하도록 창씨개명을 밀어 부쳤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민(朝鮮人民)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당시 호적을 열람해 보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호구(戶口)가 많이 있었다.

(가) 조선인의 창씨(創氏) 개명(改名)에 대한 관련 법령

(1) 조선인의 씨명(氏名)에 관한 호적법 개정령

1939년 11월 10일 제령(制令) 제20호)

제1조 어역대(御歷代) 어휘(御諱) 또는 어명(御名)은 이를 씨(氏) 또는 명(名)에 사용할 수 없다. 자기(自己)의 성(姓) 이외(以外) 이 성(姓)은 씨(氏)로써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일가창립(一家創立)의 경우에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하다.

제2조 씨명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선총독의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

부칙 : 본령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1939년 총령 제219호에 의하여 1940년 2월 1일부터 시행)

(2) 조선인의 씨설정(氏設定)에 건(件)하는 계출(届出) 및 호적의 기재수속(記載手續)에 관한 건(件)

(1939년 12월 26일 총독부령 제221호)

제1조 씨설정에 건하는 계출 및 호적의 기재수속에 대하여는 본령에서 정한 것 외에 조선 호적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씨의 계출은 이를 서면(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계출서(届出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호주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직업

② 씨(氏)

제3조 1939년 제령(制令) 제19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 또는 전남(前男) 호주의 성(姓)으로써 씨로 할 때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訂正)된 것

으로 간주한다. 단, 경정(更正)함도 무방하다. 호적의 기재사항 중 가(家)를 달리하는 자의 씨가 작정(作定)된 때도 역시 전 항과 동일하다.

부칙 : 본령은 1939년 제령 제19호 시행의 일부터 시행한다.

(1939년 제령(制令) 제19호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

(3) 조선인의 씨명(氏名) 변경에 관한 총독부령

(1939년 12월 26일 총독부령 제222호)

제1조 씨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허가 재판에 대하여 불복(不服) 신청(申立)을 할 수 없다.

제2조 허가의 신청은 이를 서면(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본적, 주소, 씨명, 출생년월일 및 직업

② 변경하려고 한 씨명(氏名)

③ 변경의 이유

제3조 허가의 신청을 함에는 수수료 50원(圓)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 본 법은 1939년 제령 제20호 시행의 일부터 시행한다.

(1939년 제령 제20호는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

1911년(明治 44년) 조선 총독부령 제124호는 이를 폐지한다. 본령 시행전 전 항의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한 명(名)의 개칭에 관한 원출(願出)에 대하여는 종전(從前)의 예(例)에 의한다.

(나) 조선 성명(姓名) 복구령(復舊令)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

(1) 목적

본령은 일본 통치시대 창씨제도(創氏制度)에 의하여 일본식명(日本式名)으로 변경된 성명의 간창복구(簡昌復舊)를 목적으로 함.

(2) 일본식 씨명(氏名)의 실효(失効)

일본 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제도에 의하여 조선 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기재는 그 창초일(創初日)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개명(創氏改名)하에 성립된 모든 법령 법률 행위는 하등(何等)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 호적리(戶籍吏)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개정수속(改訂手續)을 하지 못함. 일본식 명(名)을 종전(從前)과 같이 유지(維持)하고자 하는 자는 본령 시행 후 60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戶籍吏)에게 제출(届出)함을 득(得)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수속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케 함. 전항(前項)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법령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을 조선 성명(姓名)으로 개정(改訂)함을 요(要) 함.

(3) 명(名)의 변경

일본 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名)의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명을 갖지 않은 자는 본령 시행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변경을 제출함을 득(得)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변경(名變更) 수속(手續)을 함. 기간(期間) 만료 후 일본식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법령에 의하여 관할재판소에 명(名) 변경 신청을 할수 있음.

(4) 본령에 배치되는 법령의 실효(失効)

본령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급 통첩(通牒)은 그 창초일(創初日)로부터 무효로 함.

(5) 효력 발생

본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生) 함.

(다) 조선성명 복구령 시행세칙(1946년 11월 1일 사법부장)

제1조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제출급 호적개정 수속에 관하여는 동령(同令)급

본 세칙에 의한 외(外) 조선 호적령급 동시행수속의 규정한 바에 의함

제2조 조선 민사령(民事令), 조선후적령, 동시행수속급 기타 호적관계의 법령

중 씨명은 성명(姓名)으로 성(姓)급 본(本) 또는 성(姓)급 본관(本貫)은 본(本) 또는 본관으로 정정(訂正)된 것으로 함.

제3조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사건이 종류는 명(名) 유지 급, 명 변경으로 나눔.

제4조 제출은 사건 본인이 서면(書面)으로 본적지 호적공무원에게 이를 행함. 단, 사건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함을 득(得) 함.

제5조 조선성명 복구령 제2조 제2항의 일본식명이라 함은 창씨(創氏)한 자로서 개명(改名)한 자를 지칭함.

이하 본문 생략

(라) 서산지역 성씨(姓氏)별 일본식 창씨(創氏) 사례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蘇州賈氏	西具	니시가이	淸州高氏	高村	아까무라
	中村	나까무라	陵城具氏	陵具	오가구
	日出	히노데	安東權氏	安藤	야스후지
	蘇城	소시로		木村	기무라
	賈候	가우고오		安井	야스이
晉州姜氏	中川	나카가와		安東	야스히가시
	福村	후구무라	慶州金氏	金城	가네시로
	神本	가미모도		金村	가네무라
	晋山	노부야마		慶金	요시가네
	竹村	대게무라		金山	가네야마
	松田	마쓰다		金原	가네하라
	岩村	이와무라		月山	쓰기야마
濟州高氏	高島	다카시마	星州金氏	金城	가네시로
	高橋	다카바시	安東金氏	金日	가네히
	金城	가네시로		金田	가네다
	高山	다카야마		松永	마쓰나가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永同金氏	永金	나가가네	延安明氏	日月	히쓰기
	金谷	가네다니	新昌孟氏	松浦	마쓰우라
永山金氏	永金	나가가네	咸平牟氏	牟田	무기다
靈光金氏	文安	후미야스		平野	히라노
光山金氏	金本	가네모도	南平文氏	平内	히라우찌
	金山	가네야마		文村	후미무라
	金光	가네미쓰		岩村	이와무라
延安金氏	金村	가네무라		岩本	이와모도
	金江	가네외		江城	외시로
金海金氏	金川	가네가와	驪興閔氏	大倉	오오구라
	金島	가네시마		芝山	시바야마
	金城	가네시로		驪興	레이고
	金田	가네다	密陽朴氏	山本	야마모도
	金谷	가네다니		國本	구니모도
	金岡	가네오까		松本	마쓰모도
	金村	가네무라		木村	기무라
	金本	가네모도		木山	기야마
	三本	미모도		金岡	가네오까
	石川	이시가와		中村	나카무라
	金澤	가네사와		江村	외무라
	安海	야스우미		松岩	마쓰이와
	吉原	요시하라		新井	아라이
	金海	가네우미		朴本	외모도
	大島	오오시마		木戸	기도
交河盧氏	岡村	오가무라	高靈朴氏	高田	다까다
	盧原	노하라	溫陽方氏	湯田	유다
晋州魯氏	光山	미쓰야마	水原白氏	泉原	이스미하라
	高山	다까야마		白山	시라야마
延安明氏	明石	야카이시		松原	마쓰하라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達城徐氏	大邱	오오오까	順興安氏	安村	야스무라
	邱本	오까모도		西山	니시아마
	余野	와레노	南原梁氏	梁村	하리무라
	大山	오오야마	寧越嚴氏	江宮	외미야
連山徐氏	山徐	야마오모무로		奈越	나고시
慶州昔氏	昔川	세끼가와		寧本	야스모도
昌寧成氏	昌成	사강나리	咸陽呂氏	雲田	구모다
	成田	나리다	海州吳氏	吉村	요시무라
密陽孫氏	孫川	마고가와		吳本	구레모도
	金子	가네코		玉安	다마야스
礪山宋氏	笠木	가사기		吳野	구레노
	松村	마쓰무라	丹陽禹氏	丹山	아카야마
	松山	마쓰야마		丹禹	아까기미
	壺山	쓰보야마	文化柳氏	柳谷	야나기다니
	大山	오오야마		柳田	야나기다
	徳本	도꾸모도		柳原	야나기하라
	平山	히라야마	瑞寧柳氏	柳川	야나기기와
恩津宋氏	松崗	마쓰오까		柳原	야나기하라
	大村	오오무라		柳澤	야나기사와
居昌愼氏	松山	마쓰야마	杞溪俞氏	江本	외모도
平山申氏	平山	히라야마		杞川	기가와
高靈申氏	高田	다까다		盛重	나리시게
青松沈氏	青松	아오마쓰	全州柳氏	柳澤	야나기사와
豐山沈氏	豐山	도요야마	坡平尹氏	平沼	히라누마
	靖原	아쓰하라		坡平	사가하라
竹山安氏	竹安	아께야스		伊藤	이도오
順興安氏	安田	야스다		伊東	이도오
	吉村	요시무라	南原尹氏	松原	마쓰하라
	安藤	야스후지	全州李氏	完山	맛다이아마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全州李氏	國本	구니모도	韓山李氏	牧山	마끼야마
	國田	구니다		韓山	구니야마
	邦本	구니모도		木山	기야마
	宮本	미야모도	德水李氏	德忠	도꾸다다
	松村	마쓰무라	咸平李氏	安田	야스다
	李本	리노모도		山水	야마미스
	石山	이시야마		平原	히라하라
	芳山	호오야마	新平李氏	南村	미나미무라
	清原	기요하라		新本	아라모도
	松山	마쓰야마		梅山	우메야마
	孝山	고꼬야마	羅州李氏	廣本	히로모도
	瑞岡	스이오까	平昌李氏	平原	히라하라
	松平	마쓰히라	水原李氏	水原	미스하라
	山田	야마다	咸安李氏	安藤	야스후지
	禾山	이네야마		松本	마쓰모도
慶州李氏	岩本	이와모도	全義李氏	義山	요시야마
	李本	리노기	清州李氏	國山	구니야마
	松平	마쓰히라	豐川任氏	任川	마끼가와
	石本	이시모도		西河	니시가와
	廣本	히로모도		豐田	도요다
	平石	히라이시		豐川	도요가와
	山村	야마무라	平澤林氏	小林	고바야시
	西野	니시노	扶安林氏	林山	하야시아마
	豐田	도요다	羅州林氏	金村	가네무라
	菊村	기꾸무라	仁同張氏	佐伯	다스게야니
	桃山	모모야마		仁張	이쓰구하리
	松田	마쓰다		弓長	유미나가
	松永	마쓰나가		松村	마쓰무라
	山梨	야마나시		張田	하리다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仁同張氏	長谷川	가세가와	晉州鄭氏	天野	아마노
德水張氏	長谷川	하세가와	昌寧曹氏	蒼田	아오다
	張田	하리다		宮田	미야다
天安全氏	天木	야마기		山本	야마모도
潭陽田氏	田中	다나가		丹村	아까무라
	原田	하라다		昌山	사강야마
玉果全氏	宮本	미야모도		曹山	소-야마
慶州鄭氏	楊川	야나기가와	漢陽趙氏	雙城	후다쓰시로
	尙山	나오야마		若松	와카야마
	華山	하나야마		中山	나가야마
	岡田	오까다		千倉	지구리
	岡村	오까무라		趙漢	조강
				竹川	다께가와
東萊鄭氏	東本	히가시모도	平壤趙氏	檜谷	히노끼다니
	鈴本	스스모도		尙原	나오하라
公山鄭氏	長田	나가다		松原	마쓰하라
咸平鄭氏	烏川	가라스가와		平田	히라다
	咸豐	미나도요		石本	이시모도
	町本	마치모도		平川	히라가와
錦城鄭氏	錦南	기누미나미		平原	히라하라
	河本	가와모도	豐陽趙氏	平山	히라야마
溫陽鄭氏	秋田	아기다		豐田	도요다
延日鄭氏	延本	히구모도	綾城朱氏	安川	야스가와
	烏川	가라스가와		池本	이께모도
	豐田	도요다		池上	이께가미
	松村	마쓰무라	忠州池氏	池山	이께야마
盈德鄭氏	上原	가미하라		大原	오오하라
晉州鄭氏	吉村	요시무라	驪陽陳氏	松村	마쓰무라
	松山	마쓰야마	平康蔡氏	岩本	이와모도
	英山	히데야마	慶州崔氏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慶州崔氏	百化	모모가와루	淸州韓氏	井垣	외노가기
	高山	다까야마		徳山	도꾸야마
	山佳	야마요이		韓原	구니하라
	明谷	아까다니		松本	마쓰모도
	柴田	시바다		茂松	시게마쓰
	吉原	요시하라		青川	아오가와
	金岩	가네이와		青原	아오하라
	岩田	이와다	陽川許氏	許川	유루스가와
海州崔氏	富原	도미하라	星州玄氏	星山	호시아마
	山田	야마다	昌原黃氏	松原	마쓰하라
恩津崔氏	島田	시마다		中本	나가모도
	山田	야마다		秋原	아끼바라
江陵崔氏	山田	야마다		檜山	히노기야마
全州崔氏	全州	젠슈		井原	외노하라
	竹村	다께무라	新平扈氏	松山	마쓰야마
浙江片氏	片岡	가다오까	南陽洪氏	洪川	오오미스가와
新昌表氏	新川	아라가와		藤原	후지하라
淸州韓氏	西原	니시가와		洪城	오오미시로
	朝本	아사모도	豊山洪氏	豊田	도요다

※ 일본식 씨명(氏名)과 인명(人名) 자(字)를 여러가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일본 씨명과 인명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마) 서산지역 일본식 개명(改名) 사례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조선성명	일본식창씨명	일본어 발음
相穆	智雄	사도요시	鎭永	金次郎	가네지로
相權	光雄	고오	鳳相	始澤	도모자와
根洙	一元	이찌모토		大一	오모도
承洙	吉元	요시모토		登代	도세
正洙	元一	겐이찌		金藏	가네구라
愚斗	達雄	다스오		用吉	요-기치
基默	隆夫	다카후		日仙	시노리
元植	正雄	마사오		處都	효미야꼬
昌植	石田	이시다		正治	마사하루
寧鶴	武雄	다께오		述次郎	노부지로
英圭	活雄	가스오		致弘	지꼬
雨圭	雄一	유이찌	蓮植	善子	요시꼬
俊模	憲武	도시다께	英順	靑子	아오꼬
道乙	正一	마사이찌	貴玉	正枝	마사에
榮鎬	永武	나가다께	銀圭	正子	마사꼬
昌鎬	榮四郎	사카에시로	蘭圭	蘭子	랑꼬
奇男	昌一郎	쇼이찌로	叔英	金助	가네다께
南童	倉治	구라요시	鍾叔	花子	하나꼬
光基	信義	가끼요시	煥春	春子	하루꼬
洪求	正吉	마사요시	珍玉	菱子	히시꼬
永煥	吉田	요시다	銀珠	吉子	사찌꼬

※ 일본식 씨명(氏名)과 인명(人名) 자(字)를 여러가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일본 씨명과 인명(人名)을 우리 말로 표기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바) 일본식 창씨개명(創氏改名) 사례 분석

○ 본관을 그대로 씨명(氏名)으로 창씨(創氏)한 예(例)

水原李氏-水原 豊山沈氏-豊山 達城徐氏-大邱

豊川任氏-豊川 安東權氏-安東 青松沈氏-青松
 坡平尹氏-坡平 平山申氏-平山 韓山李氏-韓山
 金海金氏-金海

○ 관향의 옛 이름을 따서 창씨한 예(例)

慶州金氏-金城 全州李氏-完山 蘇州賈氏-蘇城
 南陽洪氏-洪城 南原梁氏-梁村

○ 본관과 성(姓)을 합성하여 창씨한 예(例)

陵城具氏-陵具 慶州金氏-慶金 光山金氏-金光
 永山金氏-永金 漢陽趙氏-趙漢

○ 성씨명(姓氏名)의 한자(漢字)를 분리하여 창씨한 예(例)

延安明氏-日月 仁同張氏-弓長

○ 일본(日本)의 씨족명(氏族名) 중 하야시(林)씨, 미나미(南)씨, 고(高)씨 등이
 있어서 우리나라 성씨중 남(南)씨, 임(林)씨, 고(高)씨는 창씨(創氏)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성씨(姓氏)를 지킬 수 있었다.(창씨로 인정)

○ 시조 또는 파시조의 관향 지명 유래와 관련된 지명(地名)으로 대부분 창씨
 하였다.

○ 마음에 없는 창씨를 하게 되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지명을 따서 창
 씨한 집안도 있었다.

○ 밀양박(朴)씨 부석면 호적부 창씨 기재 내용(1940. 8. 7)

창씨명 : 산본순업(山本順業)

氏テ山本届出 昭和15年 8月 7日 受附

○ 같은 관향(貫鄉)을 쓰는 성씨(姓氏)간에도 창씨를 원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
 람이 많기 때문에 종종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강압에 못견디어 억지로 개
 인별 또는 호(戶)별로 제멋대로 창씨되었다. 그러므로 같은 성씨(姓氏)에서
 도 여러 종의 씨명(氏名)으로 각각 다르게 창씨되었고 타성씨(他姓氏)와 같
 은 씨명으로 창씨된 예가 많았다. 경주이씨(李氏)는 15종, 김해김씨(金氏)
 15종, 전주이씨(李氏) 15종, 밀양박씨(朴氏) 12종, 청주한씨(韓氏) 9종, 기
 타 성씨들도 여러가지의 씨명으로 창씨되었다.

금촌(金村)으로 창씨된 성씨는 연안김씨, 김해김씨, 경주김씨, 나주임씨, 송
 본(松本)으로 창씨된 성씨는 청주한씨, 함안이씨, 밀양박씨. 송산(松山)으로

창씨된 성씨는 여산송씨, 거창신씨, 전주이씨, 전주정씨, 신평호씨, 송원(松原)으로 창씨된 성씨는 수원백씨, 평안조씨, 창원황씨. 이 외에도 많은 성씨들이 같은 씨명(氏名)으로 창씨되었음을 서산지역 호적부 열람을 통해 조사되었다. 조상대대로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 뿌리인 씨족이 송두리채 파괴되어 산산히 분산되었다. 자기의 성(姓)과 일가친족을 잃고 다른 씨족과 같은 씨족이 된 상태가 되었다. 일본제국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기만술책이었다.

최근 2005. 10. 31 일본 총무상 아소다로(麻生太郎)는 창씨 개명은 한국인이 원했다는 망언을 해서 한국인들을 격분시킨 일이 있었다.

- 호적부의 성명난이 누더기가 되었다. 처음은 우리나라 성씨명(姓氏名)으로 등재되었는데 일본식 씨명으로 창씨 개명을 했다가 성씨복구령에 의해 다시 우리나라 성씨명으로 복구하였으니 호적부가 복잡하고 매우 지저분 할 수 밖에 없다.
- 함안이씨(咸安李氏) 이상구(李相龜)의 창씨 개명 호적부 기재내용(1940. 6. 7)
창씨명 : 松本興忠
氏ヲ松本ト届出昭和15年 6月 7日 受附
昭和15年 8月 9日 大田地方法院 瑞山支廳ヲ許可
て因リ其フ名 相을 興으로 龜를 忠ト改名届出 4月 17日 受附
- 일본식 창씨명으로 개칭됨에 따라 호주(戶主) 배우자 씨명도 일본식으로 남편의 씨명을 따라 개명되었다.

[사례 1] 호주명 金東五

처명 申千禮 ┌ 父 申士彦
 └ 母 朴春子

개명처명 金千禮

[사례 2] 호주명 織田 金次郎

처명 織田 登代

장남명 織田 金藏

- 일본식 이름은 남자는 雄과 治, 武, 郎을 많이 썼고 여자 이름은 子자(字)를 많이 썼다.
- 조선성명 복구령(復舊令)에 의하여 성명복구(1946년)

12. 서산시 읍·면 제적부 보존관리 실태

- 제적부와 호적부를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바인더에 철하고 비닐에 넣어 호적부 보관장에 연대순으로 질서있게 진열하여 잘 보존 관리하고 있었다.
- 멸실 우려가 있는 손상된 호적은 재제하여 보완 유지가 잘 되었으나 화재, 수재를 대비한 재해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쥐나 좀 등 동물에 의한 손상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겠다.
- 호적법시행규칙 제94조(1992. 5. 13 개정) 제96조에 의하면 제적부의 보존기간 80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는 법원에 폐기 인가신청을 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의 지시로 대부분 읍면에서 1922년 이전의 제적부를 폐기처분한 상태였는데 서산시 동지역,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등 4개 면이 다행스럽게도 제적부를 폐기하지 않고 제적부 일부를 보존하고 있었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제적부를 보존하고 있는 읍, 면은 다음과 같다.(2005. 10. 24 호적법 시행규칙 80년 보존기간 삭제, 영구 보존으로 개정되었음)

※ 1-권수, ()-戶數

[illegible]

VIII. 결론(結論) 및 제언(提言)

민적법(民籍法)을 시행하면서 취지를 밝혔는데 종래(從來)의 호적은 그 폐해가 많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서 불완전하므로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률상 명확하게 하고 한 나라의 호구(戶口)의 실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동시에 시정상(施政上) 편의 자료를 삼고자 한다고 하였다. 호적의 사명은 국민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이를 공시 공증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적부(國籍簿)로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호적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백성으로부터 군역과 노역 그리고 과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왔고 호적법은 고려조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조선조 초기부터 계속 제도를 정비해 왔는데 갑오경장 이후 근대적인 호적제도는 서양의 근대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 제국의 영향을 받아 1896년 호구 조사규칙, 동년 호구 조사세칙 등으로 근대화의 전진을 시작한 후 1909년 민적법이 제정 실시되고 1912년 조선민사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1923. 7. 1 조선후적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1939년 조선인의 성씨(姓氏)를 씨(氏)로 변경한다는 명분 삼아 조선을 일본식민지로 영구화하기 위하여 황국신민을 만들려는 계락을 가지고 창씨개명을 강행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성명이 복구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제시대의 호적을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시행해 오다가 대한민국 민법 제정과 동시에 1960. 1. 1. 호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수차례 호적법이 개정되었고 2001년 4월부터 호적정보 시스템을 확산하여 2002. 11. 18 전산화 완료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전국에서 호적서류를 열람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호적제도에 이르기까지 변천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09년 민적부로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호적부에 등재된 연호가 일본연호, 중국연호, 조선연호 등 18종의 연호가 뒤섞여 표기되었다.

성명(姓名)은 일본식 창씨개명을 했다가 다시 성명을 복구하는 등 호적부 정정(訂正)이 거듭되어 혼란한 누더기 호적부가 되었다.

갑오경장 이후 민적부로부터 일제 강점기의 호적부는 우리 민족 수난의 역사였다. 호적사무 담당자의 수기(手記)로 호적부가 등재 정리되었기 때문에 호적부를 정리했던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필체가 달랐고 오자(誤字), 탈자(脫字)가 많았다. 읍면 호적담당 공무원은 행정직이 담당하므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사 이동이 잦아 업무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호적부 및 제적부의 재해(災害)에 대비한 안전보존 대책도 시급한 문제였다. 2002년 이후 호적부의 전산화로 호적부 기재상 오류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94조(1992. 5. 13 본항 개정)에 제적부 보존기간이 80년으로 80년이 경과된 것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서산지역에서는 법원의 지시로 2003년도에 폐기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 제적부 일부가 보존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민적부에는 당시의 자연부락명, 신분제도, 직업군, 가족제도 등이 담겨 있어 가족사(家族史), 향토사(鄉土史)의 좋은 자료가 되므로 고문서(古文書)로서 정부보존문서 처리기관이나 시청·군청 또는 법원에서 영구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05. 10. 24 호적법 시행규칙 80년 보존기간 삭제 영구보존으로 법이 개정되어 매우 잘된 일이다.

호적사무는 국민의 신분권을 공시, 공증하는 사무로써 국민의 신분상의 권리의무와 중대한 관계가 있고 각종 호적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 사항이 법률상의 요건 구비 여부와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 등 법의 해석 적용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준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법행정 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읍·면사무소에서 호적사무 관장자인 읍·면장 밑에서 보조직원인 호적 담당자는 전문성이 있는 법원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것이 어렵다면 현 행정사무직을 교육 훈련시켜서 호적담당 전문행정직으로 양성하여 읍·면에 배치하고 그 들만의 인사이동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또한 호적사무는 지방 자치단체에게 준 위임사무이지만 법원 및 국가 사무인 만큼 예산도 지방 자치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

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본다.

■ 참고문헌 ■

- 서산시지 1, 2권(서산시 발행, 1998)
- 서산시 자치법규집(서산시 발행, 2004)
- 호적실무 자료집(법령판) (법원행정처 발행, 1998)
- 호적실무 편람(법원행정처 발행, 2003)

개심사 대웅전 단청

조 성 옥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불교건축의 단청
- III. 개심사 대웅전 단청의 실례
- IV. 맺음말

I. 머리말

개심사 대웅전은 얼마 안 남은 조선 초기의 목조 건물로써 고려시대 건축처럼 단정한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밖으로 보여 지는 공포는 다포계이지만 건물의 안쪽에는 주심포식 지붕구조를 가지고 있어 천장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과도기적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사찰의 전각이다.

불교 사찰의 전각은 불상을 봉안한 곳이다. 다시 말해 부처가 살고 있는 불국토를 형상한 공간이다. 전각 안에는 예배의 대상인 불상을 봉안할 뿐만 아니라

전각을 장엄하게 보이기 위해 내외 벽면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보살 등의 존상화(尊像畵)를 비롯한 부처의 일대기¹⁾나 부처의 전생이야기²⁾, 경전의 내용을 그린 그림³⁾, 교화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탱화나 벽화가 그려진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건물의 장식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각의 성격과 각 벽면의 위치와 구조 및 규모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표현하므로 불단에 봉안된 불상 뒤에 그려진 후불 벽화는 불상과 함께 예배의 대상이 되며, 불상과 같은 주제를 그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각의 성격을 대표한다. 후불 벽화는 퇴색과 박락이 심해짐에 따라 오랜 시간 보존되기 어려운 관계로 이후 후불 탱화로 제작하여 봉안되고 있다.

현재 「대웅보전」이라는 편액이 달려있는 법당은 건물 명칭과는 달리 본존불상으로는 아미타삼존불이, 후불 벽화로는 관경변상도⁴⁾가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무량수전(無量壽殿)」이나, 「극락전(極樂殿)」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단청을 통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Ⅱ. 불교건축의 단청

단청이란 청, 적, 황, 백, 흑 등 각종의 안료를 사용하여 건물에 문양이나 그림을 채색하여 장엄하게 하기도 하고, 내용물을 보호, 장식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단청하는 대상물은 목조건물 뿐만 아니라 석조, 고분, 공예품 등에 채화(彩畵)하여 장식하였으며, 회화에 병용되기도 하였다.

단청은 가칠(假漆)단청, 굿기단청, 금(錦)단청, 금모로(錦毛老)단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수한 단청으로는 고분(高粉)단청, 칠보(七寶)단청, 금은박(金銀箔)단청, 금은니(金銀泥)단청, 옷칠단청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요즈음은 건물의

1) 불전도(佛傳圖) : 부처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

2) 전생설화도(前身說話圖) : 부처의 전생이야기를 그린 그림.

3) 경전변상도(經典變相圖) : 경전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린 그림.

4)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 : 관경을 설하는 석가여래와 협시보살 그리고 여러 보살과 제자들을 중심에 배열하고 구 주위에 16관의 극락정토를 각기 배열하는데 여기서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상품·중품·하품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명대, 《서산권역의 문화유적》〈서산지역의 불교유적〉

일부를 보수할 때 새로 갈아 끼운 목재에 옆에 남아 있는 부재의 색상 및 문양과 동일하게 그려 넣어 오래되어 낡고 바랜 기존의 옛 단청색과 동일하게 채색하는 고색(古色)단청이란 용어도 사용된다.

우리나라 단청시공은 두 계통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그 하나는 궁전(宮殿)계통이며 다른 하나는 사찰(寺刹)계통이다. 궁전건축의 단청시공은 경공장(京工匠)에 속한 선공감(繕工監)에서 담당 수행하였고, 사찰건축은 사찰대로 자기들의 단청화공(丹青畵工) 집단이 있었는데 화승(畵僧), 화사(畵師), 양공(良工), 편수(片手)라 하여 사찰건축·불상·불화·조각 등을 제작하였다. 이 중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를 금어(金魚) 또는 불모(佛母)라 하고 단순한 단청장은 어장(魚杖)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을 자세히 전하는 문헌이 없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다만 현존하는 불화(佛畵)의 화기(畵記)를 참고로 추정할 뿐이다.

고려의 단청은 외부의 기둥이나 난간 부분에는 붉은색을 칠하고 그늘진 천장이나 추녀 안은 녹색으로 칠해서 단청의 명암효과를 높였는데 수덕사 대웅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 건물의 단청은 녹색이 많아 내부가 차갑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조선시대에는 단청에 등황색을 많이 써서 밝고 화려하며 문양도 다양해진다. 이것은 간절한 고려의 주심포(柱心包) 집에 비하여 복잡한 다포(多包)집이 장식적으로 흐르는 건축 구조와도 일맥 상통한다 하겠다.

한 채의 건물에서도 각 부재에 따라 단청문양은 서로 다르게 하며 그 수도 다종 다양하지만 단청문양은 정연한 질서와 일정한 방식이 있어 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건물의 부위에 따라 적격의 문양과 도채색으로 각종 문양과 다양한 채색법으로 하지만 일정한 규율이 있다. 단청문양은 그 구성 또는 장식성을 감안하여 머리초(頭草), 비단무늬(錦紋), 단독무늬(單獨紋), 별화(別畵)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기본 빛깔은 오채(五彩)⁵⁾이며 이를 혼합해서 수많은 빛깔을 낸다. 오채(五彩)

5) 고공기(考工記-중국의 옛 기술서) : 금의 색은 白色이고 金은 木을 이긴다. 木의 色은 靑色이고 靑色과 白色을 혼합하면 그 사이에서 깊은 푸른빛의 하늘색이 생성된다. 木은 土를 이기고 土의 色은 黃色이고 靑色과 黃色을 배합하면 봄에 나무의 새싹이 돋아 나오는 푸른 녹색이 생성된다. 土는 水를 이기고 水의 色은 黑色이며, 黃色과 黑色을 혼합하면, 그 사이에서 말갈기 같은 검은 색이 생성되니 이는 北玄武의 색상이다. 水는 火를 이기고 火의 色은 赤色이니 赤色과 黑色을 배합하면, 그사이에서 검붉은 자색 즉 다자색이 나온다. 火는 金을 이기며 赤色과 白色을 혼합하면 연지, 곤지색 즉 주홍육색(장단의 경우엔 장단육색)이 생성된다.

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을 말한다. 정약용(丁若鏞)은 《여유당전서》〈잡찬집(雜纂集)〉에서 단청의 5색은 오행사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단청에 관한 오행설(五行說)은 방위(方位)의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고 그사이 팔방과 십육방의 간색(間色)을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사신사상(四神思想)을 도입하여 전세, 현세, 내세의 종교적 사상과도 관계되어 진다.

〈五行에 해당하는 색과 의미〉

陰陽	五行	季節	色相	方位	時刻	神獸	象 徵
陽	木	春	靑	東	日出	龍	永久, 平和, 理性, 知慧, 意志
	火	夏	赤	西	正午	雀	幸福, 喜, 希望, 情熱, 活氣, 至誠, 情欲
中性	土	土用	黃	中央			皇帝, 力, 富, 知, 仁, 德
陰	金	秋	白	南	日沒	虎	悲哀, 平和, 潔白, 正義, 清廉, 尊嚴의 美德
	木	冬	墨	北	夜半	武	破壞, 絶望, 魔鬼, 罪惡, 死

※ [橙色] : 溫情, 溫和, 甘味, 食慾

[紫色] : 美德, 洗練, 尊貴, 高尚

[綠色] : 青春, 希望, 成熟, 成長, 繁榮

Ⅲ. 개심사 대웅전 단청 실례

1. 사찰건물의 단청

사찰단청은 목재의 보존과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면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많이 이용되지만 단순히 건물에 색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벽에 그려지는 장식화도 함께 하므로 회화적 기량이 더욱 요구되는 벽화, 탕화, 불상의 개금 등 불화 제작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전각은 대부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나무로 기둥과 보를 비롯한 가구(架構)를 엮고 이들 사이에 생긴 공간에 흙벽을 세우게 마련이다. 이 공간 위에 벽화를 그리게 되므로 우리나라 사찰벽화는 대부분 토벽화라 할 수 있으며, 전각 내 벽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후불벽화(後佛壁畵)·측벽화(側壁畵)·포벽화(包壁畵)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 사찰벽화의 시원과 특수성

사찰벽화의 특수성은 건물의 위치에 따라 그림의 주제가 다르다는 점으로 그것은 최초의 불교 그림이자 불교 벽화인 기원정자(祇園精舍)의 벽화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⁶⁾ 문의 양쪽에는 몽둥이를 든 약차를 배치하여 밖으로부터의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배치는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 신통변(神通變), 오취생사(五趣生死)의 수레바퀴, 본생담(本生譚) 등은 각기 영험담, 윤회, 부처의 전생설화를 뜻한다. 이러한 불교적인 내용 혹은 교리를 담은 설화적인 주제는 교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화(敎化)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찰에 그려진 불교 벽화는 미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종교화로서 그 내용은 불교 사상을 밝혀주는 자료가 되며 표현된 형태나 양식은 시대를 반영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불화의 재료 면에서 볼 때 벽화는 종이나 비단, 배 등의 회화 재료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그려졌기 때문에 초기 불화의 성격과 양식 등을 보여 주고 있다.

3. 개심사의 연혁

개심사의 연혁에 대해《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상왕산에 있다(在像王山)”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개심사보관 사적기》에는 “백제 의자왕 14년(651년)에 해감국사(解鑑國師)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충정왕(忠定王) 2년

6) 《근본설일체유부미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 금고독장자가 동산을 보시한 후 부처님께 묻자 문의 양쪽에는 집장약차를 그리고, 불전의 문 옆에는 지만야차, 강당에는 늙은 비구의 법요를 선양하는 그림..-《사찰벽화》p119

(1350년)에 처능대사가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적기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는 곤란하다.

대웅전의 연혁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내용으로는 《성종실록》권56 성종 6년 6월 갑신조(甲申條)에 개심사가 연소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1941년 대웅전 해체 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해 1448년에 중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857년(철종 8년)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충청좌도 서산 상왕산 개심사 대법당 중수기> 기록이 있고, 1698년(숙종 24년)에 금고(金鼓)를 만들었다는⁷⁾ 기록이 있다.

법당 내부를 살펴 보면 1767년(영조 43)에 아미타 후불탱화를 조성·봉안한 바 있고 1887년(고종 24년)에는 칠성탱화를 조성·봉안하였으며 1895년에도 금어비구(金魚比丘) 상옥(祥玉)이 신장탱화를 그려 봉안한 내용을 불화의 화기(畵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법당 안에 봉안된 아미타 삼존불상은 15세기 고려 지물로 알려져 왔었다.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 「불교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단」이 지난해(2004년) 대전·충남지역 305사찰에 소장 문화재 일제 조사의 하나로 개심사 아미타불을 조사하던 중 복장품을 넣고 밀폐한 뚜껑이 빠지면서 뚜껑 안쪽 면에 먹으로 <고려 충렬왕 1280년에 별립승(別立僧) 재색(齎色)이 보수했다>는 묵서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⁸⁾ 앞으로 복장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된다면 개심사의 연혁이나 불상의 구성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개심사 단청의 실례

대웅전은 다포계와 주심포계를 절충한 형식의 외 2출목 내 3출목의 단층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창방·평방·도리·대들보·서까래에 연화병 머리초를 그리고 휘를 세 번 넣었는데 휘는 고려대 단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17세기 초의 유구에서 간단한 휘의 형식이 보이다가 18~19세기에 이르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단청에서 머리초 다음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는 간단한 휘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7) 《서산권역 문화유적》p283.

8) 《한국의 사찰문화재-충남·대전편》<개심사 대웅전 아미타불상 묵서>발견- 문화재청 2005

창방의 연화병 머리초 사이 계풍에는 별지화엔 용(龍)을 장식하고 평방 계풍에는 비단무늬를 기둥머리의 주의초(柱衣草)를 넣고, 건물의 전면 내·외 포벽에는 불상을 안치시켰으나 후면 내·외 포벽에는 빈 공간으로 두었다. 연목에는 연화병 머리초를, 부연에는 주화를 그려 넣어 밑으로 깊이 숙인 쇠서의 단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개심사 대웅전은 내출목 공포를 그대로 드러내 내부 분위기를 화려하게 만드는데 이용하였는데 네모지고 굽직한 대들보, 그와 직각이 되게 달리는 도리들과 그 위에 빗금의 서까래로 극락세계를 표현했다.

내부 들보의 굽고 넓은 면에는 연화장구 머리초를 넣고 계풍에는 사신도와 흡사한 모습의 동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 놓았는데 어칸의 불단을 향하고 있는 것과 몸은 밖을 향하면서 고개를 돌려 불단을 돌아보는 모양, 몸은 불단을 향했는데 고개는 출입문을 향하고 있는 모양 등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동물이 사신이나 사령 어느 것을 표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물의 크기와 생김새가 서로 같지 않고, 몸에 그려진 무늬의 표현이 각기 다른 종류의 동물로 표현되고 있고 색상 또한 모두 다르게 채색되어 있어 묘사를 해두거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를 느낀다.

뱀이나 기물치의 문양을 한 동물은 통통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하였고, 흡사 백호와 같은 무늬를 가진 동물은 지금이라도 뛰쳐 나올 것 같이 생동감있게 표현되어 있고, 날씬한 몸과 긴 다리와 꼬리가 특색인 동물과는 달리 온몸을 휘어 감고 있는 모습의 동물도 있다.

중보 위에도 물고기, 거북 모양의 동물을 포함한 각기 다른 동물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들 별지화에는 먹으로 훼손한 부분, 채색이 변색되거나 탈락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조선 초기의 건물에 남아 있는 단청으로써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불단 위에 마련된 보개는 운궁으로 간소하게 마련해 놓았는데 가운데 칸에는 한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양 옆에 구름으로 꾸며진 공간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극락조가 장식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볼 수 없게 되었다.

IV. 맺음말

사찰벽화의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모든 전각에는 다양한 불교 벽화가 그려졌다. 봉정사 대웅전이나 무위사 극락전의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까지는 벽화위주로 그려졌으나 후기에는 복잡한 공정과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벽화 대신 탕화를 그려 후불벽이나 측벽에 봉안하였는데 이 때는 주불과 관련 있는 내용의 그림을 그렸다.

혹자는 사찰의 전각이 목조건축이므로 화재(火災)나 전화(戰禍)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불상만 따로 안전한 곳에 모셨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사찰이나 전각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최근 개심사 대웅전 아미타여래 복장품을 넣고 밀폐했던 목판에 먹으로 쓰여진 목서를 보면 <개심사 당주 무량수여래>를 1280년에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심사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아미타불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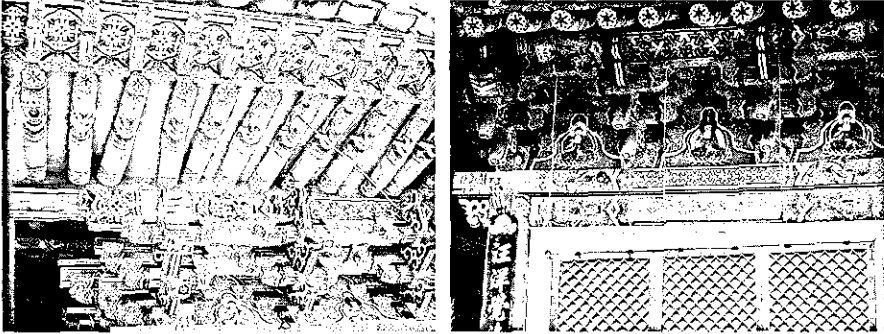
그러므로 전각 안 불단 위에 봉안된 불상이 무량수불이고 후불탱화로 팔상도를 봉안하였으며, 천정 운궁에 극락조를 조각 장식한 것 등으로 보아 <무량수전>이나 <극락전> <아미타전>이 확실하다.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이 고려의 대표 사찰건축이라면 해남 미항사 대웅전을 조선의 그 예로 삼을 수 있는데 이들 중간에 바로 개심사 대웅전과 강진의 무위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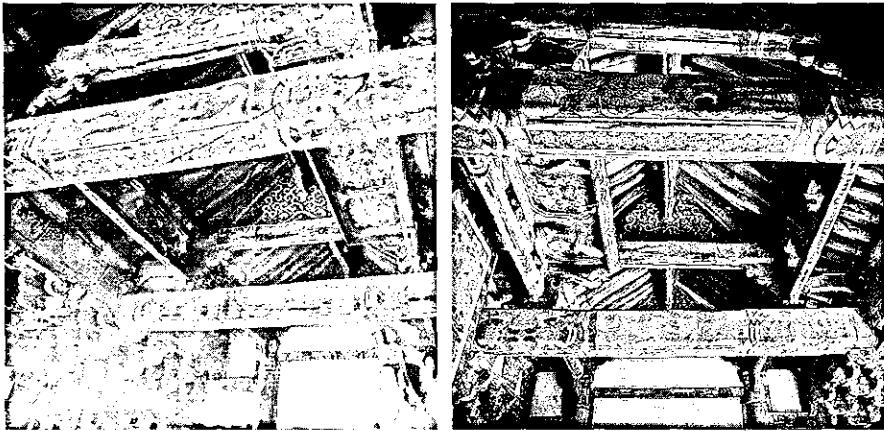
강진 무위사는 개심사 대웅전보다 50년 정도 앞선 1430년에 건축되었다.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여래가 오른쪽에 관세음보살과 왼쪽에 지장보살과 함께 봉안되어 있고 극락전 내부엔 후불탱화를 비롯한 불화가 가득 차 있었다. 이 불화들은 15세기 후반에 그린 것으로 고려 불화를 계승한 조선 전기 불화를 대표하는데 지금은 옆 보존건물에 옮겨 놓았다. 그러나 건물 내부의 가구 단청은 그 흔적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퇴색되었다.

개심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목조 아미타여래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보수 자료가 발견된 것이 기회가 되어 복장 유물조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개심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수사의 벽화와 탕화·불단 등도 조선 후기의 불화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지정문화재로 등록되길 바란다.



개심사 대웅전의 외부단청



개심사 대웅전의 내부단청(사진출처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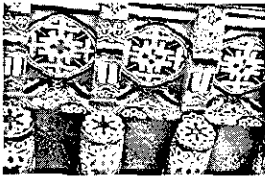
개심사 아미타불과 목판 묵서(사진출처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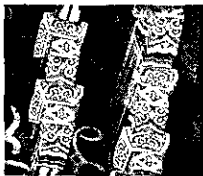
파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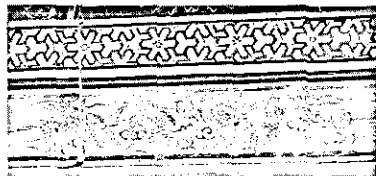
외부 포벽화



연목과 부연의 단청



소로단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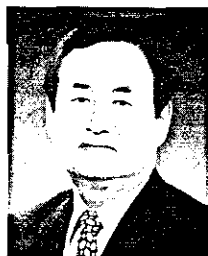
창방과 평방의 단청

■ 참고문헌

- 서산권역 문화유적, 서산문화원, 1996
- 사찰벽화, 사진 관조스님, 미술문화
- 가보고 싶은곳 머물고 싶은 곳, 김봉렬저, 안그라픽스
- 신 궁궐기행, 이덕수, 대원사, 2004
-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허균, 돌베개, 2000
- 한국의 단청, 곽동해, 학연문화사, 2002,
- 불교건축, 김봉렬, 숲, 2004,
-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 열화당, 2001,
- 수덕사, 대원사, 2000,

잠업의 역사적 고찰과 서산지역의 양잠

편 세 환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잠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
- III. 충청남도의 잠업
- IV. 서산지역의 잠업
- V. 잠업의 전망과 과제
- VI. 맺는말

I. 머리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 온 양잠은 우리의 민족 산업이며 전통 산업이다. 또한 비단은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좋아하는 귀중한 옷감이다.

농가의 부업 형태로 내려오던 양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본격적인 소득산업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부터이다.

특히 1960 ~ 1970년대 중반까지는 다른 어떤 농업분야 보다 소득이 높고 수출이 잘되었으며 우리의 양잠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생산

및 수출물량도 세계 3위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 서산 지역은 비산비야의 광활한 농토와 기후조건이 적합하고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하여 한 때 잠업소득이 농가경제의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다른 섬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수출길이 막히고 또한 양질의 노동력이 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잠업은 점점 쇠퇴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도 각종 잠업관련 기관과 기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었고 각 관련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잠업은 관심 밖의 산업으로 밀려나게 되자 농민들도 자구책으로 상전(桑田)을 폐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잠상산물(蠶桑產物)의 탁월한 약리효과가 밝혀지면서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차 등의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고품질 상품으로 개발되어 이미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잇혀져 가는 잠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더듬어 과거 서산 지역의 양잠과 앞으로의 전망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잠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

1. 한단고기(桓檀古記)¹⁾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상고시대 역사를 조명한 한단고기(桓檀古記)에 의하면 단군왕검 시대에 이미 양잠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단군께서도 양잠에 큰 관심을 갖고 발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안함노(安含老)가 지은 한단고기 단군세기(檀君世紀)의 기록에 의하면

1) 한단고기는 1911년에 계연수(桂延壽)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상고사를 정리한 것인데 삼성기(三聖記), 단군세기(檀君世紀), 북부여기(北夫餘紀), 태백일사(太白山逸史)의 4종류를 한데 묶은 것이다.

• 삼성기는 신라의 승려 안함노(安含老)와 원동중(元童仲)이 쓴 것으로 환인(桓因), 환웅(桓雄)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환국(桓國) 시대의 한인으로부터 7대 단인까지 3331년의 역사와 환웅(桓雄)으로부터 18대 단웅까지 1565년의 역사를 압축한 것이다.

• 단군세기는 고려시대 행촌(杏村) 이암(文貞公) 선생이 전한 책으로 아사달에 도읍하여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한 단군님들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1세 단군왕검으로부터 47세 단군고열가까지 2096년 동안의 주요 기록들이다.

• 북부여기는 고려말 학자인 범장(范樺)이 찬한 것으로 고구려(BC 37년) 바로 전신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조 해모수로부터 6세 고무서까지 204년과 가섭원부여 108년까지의 기록이다.

菲西岬河伯女爲后治蠶淳彪之治熙洽四表
라 하였으니

“비서갑(菲西岬)의 하백녀(河伯女)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누에치기를 다스리게 하니 순방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태평치세를 이루었다.”

라고 기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단군세기에

更子(BC2241년)九十三年....중략....浚溝洫開田陌勸田蠶治漁獵民有餘物
俾補國用國中大會上月祭天民皆熙皞自樂

경자 구십삼년중략.....도랑을 파고 밭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며 고기잡이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남는 물건을 나라 살림에 보태었다. 나라 안에는 큰 모임이 있었으니 시월 상달이면 하늘에 제사지내고 백성들 모두 기쁨에 넘쳐 환호하며 스스로 즐겼다.

라고 하였다. 또한 삼성기 전 상편의 기록에

八條讀書習射爲課祭天爲教田蠶是務....중략....檀君王儉自戊辰統國傳四十七
七世歷二千九十六年

이라 기록되어 있다.

팔조를 법으로 하고 글 읽고 활 쓰는 것을 일과로 하며 하늘에 제사 지냄을 종교로 하고 누에 기르기에 힘쓰도록 하였다.

• 태백일사는 연산군 때 학자인 이백(李陌)이 전한 책으로 한국, 신시시대로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와 철학, 문자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단고기는 고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신앙, 풍습, 정치, 경제, 철학, 교육, 지리, 예술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다.

현재 한단고기에 대한 사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으며 특히 세조, 예종, 성종 등이 8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희귀 서적을 거두어 들이라는 구서령(求書令)을 내렸을 때 서목(書目)중에 안함노 원동중이 쓴 삼성기의 인용문헌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단군신화 이전의 우리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간주된다.

단군왕검은 무진(B.C 2333)년부터 나라를 다스려 47세를 전하니 그 햇수가 2096년을 해야 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상고시대에 이미 양잠이 성행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2. 비단길(실크로드)

실크로드란 말은 독일의 지리학자 “F 리히트호펜”이 처음 사용한 말로 동서 교역의 통로로 사용된 말이다. 오랜 옛날 고대 중국 한나라 시대의 특산물인 비단이 서방(西方)으로 나가고 서남아시아 문물이 중국 문화권으로 들어와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 비단길 이었다.

한나라 무제(武帝)의 명을 받은 장건(張騫)이 서부지역을 두루 여행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서방 각지와 국교가 열리게 되었고, 서방의 상인(사절단)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각종 문물을 교환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특산물인 비단이 나가고 서방에서는 옥(玉)이나 보석, 유리제품 등이 들어 오게 되었다. 또한 포도, 석류, 호도, 완두 등의 식물류와 비파, 공후 등의 악기, 음악과 무용, 요술, 꼭예 등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와 서방아시아의 문화와 풍속까지 중국에 전해 졌으며 불교, 그리스교, 이슬람교 등 각종 종교가 비단길을 통하여 들어 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주철기술, 양잠법, 제지법 등을 서방에 전하는 등 상업로 뿐만 아니라 동서 문화 교류의 통로로써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중국의 비단이 중앙아시아와 이란, 메소포타미아의 오아시스 도시를 거쳐 로마로 운반되었다. 한편 로마제국에서는 인도로부터 해상을 통하여 들어 온 산누에(野蠶) 비단이 있었는데 이보다는 중국에서 들어 온 집누에 비단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B.C 6세기 무렵 그리스에서도 비단이 사용 되었고 알렉산더대왕의 동방원정 계획도 페르샤 상인들이 독점했던 비단을 손에 넣기 위함 이었다는 설로 보아 예로부터 비단의 인기는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학자들에 의해 비단의 유물이 발굴 되었는데 이 유물로 미루어 양잠의 역사를 약 45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비단의 전파 경로는 명나라 때 필리핀의 마닐라를 중계지로 하여 태

평양을 건너 지금의 멕시코로 건너가 그 지역에 비단이 유행되었고 양잠의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일부 학자들은 양잠이 기자조선(B.C 1122년)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 온 산업으로 알고 있으나 과거 잠업시험장장을 역임한 임수호(林秀浩)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양잠은 한단고기의 기록대로 단군성조 이전부터 성행되었고 그 양잠 기술이 지금의 중국에서 크게 번창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각처로 전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또한 중국에서도 양잠은 동이족(東夷族)이 전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3. 잠업의 변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산에는 많은 산뽕나무가 자생하였고 뽕잎을 먹고 사는 누에가 자연 속에서 발생하여 나뭇가지에 고치를 지었을 것이고 우리조상들은 그것을 옷감으로 개발하는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내려 오면서 나라에서도 양잠을 적극 권장했고 역대 왕실에서도 직접 궁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궁녀들로 하여금 누에를 길렀으며 어친잠실(御親蠶室)에서 친히 양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조정대신들에게도 양잠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우리 서산에서 탄생한 정순왕후께서도 잠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어 잠업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가. 누에의 사육

(1) 누에의 생태와 일생

알에서 깨어 나온 누에는 약 3mm정도의 새끼만 애기누에로 일명 개미누에라고도 한다.



순정효황후 친잠기념(1910. 6. 25)



궁내에서 누에를 치던 어친잠실

부화 후 첫잠이 들 때까지를 1령기, 두잠까지를 2령기, 3령기, 4령기를 지나 4번째 잠에서 깨어 나면 5령기가 된다. 5령이 되면 몸길이 약 8cm 정도가 되며 그 후 고치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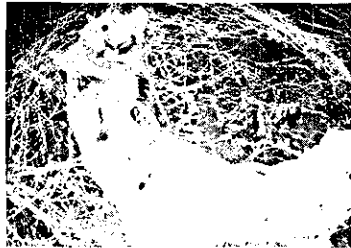
누에 나방의 짝짓기와 알 낳는 모습

각령의 기간은 1령기 7일, 2령기가 가장 짧은 2.5 ~ 3일 정도이며 3 ~ 4령기는 각각 7일 내외이고 5령기는 가장 긴 7 ~ 8일 정도이다.

고치를 짓는 시간은 약 60시간이 소요되며 누에고치 1개의 무게는 약 2.5g 정도이고 실의 길이는 약 1,500 ~ 2,000m이다.

누에가 자라는 적온은 1령기 27도를 시작으로 각 령마다 1도씩 낮추어 5령 시에는 23도시 정도가 좋고 습도는 1령기 90%를 시작으로 각 령마다 5%씩 낮추어 5령 기에는 70 ~ 75%가 이상적이다.

고치를 짓고 나서 약 70 시간이 되면 번데기가 되고 그 후 약 12 ~ 16일이 지나면 나방이 되어 나온다.



누에의 고치 짓는 모양

누에나방은 자신이 토해 낸 알카리성 용액으로 고치의 한 쪽을 적서 유연하게 구멍을 뚫고 나와 교미를 한다. 암나방은 약 500 ~ 600개의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알의 부화방법은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부화기간도 다르다.

(2) 누에의 품종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²⁾, 색경(穡經)³⁾, 고사신서(故事新書)⁴⁾ 등의 기록에 보

2) 조선시대 사시(四時)의 농사법을 기술한 책으로 세조의 명을 받아 사숙재, 강희명이 저술하였다.

3)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지은 책으로 각종 농작목(農作物)에 대하여 기술한 농서이다.

4) 조선 영조 때의 제학 서명웅(1771년)이 고사찰요를 개편하여 간행한 책으로 천도, 지리, 농포 등 11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면 우리나라 누에 품종은 1회육(一回育)과 삼면잠(三面蠶)이 주가 되어 있다.

일본에서 출토된 비단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낙랑군 잠태현(蠶台縣)이었던 예(濊)에서 온 것으로 거의 3면잠으로 밝혀졌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 고대 누



누에나방으로부터 채란 광경
(1950년대)

에 품종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품종과는 다른 우리 고유인 1회성 3면잠 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12년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재래누에 품종과 일본의 순수종인 소석환(小石丸)과 비교 사육된 성적을 보면 우리의 재래품종의 성적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 재래종의 성적 비교(1912) ■

(관업모범장보고 제6호)

산 지 별	부 화 조 사			사 육 온 도 (°C)	발 육 경 과			수견량 (kg) 개미누에 10g	발육지연 누에(두) 개미누에 10g
	부 화 기 간	총부화 율(%)	실용부화 율(%)		식 상 (일시)	면 중 (일시)	계 (일시)		
재 래 종	상주종	21	38.2	17.7	21.8	27.04	4.19	31.23	15.3
	비안종	10	95.7	65.4	22.1	24.13	5.09	29.22	205
	전주종	7	98.4	77.1	22.1	24.01	5.05	29.06	346
	철원종	16	92.1	53.4	22.1	21.13	5.11	27.00	113
	성권종	7	82.8	62.5	22.1	24.15	5.09	30.00	503
	수원종	12	91.9	48.1	22.1	23.16	5.14	29.06	109
	평 균	12	83.2	54.0	22.1	24.06	5.07	29.13	255
소 석 환	·	·	·	22.1	24.07	5.04	30.11	36.6	20

우리의 토종인 재래종은 일본의 소석환에 비하여 고치도 작고 무게도 가볍다. 또한 고치의 색도 흰색, 진노랑, 연노랑, 진녹색, 연녹색 등 다양하며 일본, 중국 종(種)은 2회성 4면잠(二化性 四眠蠶)이 주종을 이루었다.

1912년 2월 12일 조선 총독부에서는 총독부 훈령 제11호로 장려품종의 지정

보급이라는 수급제도가 발효되었으며 1917년 ~ 1931년 까지 14년 동안에 무려 31개 품종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때 지정된 일본 봄누에 품종은 우석, 소석환, 청숙이 있었고 여름누에 품종으로는 신옥이 있었으며 가을누에로는 백룡이 있었다.

누에의 1대 잡종에 대한 연구 결과 1대 잡종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었으며 광복 후 자체 기술에 의한 품종 개발사업으로 그간 도입된 품종을 근간으로 한 기술적 정비와 더불어 순계분리, 교잡종 육성으로 많은 우량품종을 육성하게 되었다.

1953년도에 봄누에 품종으로 북악X한강, 봄가을 겸용으로 백두X금강이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으며 1958년 묘향X청천이 지정되었다.

그 후 1962년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급속도로 많은 우량품종이 개발되어 잠업증산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1990 ~ 2000년대에는 고치생산은 급감하고 수입 개방화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특수제품 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른 특이 품종이 개발되었다. 1993년에 여성용 의류제조에 적합한 품종으로 세광잠이 개발되었고, 누에 가루생산용 큰 누에 품종이나 동충하초 제조용 품종 등 다양한 용도의 특수 품종이 계속 개발되었다.

1968년부터 이란, 인도, 태국, 파키스탄, 터키, 그리스,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네팔, 북한 등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누에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3) 누에사육 기술의 발전

1900년 11월에 대한제국이 누에 사육기술 개발을 위하여 상공부 내에 잠업시험장을 설치하고 전수생을 양성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1906년 4월 통감부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는 관제가 공포되었다.

이로써 기술면에서 누에치는 적기와 온도관리, 쉬파리병 방제 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 경부터 2화성 4면 하추잠의 장려품종이 보급되어 당년에 5,394매, 1920년에는 321,711매로 급증했으며 특히 1924년에 인공부화의 새 기술이 확립되었다.

1930년 경까지 계속적인 기술 개발로 겨우 일본 수준에 육박하였고 누에 떠는 시기, 애누에 뿔 떨어 치기, 큰 누에 순뿔치기가 농가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때에 비로소 1화성 3면잠에서 2화성 4면잠으로 품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일제의 잠업정책 중 애누에 공동사육을 잠업증산의 기본정책으로 내 세우고 보조금을 주면서 이 시책을 적극 권장하였다. 보통 20 ~ 30농가를 조직화하여 지도교사를 배치하고 공동알깨기부터 시작하여 3령 초 까지 사육하여 각 농가



지내섬에 누에를 올리는 모습
(1910~1950년)

에 배부해 주었다. 이때 소요되는 뽕잎은 무상으로 희사를 받거나 각 농가에서 고루 수집하여 사육하였고, 사육 장소는 시설이 양호한 농가의 건물을 이용하였으며 지도교사는 전원 여자를 배치하여 지도케 하였다.

이와 같은 장려 시책에 따라 1932년도에 전국에 애누에 공동사육장 1,742개소, 공동사육농가 70,396호, 소잠량 68,233매, 수전량 1,310.6톤으로 공동사육 효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고 수량도 전체 적으로 약 5%정도 증수 되었다.

■ 1932년경 각 도별 누에 떠는 시기 ■

도 별	춘 잠	추 잠
경 기 도	5.10 ~ 5.31	7.5 ~ 9.10
충 청 북 도	5.9 ~ 5.28	8.20 ~ 9.5
충 청 남 도	5.7 ~ 5.25	7.9 ~ 9.15
전 라 북 도	5.3 ~ 5.28	7.5 ~ 9.10
전 라 남 도	5.9 ~ 5.23	8.10 ~ 9.15
경 상 북 도	5.5 ~ 5.25	8.5 ~ 9.10
경 상 남 도	5.6 ~ 5.23	8.15 ~ 9.10
황 해 도	5.16 ~ 6.5	7.10 ~ 8.31
평 안 북 도	5.16 ~ 5.31	7.10 ~ 8.30
평 안 남 도	5.23 ~ 6.15	8.5 ~ 8.20
강 원 도	5.9 ~ 5.30	8.15 ~ 8.30
함 경 북 도	5.15 ~ 6.13	8.10 ~ 8.25
함 경 남 도	6.10 ~ 6.25	8.5 ~ 8.15

자료 : 잠사 25년사(1971) 대한잠사회

■ 애누에 공동사육 현황 ■

년 도	사육장수	동호수	호당 보조금	소 잡 량	매당 수견량
1910	30개소	673호	2.07원	796 매	8.1kg
1915	2,311	36,419	1.04	59,455	7.4
1920	3,347	51,510	0.76	74,081	8.6
1925	1,341	44,689	1.01	50,827	13.7
1930	1,902	75,023	0.92	75,522	18.2
1935	2,005	90,055	0.67	89,895	21.6
1940	1,591	72,097	0.57	89,191	21.0

자료 : 蠶業之朝鮮(1942) 朝鮮蠶絲會

애누에 공동 사육은 잠작의 안정성, 생산비 절감,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 등이로운 점이 많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우수한 시설과, 공동 뽕밭조성, 유능한 지도사 확보 등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후 1967년 제2차 5개년 계획부터 양잠 규모가 커지고 집단화 되면서 총 소잡량(掃蠶量)의 27%가 공동사육을 하게 되었으며 참여 농가도 1969년의 110.5천호에서 1970년에는 230.9천호로 증가되었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 50% 장기융자 50%를 지원하여 1980년에 253천 상자인 36.4%, 1990년에는 소잡량(掃蠶量)⁵⁾의 38%로까지 증가 하였다.

1962년부터 다시 활기를 찾은 양잠은 농가수도 늘고 사육량(飼育量)도 늘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여 1호당 평균 뽕밭20a 미만이며 사육 량도 연간 3상자 정도였다. 그 때만 해도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지 않았기에 70년대 중반까지 양잠형태는 나일롱망이나 pvc계통의 재료가 사용된 잠박육을 하던 시대였다.

또한 잠실도 그 간 농가의 방이나 광을 이용하다가 개량잠실을 지어 2단 사육 시설로 바뀌게 되었고, 1980년도 후반부터는 1단 가시뽕치기용 잠실로 변화되었으며 대규모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내부 사육틀 및 급상대차(給桑臺車)를 이

5) 앞에서 깨어난 누에의 양

용하게 됨으로써 사육형태가 많이 변하게 되었다.

그 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국제잠사가 하락 등으로 소규모 농가는 잠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가지뽕치기 형태가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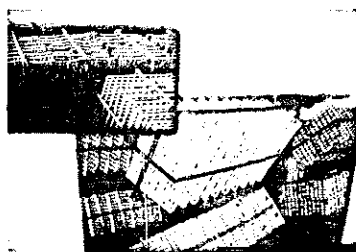
1970년도의 뽕밭 10a당 수견량은 호당 20 ~ 30kg 생산 농가가 가장 많았고 평균치는 34.7kg으로 전체 농가의 55%였다. 또한 춘기의 상자당 수견량은 평균치인 27.6kg이하의 농가는 44%이며 30 ~ 35kg 농가가 가장 많았다. 추기에는 대개 20 ~ 25kg의 농가가 많았다.

누에사육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는 누에 올리는 기간이다. 이 작업은 누에솥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고 또 고치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누에솥이 개량되어 보급되었다.



개량 솥

1970년도 농업경영연구소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개량솥 사용 68.4%, 회전솥 5.3%, 지네솥 21% 기타 솔가지등이 5.3%였고 pvc를 재료로 하여 만든 백년솥이란 개량솥이 80년도 말까지 보급되었다. 또한 농업기계연구소와 잠업시험장이 공동노력으로 생력재배(省力栽培)를 위한 각종 잠구(蠶具)의 개발과 보조기구, 보온시설 등 새로운 잠업기구들이 속속 개발되어 잠업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회전족

(4) 인공사료의 개발 및 기술보급

통념적으로 누에는 뽕잎만을 먹고 사는 곤충으로 인식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농대에서 인공사료 연구의 일환으로 누에사료의 장기 저장 연구가 시작된 이래 잠업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누에 인공사료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 동물사료 연구실과 1973년 잠업시험장(현 잠사곤충

부)에서 실용적인 연구가 성과를 거두어 1987년부터는 애누에 인공사료육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었다.

(5) 들 누에 사육과 병충해 방제

들누에(野蠶) 사육은 1900년대 초에 북한 지역에서 주로 참나무 누에가 사육된 적이 있고 광복 후 남한에서 일부 사육된 적이 있으나 자취를 감추었다. 참나무 누에의 원산지는 중국 산둥성 지방이고, 아주까리 누에는 인도의 앳쌈 지방이다. 아주까리 누에는 아주까리 잎 만 먹고 사는데 사육 일수도 짧고 충질이 강건해서 수견량도 비교적 많으며 섬유의 내구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까리 종실 까지 얻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여러 문제점이 많아 농가에 보급성은 떨어진다.

누에 병은 주로 곰팡이병, 세균병, 바이러스병과 원충병으로 나누어지며 기타 쉬파리, 선충, 각종 중독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병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1990년대에 와서 수준 높은 진단법과 방제기술이 개발되었다. 누에에 대한 소독법과 잠실 잠구에 대한 소독법이 개발되었고 누에의 저항성 품종 개발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연구가 거듭되었다.



누에의 무름병 피해증상

나. 뽕나무 재배

(1) 뽕나무의 기원과 품종

뽕나무과 식물에는 73속(屬) 1000여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뽕나무속, 꾸지나무속, 닥나무속, 무화과 나무속, 모시풀속 등 5속 13종이 있다.

고대에는 산과 들에 야생하는 뽕잎을 따서 누에를 치다가 사람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우량한 품종을 골라 집 주변에 옮겨 심어 택지(宅地) 뽕밭을 이루게 되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수한 품종을 증식하여 그 지역에 적응하는 우수 품종으로 출현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생한 뽕나무는 산뽕나무, 몽고뽕나무, 돌뽕나무, 백상

등의 4종이 있는데 이중 산뽕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며 분포 지역이 가장 넓고 종류도 많아서 이를 다시 꼬리뽕나무, 갯뽕나무, 붉은대뽕나무 등 3가지 변종과 좁은잎뽕나무, 가세뽕나무의 2품종으로 구분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최근까지 양잠에 이용되어 왔다.

중국의 고서 산해경(山海經)의 기록에 의하면

北二百里 曰鳥山 其上多桑 其下多楮其陰多鐵

북쪽으로 이백리가면 조산이 있는데 산 위에는 뽕나무가 산기슭에는 닥나무가 많이 자라며 북쪽에서는 철이 많이 난다

又南三百里 曰嶽山 其上多桑 其下多樗

또한 남쪽으로 삼백리 가면 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는 뽕나무가 많고 기슭에는 가죽나무가 많이 자란다.

曰輝諸之山 其上多桑

휘제산이 있는데 그 위에는 뽕나무가 많다

曰穀山 其上多穀(穀字는 오기인 듯) 其下多桑

곡산이 있는데 그 위에는 닥나무가 많고 그 아래는 뽕나무가 많다

曰大堯之山 其木多松栢 多梓桑 多机 其草多竹....

대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무로는 소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뽕나무 꾀나무가, 풀로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며...

曰隅陽之山 其上多金玉 其下多青腹 其木多梓桑...

우양산이 있는데 산 위에는 금과 옥이 기슭에서는 청학이 많이 난다 나무로는 가래나무와 뽕나무가 많다....

曰視山 其上多桑.....

시산이 있는데 그 위에는 뽕나무가 많다.....

日衡山 其上多青腹多桑....

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위에는 청학이 많이 나고 뽕나무가 많이 자라며...

日夫夫之山 其上多黃金 其下多青雄黃 其木多桑楮 其草多竹...

부부산이 있는데 산 위에는 황금이, 기슭에는 청웅황이 많이 나며, 나무로는 뽕나무, 닥나무가, 풀로는 대나무가 많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중국 전역의 산야에도 예로부터 많은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상(魯桑)은 중국의 노주(魯州)인 지금의 산둥성 지방이 원산지이며 중국의 옛 농서(農書)인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뽕나무 품종의 기원은 이들 산뽕나무, 몽고뽕나무, 백상, 노상 등이 모본이라 할 수 있다.



부춘산에 자생하는 산뽕나무

우리나라 역대 왕조마다 식상운동과 양잠을 권장했지만 뽕나무 품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까지는 이러한 품종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1795년(정조19년) 수원 팔달산에 조림을 하는데 그 수종 가운데 상실2석5두종식(桑實二石五斗種植)이란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에 산뽕을 이용한 양잠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83년 농과규칙(農課規則) 가운데 잠상규칙(蠶桑規則)을 보면 ‘산뽕나무를 심거나 중국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심으라’ 한 것을 보면 그 때에 중국에서 뽕나무가 들어 왔고 그 외에는 산뽕나무로 누에를 사육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상, 시평, 도내, 적목 등의 뽕나무가 장려 품종으로 지정 되었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식상장려요강, 식상장려규정 등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양잠 장려시책을 펼쳤으며 산뽕의 수요가 격증하고 남획과 남벌이 심하여 입산채상(入山採桑)을 허가제로 한 적도 있다.

■ 년도별 산뽕 이용 상황의 변천 ■

년 도	총 뽕밭 면적	산사이용 추정면적
1916	5,397 ha	3,293 ha
1920	13,211	5,107
1925	39,538	5,362
1930	76,073	4,476
1935	77,082	3,229

자료 : 잠사요람

1927년 경에 우리 고유의 우수계통에 품종명을 부여했는데 각 지방별로 여러 품종 중 대표적인 품종은 용천추우, 영변추우, 자산, 금상, 당상, 상주재래, 운만상, 강원 3호 등이 우수품종에 속했다.

이 때 충청남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 품종은 노상, 개량서반, 적목, 시평, 금상, 대엽조생, 성하 등이 있었으며, 묘목의 총 수요량은 2백만주였다.

1956년 교잡 육성품종인 수원상 4호가 장려품종으로 추가되면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뽕나무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1963년 3월 일본으로부터 상묘 250만 주를 긴급 수입하였는데 그 품종은 일지뢰, 개량서반, 개량일지뢰, 국상27호, 검지, 다호조생, 대도상 등 7개 품종이었다.

1992년에는 오갈병에 강한 상일뽕, 1997년에는 수량성이 높은 밀성뽕을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고 1998년에는 내동성이 강한 한성뽕, 2000년에는 수일(水一)뽕을 신품종으로 선정하였다.

(2) 묘목 생산

기록에 의하면 1934년 10월 조선상묘조합 연합회가 발족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생산자금의 알선, 공동판매 업무를 맡아 왔다.

1936년부터 각 도에 상묘 생산조합이 설치되어 우량묘목을 생산해 왔으며 2차대전 직전에는 우리나라에 묘목 생산업자가 무려 1천여 명에 달하여 많은 상묘를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하기도 했다.

1961년 10월 한국상묘협회가 창립되어 생산비 조사, 가격협정, 조사연구, 기술교육, 강습회 등을 주관하였다.

묘목 생산은 처음에는 실생법을 이용했으나 형질이 떨어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유전형질이 그대로 보존되는 회문이법과 접목법으로 번식해 오다가 1960년대 한눈뿌리접이 개발되면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뽕나무 묘목은 이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기 시작 하였다

1970년대 갑자기 묘목의 수요가 급증할 때에는 활착율이 비교적 높고 단기간 내에 많은 묘목을 생산 할 수 있는 신소삽목법으로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묘목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묘목이 가장 많이 생산된 시기는 1968년으로 2억 6천만 그루에 달했으나 그 후 계속 감소되어 1994년에는 겨우 2십 2만 그루 정도였다.

(3) 뽕밭조성

1028년 고려 현종 19년에 처음으로 밭머리에 뽕나무 15 ~ 20 그루씩을 심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뽕나무 식재 장려시책의 최초 기록이며 집 주위나 밭머리에 뽕나무가 식재되기 시작되었다.

1458년 세조 4년에 종상법(種桑法)을 제정하여 영농규모에 따라 대호는 300주, 소호 100주, 기타 50주 씩 밭가에 심도록 하였고 전벌(剪伐)을 금지함으로써 15세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집 주위와 밭가에 뽕나무가 재배되어 양잠이 하나의 산업(잠업)으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광무 10년 4월 권업모범장이 출범하여 양잠에 관한 각종 연구기관이 생기면서 여자 잠업강습소, 종묘장, 원잠종제조소 등이 문을 열었고 농상공부에서는 양잠농가에 뽕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대문 밖에 뽕밭 2.5정보를 조성한 기록으로 보아 이때부터 밭에 뽕나무를 심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1912년 일제의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쌀, 면화, 잠전, 축우의 4대 증식정책과 더불어 순 뽕밭 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순수 밭 면적은 줄어들게 되었다

1925~1939년까지 15년 간 계획으로 누에고치 100만석 증산을 위하여 양잠 호수100만호에 상묘 4억 그루를 식재 10만 정보의 뽕밭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상묘 대금은 일부 보조해 주었다. 이때의 뽕밭 면적은 39.538정보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순 뽕밭면적 비율은 1925년 38%에서 1940년 33%로 오히려 감소

하게 되었다.

광복 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순 뽕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집 주변이나 밭둑에 멋대로 자란 교목의 큰 뽕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에 따라 다시 뽕밭 확대 조성계획이 시작되면서 순 뽕밭 비율이 높아졌고 제사업체의 원료 확보를 위한 대단위 순 뽕밭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1967년 5월 기업 양잠농 육성요강이 시행되었다.

첫째 투자자에게는 뽕밭조성에서 생산까지 전 경영과정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사업비를 직간접으로 지원한다.

둘째 뽕밭조성은 야산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며 규모는 300ha이상으로 한다.

셋째 300ha의 뽕밭이 조성되면 생산 규모에 해당하는 제사공장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이 요강에 따라 전국의 신규 제사공장은 1971년 53개소, 1972년 64개로 늘어나 종전의 2배 이상의 제사공장이 세워졌다.

또한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영년생작물은 경사도 15% 이상의 곳에만 식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사지 개간 뽕밭을 간이계단식으로 집단조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천수답에 뽕밭을 조성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수리 불안전답이 뽕밭으로 많이 전환되었는데 이때 야산과 경지가 비교적 넓은 충남 서산 당진지역과 전북 부안 지역에는 경쟁력을 갖춘 양잠 전업농가들이 탄생되었다.

1962년부터 조성된 순 뽕밭의 형태는 대개 이랑사이 1.8m 그루사이 0.75m로 10a당 740주를 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랑사이 1.5m 그루사이 0.6m인 밀식 뽕밭도 조성되었다.



집당상전 조성을 위하여 줄을 띄우고 규격에 맞도록 뽕나무 묘목을 정성들여 심고 있다.

(4) 뽕밭관리

잠업연구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앞서 추진된 바 1900년 11월에 최초로 궁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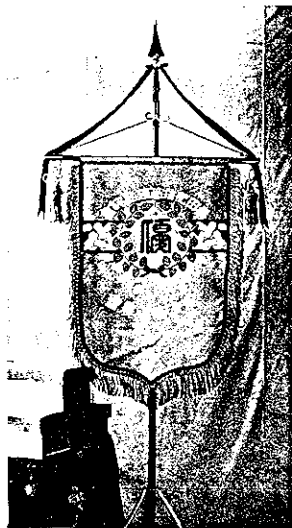
(宮內)에 잠업시험장이 생겼으며 그 이전에는 각 향교에서 잠업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1904년 농상공학교를 설립하고 농과를 설치했으며 여기서 양잠과 토양비료학을 강의했다.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농림학교로 되고 토지 개량교육이 추가되었다.

비료제조는 일본인이 부산과 서울에 인분뇨로부터 황산 암모니아를 만드는 비료공장을 세워 년 간 수백 톤의 비료를 생산했으나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뽕밭에는 주로 인분과 가축분뇨, 퇴비, 초목회 등 자급비료를 주어야 했다.

고사신서(攷事新書)의 기록을 보면 뽕나무를 심을 때 뿌리 밑에 인분 600g을 주고 가을에 다시 뿌리 근처를 파고 인분을 주는 등 매년 춘추로 인분을 주고 배토하기를 3년간 하면 뽕잎이 많이 달린다고 하였다.

또한 뽕나무 밑에 녹두나 팥을 심으면 이롭다고 한 것을 보면 콩과작물의 질소 고정효과를 이때 이미 인식했던 것 같다. 또 잠상집요(蠶桑輯要)에는 돼지, 양, 소, 말의 똥도 좋으나 특히 인분이 더 좋다고 하였으며 면실박, 대두박은 성질이 따뜻하여 더욱 비옥하게 된다고 하였다.



충청남도농회 주최 상전비배관리 품평회에서 시상하던 우승기(1930. 9)

1910년 처음으로 유박 18.9톤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1923년에는 유기질비료 106톤을 수입하였으며 1925년 황산암모니아 12만 5천 톤, 1928년 황산암모니아, 칠리초석, 석회질소, 과석, 인산아루미나, 황산가리, 염화가리 등 총 8만 4천여 톤이 수입된 후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여 1936년에는 27만 톤으로 최고에 달했다

1925년 경에는 뽕나무 날(桑日)을 정하여 봄(3월 하순~4월 상순)과 여름(6월 상순~7월 하순)에 각 면단 위로 일제히 뽕밭비배관리를 했는데 뽕나무에 부속퇴비 한 삼태기씩을 주도록 하였고 또한 녹비간작을 권하여 여름에는 콩을, 동작물로는 해아리벚지를 심었으며 해아리벚지 값은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었다.

뽕잎의 생산성이 극히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하여 1930년 9월 충청남도 농회에서는 상전 비배관리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기와 푸짐한 상품을 주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독려 방법이 동원되었다.

뽕밭에 적정량의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기는 1960년대에 많은 화학비료가 생산되면서 이 때부터 양질의 뽕잎을 수확할 수 있었다.(한국잠사기술 100년사 참조)

Ⅲ. 충청남도의 잠업

과거 충청남도의 관찰부가 공주에 있었기에 잠업 관련기관도 공주지역에 많이 분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10년대 공주에 잠업전습소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원잠종제조소, 잠종보호고, 잠업강습소 그 외에 많은 기관들이 있었고 각 군에 누에고치 수매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전에 군시 제사주식회사를 비롯한 제사공장이 있었다.



씨누에 사육장면(충남 공주)

치하여 치잠 사육 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묘목 생산업자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전문적으로 묘목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이렇듯 충청남도의 잠업형태도 다른 도와 거의 비슷한 형편으로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했다.

군시 제사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잠업강습소를 개설하고 각 지역에서 유능한 강습생을 모집하여 잠업기술을 가르쳐 자 회사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각 지역에 배치 잠업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에서도 각 지역별로 치잠 공동사육장을 설치하고 지도원을 배



명주실을 뽑고 있는 어인

1. 지도 인력의 배치

1961. 10. 2 농사교도법이 발효되면서 충청남도에서도 잠업지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행정기관과 연구 지도기관, 학교, 조합 및 단체, 기업 등 모든 잠업관련 공무원과 단체, 직원들이 잠업증산 1, 2차 기간동안 계획 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2년 시 군청에 소속되어 있던 임시직 잠업 지도원이 지도체계 일원화를 계기로 농촌지도소로 이관 되어 잠업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었고, 1964년 11월 이들의 이직률이 높아지자 정규직으로 양성화 하였다.

1965년 3월 농림부 훈령 130호에 의거 전문 특기지도사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충남 농촌진흥원에는 잠업 전문지도사, 시군 농촌지도소에는 잠업 특기지도사가 배치되었다. 이로써 잠업지도는 조직체계와 인력을 갖추어 잠업 증산계획에 기술적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1968년 각 시 군에서는 잠업 기술요원이란 임시직을 채용하여 지도기관과 행정기관에 배치하였으나 1972년부터는 잠업 기술요원을 행정기관으로 전원 환원시켜 잠업지도의 이원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1980년 1월 각 시 군에 근무하던 잠업 기술요원이 정규직으로 특채 되었으며 1990년 1월 잠업 전문지도사가 잠업주산지 시·군에 1명씩 배치되었다.

2. 대단위 잠업단지 조성

충청남도에서는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11개 지구 중 전의지구와 서당지구 2개소를 잠업 주산단지로 지정하여 대단위 잠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웅상대는 연기군에서 세운 농어민 특별사업 전의지구 잠업 주산단지 전망대의 현황판이다.(1969년)

전의지구 잠업 주산단지는 68~69년에 걸쳐 국비지원 7,231천원(10.3%), 지방비 16,270천원(23.4%), 양곡 16,594천원(23.8%), 주민부담 22,334천원(32%), 용자 7,360천원(10.5%) 등 총 사업비 69,789천원을 들여 전의 전동 2개

면을 중심으로 상전 105ha를 395ha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서당지구(서산,당진)는 도내에서 가장 광활한 저 구릉지가 많은 지역으로 서산·당진 2개 군의 상전 801ha를 2,700ha로 확장하고 이 지구 내에 민간 자본으로 제사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잠업 주산단지는 총 참여농가 7,321호로 1968~1971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서당지구에는 국비 53,859천원(8.8%), 지방비 49,634천원(8.3%), 양곡 146,000천원(24.0%), 융자 158,140천원(26.0%), 주민부담 200,243천원(32.9%) 등 총 사업비 607,876천원이 투자되는 잠업사업 유래없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농촌 처녀들이 무성한 뽕밭에서 손으로 뽕잎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1969년)

3. 연도별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보급

1965년도 • 145개소의 잠업특설지구 설치와 120개소의 잠업 시범농가를 선정 운영하여 기술보급의 거점으로 삼았다.

■ 특설지구 양잠현황 ■

특설지구	양잠 호수		소잠량(상자)		수견량(kg)		식상실적
	춘 잠	추 잠	춘 잠	추 잠	춘 잠	추 잠	
147	29,225	28,471	11,774	12,672	224	216	12,447천주

1966년도 • 큰누에 가지뽕치기 기술보급

■ 실적과 농가 반응 ■

실시농가수	상 자 수	수견량(kg)	상자당 수견량(kg)	농 가 반 응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609호	5,503	13,719	25	947(59%)	486(30%)	180(11%)

- 1967년도
 - 모범양잠 전시농가 설치
 - 애누에 공동사육- 춘기, 184개소, 추기 169개소 설치
 - 상족개량 전시농가- 172개소 (116%증수)
- 1968년도
 - 잠업기술개량 전시농가- 238호 선정
 - 상자당 수견량 28.5kg 생산 113%증대
- 1969년도
 - 잠업기술개량 전시농가 334호에서 32,025상자를 소잠하여 914.2톤의 잠견을 생산 115% 증대
- 1970년도
 - 생력양잠 전시부락설치 25개소(500농가)
 - 애누에 공동사육장 54개소 설치- 2,086상자 사육
 - 큰누에 가지뽕치기 305호 실시
- 1971년도
 - 애누에 공동사육 50개소(889농가)-2,007상자 사육
 - 큰누에 가지뽕치기 541농가 실시
- 1973년도
 - 뽕밭 비배관리 시범포 28개소 설치-121%증수
 - 애누에 공동사육 102개소- 4,070상자 사육 상자당 수견량 32.8kg 생산 112%증수
 - 큰누에 가지뽕치기 602호-32.8kg 생산 116%증수
- 1974년도
 - 신소삽목 시범포 설치-614.770주에서 성묘율 52%
 - 생력양잠 시범부락 30개소(300농가)설치
 - 큰누에 가지뽕치기 366농가-1,172상자
- 1975년도
 - 뽕밭 비배관리 시범포 15개소 설치
 - 애누에 공동사육 59개소(600농가)-2,716상자
 - 큰누에 가지뽕치기 407호-1,415상자 사육
- 1976년도
 - 큰누에 가지뽕치기 468농가-1,448상자 사육
- 1977년도
 - 개간지 뽕밭 비배관리 시범포 15개소
 - 생력양잠 시범부락 30개소(300농가) 설치
 - 애누에 공동사육 55개소(600농가)설치-2,459상자
- 1978년도
 - 뽕다수확 시범포 15개소 설치-10a당 수엽량 2,494kg
- 1979년도
 - 벚짚 멀칭재배 시범포 설치
 - 큰누에 가지뽕치기 409호 실시
- 1980년도
 - 뽕다수확 시범포 14개소-10a당 2,319kg 생산

- 애누에 공동사육 14개소(140농가)- 1,047상자 사육
- 1982년도 • 비닐피복 속성뽕밭 시범포 14개소 설치
- 피복하지 않은 곳에 비하여 4배 증수
- 1983년도 • 밀식 비닐피복 속성뽕밭 시범포 15개소
- 10a당 1,485kg의 뽕잎 생산 231%증
- 1984년도 • 밀식 비닐피복 시범포 12개소
- 뽕나무 수세갱신 시범포 9개소 설치
- 1985년도 • 잠업 시범마을 48개소
- 밀식 비닐피복 시범포 12개소
- 뽕나무 수세갱신 시범포 8개소 설치
- 1986년도 • 밀식 비닐피복 시범포 24개소 설치
- 1988년도 • 잠업 시범마을 12개소
- 밀식 비닐피복 시범포 24개소
- 뽕다수확 시범포 24개소
- 가지뽕치기 및 자연상족 시범
- 1989년도 • 뽕다수확 시범포 15개소 설치

■ 뽕다수확 시범포 10a당 수염량 ■

개소수	시 범 구			대 비 구			비 율
	춘 잠	추 잠	계	춘 잠	추 잠	계	
15	1,498kg	1,361	2,859	1,284	1,159	2,443	117%

- 양잠 시범마을 11개소 설치

■ 시범마을 10a당 수견량 ■

개소수	농가수	시 범 포			대 비 구			비 율
		춘	추	계	춘	추	계	
15	55	58.4kg	52.9	111.3	50.5	45.5	96.0	116%

- 1990년도
- 양잠거점 시범마을 10개소 설치
 -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연기, 부여, 홍성, 천안)
 - 391상자 사육-상자당 33.2kg 생산
- 1991년도
- 잠견 증산농가 육성시범 10개소-10a당 수견량 88.7kg
 -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 6개소(연기, 공주, 부여, 홍성, 서산, 천안)
- 1992년도
- 잠견 증산농가 육성- 10a당 수견량 100.2kg으로 일반농가 대비 130%증수

■ 잠견증산농가 시범결과 ■

개소	농가수	소잠량(상자)			10a당 수견량(kg)					
		춘잠	추잠	계	시범			인근		
					춘잠	추잠	계	춘잠	추잠	계
10	101	101.7	96.9	198.6	49.7	50.5	100.2	38	39	77

- 1993년도
- 애누에 인공사료육시범 13개소에서 696상자 사육 상자당 누에 고치 29kg생산
 - 양잠생력화 표준지구 육성시범사업 7개소 운영

■ 충청남도의 연도별 잠업현황 ■

구분	1957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양잠호수(호)	48,333	30,507	30,991	41,783	37,557	14,526	4,291	2,144	639	311
뽕밭면적(ha)	3,044.2	2,062.5	4,398.8	7,553.9	7,003.5	2,405.4	1,571.2	1,203.0	362.9	147.0
소잠량(상자)	31,573	18,595	25,066	76,332	94,454	45,345	23,376	17,057	4,714	4,352
고치생산(톤)	590,353	354,866	537,881	1,707						
고치공판(톤)	329,441	182,613	446,837	1,663.1	2,7015	1,204.6	598.5	437.9	38.6	0

■ 1975년도 충청남도의 품종별 병발면적 비율 ■

병발 총면적	개량 서반	일지뢰	노상	수원상 4호	시평	검지	용천 추우	기타
7,329.5ha	44.7%	26.1	18.6	9.8	0.5	1.1	0.1	0.3

자료 : 충청남도 농촌진흥 50년사

4. 병 수확방법 및 병충해 방제기구의 변화

- 1962 ~ 1965 맨손으로 병잎 수확
- 1966 ~ 1969 병가락지 적상기 이용. 배부식 분무기 사용
- 1970 ~ 1985 병낫 사용 가지병 수확. 동력 미스트기 사용
- 1986 ~ 1990 휴대용 동력예취기 사용. 경운기 이용 동력방제
- 1991 ~ 바인다식 병수확기 이용. 경운기 이용 동력방제

병나무 병충해 방제는 1973년 이전에는 배부식 분무기를 이용하였고, 그 후 동력 미스트기, 경운기 부착용 분무기 등이 널리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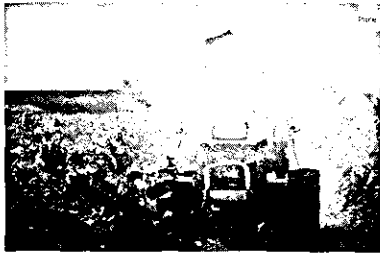
병 수확에 있어서는 1962년 이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병잎을 따 먹였으나 1975년 조상육(條桑育)기술이 보급되면서 병낫을 이용하여 가지병을 수확하여 누에를 쳤다.

1986년 개발된 동력 예취기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작업 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5. 병발 제초 작업의 변화

- 1962 ~ 1965년 인력제초 + 축력이용 병발 얇이갈이
- 1966 ~ 1969년 제초제 사용 50%이하(랏쏘 + 씨마진 혼용)
- 1970 ~ 1979년 제초제 사용 50%이상. 벚짚 피복
- 1980 ~ 1992년 제초제 사용 100%, 벚짚피복. 경운기 로타리

1965년 이전에는 인력제초에 의존하다가 축력을 이용하여 얇이갈이를 하였



경운기를 이용한 뽕밭 비배 관리

고, 1966년 화본과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인 라쏘와 광엽 잡초를 죽이는 씨마진의 개발 보급으로 혼용살포를 하였다.

1970년대 이전 제초제 사용농가 20%에서 점차 증가하여 80년대 후반기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6. 다수확 농가 육성

정부에서는 뽕밭의 생산성 증대와 잠업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많은 시상금을 내걸고 현지 심사를 거쳐 전국단위 최고 다수확농가를 선정한 바 충남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것으로 보아 충남의 잠업세가 다른 도에 비하여 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년도별 전국최고 다수확 농가

- 1981년 1위 전영상(공주. 계룡. 화현) 10a당 잠견 185kg 생산
- 1983년 1위 이상두(홍성. 장곡. 신동) 10a당 잠견 264kg 생산
- 1984년 2위 임동철(연기. 남면. 갈은) 10a당 잠견 248kg 생산
- 1987년 1위 이원영(홍성. 장곡. 지성) 10a당 잠견 275kg 생산

7. 누에사육 시설의 변화

- 1962년 이전 : 방바닥에 사육 - 솔가지덮. 참나무덮. 지네덮 이용
- 1962 ~ 1966 : 다단식 잠박육 - 흙벽돌 잠실. 새끼망 이용
- 1967 ~ 1980 : 3단육 난로사용 - 간이잠실 활용
- 1981 ~ 1989 : 2단식 조상육 - 급상대차이용, 회전축이용 자연상축

1971년부터 향은 향습조절 잠실이 1980년도까지 각 잠업 주산단지에 설치되어 2명까지 기른 누에를 잠업농가에 배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징수했다.

1989년도 서산군 고북면 가구리 윤명식 씨가 이동 다단식 잡박을 개발하여 앞서는 선진농가로 선정되었다.

8. 애누에 인공사료육 및 잠구의 개량

1987년부터 행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던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1990년부터 지도기관에서 인수받아 공동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1990년 4개소, 1991년 6개소, 1992년 6개소, 1993년 13개소, 1994년 17개소로 점차 확대하여 누에사육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은 상자 당 수견량은 뽕잎육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나 1~3령까지 어린 뽕을 따지 않기 때문에 연간 14%의 뽕잎을 더 절약하게 되었고 사육 기간도 25일에서 15일로 단축되기에 누에 사육 노동력을 62%나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잠업사업소에서 84상자를 시험 사육하였고 1995년부터 700상자 규모로 2령까지 사육하여 농가에 배부하여 농가에서는 사육 노력이 절감되고 사육 횟수도 늘릴 수 있었다.

■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결과 ■

구 분	개소수	농가수	연간 소잠량	상자당 수견량(연평균/kg)		
				사료육(A)	뽕잎육(B)	A/B
1990	4	38	391.0	33.2	34.7	95.7
1991	6	38	578.2	28.0	29.0	97.0
1992	6	24	621.5	29.0	31.2	93.0
1993	13	25	382.0	28.9	29.8	97.0
1994	17	17	217.0	27.0	27.8	97.0

자료 :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큰누에 사육은 4~5령까지 가지뽕치기에 의한 사육으로 전체 사육 노동력의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1단육에 의한 가지뽕치기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고 1992년부터 급상대차(給桑臺車)⁶⁾ 시설을 갖춘 가지뽕 치기로 사육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누에를 올릴 때 손으로 일일이 주워 올리던 시기로 전체 사육 노동력의 14%가 2 ~ 3일간에 소요되었는데 1980년부터 회전축이 보급되었고 1990년부터는 회전축에 의한 자연올리기 방법으로 발전했으며 고치를 딸 때도 1975년 이전에는 손으로 따던 것을 나무틀을 이용하여 쉽게 딸 수 있었다. 특히 1985년부터 자동수건기가 보급되어 8.5배의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9. 충청남도의 잠사유적

• 공주의 잠종 보호고(庫)

1915년 11월 10일 공주시 산성동 산성공원 내에 잠종 보관을 위해 설치되었다.

규모는 폭 - 90cm

높이 - 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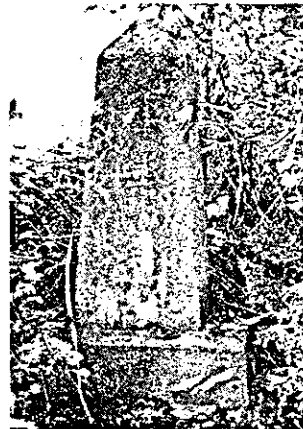
길이 - 11m



잠종보호고 전경

• 동아견직 잠령탑

1938년 예산읍 주교리 179번지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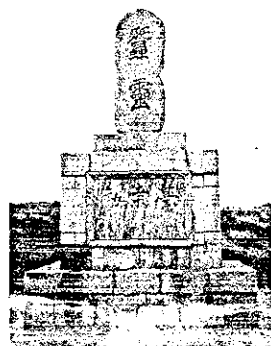
동아견직 잠령탑

6) 누에에게 뽕을 주기 위하여 만든 기구로 뽕을 싣고 운반하는 작업대이다.

• 당진군 잠령탑

1939년 6월 25일 건립된 것으로 건립 당시에는 당진 군청 내에 세워졌었으나 1967. 11. 김윤환 충청남도지사가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산 18 ~1로 옮겼다.

이 잠령탑은 당초 충남제사 김동경 사장, 백정제사 공장장, 고곡제사 공장장이 기증한 것으로 높이- 1.5m 넓이 0.55m이다.



당진 잠령탑

• 잠업사업소(현 잠사 곤충사업소) 잠령탑

1988. 4. 20일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35~6에 건립한 것으로 건립 취지는 잠령(蠶靈)을 위로하고 잠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14~1988년까지 공주시 봉황동에 있던 잠종장을 현재의 귀산리로 이전하고 세운 것이다.



잠업사업소 잠령탑

1996년 5월 13일 잠령탑에 제(祭)를 지낸 축문

‘충청남도 잠업사업소장 이인상(李仁相)은 산가 고 하나이다.

잠령이시여! 그대 미물로서 인류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며 오직 그대는 미물이으나 우리 인류에게 끼친 공은 어리석은 농부보다 낫고, 그대는 인류와 더불어 지상에 남아 영원히 공생하리니 어찌 천상의 인연이 아니리오.

잠령이시여! 여기 비의(非儀)를 갖추어 그대를 위로하고 또 그대의 고마움을 기리고자 잠사인 일동이 미성(微誠)을 바치오니 흠향하시옵고 금년에도 풍잠이 이루어 지도록 흠격 하시옵소서’



충남 잠사곤충사업소 뽕밭 전경

Ⅶ. 서산지역의 잠업

잠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뽕나무와 누에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예로부터 서산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습도가 적당하며 저 구릉성 비옥한 땅이 많아 양잠에 적합한 지역이다

광복 당시만 해도 집 주위와 밭둑에 큰 뽕나무들이 많아 오디를 따 먹기도 하고, 간혹 자연산 뽕나무버섯(노타리)과 상황버섯을 딸 수도 있었다.

과거 서산지역의 잠업 형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가부업 형 잠업으로 생산된 누에고치는 거의 수매에 응하고 일부 자가용으로 명주실을 뽑아 옷감으로 사용하였으나 다른 섬유산업의 발달과 노동력 부족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말았다.

1. 잠업증산 조직의 인적 강화

1960년대 초 국가의 주요 시책은 식량의 자급달성과 소득증대였으므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계획된 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에 의거 당시 서산군수 박재복은 잠업증산을 위한 조직강화와 인력증강에 힘써 서산군청 식산과에 잠업계를 두고 잠업계에는 계장을 포함 4명의 정규직과 10여명의 임시직 잠업지도원을 두어 각 읍면을 분담케 하였다.

1962년 3월 21일 법률 제1039호에 의거 서산군 농촌지도소가 발족되면서 주산지계가 생기고 여기에 잠업담당자와 잠업지도원이 배치 되었다.

1963년 잠업지구에 배치된 주재 지도사는 고북면 장동원, 음암면 양기태, 원북면 김영환, 유재풍, 서산을 윤기섭, 해미면 박영진, 대산면 이강홍, 운산면 한상복, 정은조 등이었으며 이때 월 수당은 5천원이었다.

이들의 주요 담당 업무로는 육잠 기술지도, 신규 상전조성, 묘목공급, 상전 비배관리 등 모든 조치와 각종 잠업증산 시책을 농가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적을 취합하여 계통별로 상부에 보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박재복 군수 후임으로 이승규 군수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야산개발과 집단상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각 읍·면에는 공히 산업계를 두었고 산업계에는 잠업담당자를 배치하였다. 잠업주산지 면에 배치된 직원들은 일요일도 없이 업무가 폭주하여 타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4년도 농촌지도소에 배치된 임시직 잠업지도원은 본소에 박영진, 양기태, 이갑순, 이승용, 지곡면 이강홍, 음암면 유재풍, 운산면 한동교, 해미면 김영환, 고북면 장동원, 태안읍 한상식, 원북면 정승원 등이었다.

잠업지도원들은 대개 농업계 학교를 나왔거나 공주 잠업강습소 출신들이 많았다.

1965년 6월 지도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진흥원장의 발령으로 정규직 잠업 지도사가 서산군 농촌지도소에 배치되었다. 서산읍 이희수, 태안읍 한상식, 음암면 임만재, 성연면 정성희, 대산면 정병화, 운산면 이원식, 인지면 김찬영, 고북면 이재구, 안면면 조숙현, 원북면 조산호 등이었다.

이때만 해도 농민들이 숙전에 뽕나무 심는 것을 몹시 주저하였지만 지도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한 집 두 집 뽕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누에고치 수익성이 타 작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인식한 후에야 농민들이 뽕밭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 잠업주산단지 조성

잠업중산 5개년 계획에 의거 서당지역이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잠업 주산단지로 선정되면서 잠업은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차 잠업 주산단지로 선정된 지역은 음암, 서산, 해미, 태안 등 4개면이었고 그 후 2차로 운산, 성연, 고북, 대산이 선정되었으며, 인지 안면 원북면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영농교육을 통하여 식상(植桑)법과 양잠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했으며 농가별로 식상대상 농가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방문지도를 하였다.

3. 야산개발 집단상전 조성

서산지역의 집단 상전조성 계획은 1967년도에 569ha, 1968년에 442ha의 산



음암면 일대에 조성된 잠업주산단지 뽕밭 전경(1960년대 말)

지를 개간, 총 1.011ha의 뽕밭을 조성, 1967~1969년까지 3년 동안 기존상전 포함 1,172ha로 확장하여 잠견 534.3톤을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산에 나무를 제거하고 인력을 동원, 경사가 있는 곳은 간이 계단식으로 개간하였는데 개간에 소요되는 노임을 원조용 밀가루로 지급했기 때문에 마을 곳곳에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었고 상인들이 몰려와 밀가루 상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당시 음암에서 잠업 특기지도사로 근무했던 양기태(梁其泰)의 증언에 의하면

“60년대 초 음암에서 가장 먼저 뽕밭을 조성한 사람은 도당리 이근대, 문양리 이원근, 이관주 등이었다. 그 후 탑곡리 서정복, 방오성, 등이 심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문양, 탑곡, 도당지역에 처음으로 뽕나무 5만주를 인수받아 심었고, 1964년에 10만주를 심었다.

야산개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966년도 200ha의 산지를 개간하는데 각 읍·면에 근무하던 개간요원 6명과 잠업지도원 10여명이 음암면으로 기동배치 되었고 개간에 참여한 인부는 약 48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기억된다.

1967년에는 뽕나무 운반을 위하여 군용트럭까지 동원되었는데 묘목 1,875,000주를 한꺼번에 운송(군용차 한 대에 2만주씩 실어 94대 동원)됨으로써 음암 일대가 뽕나무 묘목 천지를 이룬 적이 있다. 또한 가을에 일찍 도착 했어야 될 묘목이 눈이 내리는 11월에 도착되어 동해를 입게 되자 각 신문에 대서특필로 게재되었고, 묘목 가식지도를 위하여 서산군청 공무원들이 부락별 농가별로 분담 배치되어 가식에 임한 적도 있다. 잠업지도원들은 낮에는 현장지도를 하고 밤에는 담당부락에 나아가 뽕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야간교육을 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8년에는 20ha에 달하는 뽕밭에 보완 식상을 하였는데 그 당시 뽕나무

를 가장 많이 심은 농가는 탑곡 3구 김영순으로 약 3만주를 심었다. 1970년에는 음암면에서 누에 약 2,150상자를 소잡하여 서산군 전체의 약 25%이상을 사육하여 최고에 달했다.

그 당시에는 누에 한 상자를 사육하면 쌀 3 ~ 4가마 값이었기에 잠업농가의 의욕 또한 최고에 달했으며 고치 공판 날에는 가족이 동원되어 리어카에 싣거나 지게에 지고, 부녀자들은 머리에 이고 모여들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처음에는 고치 공판장이 도당 4구 한 곳이었으나 모두 수용 할 수 없어 문양 1구에 다시 공판장을 증설하였다 고치 공판 날은 일대의 음식점 술집들이 호황을 누렸다.”

고 양씨는 회고하고 있다.(모든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잠성대 조성

서산군에서는 집단 상전조성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음암면 상흥리 천주교 뒷산에 흙을 돋우어 대(臺)를 조성하고 대형 현황판을 설치하였다.

이 대(臺)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 공모한 결과 많은 응모자 가운데 당시 산업직 공무원이었던 남창희(경북 상주)가 지은 잠성대(蠶城臺)라는 이름이 당선되어 새로운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잠성대에 설치되었던 현황판

5. 박정희 대통령 현지 시찰

1969년 6월 15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잠성대에 오셔서 집단 상전조성 현황을 청취하고 많은 찬사를 하였으며 기념 식수도 하였다. 그 때부터 잠성대(蠶城臺)라는 지명이 도내 각 시군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2년도 발행된 서산군지에 의하면 1978년 서산군의 누에고치 생산량은 총 127톤 이었는데 이중 50%가 넘는 67톤이 음암, 운산, 성연에서 생산되었으며 그중에도 음암면이 37톤으로 전체의 29%를 생산한 기록이 있다.

6. 잠업증산에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들

음암면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전이 조성될 당시 이승규 서산군수는 매일아침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시 마다 거의 상전조성과 잠업증산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지 출장도 많은 시간을 잠업 주산단지를 순회하며 독려했기에 잠업군수라는 애칭이 붙기도 하였다.

군청 내에서는 급한 결재 서류가 밀리는 등 불평도 있었으나 음암면의 잠업농가들은 이승규 군수에 대한 신망이 대단히 높았다.

이 군수가 떠난 후 이종은(음암면 문양리 거주)을 중심으로 음암면 잠업농가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고저 공적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자진하여 성금을 내어 놓았다.

처음 계획은 기왕이면 서산군청 앞에 공적비를 세우려 추진하였으나 관으로 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음암면사무소 앞에 세우려 했지만 이도 안된다는 부정적 견해로 부득이 음암면 문양1리 노변뽕밭 옆에 세우게 되었다. 그 후 음암면 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현 위치인 복지회관(음암면 도당 4리) 광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비문은 음암지역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웠던 음암초등학교 원로 교사인 화암 고 김기철 선생이 작성하고 비문을 썼다.



이승규 군수 기념비

비문의 내용은

一九六九년! 이 지역에 가난이 물러선 해
언덕을 일구어 기름진 뽕밭을 꾸미고 고치를 깎우어 억만의 재화를 받아드
리니 李承奎 군수님은 관민을 이끄심에 밤낮이 있었으랴 남모를 오뇌 또한

어떠하였으리 오즉 우리에게 배폰 원(願) 참 기록하여라.

그 공(功) 잇을 길 없어 돌 깎아 고마움 기록하니 음암의 마음은 기리 칭송 하리라.

공적비를 세우던 날 많은 잠업 농가들이 현지에 모인 자리에서 고 이은택 응계서 이승규 군수의 잠업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였다.

당시 잠업계장이었던 한명수는 고향이 태안으로 잠업단지 조성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다.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90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잠업단지 조성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바람같이 다녔고, 이군수가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가 대단했기에 각 읍면 공무원들은 그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하는 정도였다.

그는 뽕나무 묘목 인수에서부터 밭에 심어진 후까지 일일이 점검하며 집단상 전 조성에 많은 정열을 바쳤기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되어 전출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 당시 음암면장은 김동진(음암면 유계리)이었다. 그는 흰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호걸풍으로 각 유관기관과 융화를 하면서 잠업증산에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개간에서부터 식상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잠업단지를 훌륭히 조성하였기에 연기군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또한 잠업단지조성 기술보급에 앞장선 공무원들은 농촌지도 공무원들이었다.

농촌지도소 본소 소장은 유병원(柳炳元) 이었고 잠업담당 주산지 계장은 박영진이었다.

당시 음암지소장은 이동모(李東模)였다. 이 지소장은 공채로 선발된 지역사회 개발요원(C.D)으로 1967년 6월 15일음암지소장에 부임하였다. 부임과 동시 뽕밭조성에 분주한 현장을 매일 순회하며 식상(植桑)지도에 앞장섰으며 각 읍면에서 근무하던 잠업지도 공무원들을 음암지소에 임시 기동배치 함으로써 한 때는 25명의 지도공무원이 근무한 적도 있었기에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휘 감독하며 잠업단지 조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68년 6월 1일 부로 김연오(金然五)가 음암지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때는 음암지역에 잠업이 한창 붐을 이루던 시기로 각 농가에서는 모든 작목 중 잠업이 우선이었고 농가소득도 잠업이 최고였다 김연오 지소장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 등 상부기관을 통하여 새로운 농사정보와 새기술을 신속히 입수하여 잠업농가에 보급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음암지역 잠업증산에 공이 큰 지도공무원은 양기태이다. 그는 공주 잠업강습소를 나온 총각선생으로 1962년부터 음암면 문양리, 도당리 탐곡리 일대를 순회하며 잠업을 권장하고 기술지도를 했기에 잠업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들이 좋아하는 모범 공무원 이었다. 그는 음암 지역이 잠업단지로 조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갑순(서산읍 오남리 거주)과 이승용(음암면 상흥리 거주)은 1940년대 초 대전의 군시 제사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잠업강습소에 입학하여 7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동 제사공장 잠종과에 기술요원으로 근무한 고급 잠업기능인 이었다. 이들은 1961년 3월 10일부터 1974년 12월 30일까지 서산군청 산업과 잠업계와 농촌지도소에서 잠업 업무를 맡아오면서 헌신적으로 서산군 전역의 잠업농가를 지도 한 바 잠업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원로이다.

또한 서산군 건설과에서 토목 업무를 담당했던 박병필(서산읍 오남리)은 각 읍·면의 개간 요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야산개발과 계단식개간의 설계에서부터 완료시까지 현장을 누비고 다녔으며, 잠업을 담당했던 강정환, 남창희를 비롯한 잠업계 직원들은 뽕나무 묘목 수령과 비료 석회 퇴비 등 식상에 필요한 제반 자재공급에 동분서주, 행정적 뒷받침을 하였다.

당시 음암면사무소에서 잠업을 담당했던 정동욱(음암면 상흥 1리)의 업적도 지대하다. 그는 낮에는 잠업현장에 나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는 상부에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고 밤늦도록 일일 추진 결과를 취합 보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근무 했다.

1971년도 서산군의 잠업증산을 위한 행정조직은 군수 설일진, 식산과장 이해천, 잠업계장 김기영, 잠업계원 전 찬, 강정환, 문병열 등이었고, 잠업지도원으로는 이형노, 국응량, 원영식, 윤인상, 박상배, 김병환, 임보환, 이영복, 장태희, 이인규, 지용석, 최상업, 김정환 등이 근무했다.

• 잠업증산에 기여한 각 읍·면 공무원들

읍 면 별	읍 면 장	산업계장	잠업담당자
서산읍	유병갑	이학태	조성운
인지면	안종수	김명수	한완수
부석면	유병호	유병욱	이강석
팔봉면	지규진	문효석	유태욱
지곡면	이홍령	이한무	최종하
대산면	김동호	장석두	이대봉
성연면	최동구	정종우	김진식
음암면	이명렬	손병호	김무겸
안면면	이상남	박병화	김은구
운산면	채규송	이상복	박대원
해미면	김동원	한득우	전하영
고북면	최석우	양병수	김광조
남면	문재배	김동규	최충호
태안읍	장동기	이기희	.
근흥면	김장혁	한명근	문장권
소원면	윤우선	윤형상	이충구
원북면	조영휘	조혁상	가종현
이북면	구자운	유규상	송연환

그러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또한 각 마을의 이장을 비롯한 각급 지도자들의 노력이 컸다고 본다.

특히 문양 1구 이종은, 탑곡 3구 고 서병석, 탑곡 4구 서정복, 탑곡 1구 고 방오성 등 지도자들의 숨은 입적이 크며 그 밖에 대규모 잠업 농가들의 공이 컸다 하겠다.

7. 군내 누에고치 생산 현황

구분	검사수	우등	1등	2등	3등	4등	5등	등외	옥견	하견
1975	266.113	20.709	107.235	59.628	6.236	160	24.480	22.621	10.945	9.098
1976	329.179	60.615	159.203	38.370	3.416	37	25.218	23.191	11.223	18.400
1977	184.918	32.178	106.239	32.670	3.067	1	14.751	14.184	7.722	6.253
1978	126.934	15.392	58.572	18.996	2.064	·	9.734	8.803	5.066	8.307
서산읍	7.148	741	3,514	869	123	·	584	529	304	484
태안읍	7.180	771	3,415	1,038	119	·	564	512	293	468
인지면	2,288	247	1,120	282	39	·	184	167	96	153
부석면	5,631	682	2,524	976	88	·	418	379	217	347
팔봉면	5,653	720	2,595	853	91	·	428	388	223	355
지곡면	8,686	865	4,198	1,196	148	·	700	635	364	581
대산면	3,607	303	1,901	324	66	·	311	282	162	258
성연면	10,793	1,212	5,293	1,251	185	·	876	794	456	726
음암면	36,760	4,790	16,324	6,260	573	·	2,706	2,456	1,408	2,243
운산면	13,186	1,622	6,036	2,053	212	·	1,002	909	521	831
해미면	8,623	1,052	4,063	1,181	142	·	671	609	349	556
고북면	8,215	1,238	3,552	1,367	126	·	593	538	309	492
안면면	2,720	682	757	844	26	·	126	114	66	105
남면	937	95	479	94	16	·	78	71	40	64
근흥면	910	78	484	82	17	·	72	70	38	69
소원면	1,154	74	636	74	22	·	107	97	56	88
원북면	2,358	157	1,302	158	45	·	214	194	111	177
이북면	1,035	63	379	95	26	·	100	59	53	310

자료 : 1982년도 서산군지

1998년에 발행된 서산시지에 의하면 서산군의 뽕밭은 1965년 1,228.6ha에서 1970년에는 1,300.1ha로 증가했으나 1975년에는 772.1ha로 급격히 줄었고 1980년에는 243.3ha로 크게 감소되었다

8. 서산군 상전면적 및 양잠호수

단위 : (면적) ha/호

구분 읍면	면적	수량별 면적					양잠호수 (춘+추)	주수
		2년생	3년생	4~6년생	7~11년생	12년이상		
1975	899.0	93.3	110.5	54.0	37.9	603.3	9,648	7,027,920
1976	761.3	14.1	79.5	170.4	474.1	23.2	6,665	6,188,030
1977	606.5	10.9	12.5	168.0	332.2	82.9	669.9	4,871,465
1978	400.8	3.3	8.8	96.0	202.0	90.7	4,797	3,209,600
서산읍	17.0	0.3	0.3	3.3	13.1	.	188	133,100
태안읍	21.5	0.2	0.2	2.8	12.5	5.8	141	175,100
인지면	3.7	.	0.1	0.1	0.2	3.3	81	26,400
부석면	11.7	0.3	0.5	0.9	2.9	7.1	289	94,100
팔봉면	12.8	0.2	.	2.3	8.8	1.5	247	108,000
지곡면	27.7	0.4	0.6	12.0	14.6	0.1	535	233,500
대산면	16.2	.	.	7.8	8.0	0.4	147	131,000
성연면	29.1	0.2	1.4	3.0	7.9	16.6	407	232,400
음암면	113.7	0.5	1.0	17.6	70.1	24.5	1,078	947,100
운산면	46.0	0.4	0.6	10.0	32.9	2.1	562	351,900
해미면	25.5	0.3	0.7	10.4	12.8	1.3	315	210,700
고북면	34.0	0.3	0.8	4.4	4.8	23.7	253	253,000
안면면	29.0	0.2	2.6	15.9	6.9	3.4	157	222,300
남면	2.4	.	.	1.2	1.1	0.1	46	18,800
근흥면	2.0	.	.	1.0	0.9	0.1	62	14,000
소원면	2.2	.	.	0.5	1.2	0.5	66	14,100
원북면	3.8	.	.	1.5	2.1	0.1	140	25,100
이북면	2.5	.	.	1.3	1.1	0.1	83	19,000

자료 : 1982년 서산군지

서산시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1970년도 소잠매수는 7,169.1매에서 1975년도 9,911.5매로 증가했다가 1980년에는 4,291매로 감소했고 잠전 생산량도 1970년 174톤에서 1975년 321톤으로 증가했다가 1980년 126.3톤으로 감소되었다.

그 후 잠업이 점점 쇠퇴하여 1995년에 전체 양잠농가수가 25호이고 뽕밭은 거의 다른 작물로 전환되었다.

음암지역에 상전 면적이 늘어나던 때에는 상대적으로 염연초 재배면적은 줄어들었고 또한 벼농사의 모심은 시기도 자연스럽게 앞당겨져 벼의 농약 살포시기와 소잠시기의 경합을 피하게 되었다.

■ 연도별 양잠현황 ■

단위 (매/kg)

구 분		1970년도	1975년도	1980년도
소잠매수	합 계	7,169.1 매	9,911.5	4,291
	봄	2,859	4,817	2,418.05
	가 을	4,310.1	5,094.5	1,872.5
잠전생산량	합 계	173,940.25	321,080	126,349.85
	봄	75,010.9	179,217	79,823.25
	가 을	57,620.65	141,863	46,526.6
정부수매	합 계	.	321,080	125,989.9
	봄	.	179,217	79,581.4
	가 을	.	141,863	46,408.5

자료 : 서산시.군 통계연보

9. 농촌지도소를 통한 잠업교육

농민들에게 잠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각종 잠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잠업교육과 잠업연찬회, 잠업평가회에 대농가를 선발 참석시켰고 군 단위 교육으로는 겨울철농민교육, 여름철농민교

육, 잠업전문교육, 새마을 영농교육, 마을단위 순화교육, 잠업 현지평가회, 잠업연찬회, 선진지견학, 사례발표회, 품평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연중 실시하였다.

그 당시 사용한 교육 교재로는 농촌진흥청 충남농촌진흥원에서 제작하여 배부되는 잠업에 대한 리플렛, 팜플렛, 연구와 지도, 월간 농촌지도와 자체로 발간하는 여러 종류의 교재가 있었고, 1986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양잠에 대한 표준영농교본을 만들어 시·군에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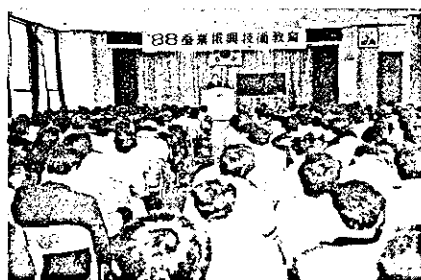
학습단체 등 집단교육과 대중교육 시에는 환등기, 8밀리 영사기, 차트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으로는 뽕다수확시범포, 밀식뽕밭 시범포, 상전 비배관리 시범포, 가지뽕치기 시범,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 양잠시범농가 운영, 개량 잠실은영 시범, 제초제사용 시범, 뽕나무가지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시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신속한 기술보급에 진력하였다.

잠업지도사들은 현지 출장시 지도용 가방을 휴대하고 다녔으며 가방 속에는 지도용 수첩, 도시락, 전정가위, 접는 나무자(木尺), 리플렛, 팜플렛 등 교재를 넣고 다녔고, 매일 지도일지를 기록하였다.



서당지구 양잠농가에서 육잠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양잠농가 기술교육 장면(1988년)



농촌지도사용 기술교재

1980년도 서산군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잠업 시범사업으로는 양잠 시범마을 1개소(10농가), 뽕다수확 시범포 10개소, 스치로폼 간이잠실 5동을 비롯하여 치잠공동사육(稚蠶共同飼育), 장잠조상육(壯蠶條桑育), 뽕밭

비배관리(肥培管理) 시범지도로 잠업경영 개선에 큰 성과를 올렸다.

그 당시의 중점 지도항목은 식상(植桑) 및 비배관리, 상전 병충해방제, 잠실 잠구소독, 잠병방제와 생리적 장애방지 생력양잠(치잠공동사육, 장잠조상육), 상족(上簇)개량 및 적기수확 등이었다.

■ 시범마을 지도실적 ■

구 분		춘 잠	추 잠	합 계
시범마을	호 수	10	10	10
	소 잠 량	48.0	45.4	93.4
	상 전 면 적	3.63ha	3.63	3.63
	수 견 량	1,686kg	1,465	3,151
10a당 수량	시 범 마 을	46.4	40.3	86.7
	일 반 마 을	33.1	25.0	58.6
	지 수	142	161	149
상자당 수견량	시 범 마 을	35.1	32.2	67.3
	일 반 마 을	36.0	30.2	66.2
	지 수	97.4	100.7	100.2
잠전kg당 가격	시 범 마 을	2,869	2,945	2,907
	일 반 마 을	2,730	2,469	2,600
	지 수	105	119	112

자료 : 1980년도 농촌지도 사업보고서 (서산군 농촌지도소)

이상과 같은 잠업시범사업이 1982년까지 계속되다가 그 이후에는 사업규모가 점점 축소되었다.

10. 서산농고 잠업과 신설과 서농식(瑞農式) 이동잠박 개발보급

서산농업고등학교에서는 향후 잠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상부의 승인을 받아 1965년 12월 29일자로 학칙을 개정하고 잠업과를 신설하여 1966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또한 1969년 3월 6일 학칙개정에 따라 잠업과는 전원 여학생으로 만 모집하기로 하고 1970년 3월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양잠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600평의 뽕밭을 750평으로 확장하고 개량잠실도 확장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1969년도 잠업과 1회 졸업생 33명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1984년도까지 16회에 걸쳐 762명의 잠업기술자를 사회 각 분야에 배출 하였다.

여기서 이 학교 25회 잠업과 졸업생인 정명옥(세무사)씨의 회고담을 들어 본다.

.....전략..... 농촌에 산다고 어느 집이나 누에를 치는 것은 아니니 양잠시간에 누에를 처음 보는 학생도 많았다. 그러니 우리들의 양잠시간은 특별했다.

누에가 자람에 따라 자리 넓히기 라고 해서 한 채반에 누에가 너무 많으면 다른 채반에 누에를 옮겨야 하는데 이때 누에를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옮겼다. 그 때 누에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이 아직도 손끝에 선연하다. 많은 학생들이 누에를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권성주 선생님의 불호령을 들곤 했다. 누에가 성장함에 따라 4.5령 잠 쯤 되면 뽕잎을 먹는 양도 엄청나서 우리들의 오후는 뽕밭으로 뽕따러 가는 것이 주된 일과였다. 우리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2인 1조로 큰 바구니를 들고 뽕밭을 향했다. 어찌 다 운이 좋아 새까맣게 익은 오디라도 따먹게 되면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었다.

봄누에 때는 순뽕따기라고 하여 뽕잎을 순 채 따니까 쉬웠지만 가을누에 때에는 잎뽕 따기라고 하여 뽕의 순을 따면 안 되고 잎만 따야 했다.....후략.....

특히 이 학교에 근무하던 임휘일 교사는 양잠의 생력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 결과 서농식(瑞農式) 이동잠박을 개발하였고 김용국 교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반자동화된 개량형 서농식 이동잠박을 완성시켰다.

이로 인하여 1970년 11월 4일 제 16회 과학전시회에서 생력양잠을 위한 기계화에 관한 연구로 과학기술처 장관상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농가에 실용화하기 위하여 최정신 이석구 두 교사는 음암면과 고북면 양잠농가에 이 잠박을 널리 보급시켜 양잠의 생력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공적을 인정받아 1971년 10월 5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도내 향토학교 운영심사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11. 제사공장 유치

정부에서는 잠업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1967년 5월 기업 양잠 육성시책에 따라 뽕밭 면적이 많은 지역이나 기업에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사공장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서산군에서도 관내에 제사공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농특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예산에 있는 충남방직 제사공장 분공장을 서산에 세우기로 허가하였다.

서산을 석림리(현 서산의료원 맞은편)에 제사공장을 짓고 제반시설과 기계 설비를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잠업이 점점 사양길로 접어드는 때를 맞아 본래 계획과는 다르게 제사공장 운영은 중단되고 말았다.

12. 음암지역이 잠업의 중심이된 이유

음암지역은 예로부터 기후나 토양조건 등 모든 면에서 양잠에 적합한 지역으로 많은 농가가 양잠을 해 왔다.

특히 잠업증산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야산이 많은 음암이 집단 상전조성의 적지이며 농민들도 소득증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다. 또한 농민 스스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새로운 작목과 새기술을 과감히 잘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13. 음암면지에 나타난 잠업현황

• 음암면의 연도별 상전 조성 면적

(단위 : ha)

년도별	1960	1965	1969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면적	8.8	51.8	484.1	402.1	264.3	69.8	36.2	7.4	1.9

자료 : 면세일람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도 음암면의 상전은 불과 8.8ha였던 것이 1969년도를 최고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5년도에는 1.9ha로 줄었으며 2004년 현재 잠업농가도 3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 3호의 잠업농가도 약용으로 누에를 생산하기 위하여 양잠을 하고 있다.

• 1970년도 음암면 잠업 현황

(단위 : ha, kg)

구분	상전면적	양잠호수 (춘잠+추잠)	소잠맷수 (춘잠+추잠)	산견량 (춘잠+추잠)
도당리	98.6	457	1,011.6	17,800
탑곡리	64.4	364	1,069.0	19,240
문양리	56.1	305	682.8	13,982
울목리	15.1	133	172.3	3,116
부산리	16.0	78	84.8	1,527
상흥리	38.3	152	307.9	5,984
수석리	25.6	135	260.8	4,578
신장리	20.2	108	158.2	2,706
유계리	20.2	84	123.6	2,150
성암리	8.8	54	53.2	1,276
부장리	38.8	156	185.1	5,926
합계	402.1	2,026	4,109.3	78,296

자료 : 면세일람

14. 잠업의 성공사례

• 문양리 1구의 사례

“꿈은 이루어지고”

1966년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새마을 단위 기반행정 심사에서 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1967년에는 서산군 농촌지도소에서 12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새농민회에서 적립한 백미와 보리쌀을 매각하여 문양리 농업창고 40평을 건축하였으며, 문양리 농업공판장으로 인가받아 벼, 보리, 잡곡을 수매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음암면이 잠업 우수면이 되고 문양리가 우수부락으로 선정되었다. 상흥리에 잠성대를 만들고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만들었으며 문양 1리에도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만들었다.

1969년 6월 15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잠성대에 오시어 음암면 잠업단지 현황을 청취하시고 음암면 전체를 공중시찰 하였다. 그 후 문양리에 대통령비서관을 보내시어 두루 살피시고 말하기를 전국 잠업단지를 순회하였는데 음암면 같이 잘된 곳은 처음 보았다고 극찬을 하고 박대통령께서 직접 보시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였다. (자료제공 : 문양 1리 이종은)

• 문양리 2구의 사례

“선진 양잠마을이 되기까지”

문양 2리 마을은 역새풀로 뒤덮인 불모의 구릉지가 많았다. 이러한 불모지를 일구어 뽕나무를 심는데 마을 주민들은 온 힘을 다하여 온 동네를 뽕밭으로 만들었다.

누에칠 잠실을 짓느라고 분주하였고, 매일 누에치는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으며, 온 동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일년에 봄, 가을 두 번씩 누에치는 성수기에는 노동력이 모자라 타 동네 아가씨들이 수 십 명씩 몰려들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품팔이 할 곳이 없던 동네가 기이하게 바뀌었다. 타 동네에서 부러워 할 만큼 수입도 짭짤했다. 이제는 살맛나는 부자마을로 바뀌고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새마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고질적인 춘궁기 보릿고개가 없어지게 되었다. (자료제공 : 문양 2리 김 형)

15. 양잠협동조합의 설립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생사섬유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생사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잠조합을 조직하고 양잠을 육성하였다.

1912년 3월 양잠조합 설치에 관한 준칙을 통하여 군·면 단위까지 조직화 하였으며 우량잠종의 보급, 식상의 장려, 치잠공동사육, 잠업전습회 개최, 잠견공동판매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일제는 농가에서 생산된 잠견은 농회를 통하여 헐값에 매입하는 수탈 정책을 감행하였다.

서산양잠협동조합은 1972년 2월에 잠업증산 시책의 일환으로 다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예산군과 당진군에 지소를 두고 지소장과 직원을 배치하여 활발히 업무를 추진하다가 잠업의 쇠퇴기를 맞아 지소를 폐지하였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양잠협동조합은 27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서산과 공주 2개소 뿐이다.

서산 양잠협동조합은 전국에서도 그 운영실태가 가장 우수하여 현재 서산양잠협동 조합장인 장성욱 조합장(서산시 해미면 기지리)이 전국양잠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되어 겸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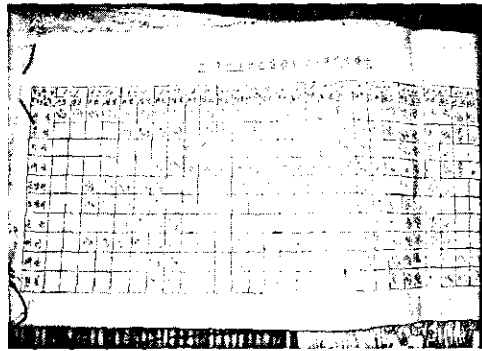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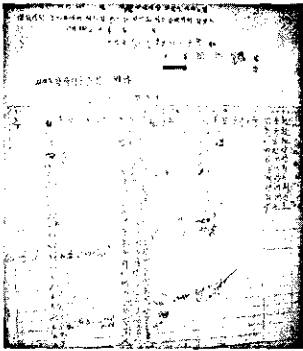
가. 서산양잠조합역대 조합장 및 대표

- 고 이종신 1972. 2. ~ 1977. 2. 12
- 고 유기승 1977. 2. 13 ~ 1978. 1. 13
- 이종은 1978. 1. 14 ~ 1978. 2. 4
- 고 권병한 1978. 2. 5 ~ 1981. 3. 31
- 이형노 1981. 4. 1 ~ 1983. 10. 7
- 윤명식 1983. 10. 8 ~ 1997. 2. 28
- 장성욱 1997. 3. 1 ~ 현재

나. 주요 추진 업무

- 누에고치 생산 및 판매
- 비료, 농약, 종균 등 양잠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알선
- 누에가루(황잠) 생산 및 판매
- 동충하초 생산 및 판매

장성옥 조합장의 말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국에서 소요되는 잠종은 총 14,200상자이고 충청남도에서 필요한량은 1,200상자이며 그중 420상자가 서산지역에 보급,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1975년 춘기 공판업무 추진상황표 (서산양잠협동조합)

다. 잠상물질 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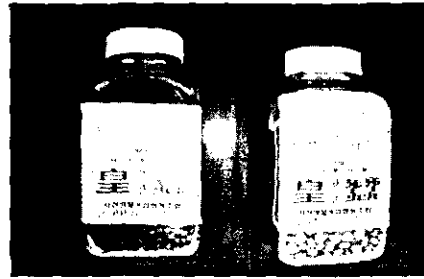
서산양잠조합에서 현재 누에 한 상자당 생산되는 누에가루는 평균 5kg이고 동충하초는 10kg정도 생산되고 있다.

■ 연도별 잠산물(蠶産物) 생산량 추정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에가루(톤)	5	8	8	8	7	6	5	5	5	5
동충하초(kg)	·	·	·	·	·	1	1	1	0.5	0.4

2005년 현재 누에가루 1톤당 가격은 약 1억원 정도이며, 동충하초 1kg당 가격은 약 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산양잠협동조합에서는 황잠(皇蠶)이라는 고유상표의 고급 누에가루 제품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하고 있어 서산지역 양잠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있으나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



서산양잠조합에서 생산되는 누에가루

2005년 현재 서산지역에서 양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농가는 고북면

가구리 윤명식씨로 그는 춘잠 약 80상자를 소잠하여 사육하고 있다.

라. 2005년 양잠농가 및 조합원 현황

성명	주 소	소잠량(2005춘잠)	성명	주 소	소잠량(2005춘잠)
장성욱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5상자	이강규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유이선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50	강남식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6
김정관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13	홍성직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김기철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10	허 윤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김일환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최용만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13
김교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0	신현균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50
박홍식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7	지주석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홍제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0	박운식	서산시 읍내동	15
장동춘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조건창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1
정갑규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홍원초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구본국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홍성직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11
최영환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6	김현길	예산군 덕산면 둔리	10
원기연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		김재권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1
윤명식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80	최성순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3
윤명환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20	합 계		420
윤성원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40			

자료 : 서산양잠협동조합

마. 연도별 잠사류 가격

년 도	고치가격	상모가격	잠종가격	비 고
1973	1,299 원/kg	26.20 주/원	1,800 상자/원	
1974	1,637	26.20	2,270	
1975	1,637	26.20	2,270	
1976	1,743	27.51	2,330	
1977	1,743	27.51	2,330	
1978	1,892	38.41	2,600	
1979	2,327	73.00	3,200	
1980	2,955	105.50	4,060	
1981	3,547	110.00	4,870	
1982	3,938	115.50	5,115	
1983	3,938	115.50	5,115	
1984	3,938	115.50	5,115	
1985	4,144	121.50	5,550	
1986	4,399	128.90	6,030	
1987	4,612	132.00	6,330	
1988	5,610	156.00	7,470	
1989	6,500	185.00	8,665	
1990	6,825	198.00	9,358	
1991	6,988	218.00	9,640	
1992	7,657	150.00	10,100	
1993 ~	7,657	287.00	10,100	

V. 잠엽의 전망과 과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수많은 고급원단 중에 자연섬유인 비단보다 더 좋은 옷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잠엽은 고급 건직물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내지 의약품과 화장품, 각종 기능성 소재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1. 잠상산물의 특수 이용

우리의 전통 의약서인 동의보감이나 목초강목에서 뽕나무는 잎, 줄기, 뿌리, 껍질, 열매 등 모든 것이 약재로 쓰이는 식물이고 또한 누에의 성분도 사람의 생체기능과 리듬을 조절하여 당뇨병 등 여러가지 성인병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뽕잎은 다른 식물에 비하여 독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여러가지 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 뽕잎과 녹차와의 성분비교 ■

구 분	칼슘	철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B2	비타민C	식이섬유	가바	루틴	칼륨
뽕 잎	2,699	44	4.130	0.6	1.4	32	52	250	380	3,101
녹 차	440	20	7.200	0.4	1.4	250	11	25	100	2,200
비 율	6.1	2.2	0.5	1.5	.	0.13	4.7	10	10	1.4

자료 : 잠사곤충연구소(이원주)

1997년 뽕잎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제조업체는 충남 금산 초당농산의 뽕잎차를 비롯하여 전국에 8개 업체가 뽕잎국수 등을 생산하였는데 2000년 9월 현재 43개 회사가 뽕잎차, 뽕잎환, 뽕잎국수, 뽕잎떡, 뽕잎냉면, 뽕잎미용비누, 뽕잎김치, 뽕잎아이스크림, 뽕잎두부 등 여러종류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인기에 판매하고 있다.

뽕나무, 뽕잎, 누에, 누에똥에 이르기까지 양잠산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효

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당뇨병 예방 및 치료효과

옛 의서에도 뽕잎이 소갈증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고, 잠사곤충연구소와 경희대학 약대 교수들의 공동 연구결과에서도 누에가루가 당뇨병에 효과가 크다는 실험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또한 뽕잎에도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으며 실제 임상 실험결과에서도 획기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나. 고혈압 예방과 조절 효과

뽕나무 뿌리 껍질인 상백피(桑白皮)와 뽕잎 속에는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정상 혈압을 유지해 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음이 여러 실험결과 밝혀졌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뽕잎을 이용한 식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상품화 하고 있다.

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으면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등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뽕잎 속에는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크다.

라. 동맥경화 예방효과

실험용 쥐에게 뽕잎을 먹인 결과 간 속에 지방함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 혈관속의 지방축적을 감소시켜 좁으로 동맥경화 현상도 예방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마. 뇌졸중 예방효과

뇌졸중 즉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일어나는 병이다.

동의보감. 목초강목에 뽕에는 새 순의 뽕잎을 술에 담가 마시거나 서리 맞은 뽕잎을 끓여 그 물에 손발을 씻으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뽕나무 죽이나 탕을 마시면 좋다고 했다.

바. 기타 약리효과

그 밖에도 뽕잎에는 100여 가지의 유효 성분이 들어 있어 중금속 배출, 변비, 노화 방지, 항암효과, 청혈작용 등 많은 효과가 있으며, 보혈, 강장, 해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약리작용 효과가 커서 신약의 원료로서 연구 개발이 기대 될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실버산업으로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크는 가볍고 공기 유통이나 수분의 흡수, 또는 배출 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실크 속옷을 입히고 비단침구를 사용토록 권장해 본 결과 놀라운 치료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중국 절강성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 실험한 바에 의하면 노인성 가려움증 환자 40명중 100% 전원이 치료되었고, 다발성 피부질환자 120명 중 100명이 치료되어 84%의 치료 효과를 보았으며, 임신부의 국부 가려움증 환자 86%가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화장품 원료로서도 인기가 높는데 오래전부터 누에뽕에서 엽록소를 뽑아化粧품을 만들어 고급화하였고 최근에는 비단을 가루로 만들어 고급化粧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비단 분말은 부드럽고 자외선 흡수 능력이 커서 피부를 직접 보호하기 때문에 고급化粧품에는 거의 비단 분말이 첨가되고 있다. 즉 고급 립스틱, 샴푸, 린스 등에 첨가하면 모발 표면에 흡착되어 윤기가 나고 변색과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뽕나무 뿌리의 엑기스는 양모와 탈모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고 일본에서는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어 펠 베리샴프 라는 이름의 제품이 시판되어 왔다.

지금까지 37개 부문에 걸쳐 실용화 되었고 15개 부문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며 7개 부문은 개발 연구 구상단계에 와 있다.

특히 비단 분말을 이용한 특수 소재로 만든 피브로인 막은 산소의 투과성이 좋고 인체와의 친화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공피부, 인공혈관, 인공힘줄, 인공장기, 콘택스렌즈 등 다양한 개발이 연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항공분야 소재로까지 계속 개발되어 잠업이 다시 한 번 농가소득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뽕밭 10a당 소득 추계 (1998) ■

구 분	누에고치 판매	누에가루 생산	누에 동충하초 생산
소 득	56만원	240만원	600만원
비 율	100%	428%	1,071%

자료 : 충남농업기술원

IV. 맺는 말

역사적으로 볼 때 잠업은 필요에 따라 시대적으로 성쇠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단군성조 때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근세를 거치면서 한 단계 씩 발전해 왔다. 때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서도 시범양잠을 할 정도로 중요시 해 왔으며 수출 품목 중 항상 선두의 자리를 차지한 때도 있어 농가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산업이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생활방식이 바뀌고 급속한 산업발전과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 이젠 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쇠퇴하고 있지만 잠업의 역사가 말 하듯 언젠가는 또 다시 때가 오길 기다리는 산업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는 잠업이 견직물로써의 효용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의약품, 인체조직의 대체물질, 첨단 신소재로 계속 연구 개발되어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 날 미물인 누에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 훌륭한 인재를 육성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간 양잠에서 한 차원 높은 잠업으로 발전시키면서 고생하신 조상들의 지혜와 노고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이제 우리들의 머리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잠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그간 인간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잠령(蠶靈)들 앞에 머리 숙여 속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는 바이다.

■ 참고 및 인용문헌

1. 한국 잠사기술발달 100년사
발행인 : 문재유
발행처 : 한국잠사학회
발행일 : 2000. 10.
인쇄처 : 한림원
2. 한단고기(桓檀古記)
발행인 : 정주득
번역 및 주해 : 임승국
발행처 : 정신세계사
발행일 : 2004. 11. 20.(55쇄)
3. 산해경(山海經)
발행인 : 박명호
주역 : 정재서
발행처 : (주)민음사
발행일 : 1993. 2. 10.(개정2판 2쇄)
4. 농촌진흥 50년사
발행인 : 허일범
발행처 :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발행일 : 1995. 12. 31
5. 사진으로 보는 충청남도 잠사업
100년사
발행처 : 잠사민속박물관
발행일 : 2005. 5. 1
6. 표준영농교본 - 8 양잠
발행인 : 김문현
발행처 : 농촌진흥청
발행일 : 1986. 6.
7. 동아원색 세계대백과
발행인 : 김광진
발행처 : 동아출판사
발행일 : 1985. 1. 15
7. 인터넷 자료
8. 잠업관련기관 서류

과선각(過仙閣)에 대한 재조명

류 충 식
(서산향토연구회 회원)



《 목 차 》

1. 서언
2. 과선각(過仙閣) 현판(懸板)의 개관(概觀)
3. 과선각(過仙閣)현판을 부성사(富城祠)에 옮겨 온 연유
4. 필자와 처음 만남
5. 글씨와 편액(扁額)에 대한 제작 연대나 최고운(崔孤雲)의 친필여부와 보관 관리문제
6. 맺는 말

1. 서언

필자는 2004년 12월 25일에 간행된 서산의 문화 제16호에 부성사(富城祠)와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선생이라는 제호의 글에서 과선각(過仙閣)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 한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소략하여 다시 조명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성사



과선각

2. 과선각(過仙閣) 현판(懸板)의 개관(概觀)

이 현판은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645-2번지에 소재한 최치원(崔致堯) 선생의 영정을 모신 부성사(富城祠)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현판의 형태는 가로 106cm세로 49cm 두께가 2.5cm 규모이다.

편액의 둘레에 나무 널판으로 붙여서 대어귀를 맞추었다. 그 널판의 넓이는 7cm이고 밑부분의 양쪽 끝에 다리 모양의 긴 기둥이 15cm로 되어 있다. 나무의 재질은 앞뒤가 모두 채색되어 자세히 알 수 없어도 소나무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선각(過仙閣)이란 글씨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썼고 양각(陽刻)으로 조각했고 거문 바탕에 흰색으로 써져 있는데 당초에는 묵서였으나 뒤에 누군가에 의해 흰색으로 다시 칠한 것으로 보인다. 현판 둘레의 부침 널판은 파란색으로 뒤편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아마 천연도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현판(懸板)은 최치원(崔致遠) 선생의 찬필이라고 전해 온다. 이에 근거는 전부여박물관장과 경주박물관장을 역임한 고 홍사준(洪思俊)이 “최치원 선생의 일생”이라는 글과 최치원 선생의 후손인 최기영(崔基靈) 소장 문서로 확인이 되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1927년에 간행된 서산군지 사우조(祠宇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道忠祠在地谷面山城里1921年崔孤雲後孫崔東淵先自出金又鳩聚若干醵金
建築名之日道忠祠奉崔孤雲位牌又掛影禎每年陰八月終丁日奉享附近士林參

祠內懸過仙閣三字楣額本來揭在郡廳舍元殷常郡守時與崔東棟淵使之懸于道忠祠

도충사는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데 이는 1921년에 최고운 후손 최동연이 먼저 돈을 내고 약간씩의 돈을 모아 사우를 건축하고 도충사라 이름을 짓고 최고운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매년 음력 팔월 종정일에 봉향하는데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사우내에는 '과선각'이란 삼자의 미액으로 된 현판이 있는데 본래는 서산군청에 게판되어 있던 것을 원은상이라는 군수가 최동연(崔棟淵)¹⁾에게 주어서 도충사에 달게 하였다.²⁾

이 기록으로 보아서 과선각(過仙閣)이란 편액은 1921년 쯤까지는 서산군청 동헌에 게판(揭板)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사단법인 충남향토연구회 향토연구 제7집에 게재된 전 부여, 경주박물관장을 역임한 고 연재(然齋) 홍사준(洪思俊)의 유고 최치원(崔致遠)선생의 일생에 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서산군은 최치원 선생이 진성여왕 시대에 지방태수로 부임하였던 신라통일 말의 부성(富城)이다. 삼국사기 신라 진성여왕 7년 (893년唐昭宗景福2年)에 병부시랑 김처회(金處晦)로 하여금 납정절사로 당에 보냈으나 황해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동왕은 혜성(槿城=당진군 면천의 고호) 태수 김준(金俊)으로 고주사(告奏使)로 하고 부성태수 최치원(崔致遠)으로 하정사(賀正使)로 하여 출정을 하게 하였으나 이 해는 기항(饑荒)이 심하여 도적이 지방에 횡행 교통이 막히니 유당사(遺唐使)를 실행하지 못하였음이 동국여지승람 서산 명환조(名宦條)에 보인다.』

1) 최동연(崔棟淵) : 1878년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서 출생하고 거주하다 졸하였음. 한 말에 승인정 참봉을 역임하고 부성사(富城祠) 재건과 오현각(五賢閣)을 부성산상(富城山上)에 세우고 김대덕(金大德) 군수가 오현영시(五賢詠詩)를 지어 편액으로 만들어 서산군청 앞 관풍루(觀風樓)에 게판하였었는데 권익채(權益采) 군수 시대에 이를 옮겨 게판한 공로가 있는 인물이다.

2) 1927년 간 서산군지(상) p.90.

그 후에도 최치원(崔致遠) 선생으로 주사(奏使)로써 당에 갔다는 삼국사기 열전에 있음을 보아서 신라 왕실에서는 최고운(崔孤雲)을 유당(遺唐)하는 중로에 배치하여 두었던 것을 짐작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산의 궁실조에서는 조위(曹偉)의 시(詩)가 아래와 같은데 그 중에는 고운선생에 대한 일구(一句) 즉 학사선종거불회「學士仙蹤去不回」로 선생이 당 지태수(當地太守)였음을 말하여 준다.

薰風深院野棠開 吏散庭空草似苔.
葦浦潮聲歸海盡 象山雲氣接天來.
思菴舊宅尋無處 學士仙蹤去不回.
訪古令人增感慨 一尊須醉鼻如雷.

또한 서산군 동현(東軒)에는 과선각(過仙閣)이라는 현판(懸板)이 1939년 왜정 시대 까지 있었다고 당시 동군(同郡) 군수(郡守)이었던 현 거주 공주탄천(公州灘川) 박영준(朴永俊)씨의 말이며 그 과선각(過仙閣) 현판은 최치원(崔致遠) 선생의 친필이라고 전래되어 탁본(拓本)을 본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씨의 말에 의하면 동군 관하 운산면(雲山面)에 소재한 보원사지(普願寺址) 부근의 고로(古老)들의 이야기에 최고운(崔孤雲) 선생이 보원사(普願寺)에서 서거하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한편 삼한금석총목해미조(三韓金石總目海美條)에는 강당사사적비문(講堂寺事蹟碑文) 가야산강당동서산계(伽倻山講堂洞瑞山界) 고운문김생서(孤雲文金生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당지(現在 講堂址)가 있고 이 강당(講堂)은 최고운(崔孤雲)선생이 강학(講學)한 곳으로 전하며 사명(寺名)은 보원사(普願寺)가 강당사(講堂寺)로 통칭된 듯하다.

일설에는 해인사(海印寺)에서 고운(孤雲)이 신선(神仙)이 되어 갔다고 하나 이곳에서는 사망하였다고 하니 대조적인 전설이 아닐 수 없다.³⁾

또 최고운(崔孤雲) 선생의 후손이며 전 서산향교 전교였던 최기영(崔基靈)씨가 소장하고 있는 전적(典籍)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본 일이 있다.

3) 1998. 8. 15. 충남향토연구회 간 향토연구 제7집 p.35.

『최고운 선생께서 신라시대 부성태수로 계실 때 서산 “삼선암”에서 잠정(暫定)하시면서 친필로 “과선각(過仙閣)”이라는 편액을 써서 유보(留保)된 것을 서산군청에 천양(遷揚)하였는데 단기 4260년(丁卯)에 원은상(元殷常) 군수가 최동연(崔棟淵)에게 부성사(富城祠)에 보전케 하였다』

고 적혀 있었다.

3. 과선각(過仙閣) 현판을 부성사(富城祠)에 옮겨 온 연유

이 현판(懸板)은 원래 서산군수의 집무실인 동헌(東軒)의 현판(懸板)이었는데 너무 오래 되고 풍마우세(風磨雨洗)로 너무 낡아 동헌(東軒)의 현판으로 보존에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러한 귀중한 유물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최고운의 후손인 참봉 최동연(參奉 崔棟淵)이 최고운(崔孤雲) 선생의 영정과 함께 보관하겠다는 요청으로 부성사(富城祠)에 옮겨와 보관케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벌써 70여 년 전의 일이다.

4. 필자와 처음 만남

필자가 1997년 처음으로 부성사(富城祠) 유사로 선임되어 현판을 보았을 때에는 모셔진 최고운 영정(崔孤雲 影幀)의 좌측 측면의 벽에 걸려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편액(扁額)이 너무 오래 되어 조금만 다치거나 해도 크게 훼손 될 것 같아 이를 잘 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별처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만 가져다 관람시키고 있다.

5. 글씨와 편액(扁額)에 대한 제작 연대나 최고운(崔孤雲)의 친필 여부와 보관 관리문제

편액(扁額)의 제작 연대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어느 때의 나무인가가 밝혀

진다면 대체적인 윤곽이 들어 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어느 때에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없다. 글씨는 먼저 써지고 후대에 편액(扁額)으로 만들어 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편액(扁額)의 글씨가 최고운(崔孤雲)의 친필이냐의 여부에 대하여도 필자로서는 서체의 연구가 전혀없는 사람으로 무어라 말할 수 없다. 그것이 꼭 친필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다만 그것이 친필이던 아니던 간에 우리 서산시로서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귀중한 문화 유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필자가 2005년 9월 말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에 가 볼 기회가 있었다. 인터넷 안내에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의 편액(扁額)이 1551년(가정29 명종5)에 내려진 명종대왕(明宗大王)의 친필이라고 해서 그 편액(扁額)을 경내에서 보려 하였으나 볼 수 없었다.

다행히 소수서원 박물관(紹修書院 博物館)에 들렀다가 박물관에 특별히 엄중 보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부럽게 생각했었다.

따라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지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유적이나 유물 관리에 소홀해 왔는가를 되돌아 보고 소수서원(紹修書院) 편액보다는 너무 오래되고 의미가 있는 과선각(過仙閣) 편액(扁額)을 어떻게 보존해야겠다는 생각도 막연하지만 떠올랐었다.

6. 맺는 말

이미 2004년에 간행된 서산의 문화 제16호에 게재된 필자의 논고 부성사(富城祠)와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선생에서 과선각(過仙閣)에 대하여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이것이 친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신라시대 최고의 거유(巨儒)인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이 부성태수(富城太守)를 역임한 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온 서산시민의 관심과 시 당국에서도 문화재 지정은 물론이요, 보존관리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기현 가옥에 대한 고찰

-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99호 -

김 기 현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목 차 》

1. 서언
2. 건물의 건축시기와 역사적 배경
3. 건축물의 형태와 개축 상황
4. 관리상의 주된 요점
5. 결어

1. 서언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주택도 근대화로 양옥의 붐이 일어나고 전통가옥은 유지관리에도 어려워짐에 따라서 차츰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로 주거 환경이 본격적으로 바뀌어 가던 시기인 1984년 12월 24일에 “김기현 가옥”은 국가지정 민속자료 199호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소유자인 필자의 적극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건축전문가의 우연한 발견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에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면모

는 가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상당부분 훼손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인 필자로서도 다행스런 일일 뿐더러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후대에 길이 남아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잘 된 일이다.



중요문화재 199호 김기현 가옥 전경

문화재로 지정 된 후 20년 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보수를 해왔다. 하지만 소유자이고 관리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문화재인 가옥에 거주하며 관리하는 필자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점 그리고 정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비즈니스차 서구에 일정기간 체재하거나 일시 들렀을 때 본 바로는 그들은 몇 백년의 고전물 보존의 경험과 기술이 있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옛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록문화가 잘 되어 있어 대부분 옛 설계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보수케 된 다 들었다.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최근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당초의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가 드물뿐 더러 그 건물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지어졌다는 것도 불명확하다. 말하자면 건물역이 없다는 점이다. 또 보수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아닌 늘 부족한 예산으로 한 번에 보수할 일도 여러차례 나누어 시공하게 된다는 맹점도 있다.

그리고 감독기관 감독관이나 문화재 보수 전문회사의 기술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기본 인식부족 등 총체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 계속된 보수복원 사업이 이루어진다 한 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는 계속되고 문화재의 관리보전은 목표 한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와 같은 연령층(60대 후반) 이상은 초가든 와가든 한옥에서 출생하고 성장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가 양옥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필자도

객지에서 그렇게 살아 오다가 오랫동안 이 건물을 관리해 오던 관리인이 떠난 후인 2001년부터 돌아와 이 가옥에 살며 직접 관리해 온지 단 5년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수공사가 있을 때에 보수 기술자인 목수와 대화 시에 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으로 서울 서점에서 한옥에 관한 서적을 구입 고건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특히 목수 신영훈씨가 쓴 “한옥의 향기”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한옥” 등 닥치는 대로 책을 구입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츰 한옥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지금은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전통가옥에 대한 향기와 진미를 알게 되어 가는 중이다.

이제는 그동안 생활에 쫓기어 직장에서 정신없이 살던 세월이 덧없이 느껴지고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한옥의 진미나 향기에 매료되어 있다기 보다 관리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부딪칠 때마다 부담스러움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목조건물이라 비를 맞게 되면 쉽게 부식되고 기단위에 빗물이 뿌려져 기둥에 물이 배게 되면 기둥이 썩게 된다. 또 하수구가 막히지 않게 하고 항상 통풍이 잘 되도록 세심한 주의도 기울려야 한다. 한마디로 전통가옥은 양옥에 비해 친환경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취약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찰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재 관리에 중요한 것은 보수문재인데 문화재 보수는 덜도 말고 더도 아닌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기록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건물역과 당초 설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있을 때 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진이나 문자의 기록 어느 것도 없어 필자나 이웃들이 들어 온 구전(口傳)이나 상식에 의존케 되니 감독기관으로서도 분명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원형인지에 대하여 시공자와 필자 간에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김기현 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부터라도 여러가지 점을 검토하고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2. 건물의 건축시기와 역사적 배경

가. 건축시기

김기현 가옥의 정확한 건축시기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다. 신영훈의 글에는 건축연대를 아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건축연대의 추정은 대개 대청 가운데 칸 종도리 받침 안방 다음 칸인 대청의 종도리 받침 장혀 상량에는 상량문을 붓으로 써 넣기도 한다. 상량문 넣은 도리를 ‘상량도리’라 하는데 상량대 위에 올릴 때 장혀를 만든 안장에 상량문을 넣은 홈이 맞닿도록 한다. 홈 뚜껑이 장혀와 밀착되어서 도난을 막고 비가 새더라도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어 보존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¹⁾

이 가옥에서는 안방 상량문을 상량보에 넣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청보다 좀 더 화려한 천장이 왜 안방의 대청보다 다르게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나 2001년 수리 중 상량도리를 열지 않았으므로 상량문의 기록에 의존할 수 없으며 단지 건축 형태가 19세기라는 추정과 함께 구전으로 전하는 태안 한동 이씨가 건립했는데 풍수지리설에 이씨가 살터가 아니어서 경주 김씨인 김기현(세계도 첨부)의 선대가 이 가옥에 살게 되었다는²⁾ 설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며 그 근거로는 199호가 위치한 한다리³⁾ 지역의 역사적 고찰로 증명할 수 있다. 중간에 일시 태안 한동이씨가 살았다는 점과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차례 중창을 하여 19세기 이전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나. 역사적 배경

경주 김씨가 한다리에 들어 와서 살게 된 연혁을 최완수(崔完秀)씨의 추사실기(秋史實紀)⁴⁾를 인용하고자 한다. “이중환(1690-1756)은 택리지(擇里志) 9 충청도조(忠淸道條)에서 충청도가 산천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에 가까워 서

1) 신영훈 저, 한옥의 향기, p.226

2) 서산시 발행, 서산시지 제 8권, p.166

3) 서산시 읍면 유계 2리를 한다리라고 부르며 한다리의 의미는 큰 다리(大橋)임.

4) 최완수 저, 추사실기, 중앙일보 간행.

을 세가들이 모두 전택(田宅)을 도내(道內) 문에 두어 근본지지(根本之地)를 삼으므로 풍속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가장 살만한 곳이며 그 중에서도 내포(內浦)가 최상이라 하였다.”

이 곳 한다리에 입향한 분은 필자의 15대 선조인 연(堧, 안주공 1494-?)인데 이 분은 고려에 충절을 지키려고 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부하고 서울로 오는 도중 정몽주의 묘소가 있는 광주(廣州)의 추령(秋嶺)에 이르러 자결함으로서 절의를 빛낸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를 중시조(中始祖)로 하며 상촌공의 5대 손이다. 연(堧)이 무과 출신으로 서흥부사(瑞興府使)와 안주목사를 지낸 후 이 곳 가야산 취영봉 아래 한다리에 터를 잡아 자손세거지지(子孫世居之地)를 삼는데서부터 한다리 김문(金門)이 비롯된다.

그의 집안은 충신의 후예답게 벌써 연의 막내아들 호열(好說 1534-?)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효능참봉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주손(胄孫)인 적(積 1564-1646)은 안기찰방으로 있다가 광해군이 폐모하는 것을 보고 가족과 함께 한다리 고향으로 내려와 은둔한 뒤 인조반정 이후에도 출사를 거부하는 기개를 보인다.

단구자 김적은 증좌승지 호운(好允)과 반남 박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자랐으나 어머니 박씨 부인의 주선으로 이계(李계)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연안 이씨 출신의 이계는 박씨 부인의 외숙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후대 대문장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는 그의 아들이다. 이 과정에서 공은 그의 종숙이며 동갑내기였던 월사와 숙식을 같이 했으며 후일 월사(月沙)가 공에게 출사를 종용하게 된 것도 혈연과 학연에 바탕한 세 의와 관계가 깊다.⁵⁾

단구자 공은 네 분의 아들 홍익(弘翼), 홍양(弘亮), 홍필(弘弼), 홍옥(弘郁)을 두었으며 장자 홍익(弘翼; 필자의 12대조)은 연산현감 당시 병자호란에 근왕병을 이끌고 전쟁 중에 광주 협천(險川)에서 전사하였으며 후대 충민공의 시호를 받았다. 그러나 한다리 김문의 명성을 높인 것은 김적의 넷째 아들 홍옥(弘郁 1602-1654)이 효종의 금기로 되어 있는 강빈의 원옥을 과감하게 거론하며 왕의 노여움을 사서 장살되어 일약 사림(士林)들의 추앙을 받는 명사가 되어 명성이

5) 김학수 저, 단구자 김적과 송곡사, 정신문화연구원

나라 안에 자자하며 국중명문(國中名門)으로 비약하였다. 주자 성리학(朱子 性理學)을 드높여 조선사상으로 토착화하던 사람들은 국금(國禁)을 무릅쓰고 경향 각지에서 조문하였으며 사람의 종장 송시열과 송길준은 그의 신원을 극력 주청하여 효종 10년에 복관작을 이루어 놓는다. 숙종 44년에는 드디어 홍옥에게 문정(文貞)의 시효와 이조판서의 증직이 추서된다. 그 후 이곳 한다리 김씨 일문(一門)에서는 왕비 1위, 부마 1, 국구 1, 상신 3, 대과 27, 무과 37, 소과 64명이 급제하였고, 2품직 이상이 37명이 나왔다. 또한 정희공(正喜公)은 금석학자요 고증학의 권위이며 세계적인 서예대가이며 안주공의 10대손이다.⁶⁾



김기현가 대문과 필자

상기 내용은 기록에 의한 것이며 구전으로 필자가 듣기에 한다리 기와집 처마 밑으로 비를 맞지 않고 오리를 갈 수 있었다는 말과 중요 민속자료 199호 앞에 50-60간의 기와집이 1940년 정도까지 있었다는 말은 최고 융성하던 때에 많은 기와집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 이 가옥에 오랜 전 홍천택이 살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태안 한동 이씨가 건축했다는 말은 너무나 신빙성이 없으며 단지 중간에 잠시 살았던 것만은 틀림없으나 김기현가와 남쪽으로 연결한 정순왕후 생가(필자의 큰댁)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3. 건축물의 형태와 개축 상황

가. 건축양식

중요 민속자료 199호는 단지 건축물과 그 양식이 보존가치가 있어서 국가가

6) 경주 김씨 안주목사 공좌종회, 한다리 김씨 세거비문

지정한 것이며 그 건축양식은 문화재 대관(상권)의⁷⁾ 설명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약간의 실제와 상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간략하고 충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본 가옥은 평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좌을향(辛坐乙向)을 하고 뒤에 낮은 산과 앞에 냇물이 있어 풍수상 배산임수에 해당된다. 안채가 ㄷ 자형에 동쪽에 1자를 붙여 사랑채를 두고 그 앞에 一 자 형의 행랑채를 두었다. 안대문 북쪽에 3칸짜리 외양간 채를 두고 그와 나란히 3칸의 초당이 서 있다. 외양간 채와 안대문 사이에 중문이 동향을 향하고 있어 뒤 정원과 초당을 바깥으로부터 격리 시키고 있다.

대문은 행랑채 북편에 단간으로 세워졌으며 단조로워 전체 가옥에 비하여 초라한 상태이다. 사랑 마당 남쪽에는 회랑모양의 집담이 만들어져 있었으나 원래의 모습에 따라 담장을 쌓았다.

안채 몸채는 가로간 6칸 전퇴로 하고 나머지는 맞걸이 집으로 하였으며 사랑채는 3칸 전퇴집이라 안 부엌은 6칸이며 그 옆에 두 개의 광 그리고 동향으로 2칸의 헛간과 연장광으로 쓰던 광 2칸을 잇대어 작은 사랑방이 있다. 그 다음은 사랑방 부엌과 2칸 사랑방과 대청이 있다. 따라서 사랑방채는 1고주 5량 집으로 되어 아기자기 하게 꾸몄으며 앞되는 모두 툇마루이다. 안채의 보(둘레 120cm)는 모를 굴린 네모꼴이며 도래질과 박데기를 깨끗하게 바심질했다.

기둥은 굵고(둘레 90센치미터) 모는 흔치 않은 민모로 집었으며 면에는 중심에 쌍사를⁸⁾ 새겼다. 대청에는 복합문 위에 교창을 끼었으며 보통 것 보다 꽤 크다. 주초는 낮은 네모꼴이고 댕돌은 화강암 장대석 외별대이다. 사랑채 구조 기법은 안채보다 오히려 간결하게 처리 되었으며 차양채는 반대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사랑마당에 면한 사랑채는 맞걸이 모임 지붕으로써 7칸의 一자 집이라 가운데 부엌을 두고 북쪽에 2칸짜리와 1칸짜리 광과 남쪽에 부엌과 행랑방이 있다. 공식적인 건물대지가 500평이고 건물이 100평이나 대지는 주변을 합하여 850평 정도이며 건물 넓이도 툇마루나 기단을 제외한 것이므로 현대적 건물과 비교할

7) 문화공보부 간행, 문화재 대관

8) 기둥에 두 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

수 없으며 한옥은 일반적으로 창호가 많지만 본 가옥의 문창호가 180 이상 됨은 가옥 전체가 창호로 둘러싸인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방은 여닫이의 덧문과 미닫이의 겹문이며 문 밑에 정성껏 머름대를 설치했다.

나. 건축물의 개축상황

본 가옥이 19세기에 건축되었다고 추정되지만 한다리 김씨가 이곳에 자리 잡은 시대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400년 이전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가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 가옥에서 살아온 경험과 어른들의 구전을 통하여 언제 어떻게 건축물의 형태가 달라졌나 밝혀 본 가옥의 변천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1) 대문

본 가옥이 동향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대문은 북향의 단간으로 허술하게 세워졌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원래의 대문은 행랑채 7칸에서 중간에 솟을 대문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는 중간의 주춧돌 2개가 다른 주춧돌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으



김기현가 대문

며 이 가옥에 사시든 분이 풍수나 역학에 의하여 북대문으로 변경 앞에 흐르는 냇물을 받는 형으로 변경한 듯하나 시기는 1900년 이후가 아닌가 싶다.

(2) 사랑채 남쪽 담

원래는 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 높이의 회랑 모양으로 만들고 지붕은 사각 모양의 함석으로 되어 있고 저장 공간으로 하였으며 뒷면은 편목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함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으나 1984년 이후 정상적인 담으로 복원했다.



김기현 사랑채 앞 담장의 일부

(3) 정원

차양채 남쪽은 1950년까지 그 당시 100년 정도 된 백일홍 1루가 심어져 있었으나 죽어서 베어지고 호두나무가 있었으나 없어졌다. 2003년에 정원을 꾸며 소나무와 백일홍을 심었으며 사랑채 북면과 행랑채 동편 앞에도 2003년에 주목과 은빛 사철나무와 산수유를 식목했고, 안채 뒤뜰에는 맥문동을 심어 잡풀을 제거했다. 100년 이상 된 감나무 2주와 회화나무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2001년 자연석으로 수로를 만들고 장독대는 1m 뒤로 물러났다. 참고로 한다리에 300년 이상된 3주의 보호수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사철나무가 있는데 본 가옥의 회화나무는 보호수는 아니나 관청이나 반가, 향교에 주로 심어 있는 나무로 이 집에 심어져 있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나무라 생각된다.

(4) 화장실

행랑채 건물 동편에 사랑방 주인과 행랑채용 화장실이 각 1개씩 있었으며 1984년 이후 행랑채를 수리하며 철거됐고 안채 화장실은 2003년에 수세식으로 변경하고 목욕탕의 무쇠로 된 욕조는 철거하고 샤워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5) 2간의 초가간 소실

1948년 째 대문과 작은 사랑방채 중간에 2간 정도의 초가 건물이 있었으며 용도는 저장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950년 10월 경에 소실되었다.

(6) 중문

작은 사랑방채와 안대문 사이에 세워진 중문은 원래 담이었으나 무너져 1948년 경에 중문을 세웠으며 안채 화장실 옆 정순왕후 생가로 통하는 문도 1984년 이후에 세워졌다.

(7) 장지문 및 반자 제거

안방과 사랑방의 장지와 반자를 2001년과 2003년에 제거하여 공간을 넓혔으며 작은 사랑방과 대청은 반자만 없었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좀 더 춥다.

(8) 근대식 난방과 부엌

불을 났을 수 있는 아궁이는 있지만 2002년에 심야전기 난방을 설치하여 안방, 건너방, 뜰 아랫방, 사랑방 네 방의 난방 시설을 했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을 건너방에 반칸 정도 규모로 설치했다.

(9) 안채 마루 앞 철망

디딤돌과 툇마루 사이에 판자로 막아 마루 밑에 습기가 과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자를 반으로 대고 그 공간은 철망으로 둘러 고양이 나 쥐의 통행을 막았다. 이것은 윤현궁을 본떠 2003년에 설치했다.

나. 본 가옥의 특징

(1) 차양채

우리나라의 한옥 중 차양채를 가진 고옥은 강릉의 선교장, 해남의 녹우당 등 몇 채에 지나지 않는다. 본 가옥 중 차양채는 화려하게 꾸몄다. 사랑채 1칸 거리에 팔모의 추춧돌(높이 60cm)을 세우고 팔모기둥을 세워서 세개의 긴 모를 사랑채 앞 기둥에 걸치며 팔모 창방을 걸고 소로를 끼워서 장혀를 받고 납도리를 쳐서 대었는데 이것은 기둥머리와 긴보 중앙에 올려서 사이에 종보를 걸쳤다. 복잡하게 새긴 파련대공⁹⁾으로 하고 종도리도 중도리와 같은 구조로 하여 이 위에 서까래를 걸쳤는데 전면은 부연을 덧댄 겹처마이고 후면은 부연이 없다.

상부기둥은 맞배지붕으로 했으며 경사가 급하다. 사랑본채와 처마를 맞대어 빗물을 함석 물받이로 처리하였다. 1990년 경에 붕괴되어 복원하였지만 기둥과 기둥사



김기현가 차양채(사랑채 앞에 있다)
이 차양채는 강릉 선교장, 해남 녹우당과 함께 한국에서 세 개밖에 없는 것이다.

9) 파련초각을 한 대공인데 파련초는 천상(天上)에서만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임.

이를 연목으로 잇대었으며 기둥과 보 사이에 철물로 보강한 것은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처마를 맞대어 빗물 처리한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초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초당

안채의 북쪽에 남향의 초당 3칸이 있다. 이 초당은 일반적으로 별당의 형태와 용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구조는 서쪽 끝에 광이 있고 잇대어 방 2칸이 남향으로 앉아 햇빛이 따사롭다. 함실 부엌은 동쪽 끝에 있는데 누가 보아도 광이 부엌처럼 보인다. 건축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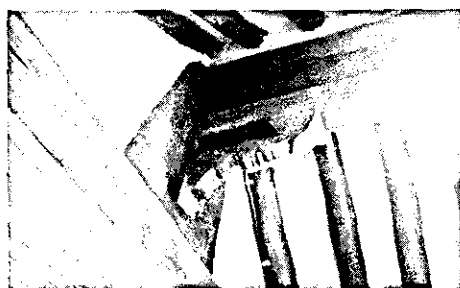


김기현가 초당(별당의 용도로 이용되던 집이다)

는 본채가 지어진 후에 간략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싶으며 기둥이 작고 아직도 떡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100년 내외가 아닌가 싶다. 60년대 이후 초가집이 개량지붕으로 변하면서 초가집은 향수와 낭만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매년 지붕갈이는 쉽지 않다.

(3) 안방의 천장(天障)

2001년에 보수하면서 반자를 제거하여 안채대청과 안방의 천장을 볼 수 있었으며 특이한 것은 대청은 일반적으로 반자를 하지 않는 것인데 반자가 있었다는 점과 안방과 대청의 천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방의 천



김기현가의 안방 천장 구조

장구조는 종도리에 장혀를 대고 그 밑에 소로를 끼고 다시 종도리를 넣고 종묘 위의 판대공과 종도리 사이에 파련초 조각을 한 첨차를¹⁰⁾ 소로를 끼워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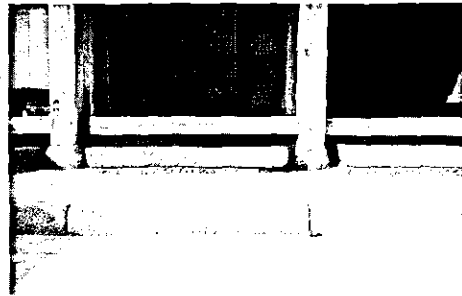
10) 종도리와 판대공 연결 부분에 삼각모양의 나무판을 댄 것

반대로 대청의 천장 구조는 단조로운 건축 양식이나 종보 위에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올렸을 뿐이다.

대청은 반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안방의 화려함이 대청이 아니었나 하는 점이다. 또한 그 근거로는 안방의 퇴보 둘레가 130cm 정도로 5개의 대들보와 똑같고 대청의 퇴보는 70cm 정도이다.

(4) 낮은 기단

가옥의 규모에 비하여 외별장대석 기단이며 토방에서 마루의 높이는 70cm 정도로 낮은 감이 난다. 집을 낮게 지은 것은 옆 정순 왕후 생가를 큰댁으로 생각 그 가옥보다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 기단이 낮으며 부엌이 지면보다 낮아서 여름에 물이 나고 대청에 습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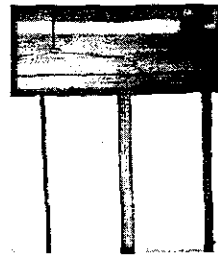
김기현가의 낮은 기단석

(5) 주춧돌, 댕돌, 디딤돌

모든 주춧돌, 댕돌, 디딤돌은 잘 다듬어져 있어 근래 건축된 가옥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안채 뒷마루에 오르는 디딤돌은 네개로 1개에 180cm-200cm로 되어 있으며 사랑방 남향의 두개의 디딤돌은 200cm-250cm 길이로 높이 30cm 폭 38cm로 상당한 위용을 나타내며 돌에 많은 정성을 기울인 듯하다. 이것도 중간에 개축시 설치된 듯 싶다.

(6) 분합문

안채 대청을 중심으로 남측 안방과 북측 건너방의 문은 분합문으로 되어 있으며 대청의 앞퇴에 있는 문은 원래 분합문이었으나 2001년 수리시 1간에 4짝씩 여닫이로 변경했다. 또한 사랑채 대청도 사랑방과 남측 뒷마루에 분합문을 설치 여름이나 집안의 큰 행사시에 전부 개방



김기현가 분합문

하도록 설치했다. 그러나 밀폐된 흙벽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 방한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겨울 집이라기보다 여름 집에 해당된다.

(7) 다락과 벽장

다락은 안방 건너방에 있고 벽장은 안방 건너방과 사랑방에 있으며 2001년 수리시 다락 마루 위에 흙을 바르고 장판을 한 것을 베니다 판으로 바꾸고 비닐을 씌웠다. 그리고 수리시 건너방 다락과 뜰 아랫방 벽장의 벽을 헐어서 통하도록 하였다. 단지 사랑방 벽장만 2003년 수리시 나무 판자에 흙으로 덮고 종이로 바닥을 발랐다. 나무 바닥에 흙을 바른 것은 부엌의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같다.

4. 관리상의 주된 요점

한옥은 철근 콘크리트 빌딩이나 양옥에 비하여 허약하다고 본다. 우선 한옥에 쓰는 목재, 황토, 흙, 기와 등은 제한된 수명이 있다. 사철등이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되어 있으며 한옥도 관리할 따름이다.

기와의 수명이 15-20년이면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기와가 나왔다. 동기와 집이 아니라면 항시 동판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판(銅版)은 서울 에나 대도시에서만 구할 수 있지 서산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다.

처마가 짧아서 기둥에 비가 뿌리게 되고 쉽게 부식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 차양이 필요하다. 운현궁같이 멋들어진 차양은 한옥과 어울리지만 함석 차양은 한옥의 향기를 뺏어간다. 또한 처마 끝에서 기단석은 수직상 20cm 정도 안으로 들어와 빗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빗물에 항시 토방의 기둥이나 마루가 젖게 된다.

초가을이 다가올 때 차양 위에 있는 낙엽을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양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수통이 막히게 된다.

한옥의 통풍습도 조절은 중요하다. 쓰지 않는 방이나 광에도 통풍을 시켜야 하며 여름에도 방에 불을 넣어야 한다. 항시 쓰지 않은 방이나 광도 문을 열어서 혹시 지붕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여름에 대청 마루에 습기가 찰 때에 제습기를 이용 건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루판이 부식되기도 한다.

기둥이나 서까래에 흰 개미가 번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2005년 공사 때 뒷담 뒤에 1m-2m 정도 깊이에 수맥을 차단하기 위하여 5m정도 길이에 찰 본 가옥의 취약점은 기단이 낮고 뒷산의 수맥이 집을 통하여 흐르므로 집이 여름에 습하다. 흠으로 물길을 차단하고 자연석으로 수로를 만들고 그 50cm 외곽에 1.3m-1.5m 정도 깊이에 박석돌을 깔고 초당외부에서 밖았다. 대문까지 7m정도에는 유공관을 묻어 지하수를 유도하는 공사를 했



김기현가의 굴뚝

으며 사랑채 동북단에도 지하수를 유도하여 대문옆에 집수하여 수중 펌프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관리토록 했다. 또한 초당과 사랑채의 기단을 높이고 원래대로 행랑채 앞에 U형의 배수로에 화강암 판석을 깔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공사했다.

한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붕이 새지 않도록 하고 습도를 제대로 조절하여 누기에 의하여 흠이 떨어지거나 마루가 썩지 않도록 환기를 제대로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방에 항상 적절히 불을 지펴야 한다. 그 밖에 많은 사항이 있지만 춘하추동 계절에 적절히 견디어 낼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결어

본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반가(班家)들이 살던 19세기 남도식 건축양식에 기준하여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최초로 안주공이 터를 잡은 뒤 400여 년간을 한다리 김문(金門)이 살아 왔으며 안주공의 차자 호열(好說) 참봉)과 손자 적(積) 단구자공, 필자의 13대조)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김기현가를 찾은 서산향토문화연구원들
(중앙에 서서 설명하는 필자)

또한 단구자공이 어려서 부친(好尹)을 여의고 모친의 주선에 의하여 모친의 외숙이며 문장에 능하고 덕망이 높은 이계(李계) 밑에서 이분의 자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와 숙식을 같이하며 동문수학 했다는 기록은 상당한 역사적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장소가 본

가옥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가옥이 단지 건축양식의 특이성과 고옥이라는 점보다 더 나아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 복원 보수하는데도 많은 애로점이 있던 중 좀 더 건축양식 및 건물의 변천 상황과 함께 역사적 유래를 겸하며 고찰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앞으로 더 연구코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필자가 살아오면서 보아 온 사실과 어른들로부터 들은 구전(口傳) 및 한다리 김문이 살아 온 역사적 기록 및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한옥은 친환경적이며 정서적 안정을 주고 누구나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긴 것과 같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정말 소나무의 향기와 나무 무늬를 알 때 한옥의 멋을 맛보게 된다. 더욱이 낙살문의 창호지를 통하여 들어오는 달빛을 볼 때 입선(入仙)한 기분이다.

본 가옥과 같은 한옥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옥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며 기둥이나 나무 어디에 못을 박을 때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원형보존과 실용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다. 문화재 보존원칙은 원형보존 이지만 지나친 원칙주의는 건물보전 보다 빗물에 기둥이 쉽게 부식하게 된다. 더욱이 주춧돌이 낮은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처마 밑에 낙숫물의 멋과 향수는 지녀야 하지만 함석차양 물받이는 기둥을 온전히 보전함을 고려할 때 약간의 융통성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가옥을 관리하면서 느낀 경험에 의하면 보존가옥을 농가로 사용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문화적 행사나 애호가들이

한옥체험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활용방안이며 감독기관이 관리에 필요한 관리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관리교육이나 견학도 건의하고 싶다. 문화재 애호 시민 단체들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에게 문화재 관람이나 문화재 사랑 봉사활동 등 전 국민이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와 의식수준을 높여 선진국민의 긍지를 갖게 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면 국가의 문화재 보존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문공부 간행.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편. 1985.
- 신영훈 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한옥. 2000.
- 신영훈 저. 한옥의 향기. 2000.
- 정민자 저. 한옥 짓는 이야기. 2003.
- 주택문화사. 한옥의 재발견. 2002.
- 최완수. 추사 김정희. 중앙일보 간행. 1994.
- 서산시. 서산서지 8권. 1998.
- 경주 김씨 안주목사 공파 종회. 한다리 김씨 세거비문. 1996.
- 뿌리회 학술위원회. 서산 예산 지역 경주 김씨의 역사와 문화. 2004.
- 음암면 간행. 음암면지. 2004.
- 서산문화원. 호산록. 1999.
- 정병삼. 명찰순례 개심사. 월간조선. 1991.
- 목재공파 족보
- 단구자공 묘갈

金基顯 世系圖

自粹(桑村公-刑曹判書)

•
•
•

堧(安州公-安州牧使: 1464-?) - 自粹 5대손

好尹(승지공-좌승지)

積(丹丘子公-안기찰방)

→ — 弘翼(忠愍公-연산현감) → 士珍 →

— 弘亮(장사랑공)

— 弘弼(교관공)

— 弘郁(文貞公-황해감사)

士珍 — 斗燦 — 濟慶 — 漢淑 — 宗柱 — 魯源 — 冕載 — 商念 — 泰濟 →

泰濟 — 東薰
— 東愚 — 起煥 — 基顯(忠愍公 12대손)
— 東燁

부록



竹節

-
- 이은우 · 보원사지 관리에 대한 나의 견해와 제언
 - 이영하 · 바로 알고 보아야 할 보원사지(普願寺址)
유적 · 유물지에 박물관 건립을
 - 신상찬 · 서산에도 박물관을
 - 편세환 ·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가 지키자
 - 서산의 문화 16호에 대한 감사편지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운영상황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활동 상황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칙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명단
 - 편집후기
-

보원사지 관리에 대한 나의 견해와 제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이 은 우

1. 향토연구회 성격과 하는 일에 대하여

본인은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이다. 서산향토연구회는 1985년에 조직된 단체로 어느 곳에도 소속 되지 않은 비정부조직인 일종의 N.G.O 자율조직이다. 단 전국적 모임인 향토사연구 전국연합회 회원 단체일 따름이다.

우리 조직의 존립 목적은 지역 문화의 조사, 발굴, 전승, 보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서산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년 회원들의 조사활동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 350 쪽 내외의 회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사명감이 없으면 좌절될 만큼의 여러가지 눈물나는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구체적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다,

첫번째로 외지에 나가 영원히 파묻힐 뻔 했던 호산록(湖山錄)을 찾아 햇빛을 보게 하고 세상에 알리어 활용케 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들 수 있다,

두번째로 지곡면에 안전기념관이 서게 된 것도 향토연구의 결과이다,

세번째로는 그저 평범한 건물로 알아와서 없어질 뻔 했던 서산객사(瑞山客舍)가 객사(客舍)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문화재로 지정받게 된 것도 향토연구의 산물이다,

네번째로는 장승순 신상찬 두 회원이 해미읍성에 대한 여러 문헌을 오랫동안 조사정리 발표한 논문은 해미읍성 복원에 주요한 행정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하는 학자들까지 기본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다섯번째로는 인지면 애정리에 있는 송곡사에 배향된 아홉 분의 우리지방 명현에 대한 행장록(行狀錄)을 본인이 1년 여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번역해제 발표함으로써 그 아홉 명현들의 훌륭한 행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섯번째 개심사의 연혁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한문 세대가 없는 오늘날 크게

궁금하던 것을 본인이 해제 발표도 하였다,

일곱번째 시청 앞에는 25개의 옛날 비석이 서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오랫동안 궁금해 왔다. 이것을 송종학 회원이 1년여에 걸쳐 연구 발표함으로써 그 비석 중 한 비석을 연구하는 과정에 임진왜란 때 우리 서산지방은 왜군들이 직접 들어오거나 전투는 없었지만 전쟁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인력동원과 물자의 동원으로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했고, 명나라군 수 만명이 충청도에 주둔하여 그 치송이 어려웠던 상황과 세자였던 광해군이 오랫동안 홍성에 머물면서 이러한 것을 직접 챙겼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홍성지방에서는 임진왜란 때 왕세자가 홍성에 와서 장기간 체류하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애쓴 내용의 기록이 없으므로 모를 것이다).

여덟번째 1894년 충남 서북부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 혁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격전지 매현(梅峴)의 확인을 못하여 많은 학자들이 찾아 헤매던 것을 이영하 회원이 연구 발표함으로써 매현(梅峴)이 확정지어져 학계의 공인을 받고 있다.

아홉번째 남현우 회원은 우리지방에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역사 외에 신병으로 걷기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부인과 같이 2년여에 걸쳐 예산, 당진까지 여러 차례 왕래하여 서산에 언제부터 자동차가 들어 왔으며 발전해 온 과정을 조사 발표하여 우리 지방의 자동차 문화의 역사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조사연구의 일들은 모두 대가없는 자비를 들여 하는 일들이다.

이상 열거한 것은 극히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향토연구의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우리들의 지향하는 바 목표는 우리 서산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혀도 우리는 끝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조언과 건의 그리고 감시 기능까지 광범위 하다고 생각한다.

2. 최근 보원사지 사적지에 절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최근 보원사지에 보원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본인의 견해이지만 우리 서산

향토연구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하는 것임도 밝힌다.

3. 나의 견해와 제언

첫째 보원사지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향토연구회에서도 이곳에 상주 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구두로는 그동안 진의한 바 있었다.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로 앞으로 관리사무소를 두든지 전임직원을 배치하는 강화조치가 시급히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원사지 사적지의 관리 주체는 앞으로도 어디까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보원사지 사적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속 관리해야 할 당위성으로는 그곳은 불교의 유적지 이지만 특정 종교의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큰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660년 백제가 망한 뒤 661년부터 663년까지 백제의 유민들이 승려 도침(道琛)을 중심으로 일본에 가 있던 풍(豐) 왕자를 모시고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백제의 부흥을 위하여 싸우다가 불행히도 내분으로 망하여 백제의 역사가 최종으로 사라진 곳이라는 것이 여러 전거에 의하여 최근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여에 이어 백제의 제 4왕도이며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주류성(周留城)을 삼국사기에 미상(未祥)이라 기록하는 바람에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제 4왕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찾지 못했었다.

다행스럽게도 400년 전에 쓰인 우리의 고읍지(古邑誌) 호산록(湖山錄)에 상왕(象王)은 백제와 신라가 이곳에서 싸울 때의 왕(王)이었다 하고 이곳을 그 상왕(象王)의 궁궐터라 하였다. 백제부흥군의 장수가 도침(道琛)이라는 승려였다면 이 보원사찰(普願寺刹)이 그 중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에 가 있던 나라 잃은 풍왕자(豐王子)가 돌아와 의지할 왕궁(王宮)없으니 이 큰 보원사(普願寺)를 왕궁(王宮)으로 의지하였을 것임은 너무나 자연스런 것이다.

고산자 김정호(古山子 金正浩)가 1861년(철종11)에 작성한 대동여지도 이중환(李重煥) 선생이 쓴 택리지 등의 기록은 모두 이곳이 백제의 제 4왕도였음을 뒷

받침하는 내용의 기록들이 있다. 서산 시민들이 서산도 백제의 옛 땅인데 백제의 개발권에서 왜 제외되었는가 라고 한때 크게 흥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바람직한 애향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보원사지가 발굴조사로 더 확실한 고증자료가 나온다면 백제권 개발사업에는 자동으로 포함 될 것이다. 또 이제 늦어서 그곳에는 포함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거대하게 추진되는 내포권 개발사업에서는 단연 제 1일의 사업지구가 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편린같은 유물조각 하나라도 아주 소중하게 보존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일과 관계없이 그동안 시중에서 광범위 하게 여론화 되어 온 보원사지 사적지를 왜 방치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이 마을에는 좁은 밭떼기를 일구고 주변 산에서 채취되는 싸리로 광주리를 만들어 팔면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왔던 영세한 20여 농가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던 곳이다.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적지로 지정하고 떠나야 한다니까 이에 순응하여 적은 보상금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갔다. 이 농민들의 이주 과정이 쉽지 않아 여러 해 걸린 것으로 안다. 방치가 아니라 이제 피치를 올리어 마지막의 주요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다.

또 문화유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인 학계에서 보는 견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원래 문화유적에 대한 최상의 보존은 현재까지 있어 온 그대로를 그대로 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고착된 유적이나 유물의 위치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다.

예를 하나 들겠다. 로마에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태리 국민의 자랑이며 자존심이라 하는 옛 노천극장인 ‘콜로세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무수하게 총구멍이 나 있지만 그 총구멍 하나 메우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자랑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총 구멍을 메운다면 총 구멍이 있는 것 보다 새로운 원형 훼손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보원사지 당간지주는 보물 76호인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당간지주와 함께 한국에서는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그런데 1997년에 문화재청에서 한 일인지 시에서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간지주 밑 부분에다 없던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써 잘 하려 한 일이 오히려 원형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어 버렸다. 전문가가 아닌 향토연구자들이 보더라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일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 판단된 처리는 원형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문화유적의 보존보호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시중에서나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보원사지는 허허벌판이고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보원사지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전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대 발굴작업을 위해서 20여 채의 농가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최종의 일들을 위해서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곳이니 허허벌판으로 보일 것이다.

또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우리들 향토연구가들이 보는 견해는 아주 다르다. 이곳과 같이 좁은 지역에 국가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5점이나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다.

일부학자들 사이에서는 보원사지 사적지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원형에 가깝게 마지막 남은 유적의 보고(寶庫)로써 '노천박물관'이라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인국사비는 978년(고려 경종3)에 세운 것으로 이는 고려 제5대 국왕 경종이 세워 준 것이다. 따라서 거비(巨碑)일 뿐더러 4,500여자에 이르는 방대한 비문 내용은 고려시대의 생생한 역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문장과 글씨는 당대 최고의 실력있는 학자와 서예가가 왕의 명령에 의하여 짓고 쓴 것임으로 글과 서예학적으로 보아서도 후학인 우리들로서는 배울 바가 매우 큰 것이다.

이 비문에는 법인국사가 왕도 개정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제4대 왕인 광종이 문무백관들과 같이 안보일 때까지 배웅하였다 하고 이곳 보원사에 당도했을 때에는 선교종(禪敎宗) 1,000명의 승려들이 영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 절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승려 도침(道琛)이 승병을 이끌고 풍(豐)을 맞아 제 4왕도를 세우고 백제 부흥운동을 펼치기에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으로 이곳이 백제의 제 4왕도로서 최적의 위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간

접 거증 자료가 되는 것이다.

또 오충석탑의 팔부중 조각은 가히 국보감이라 전문가 학자들이 극찬을 하는 유물이다.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감상하자면 하루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어찌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것인가? 다만 이 유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열의가 적으면 보이지 않을 따름이다.

다만 문화재청에서나 시에서는 비문도 전문(全文)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게시하고 그 외의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적 의미를 보다 자세히 알리려는 노력을 않고 게을리 해서 이렇게 성스럽고 우리의 고대 고급 문화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할 만큼 알리는데 소홀히 한 책임은 있다 할 것이다,

넷째 일반 시중에서 떠도는 보원사지를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 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본인을 비롯한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도 옛 보원사와 똑같은 절을 완전 복원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니 80%만 옛 보원사와 같게 복원한대도 본인은 적극 찬성하고 지지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옛날의 보원사(普願寺)는 어느 누구도 본 사람도 없거니와 절의 생김이나 규모에 대한 그림도 기록도 없다. 뿐만 아니라 백제때의 절인지 신라때의 절인지 어느 때의 절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다. 학자들은 한결같이 신라말기에 서 고려 초기에 지어진 절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본인의 주장은 이 보원사지에서 수습되어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백제금동불상이 정광시대(520~524)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근에 위치한 마애불이 한결같이 7세기 초의 작품이라 하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니 이 보원사의 창건연대는 6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라가는 백제시대의 사찰이라 계속 주장하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 들이려는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았으면 한다.

다만 고운 최치원이 쓴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응주가야협보원사는 의상을 계승한 화엄십찰(熊州伽倻峽普願寺義湘華嚴十刹)이란 기록이 있다,

또 호산록(湖山錄) 불우조(佛宇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강당사(講堂寺)는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한 가지는 보원사(普願寺)인데 그것인 즉 옛 이름이고, 또 한 가지는 강당사(講堂寺)이다. 절문 앞에는 맑은

내와 흰 돌이 있는데 눈 같이 희고 고기떼가 놀고 있다.

법당 앞에는 2층의 높은 집이 구름속으로 우뚝하게 솟아있고 그 위에는 고검희은색의 비둘기 백여 마리가 아침저녁으로 날아서 오고 있다. 부도의 정전 뜰에는 옛 비석이 있는데 송태조 때(961~975년)에 건립한 것으로 그 높이가 세길이나 되며 글자는 이끼까지 덮여서 읽을 수가 없다. 나한전은 산협 가운데 있고 푸른 회화나무가 있으니 심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늙은 가지가 무성하고 푸른 그늘이 아름다우며 이따금씩 구름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절은 오래되고 중은 영채했다.”

이와 같이 호산록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그 기록만으로 절의 원형을 예측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만일에 이렇게 절의 형태 규모에 대하여는 기록이나 그림 등은 물론이고 본 사람이나 전해오는 상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원사라는 절을 복원한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원래의 ‘보원사’와는 무관한 새로운 절을 하나 세우는 일이 될 뿐이다.

그것이 A라는 사람이 추진한다면 A라는 사람의 발상과 상상에 의한 새로운 절을 하나 새롭게 짓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옛 보원사와는 아주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옛 보원사인 양 역사의 판단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작용만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굳이 그런일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장소는 유적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비껴선 다른 위치의 장소에다 그러한 절을 짓는 일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의미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옛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복원이란 일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알 수 있다.

4. 다른 고대 대찰이 있었던 사적지도 복원은 않는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 ‘분황사지’ ‘감은사지’ ‘악산미륵사지’ 등 역사있는 큰 사지들이 일찍 정비까지는 되었지만 복원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도 복원하려는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해미읍성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러면 해미읍성은 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해미읍성은 보원사지의 경우와 다르게 복원에 착수 전까지 그 성곽이 거의 99% 가깝게 원형으로 있었던 것이다. 동문과 서문이 없었고 성의 서편 쪽의 성벽 위가 약간 허물어진 채로 있었지만 허물어진 돌들도 그곳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읍성 내부의 건물은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하여도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1926년 간행 서산군지에는 해미 옛 관아건물에 대하여 규모(평수), 형태(와즙, 초즙 등으로) 위치 등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1872년(정조6)에 작성된 해미읍성 지도에는 관아의 배치도가 칼라로 모형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민가도 일부 복원되는데 1759년에 작성된 여지도서의 기록에 민가 94호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세까지 해미 읍성 내에 있었던 민가들의 형태를 고증 받아 복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한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은 보원사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원만하게 발굴 조사가 되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고 백제의 제 4왕도로 확인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흔들릴 경우 이곳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보호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문화재청이나 시당국에 한마디 하겠다. 문화재보호의 행정을 하는데 내일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다. 법과 제도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토지확보는 이미 이루어 졌으리라 믿는다,

6. 호산록(湖山錄)의 의미하는 바 가치에 대하여

가끔은 호산록(湖山錄)을 경시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제에 '호산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다. 호산록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것으로는 남북한까지에 합해서도 10번째로 오래 된 것이다. 기호지방이라 하는 경기도 충청남북도에 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공주가 충청감영(옛 도청 소재지)이 위치해 있었던 곳이지만 현존하는 고읍지로는 130년~140년 전에 임헌회 선생에 의하여 써진 읍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지류(地誌類)에 대한 전문 학자들은 서산같은 변방에서 이렇게 오래되고 상세한 읍지를 가진데 경탄한다.

이미 보원사에 대한 기록에서 회화나무 나뭇가지 생긴 것까지 관찰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읍지의 저자는 관내 상황을 일일이 답사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1980년대 까지도 이웃 군들 중에는 옛 읍지는 고사하고 최근의 시군지(市郡誌)하나 없어 100년 전의 일들도 알 수 없는 군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끔은 타 지역 역사연구에도 우리 호산록 자료가 중요 전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향소 운영상황이 호산록에는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도 이 유향소 운영은 다 있었지만 실제운영에 대한 기록을 가진 곳은 호산록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산록이 우리 서산사람들의 자존심이고 자랑인 것을 모르고 가볍게 마구 폄훼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7. 나의 제언과 건의

끝으로 문화재청이나 서산시 당국에 세가지에 대하여 충언과 건의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굴조사가 끝나면 이곳에 국립박물관을 세우고 그동안 보원사에서 반출되어 중앙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철불 2개, 부여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백제금동불상 및 신라금동불상 등을 비롯한 유물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이후 발굴조사로 나오는 유물과 함께 보관 관리하는 내포지역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보원사에 대한 대대적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왜 전 시민에 대해서나 대외적인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어 시민들의 바람직한 협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한다. 이는 학술회의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셋째 법(法)은 만민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나 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늘 생각해서 업무 추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 필자의 이력

- 1934년 서산에서 출생 서산에서만 계속 살아 왔다.(당72세)
- 현재 직업 없고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으로 향토사 연구를 한다.
- 주요 활동 상황
 - 태안 출신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최초 조사 확인
 - 호산록이 외지에 나가 있던 것을 추적 조사 세상에 알리다.
- 주요 논문 발표
 - 역사가 숨쉬는 강맹이굴 (1971년에 작성한 것을 1991년 발표)
 - 보원사지 종합고찰(1998년 발표)
 - 주류성은 상왕산성이다(1999년 발표)
 - 도독의 성과 복신굴(2001년 발표)
 - 개심사의 연혁에 대한 고찰(2002년 발표)
 - 부춘산과 옥녀봉(2002년 발표)
 - 보원사지 5층 석탑에 대한 신조명(2003년 발표)을 포함한 50여편의 향토사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글은 서산시보 제125(2005. 7. 25)부터 128호(2005. 10. 25)까지 4회에 걸쳐 게재했던 글이다.

바로 알고 보아야 할 보원사지(普願寺址)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이 영 하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군왕골 숙용평 일대의 보원사지는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어 온 큰 사적지입니다. 또한 이 곳은 백제의 네번째 왕도로 비정되는 주목해야 할 역사적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래 이 곳 사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보원사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새로운 기대를 갖게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적지에는 국보 1점과 보물 5점이 있고 옛 왕도의 자취가 완연하다는 기록이 있는 등 밀도 높게 집적된 노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입니다.

서산마애삼존불은 6세기 경인 백제시대에 조성되어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84호로 지정 고시되었고, 보물 다섯점인 석조(제102호), 당간지주(제103호), 5층석탑(제104호), 법인국사보승탑(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비(제106호)도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조성되어 1963년 1월 21일 일시에 보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보원사지에서는 백제시대의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되었고 마애삼존불이 한 사역권내에 있는 점 등으로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절터로 추정되며 충청도 최고의 읍지, 1619년에 쓰인 호산록(湖山錄)에 의하면 궁전, 누대, 연못, 연하는 길, 기와, 주초들이 엮그제 일과 같이 남아 있으며 지대 2년(地大 二年)이라는 연호까지 독자적으로 사용했다는 한 시기의 역사를 거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망하자 불복한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저항하며 세운 마지막 왕도로 추정하는 주류성(周留城)으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지이기도 합니다.

기타 불상, 화폐, 유리구슬 등이 출토된 바 있고 수종의 간행물도 자체 발간하는 등 높은 문화를 창출해 냈던 불교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인 1578년까지는 일관되게 보원사로 불리어 오다가 1579년부터 폐사될 때까지 사

찰명이 강당사로 바뀌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보원사지에서 국보와 보물이 무더기로 지정될 무렵인 1961년 서산군은 관리인을 배치하고 5만평 정도를 사적지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적지 주위에는 한국의 준 명산으로 지명받은 20산 중 하나인 가야산 연봉이요, 충남의 명수로 지정된 11개소에 들어 있는 용현계곡에 물이 흐르고 철따라 말나리, 천마 등 560여 종의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명소입니다.

향토연구회는 지방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조사, 발굴, 보존전승에 기여하면서 매년 회지인 '서산의 문화'를 발간하여 2004년에는 통권 16호를 내었고, 1998년 5월 15일에는 운산면의 협조를 받아 보원사지에서 학술회의를 열면서 3명의 회원이 연구발표를 한 후 그 논문 3편(보원사지 종합고찰, 바람과 물이 보원사지에 미치는 영향, 보원사지 유물)을 서산의 문화 10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보원사지에 서린 깊은 역사를 아직 인식 못한 분들께서는 이 글이 도움 되시길 바라오며 우리 지방보다 먼저 조사발굴을 끝낸 다른 지방의 관리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조성됐던 사찰터가 주요 사적지로 지정된 성주사지, 정림사지, 황룡사지 등등의 모든 사적지는 지방자치의 시·군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락한 옛 건물을 그대로 두고 관리하면서 유물의 원형훼손을 막기 위해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비록 보잘것 없는 작은 사적지라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광경을 자주 보고 들읍시다.

우리의 보원사지도 제대로만 관리를 한다면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질 날도 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철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산시에는 보원사지 고시구역 내의 미 매입지를 매입하고 정밀발굴사업에 조속히 착수하되 동 고시 지역 내에서는 규정된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서산시보(2005. 6. 25)'와 「스산의 숨결」(제261호)지에 게재되었다.

보원사지 관리에 대한 결의서

우리 서산향토연구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이 지방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조사, 발굴, 보존, 전승 전과정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한민족이나 국가가 고유문화 전통을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때에는 높은 문화를 가진 다른 국가나 민족의 영향을 받거나 흡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은 일찍부터 문화의 선진지로 귀중한 유물,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가야산 보원사지 일대에는 국보 1점과 보물 5점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불상, 화폐, 구슬 등이 다수 출토된 바 있고 수종의 간행물도 자체 발행하는 등 밀도있게 집적된 노천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7세기경 백제 제4왕도인 주류성으로 비정되는 사적지로 “궁전, 누대, 연못, 연하는길, 기와, 주초들이 엇그제 일과 같이 남아 있으며 <地大二年>이라는 연호까지 사용했다”는 한 시기의 역사를 충청도 지방에서는 최고의 읍지이며 400여년 전에 쓰여진 서산읍지 호산록이 이를 거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적지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내포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로 하여금 이미 지표조사에 착수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토기, 석등, 기와, 주초, 기타 등 각종 역사문화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자못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그간 행정기관에서는 1987년 7월 18일자 사적지 제316호로 지정고시(문화공보부 제700호)한 바 있고 이 지역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사 발굴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여론이 있어 자칫 이 지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서산향토연구회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이 국가 주요 사적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그 사항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본 기본조사, 발굴기간 중에 사적지 구역내에서 유적과 역사를 훼손할 수 있는 집회, 행사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이 조사 발굴 결과는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므로 이 사적지 현장의 훼손 도난방지 등의 최대의 노력을 위해서 각 종교단체 및 일반인 등의 무단접근 출입을 통제하되 학술연구인 등은 사전 승인을 얻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005. 6. 6.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이영하 외 회원 일동

※ 이 결의서는 전국 관련 기관, 단체 251개소에 일제히 발송하였다.

유적·유물지에 박물관 건립을 - 서산지역 유적·유물 발굴과 이후의 보존관리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이 영 하

한반도의 여건처럼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가야산이 큰 담장처럼 두르고 있는 천혜의 이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을까?

이 곳에 사는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갖는 동안 곳곳의 산자락이나 구릉지대의 농경지에서 수점씩 수습된 석기, 토기, 돌화살촉, 구슬류 등이 관내 수개교에 보관되고 더러는 개인들도 소장하는 집도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야기로나 들을 수 있는 고대인들의 생활도구들을 이 지방에서는 쉽게 만나기도 하고 수시로 접할 수가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야기로 나 들을 수 있는 고대인들의 생활도구들을 이 지방에서는 쉽게 만나기도 하고 수시로 접할 수가 있다.

요즈음 서산지역에는 고대의 하늘과 땅, 사람이 어우러져 살았던 자취와 도구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수천년의 세월이 땅속에서 멈추었다가 그 모양을 땅 위에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서산 음암면 부장리 유적과 해미면 기지리 유적이 발굴인들의 손끝에 기지개를 쳐고 서서히 눈을 떠가는 중에 있다.

본격적으로 발굴이 진행중인 기지리 유적지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고려, 조선시대의 4개소 유구에서 석기, 석부, 석도, 토기, 용기 등 다양한 생활용구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서민 집단주거지로 추정하며 이 집단 주거지 좌우 중앙의 남쪽과 북쪽의 마당은 고대 취락구조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곳은 가야산 석문봉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내려 황소고개를 통하여 평강상태로 서진하는 20~30미터의 저 구릉지대를 이룬 곳이다. 서산에서는 동남쪽이며 해미에서는 남서쪽에 위치한 이 곳은 동북쪽 가야산 골골에서 발원한 해미천이 동서로 흘러 내리고 동남쪽에서는 남정천이 동서로 흘러 간월호(천수만)로 흘러드는 중앙 구릉지대이다. 이곳에서 살던 고대인들은 주로 수렵이나 초기 농경 목축을 하면서 짐승 가죽이나 나무껍질을 이용해 옷을 지어 입으면서 단순한 생활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발굴을 계속 중인 부장리 유적은 기지리의 평민 주거지와는 달리 지배계층의 고급 주거지와 공동묘지임이 드러나고 있어 경이로운 마음을 자아내게 한

다. 이 곳은 상왕산의 한맥이 서북서 방향으로 동암산, 무르티재, 은봉산을 거쳐 음암의 주산인 간대산을 지은 후 다시 남진하여 '상노치성'을 이루고 여기서 좌우로 우구두룩하게 벌려 남진을 계속하는 좌측 줄기에 뻗힌 '망재' 서쪽 구릉지대이다. 앞에는 부장천의 시원지이고 북서쪽의 상노치성을 마주 올려보며 망재 너머에는 성암저수지(용두천)이고, 여미리유적(염로국-마한시대 부족국)을 5킬로미터 거리한 비산비야의 구릉지이다.

이 곳 역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백제시대 유물이 대규모로 발굴되고 있다. 석촉, 석부, 대소토기, 철구, 철점, 철도자, 철모, 구슬, 환두대도, 초두, 금제 귀고리, 금동관모(왕관) 등 청동기시대 전기, 중기 및 백제 초기의 문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넓지 않은 구릉지에서 집단 취락구조와 분구묘가 동일지역에 밀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드물다. 특히 백제시대 다층 성토 분구묘는 충남지역 유일한 발견이다.

또한 이 곳은 중국과의 해로 교통의 관문이어서 중국의 자기도 발굴된 바 있고 최근에 발굴한 금동관모(왕관)와 초두, 환두대도의 주인공은 백제 왕실의 버금가는 힘의 소유자로 추정되며 공주 무령왕릉 발굴 이후의 발굴 개가라 할 수 있다. 이 금동관모는 2003년 발굴한 공주 의당 수촌리의 금동관모(왕관)와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굴한 금동관모(왕관)와 유사하여 백제가 마한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편입시킬 때 같은 시기에 일본에도 하사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

서산지역에는 그간 발굴한 유적이 신석기시대 유적 20개소, 역사시대 유적 16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유물을 발굴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 유물들이 어느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박물관이 없어 모두 그때 그때 타지로 반출하였던 것이다. 서울중앙박물관과 부여, 공주박물관, 공주대학교, 한서대학교 박물관, 수덕사 박물관, 일본의 대마도에 분산 수장되고 소수의 유물만이 전시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라서 국가와 국가간, 지방과 지방간에 문화재 보존관리 경쟁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근래 임진왜란 때 가져갔던 조선의 북관대첩비를 일본에서 회수 받은 사실이 있고 유럽의 어느 나라는 외교적으로 요청을 해도 대여는 해줄 수 있지만 되돌려 줄 수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충남의 어느 지방자치 단체는 유물 발굴 당시 이동 보관했던 문화재들을 25년 만에 그 박물관

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은 바 있다.

한 국가에 긴급 사항이 발발하여 주요 반출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선순위는 언제나 문화재였다. 근세에 전쟁을 겪은 나라들을 보면 제일 먼저 문화재부터 챙겼던 사례를 우리는 들어 알고 있다. 문화재는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바로미터이고 박물관은 그 나라의 국력이며 그 민족의 저력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선진국이란 박물관으로 말하고 이야기한다.

유럽쪽에는 마을마다 박물관이 있고 일본에도 3,500여 개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192개의 박물관이 있지만 대학교의 박물관을 제외하면 지역단위 박물관은 소수이다. 충청남도에는 12개의 박물관이 있으나 일부 지방에만 편중돼 있고 서북부 지방에는 전무하므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이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 문화의 결정체인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에 따라 그간에 이 지역에서 발굴한 문화재와 각종 자료를 회수하여 전시하는 날까지 자기 것을 찾고 지키고자 하는 지역 시민들의 의지는 점차 비등할 것이며 각 기관, 단체나 시민들도 모두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일이다.

*이 글은 2005. 12. 5 <충청투데이 신문>, 같은 날 <서산타임즈 신문>, 12. 25 <서산시보>, 12. 31 <서산신문>, 같은 달 「스산의 숨결」지, 같은 달 『미소 제5집』에 게재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지방 4개TV와 대담하였다.

서산에도 박물관을...

서산문화원장·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신 상 찬

지난 9월에 음암면 향토발전 추진회에서는 서산에 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많은 시민의 연명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기는 최근 음암, 운산 등 옛 백제지역의 발굴현장에서 수많은 귀중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은 출토시 한 번 보았을 뿐 법적으로 중앙박물관이나 발굴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가져갑니다. 박물관에서는 그 중 일부는 전시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하여 일반 주민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서산에서의 출토품은 이 지방에 두고 감상하고 조사 연구해야 함에도 다시 보자면 각 기관을 쫓아다니며 사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나온 건의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며칠전 서울 용산구에 국립중앙박물관이 9만 2천여 평의 대지위에 전시장이 8,100여 평의 마치 거대한 성처럼 지어졌습니다. 이 곳에 가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더구나 지방문화의 체계적 이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박물관이 경복궁내에 있을 때 서산에서 출토된 유물은 휴암리 출토 토기와 복원되지 않은 토기조각 등 수백 점, 동종, 동경, 구슬, 상평통보 등 수십 점이 있었으나 전시되었던 것은 보원사지 출토 철불 2구와 고북 용암리 출토 닭모양 토기 등 3개 뿐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몇 개나 진열될 지 모를 일입니다.

기타 유물은 공주, 공주대, 부여박물관을 비롯해서 수덕사, 가야사, 일본 대마도, 충청문화재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한서대 등에 분산 수장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천점이 되겠으나 볼 수 있도록 전시된 것은 삼십 여점에 불과합니다. 박물관에 대한 애착은 크지만 실제로 건립하자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넓은 대지를 확보해야 하며 예산도 수백억이 소요됨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박물관 건립 허가가 나옵니다.

진열할 유물은 지방에서 각자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선 회사받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굴 기관 보유분은 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돌려받거나 연차적으로 임대하여 진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건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산은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인근 지역보다 문화가 먼저 발달하고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곳입니다.

하루 속히 박물관을 건립하여 이것을 전시함으로써 주민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지방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수한 문화의 소유자로서 긍지를 지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서산의 숨결」 제265호(2005. 11. 10)에 게재되었다.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가 지키자

서산향토문화연구회 회원 편 세 환

어느 민족이건 그 민족의 정체성은 문화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문화와 역사는 언어와 문자의 기록으로 전승되지만 문자시대 이전의 문화와 역사는 유적과 유물에 의하여 알게 되고 전해진다.

그간 서산지역에는 선사유적, 역사유적 등 총 55개소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 조사보고 되었다. 최근 음암면 부장리를 비롯한 해미면 기지리에서 선사시대 주거지와 다층분구묘(多層墳丘墓)가 발굴되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최고의 통치자인 왕(王)만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금관, 금동신발, 봉황(鳳凰) 무늬의 환두대도(環頭大刀), 옥제품, 귀걸이, 중국제 청자, 철창, 철도끼 등의 유물과 수 백점의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음암면 내지 서산 지역에는 과거 왕이거나 이에 대등한 강력한 권력집단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유물들은 서산에 박물관이 없다는 이유로 전량 타지방의 박물관으로 가져 가게 된다.

그간 반출된 유물들은 극히 일부만이 박물관에 전시될 뿐 나머지는 모두 수고장에 보관됨으로써 이후 서산시민이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가 없다.

그동안 보원사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출토되어 서산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이 서울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등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우리 서산에서 그간 출토된 것들이 무엇이며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초차 한눈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음암면민들은 온면민이 뜻을 같이하여 현지에 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관제요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또 해미면 기지리 선사주거지도 원형대로 영구보존해 줄 것을 이 곳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1960년대 대산중학교에서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 등 총 600여점을 수집하여 유물관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서산지

방에도 고대(古代)로부터 역사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

그간 공주, 부여지방에는 유적과 유물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개소의 박물관들이 집중 건립되어 왔다. 하지만 5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내포권 지역에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다.

계제에 서산에 내포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역사문화 박물관을 하루 속히 건립하여 그간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앞으로 출토되는 유물들을 전시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한 층 고취시켜 우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는데 모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살았던 선인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귀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 위대한 사업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 글은 2005년 12월 12일, 〈서산신문〉 서신칼럼으로 게재되었다.

서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건의서

현대는 문화의 세기요, 지방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중추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지역박물관 건립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는 이미 12개의 박물관이 있고 전국적으로 192개의 박물관이 있으나 이웃나라인 일본의 3,500개에는 견줄 바가 못됩니다. 그것도 일부 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의 서북부 수개의 지방에는 전무하므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합니다.

지역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지역문화의 결정체요, 중심적 역할을 하므로 지역민들의 건립의지와 요구가 점차 비등하는 추세입니다.

서산 음암 부장리에는 2003년 8월부터 고대 유적을 발굴하여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여러 기의 분구묘와 봉토분, 주거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후 이 유물은 물론 유적지도 복원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 외에도 말무덤이라 불리는 미 발굴 유적지로 추정되는 발굴 대상지가 수처 있습니다.

그러나 면민들은 어떤 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지 보존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산 전체의 차원에서 이 지방에서 나온 유물은 단 1점이라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반출된 유물까지도 회수하여 자체 보존 전시하기를 염원하면서 조사 발굴, 기증, 수집, 구입 등 일련의 확보에 적극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산 역사문화박물관이 건립되면 지역 역사문화예술 활동의 센터로, 역사문화 교육기관으로, 더 나아가 문화사업적 차원에서 이 고장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음암 면민들은 이 숙원사업이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뜻을 연명으로 서명하여 건의 드립니다.

2005. 9.

서산시 음암면 향토발전추진회장 김낙중 외 면민 일동

- *붙임 : 서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건의 음암면민 서명록 1부
- *이 건의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 동시 송부하였다.

과분(過分)한 배려(配慮)로 보내주신 『瑞山의文化』16호지(號誌) 감사(感謝)하면서 받아 보았습니다. 16호(號)까지 나왔어도 여전(如前)히 그 내용(內容)이 진귀(珍貴)하고 충실(充實)함에 변함이 없는 것은 귀회원(貴會員) 여러분의 헌신적(獻身的) 땀의 결실(結實)로 생각되며 우리가 지난날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平生)을 지내면서도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생활사(生活史)의 흔적(痕迹)들을 끊임없이 발굴(發掘)해 내시는 정력(精力)과 끈기에 다시 한 번 감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회장(李會長)님을 비롯하여 의욕적(意慾的)으로 동참(同參)하고 있는 회원(會員)들 대부분(大部分)이 연로계층(年老階層)이라는 현실(現實)입니다.

의욕(意慾)은 넘쳐도 저물어 가는 연령(年齡)을 어찌 하겠습니까? 21세기(世紀)는 문화경쟁(文化競爭)의 세계(世界)라고 하며 우리 민족(民族)이 선진국(先進國)에 진입(進入)하는데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문턱이 바로 전통문화(傳統文化)에 접목(接木)한 국제화시대(國際化時代)에 경쟁력(競爭力)있는 새로운 민족문화개발(民族文化開發)과 창달(暢達)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業跡)이야말로 이러한 중대과업의 기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多樣)한 문화사업(文化事業)의 전승(傳承)과 개발(開發)에 참여(參與) 할 수 있는 열정적(熱情的)인 신인확보(新人確保)가 중요(重要)한 과제(課題)인 동시(同時)에 중앙(中央)이나 지방(地方)할 것 없이 정책책임자(政策責任者)를 비롯한 지도층(指導層)과 부유층(富裕層)의 인식전환(認識轉換)이야말로 우리나라 문화발전(文化發展)의 관건(關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수예술(純粹藝術)에 정진하고 있는 자식(子息)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절실(切實)하게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지요. 그리고 16호(號)에도 단문줄필(短文拙筆)의 편지를 지상(誌上)에 적라(赤裸)로 공개(公開)하셨는데 옥(玉)에 티가 된 것과 같아 좌불안석(座不安席)이었습니다.

잔서(殘暑)에 건강(健康)하시고 향토문화발전(鄉土文化發展)에 여력(餘力)을 다해 주실 것을 기원(祈願)하면서 불비례(不備禮)합니다.

2005. 8. 8

한병진(韓秉晉) 배(拜)

서산향토문화연구회운영상황

● 2005. 1월

○ 자체감사 실시 : 2005. 1. 11

- 장 소 : 서산문화원 소회의실
- 감사내용 : 2004년도 본회 운영상황 전반
- 감 사 : 편세환 감사 : 김광조 입회 : 이동모, 이은우

○ 월례회의 개최 : 1. 14. 10:30~11:5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이명구, 김시환, 강운식, 호상규, 유영동, 이기연, 최보승, 맹정호, 박부무, 정환호,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안용승, 유충식, 한기홍, 김재신, 김길섭

○ 회의내용

- 2004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 - 감사 : 편세환
- 2005년도 사업계획 협의 및 회지 발간 배포 등 협의

● 2005. 2월

○ 월례회의 개최 : 2. 14. 10:30~11:3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호상규, 유영동, 맹정호, 박부무, 정환호,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안용승, 유충식, 정태영, 한기홍, 김재신, 이익창, 조인환

● 2005. 3월

○ 월례회의 개최 : 3. 14. 10:30~12: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이명구, 김시환, 유영동, 이기연, 최보승, 박부무, 정환호, 민형익, 편세환, 안용승, 유충식, 정태영, 한기홍, 김재신, 이익창, 조인환

○ 회의내용

- 정옥자 박사의 '월사 이정구와 그의 시대'란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음(일부 외부 인사 참석)

● 2005. 4월

○ 월례회의 개최 : 4. 14. 10:30~12:2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이동모, 김시환, 최보승, 호상규, 박부무, 정환호,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안용승, 유충식, 정태영, 한기홍, 이익창

○ 회의내용

- 회장 및 간사의 임원개선 전회장 이동모의 건강관계로 사임. 후임에 이영하 신임 회장으로 피선됨.
간사 안용승 개인사정으로 사임. 후임에 박부무 회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2005. 4. 19. 전·후임 임원의 감사 편세환 입회하여 인수 인계)

● 2005. 5월

○ 월례회의 개최 : 5. 14. 10:30~11:4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이명구, 호상규, 유영동, 정환호, 박부무,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안용승, 유충식, 정태영, 한기홍, 이익창

○ 회의내용

- 회장 이영하 회차 발간을 위한 원고 준비사항에 대해 유의사항과 사전준비로 연말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

○ 임시회의 개최 : 6. 6. 10:00~12: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이영하, 이은우, 신상찬, 리명구, 정환호, 강동원, 유충식, 김종옥, 이기연, 조성옥, 최보승, 민형익, 호상규, 이동모, 편세환
- 의 제 : 보원사지 관리에 대한 결의서 채택(251개소 발송(관련기관 및 단체))

● 2005. 6월

○ 월례회의 개최 : 6. 14. 10:30~11:4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익, 리명구, 송종학, 김시환, 호상규, 이기연, 최보승, 박부무, 민형익, 조성옥, 유충식, 정태영, 한기홍, 이익창, 김기현

○ 회의내용

- 다음달 최근목 교수의 특강에 관한 협의와 참석 대상자 범위 협의 등
(서산시 관내 유림, 향교, 성암서원, 송곡사, 부성사, 정충신 기념사업회, 단군봉안회(서산 운산면 와우리) 정씨, 김씨, 유씨(서산에 근본을 둔 성씨) 단체임원과 관련 씨족 다수를 참석 범위로 함.

● 2005. 7월

○ 월례회의 개최 : 7. 14. 10: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리명구, 김시환, 호상규, 유영동, 이기현, 박부무, 정환호, 민형익, 편세환, 유충식, 정태영, 한기홍, 김재신, 이익창, 김기현, 외부 초청인사 52명 참석
- 회의내용 : 최근묵 박사의 '조선전기 서산지방의 사족에 대한 연구' 발표

● 2005. 8월

○ 월례회의 개최 : 8. 10. 10:30~13: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이명구, 김시환, 호상규, 이기연, 박부무,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유충식, 정태영, 김재신, 이익창, 조인환, 김기현, 음압향토발전추진회 회장 김낙중 외 13명 참석, 기타

○ 회의내용

- 이훈 부장 '서산시 음압면 부장리 유적'에 대한 학술 강연

● 2005. 9월

○ 월례회의 개최 : 9. 14. 10:30~11:4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리명구, 김시환, 이기연, 편세환, 민형익, 조성옥, 유충식, 정태영, 조인환, 김재신, 김기현, 유병혁, 최보승, 유영동, 이익창

○ 회의내용

- 편세환 '잠업의 역사적 고찰과 서산지역의 양잠'에 대한 발표

● 2005. 10월

○ 월례회의 개최 : 10. 14. 10: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리명구, 김시환, 호상규, 유영동, 이기연, 최보승, 정환호, 박부무, 민형익, 편세환, 유충식, 정태영, 이익창, 김기현

○ 회의내용

- 송종학 '성학십도 고찰'에 대한 발표

● 2005. 11월

○ 월례회의 개최 : 11. 14. 10:30~12:1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김현구, 이은우, 강동원, 이영하, 이동모, 김종옥, 송종학, 리명구, 김시환, 호상규,

유영동, 이기연, 최보승, 정환호, 박부무, 민형익, 편세환, 유충식, 정태영, 한기
홍, 김재신, 이익창, 김기현

○ 회의내용

- 김기현 '중요민속자료 199호 김기현 가옥 고찰'에 대한 발표

● 2005. 12월

○ 월례회의 개최 : 12. 14. 10:30~11:40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강동원, 신상찬, 이영하, 김종옥, 김시환, 편세환, 유충식, 정환호, 정태영,
리명구, 최보승, 이기연, 김재신, 유영동, 호상규, 조인환, 이익창, 유병혁, 이동모,
조성옥, 이남국

○ 회의내용

- 송년과 더불어 2005년도 회지 편집기준 설명 및 2006년도 회 운영방향 제시
(서산지역 3·1 만세운동 공동조사 - 음암, 운산, 해미, 서산지역 등)

|서산|향토문화연구회|회원활동|상황|

2005. 4. 29. 독립운동사 용어 무엇이 문제인가
 •주최: 독립기념관
 •장소: 독립기념관
 •참석자: 이은우
5. 27. 암천 박종의 도학 정신과 유물 유적
 •주최: 충청학연구소
 •장소: 건양대학교
 •참석자: 이영하, 이은우, 편세환
6. 1.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
 •주최: 서산시
 •장소: 서산시청
 •참석자: 이은우, 신상찬, 이영하
6. 10.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 문화의 형성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장소: 서울역사문화원
 •참석자: 이영하, 이은우
6. 13.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설명회
 •주최: 충청남도
 •장소: 공주시
 •참석자: 이은우
6. 20. 호서지방의 성리학 재조명
 •주최: 홍성향토연구회
 •장소: 갈산 인백기념관
 •참석자: 이은우, 이동모, 이영하, 편세환
6. 27. 국사편찬위원회 대전충남지회의 활성화 방안
 •주최: 국편대전충남지회
 •장소: 태안군청
 •참석자: 이은우,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이영하
7. 2. 대영박물관 한국전, 절두산순교기념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견학
 •장소: 예술의 전당, 양화진기념관, 경기도박물관
 •참석자: 이은우, 강동원, 김현구,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리명규, 김시환, 호상규, 류영동, 이기연, 정환호, 박부무,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유충식, 정태영, 김기현, 이익창, 조인환, 이영하
7. 7. 내포문화연합 창립준비회(6개 시·군)
 •장소: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

- 참석자 : 이은우, 이영하, 편세환, 유충식, 박부무
- 7. 8. 충남역사문화 자료의 현황과 활용
 - 주최 : 역사문화연구원
 - 장소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 참석자 : 이은우, 신상찬, 김종옥, 이영하, 편세환, 유충식
- 8. 23~24. 서산지역문화재 안내 : 이은우, 이영하
 - 안내대상인 : 일본국 동경대학원 인문사회 교수 吉田光男 외 5인 교수 및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방문학생 木村拓 외 5인 학생
 - 안내지 : 성암서원, 송곡사, 전주이씨 변성군 산소, 정순왕후 생가, 김기현 가옥, 윤병석 가옥, 서산시청 비석군
- 9. 1. 양반사회의 형성과정
 - 주최 : 뿌리회
 - 장소 : 서울 수운회관
 - 참석자 : 이영하, 편세환, 민형익, 박부무
- 10. 21~22 의병·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재조명
 - 주최 : (사)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장소 : 강원대학교
 - 참석자 : 이영하, 편세환, 김기현
- 10. 18.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 활성화 방안
 - 주최 : 충남역사문화원
 - 장소 : 충남역사문화원
 - 참석자 : 이영하, 편세환, 박부무, 김시환
- 10. 26. 지역사 구술자료 수집 정리의 실재와 과제
 - 주최 : 국사편찬위원회
 - 장소 : 국편 3층 강당
 - 참석자 : 이은우, 신상찬, 김종옥, 이동모, 이영하, 편세환
- 10. 27. 충청남도 비지정 동산 문화재 실태조사 제1차 자문위원회의
 - 주최 : 충남역사문화원
 - 장소 : 충남역사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이영하
- 11. 12. 서산 해미 기지리 유적 발굴지 방문
 - 설명 : 충남역사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신상찬, 이동모, 김종옥, 강동원, 리명규, 송중학, 김시환, 호상규, 박부무, 민형익, 조성옥, 편세환, 유충식, 정태영, 이영하
- 11. 17. 해미 기지리 유적 발굴 설명회
 - 설명 : 공주대학교
 - 참석자 : 이은우, 신상찬, 이동모, 강동원, 안덕임, 리명규, 김시환, 정현호, 민형익,

김기현, 이영하

11. 18. 음암 부장리 유적 발굴지 방문(금동관모, 초두, 환두대도, 곡옥 등)
 - 충남역사문화원
 - 참석자 : 이은우, 김종옥, 이동모, 이영하, 강동원, 호상규, 정환호, 박부무, 유충식, 김시환, 김기현
11. 22. 독립기념학술회의
 - 장소 : 독립기념관
 - 주최 : 독립기념관
 - 참석자 : 이은우
11. 24. 해미 기지리 유적 공원 협의
 - 장소 : 서산문화원
 - 협의자 : 이은우, 신상찬, 이동모, 이영하(향토연구회)
- 박복수(시청)
- 이종희, 정만택, 심경중(공군부대)
12. 7. 논산 지역의 독립운동 전개와 독립운동가
 - 주최 : 충청문화연구소
 - 후원 : 대전지방 보훈청, 광복회 대전 충남지부
 - 장소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 참석자 : 이영하
12. 7. 태안 교육문화 유공 송덕비 건립
 - 주최 : 태안문화원
 - 장소 : 태안문예회관
 - 참석자 : 이은우, 김종옥, 편세환, 유충식, 박부무
12. 20. 예산 향토사연구 학술 발표회
 - 주최 : 예산향토사연구회
 - 장소 : 예산문화원
 - 참석자 : 김종옥, 편세환, 유충식

|서산향토문화연구회회칙|

- 제1조 (명칭) 이회는 서산향토연구회라 한다.
- 제2조 (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서산문화원에 둔다.
- 제3조 (목적) 이회는 회원상호간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서산시의 향토문화의 조사, 발굴, 전승,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이회는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지식 정보 교환
 2. 회원의 연구발표
 3. 향토문화 조사 발굴
 4. 연구보고집 발간
 5. 향토의식 정립
 7. 기타 필요사업
- 제5조 (회원) 이회의 회원은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 무단 불참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이 회측에 통보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임원)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간사 1인
- 제7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 때에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총회) 이회의 총회는 매년 1월중에 정기총회와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회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의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1조 (회의 성립의결) 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2조 (월례회) 이회는 매월 14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형편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 (재정) 이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비의 결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14조 (해산) 이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5조 (부칙) 본회는 서산문화원 사업창달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한다.
- 제16조 (시행) 이회칙의 시행은 1985년 9월 15일로 한다.

[서산향토문화연구회명단]

김현구	충남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④ 202/1006 전 서산문화원장	664-2212
이은우	충남 서산시 동문동 현대④ 102/603 전 회장(전 천안시립중앙도서관장)	664-9606
강동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대림④ 2/1103 서산노인대학장(전 부춘초등학교장)	664-4118 011-9405-4118
이영하	충남 서산시 읍내동 439-5(서산한약국)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장	665-7703 011-9809-8703
신상찬	충남 서산시 읍내동 503-1 서산문화원장	664-3028 017-425-3028
이동모	충남 서산시 읍내동 현대④ 112/501 전 회장(전 농촌지도소 과장)	665-4369 018-430-0413
김종옥	충남 서산시 죽성동 삼성④ 109/1204 전 서산삼락회장, 전 충남정신발양서산시협의회장	669-1193 011-9816-1193
오윤희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 교수, 동대학원장	660-1241
안덕임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 교수, 동대학박물관장	660-1248
송종학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554 충남정신발양서산시협의회장	662-1253 011-9815-5598
권창제	충남 서산시 동문동 990 서산시의회의원	665-2138 011-9810-3636
리명구	충남 서산시 동문동 현대④ 102/301 전 서산여중교장	665-3965 010-7305-3965
김시환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청구④ 103/902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 발행인	662-0751 011-431-7751
호상규	충남 서산시 갈산동 254-5 전 서산시청교통행정과차량등록계장	664-0054 011-9994-2545
류영동	충남 서산시 동문동 933-10 전 서산시청보건과장, 문화류씨서산시종친회장	669-1222 011-427-1221
이기연	충남 서산시 읍내동 대림④ 202/604 서산시 문화해설사	667-1295 019-9223-1237
최보승	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④ 204/308 천수만 철새·문화안내자	667-9389 016-9295-9389

맹정호	충남 서산시 읍내동 현대④ 107/1702 가야인쇄기획	667-6400 016-405-9321
정환호	충남 서산시 동문동 273-5 전 서산여자고등학교교장	665-3088 011-422-3087
박부무	충남 서산시 동문동 655-33 전 해미농협전무	665-6575 016-412-8010
민형익	충남 서산시 장동 131 전 초등학교 교사, 충남정신발양석남동합의회장	669-3515 011-9990-4098
조성옥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초원빌라 5/402 서산시 문화해설사	688-8774 016-259-8774
편세환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857 감새(전 농촌지도소 과장, 시인(詩人))	663-6135 016-417-6135
안용승	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77-28 감새(전 해미중학교행정실장)	688-2508 016-433-1508
유충식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55 부성서도유새(전 지곡농협장)	662-9033 011-9483-9033
정태영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782 전 산성초등학교교장, 현 지곡면개발자문위원장	662-9022 016-780-9023
정영권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4-1 중앙축량설계사무소 대표	664-6058 011-315-6262
한기홍	충남 서산시 동문동 1002-3 서산문화원 사무국장	665-8091 018-755-1250
김재신	충남 서산시 읍내동 706-2 서산시 문화해설사	011-9802-8118
조인환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아진④ 102/302 전 초등학교 교감	667-5698 017-283-2119
김기현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5 전 재보험공사 사장	010-3045-8273
이익창	충남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130 전 태안교육장	663-2226 011-403-3664
류병혁	충남 서산시 동문동 826-27 전 만리포고등학교교장	665-5547 010-6424-5547
이남국	충남 서산시 동문동 995-21 전 서산중학교교장	665-4012 011-9818-4012

편 집 후 기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이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산모의 고통은 크지만 분만 후의 기쁨이란 참으로 크다 하겠다.

이번 서산의 문화 제17호를 탄생시킴에 있어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큰 진통없이 순산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호에는 금년 우리 향토연구회에서 실시한 학술모임에 참여해 주셨던 정옥자 교수, 최근묵 교수, 이 훈 부장 등 저명한 분들이 귀중한 원고를 친히 보내주셨기에 본 회지가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산인 부춘산(富春山)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과 지리적 식생을 조사하여 특집으로 엮어 재조명함으로써 부춘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한편 요즈음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선사시대 유적, 유물 등 넘쳐나는 귀한 사진자료들을 화보에 모두 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바이다.

우리 향토연구회 회원들은 모든 면에 전문가가 아닌 만큼 혹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원고를 내 주신 모든 분들과 출판을 맡아주신 가야기획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12월

편집위원 : 이은우, 편세환, 김서환, 박부무

2005. 제17집

瑞山의 文 仗

발행일 / 2005. 12. 29.

발행인 / 이 영 하

발행처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주 소 / 서산시 읍내동 516(우356-020)

전 화 / (041)669-5050

인 쇄 / 도서출판 가야

주 소 / 서산시 읍내동 466-10

전 화 / (041)667-6400

등록번호 / 제13-05-11-34

© 서산향토문화연구회 2005.

※이 책은 서산향토문화연구회에서 회원들의 부담과 서산시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제작 발간되었습니다.